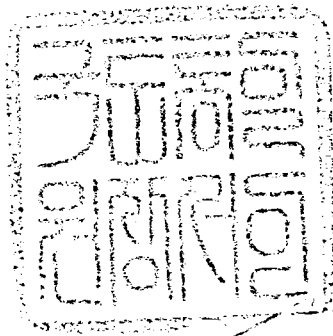


統一教育(政治思想教育)教授指針書



國 土 統 一 院

머 리 말

교육의 모든 領域이 다 그러하겠지만, 国内外 情勢의 急激한 變化는 政治思想教育의 目標와 內容에 變化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더욱이 우리가 當面하는 国内外 情勢變化와 이에 對應하는 課題는 새로운 方向의 政治教育을 要請하고 있으며 그 方向으로의 國民總和 形成을 더욱 堅實히 要請하고 있다. 이러한 國家的, 時代的 要請에 呼應하는 教育의 課題는 단시일내에 소수인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完成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秒時의 단절이나 空白狀態가 있을 수도 없는 曠중하고 時急을 요하는 것이다.

다행이 여러 領域의 學界와 言論界의 著名 人士들의 관심과 공동 노력으로 統一教育의 方向과 目標, 內容들이 定立되고 이를 토대로 統一教育 教授指針書를 作成하게 되었다.

本 指針書는 모든 水準의 教育에 臨하는 教育者에게 도움이 되도록 構成하였을 뿐만아니라, 比較的 단시일내에 서둘러 完成을 하였기 때문에, 專門家에게는 미흡한 點이 發見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널리 活用되면서 계속 수정 보완되어 보다 完全한 指針書로 다듬어지기를 希望하면서 시급한 要請에 도움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本 指針書가 完成되기 까지 많은 격려와 高見을 준 여러 諮問委員과 최종 完成 段階에 까지 수고해 준 專門委員 康宇哲教授, 朴容憲教授, 俞完植先生 그리고 李永鎬教授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973. 7. 30

國 土 統 一 院 長 官

目 次

머리 말	1
全体概要	v
第 1 部 民族意識과 國家觀	1
第 1 章 民族史의 展開과 民族意識의 成長過程	7
第 2 章 文化傳統의 繼承發展	29
第 3 章 韓國의 正統性	44
第 2 部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	57
第 1 章 民主主義 政治理念	63
第 2 章 民主主義의 成長過程과 政治體制	87
第 3 章 韓國民主主義의 成長過程	112
第 4 章 民主的 生活樣式과 生活態度	126
第 3 部 共產主義의 理論과 實際	135
第 1 章 共產主義 理論과 그 批判	141
第 2 章 北韓의 實情	179
第 3 章 共產主義의 戰略戰術	209
第 4 部 南北關係과 統一問題	219
第 1 章 祖國의 分斷과 南北關係의 變遷	225
第 2 章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	242
第 3 章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政策	253

第 4 章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과 展望	278
第 5 部 國際社會와 韓國	291
第 1 章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 趨勢	297
第 2 章 世界속의 韓國	308
第 3 章 國際平和와 人類共榮을 위한 韓國의 役割	321
第 4 章 國際社會와 南北關係	328
第 6 部 國家發展의 未來像과 國民의 使命	339
第 1 章 國家發展의 要請	345
第 2 章 國家의 當面課題	363
第 3 章 國民의 使命	377

全 體 機 要

I . 統一教育體系 再確立의 要請

理 念 的 要 請

韓國民主主義思想의 伸張

- 民主主義 基本價值 優越性 再認識
- 民族主体性에 의한 民主主義 土着化
- 創造的 最善我實現을 위한 社会体制의 發展
- 自由, 正義, 福祉 社会의 實現

民族 國家 同一體意識의 確立

- 民族主体性 確立
- 民族正統性의 繼承과 發展
- 民族 國家意識의 伸張
- 個人, 民族, 國家 同一體意識 強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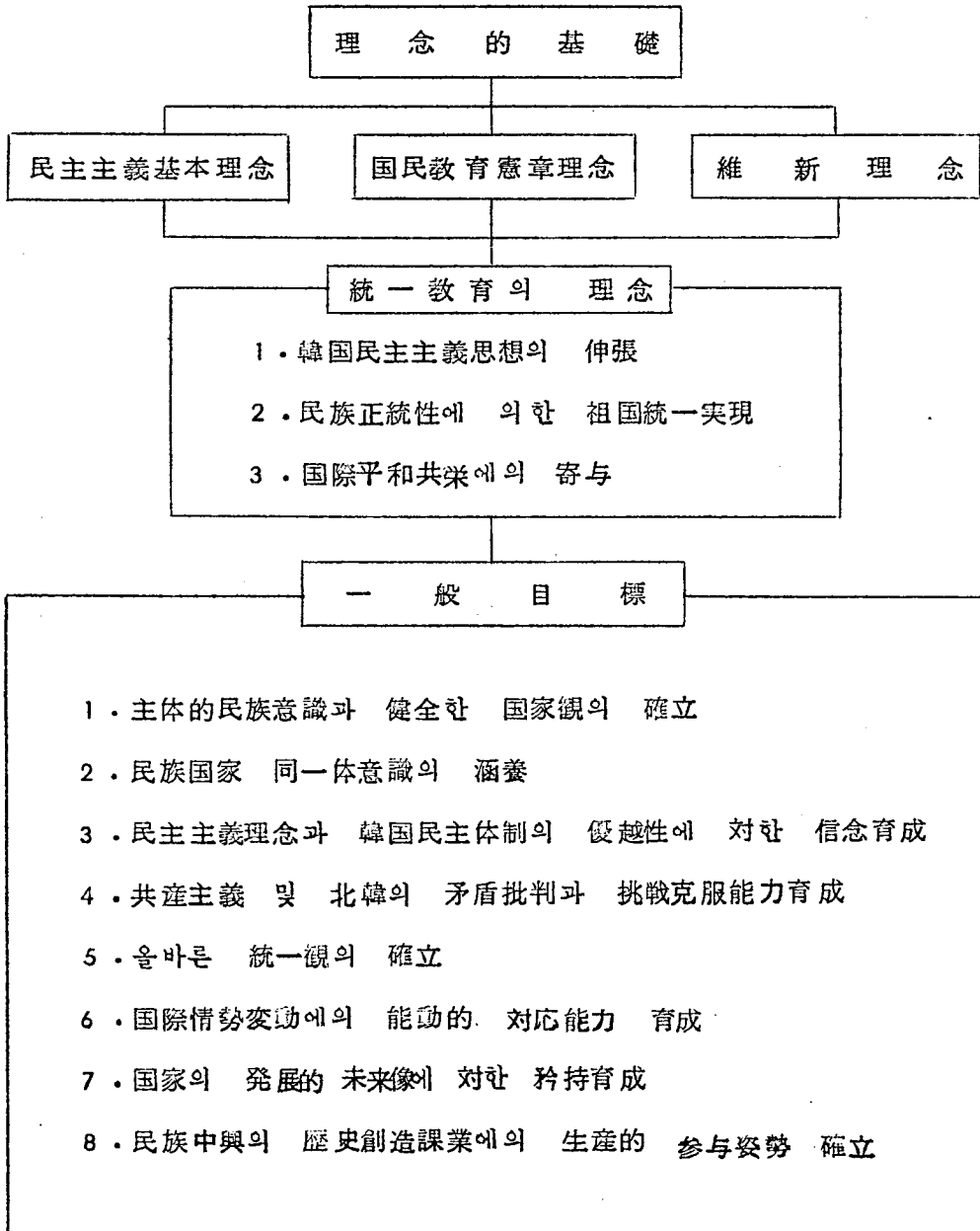
올바른 祖國統一觀 確立

- 民族正統性에 의한 民主的 統一
- 平和的 主体的 統一

現 實 的 要 請

現 實	要 請
<p>1. 國際的 現實</p> <p>脫이데올로기적 實利追求</p> <p>緊張緩和와 現狀固定化</p>	<p>國際情勢變動에 의 主体的 能動的 対応</p>
<p>2. 北韓의 現實</p> <p>赤化統一 原則固守</p> <p>思想의 赤性化 強化</p>	<p>共產主義 및 北韓挑戰克服</p> <p>民族正統性에 의한 韓國民民主主義 思想強化</p>
<p>3. 우리의 現實</p> <p>國論統一 基盤未洽</p> <p>民族主体意識未洽</p> <p>統一에 관한 幻想論과 悲觀論</p> <p>統一教育의 散発性과 斷片性</p>	<p>國民總和形成</p> <p>民族的國家觀確立</p> <p>統一課業의 國民總和的 支持</p> <p>統一教育의 一元化</p>

II. 統一教育의 理念과 目標



Ⅲ. 統一教育을 위한 一般指針

一 般 指 針

1. 政治思想教育은 自主, 團結, 繁榮, 平和統一의 精神을 具現하는 國家的 要請을 充足해야 한다.
2. 政治思想教育은 個人的 健全한 發達의 要求를 充足해야 한다.
3. 政治思想教育은 知的, 情的, 行動的 特性을 均衡있게 開發해야 한다.
4. 政治思想教育은 眞實을 바탕으로 理念, 體制 및 現實의 比較 批判을 強調해야 한다.
5. 政治思想 教育은 學校를 비롯하여 家庭 및 社會 모든 生活領域에서 調和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6. 政治思想教育은 全體的인 一般教育和 有機的인 體系下에 이루어져야 한다.

IV. 統一教育의 內容組織

原 理		
一般 目標	主 題	題 目 과 順 序
1·2	• 나와 國家의 바탕 理解	• 民族意識과 國家觀 (I)
3	• 우리의 理念과 體制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과 矜持	•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 (II)
4	• 우리의 理念과 體制를 威脅하는 共產主義 矛盾과 北韓의 挑戰을 批判克服하는 能力	• 共產主義理論과 實際 (III)
5	• 南北關係의 理解와 民族正統性에 의한 祖國統一課業遂行에의 積極 的 參與姿勢 確立	• 南北關係와 統一問題 (IV)
6	• 韓國의 國際的 位置를 認識하고 國際情勢 變動에의 能動的 対応 能力	• 國際社會와 韓國 (V)
7·8	• 國家가 指向하는 發展의 未來像에 대한 矜持를 가져 當面한 課題 解決에 積極 參與하는 民族中興 의 新歷史創造의 使命感 鼓吹	• 國家發展의 未來像과 國民의 使命 (VI)

概 要

題 目	主 題	內 容 組 織	強 調 點
I. 民族意識 과 國家觀	겨레와 나, 나라	• 主体的 民族意識의 成立過程 • 民主的 文化傳統의 繼承과 發展 • 民族正統性에 依한 國家觀 定立	◦ 主体的 民族史觀의 確立 으로 總和의 바탕과 우리 의 民主的 基盤을 強調
II. 民主主義 政治理念 과 바탕	우리의 바탕	• 民主主義 基本理念과 條件 • 民主主義 理念定立 過程과 체制定立過程 • 韓國民主主義의 成長過程 • 民主的 生活樣式	◦ 民主主義가 現存하는 모 든 理念과 體制中 最 善의 것임을 強調 ◦ 韓國民主主義의 優越性 強調
III.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	우리의 위협	• 共產主義理論의 矛盾性 • 北韓의 夾情 • 共產主義 및 北韓의 挑戰樣相	◦ 共產主義 矛盾을 批判 하고 北韓의 挑戰克服 을 強調
IV. 南北關係 와 統一 問 題	우리의 갈길	• 祖國分斷과 南北關係의 變遷 •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 •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政策 • 南北關係의 方向과 展望	• 祖國分斷의 由來와 南北間의 對立關係를 正確히 理解하고 우리가 試圖하는 統一課業의 意義를 理解함에 強調
V. 國際社會 와 韓國	世界속의 우리	• 國際關係의 本質과 秩序 • 韓國의 國際的 地位 • 國際平和共榮과 韓國의 役割 • 南北關係의 國際性	• 國際關係의 力動的 本質 을 理解하고 우리의 國 際的 地位向上을 위한 國際外交의 重要性을 強調
VI. 國家發展 의 未來 像과 國 民의 使命	우리의 보 람있는 앞 날과 할 일	• 國家發展의 方向과 要件 • 統一과 發展을 위한 課題 • 우리의 發展의 未來像 • 民族中興의 새 歷史創造를 위한 使命	• 우리의 發展의 未來像에 대 한 理念과 自負心을 갖게 하 고 國家의 謀業遂行에 歷史的 의 使命感으로 積極 參與하는 姿勢確立을 強調

第 1 部

民 族 意 識 斗 國 家 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目 標

1. 主体的民族意識涵養
2. 民族正統性에 對한 信念과 矜持
3. 民族國家 同一體 意識
4. 發展을 위한 올바른 國家觀

概 要

題 目	內 容	強 調 點
I. 民族意識의 成長 1. 民族的自主性의 確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國家의 形成 • 國難克服 • 民族思想의 成長 • 近代民族主義의 展開 2. 民族進步의 過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權運動 • 社會運動의 展開 	• 新羅의 統一, 高麗의 北進政策, 李朝의 女真征伐, • 麗濟屬唐戰爭, 三別抄亂, 壬辰倭亂, • 高麗의 民族史定立, 訓民正音, 偏學과 實學의 民族思想 • 東學思想, 獨立協會運動, 斥邪運動, 3.1 運動, 反托運動 • 高麗身分制에 對한 反抗運動, 李朝의 晉州民亂, 東學亂 • 日帝時의 農村運動, 反共運動, 새마을運動	• 民衆總和에 依한 歷史發展過程을 인식시킴으로서 民族主体意識形成에 力點 • 民主的 要素로서 歷史發展을 위한 民衆의 役割 強調
II. 文化傳統의 繼承發展 1. 民本政治傳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議制: 和白制, 南堂, 都堂, 重房, 議正府 • 權力의 牽制: 大司諫, 春秋官, 實錄編纂 • 民衆과 意思疎通制: 申聞鼓, 上疏文制 • 權力規制制: 暗行御使制 2. 韓國人의 民族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間尊重思想, 平和思想, 三和主義 3. 文化의 繼承과 創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의 創意性(自主), 自然性(人道), 實用性(進步) • 外來文化의 自主的 受容過程(儒, 仏 등) 	• 會議制: 和白制, 南堂, 都堂, 重房, 議正府 • 權力의 牽制: 大司諫, 春秋官, 實錄編纂 • 民衆과 意思疎通制: 申聞鼓, 上疏文制 • 權力規制制: 暗行御使制 • 人間尊重思想, 平和思想, 三和主義 • 文化의 創意性(自主), 自然性(人道), 實用性(進步) • 外來文化의 自主的 受容過程(儒, 仏 등)	• 民主政治의 基礎으로서 民本政治의 傳統強調 • 民主的 人間像의 基礎로서 人本, 平和思想強調 • 文化傳統의 自主性 人道性, 進取性 강조 • 民族文化에 對한 自負心과 矜持 강조
III. 韓國의 正統性 1. 韓國의 正統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 平和, 人本思想, 美風良俗의 正統性 • 政治: 民本政治의 正統性 2. 國家觀의 定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權在民思想, 民族共同體, 個人과 國家의 責任義務 關係 	• 文化: 平和, 人本思想, 美風良俗의 正統性 • 政治: 民本政治의 正統性 • 主權在民思想, 民族共同體, 個人과 國家의 責任義務 關係	• 韓國의 正統性과 相對的으로 北韓의 傳統文化에 對한 파괴성 강조 • 올바른 國家觀 강조 國家共同體 의식 강조

序 說

民族文化속의 자기를 發見하는 일은 자기를 아는 첫걸음이다. 解放이후 이것을 疎忽히하고 民主主義發達을 西洋近世史를 통하여 가르쳤고 政治哲學의 內容을 증거로 共鳴을 얻고자하였다. 젊은이들은 그중에서 자기에게 便利한 價值만을 挾하였고 成人들은 이를 방증한 生活이라고 나무랐다. 世代葛藤이란 이름으로 이는 不可避한 現象이라고 한때 諦念되는듯 하였다.

한때 民族意識이나 民族史觀을 主張하면 國粹主義者의 취급을 받았고 懷古主義哲學이라고 保守派대접도 받았다. 勿論 그 責任의 半은 民族意識을 誤導한 學者나 政治人에게 있지만 解放후 無意識中에 이 傾向生에 휩쓸려들어난 다수의 國民들을 생각한다면 적지않은 問題點이었다.

60年代 後半期는 自主性を 主張하여 成果를 거두기 시작하는 歷史의 새 創造였으며 이것이 急速度로 成長한 經濟的條件과도 때를 같이 한다는 점을 看過할 수 없다. 學校뿐아니라 政治界, 言論界에서도 從前의 고식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積極적이고 合理的인 研究와 啓蒙으로 나서고 있는것은 어떤 個人이기보다는 国力에 대한 自信이 形成되어가고 있는 증거이며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른 옳은 反應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政治敎育의 方向을 옳게 잡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反共敎育이 幅을 넓혀 第1部에 民族意識과 國家觀을 강조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廣義의 政治敎育안에서의 反共敎育으로 나가자는 意圖에서 나온 것이다. 民族的 自我의 發見과 國家觀과 의 同一視는 그 當爲性에 比하여 計劃이나 運營이 充分하다고 볼 수는 없다. 端的으로 말하여 單一民族이라는 점을 너무 放心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他國에 比하여 民族史敎育이 疎忽한 것이 事實이다 .

一種의 應用史學이라고 볼 수 있는 本部의 目的은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는 韓國史의 知識을 모두 活用하여 韓國과 韓國人의 全體를 把握하고 올바른 史眼을 길러줌으로써 民族의 展望을 밝히는 能力을 길러 주는데 있다 .

歷史가 証據主義이어야 하는 同時에 國史는 感性的 交叉가 있는 것이 特徵이다 . 歷史와 自己와의 對話는 國民의 政治意識과 直結된다 . 政治는 現在의 社會現象을 解決하는데 重點을 두지만 政治意識은 解決하려는 方向을 提示하는 것이기에 政治의 母體 구실을 할때가 많다 .

이것을 때로는 價值觀이라고도 한다 . 政治觀은 民主主義나 社會主義나 兩者択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民主를 択하고 난 다음에 自己와 自己나라와를 同一視하는 過程에서 그 民主主義를 土着化 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要素이기 때문에 敎育의 努力結果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以上에 略述한 취지에 따라 本部가 의도하는 目標을 다음과 같이 設定한다 .

- 1) 民族史의 原動力은 民衆이며 모든 사람들이 歷史創造에 參與하는 것이다 .
- 2) 階級史觀이나 他律史觀을 排除하는 理由를 歷史的 證거를 통하여 이해시킨다 .
- 3) 民族文化에 대한 自負心을 바탕으로 하는 民族意識이라야 真正하고 強한 것이다 .

4) 民族의 自主性은 歷史的 時点에서 볼때 바로 우리들의 責任
임을 自覺한다.

5) 歷史의 흐름을 通하여 볼때 大韓民國이 民族의 繼承者임을
알고 韓國의 正統性에 대한 認識을 높인다.

6) 大韓民國이 正義와 人道에 立脚한 倫理的 正當國家이며 國際
的으로 보아서도 正統性을 갖는다.

7) 國家와 個人과의 關係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통하여 바른 國
家觀을 갖도록 이끌어준다.

이 部에서는 위와 같은 趣旨와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內容 領
域을 첫째, 民族的 自主性의 確立 過程 두째, 文化 傳統의 繼承
發展, 셋째, 韓國의 正統性으로 区分하여 章을 設定하고 各章 末尾
에는 指導上 特히 強調 또는 留意할 點을 記述하여 指導教師나
教材 編纂者에게 參考가 되도록 하였다.

第 1 章 民族史의 展開와 民族意識의 成長過程

〈 章 前 文 〉

民族史를 인식함에 있어 事件中心의 年代的 配列을 중요시 하였던 종래의 역사교육의 폐단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역사의 재경험이 어려웠던 기성세대에게, 우리 民族의 걸어온 過程을 概念的으로 把握시켜 그 意味를 賦與하여 주는 일은 매우 重要하다.

歷史의 主体가 인간이기에 民衆의 總和가 곧 歷史이어야 하지만 大衆은 疎外當하고 制度나 外形上의 文化만이 歷史속에 남는 경우가 많다. 民族의 團結의 樣式이 時代에 따라 다르고 客觀的 情勢나 歷史的 環境이 變化하여가는데로 民族의 意識構造도 달라진다. 民族史에 대하여 悲觀的이거나 否定的인 認識態度는 과거의 植民史觀과 日人 御用學者들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歷史를 美化시켜서는 안되는 것과 같이 歷史를 否定하거나 傳統을 無視하려드는 것은 真正한 意味의 歷史的 態度가 아니다.

오늘이 있기 위한 過去와 過去속의 過去가 相互交叉하는데서 歷史敘述이 可能하며 그로 인하여 過去와 現在와의 꾸준한 對話가 생긴다. 특히 근세사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새로운 解釋이 加하여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對話의 結果이다. 近來에 와서 言論界는 묻혀있던 民族文化를 發掘하는데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歷史研究이기 보다는 自我發見의 발돋움이다.

韓國民族이 他民族에 比하여 特別히 優越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또 劣等한 것도 아니다. 中國에 華大하였다가 日

本에게 國恥를 당하고 현재는 미국에게 從屬되어 있는 듯한 錯覺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어야겠기에 民族史의 展開過程으로 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固有文化의 卓越性을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渴求하는 사람은 反面에 또한 外來文化에 대한 劣等意識도 생기게 마련이다. 眞正한 民族史는 美醜나 善惡을 넘어 그것만이 가질 수 있는 歷史의 意味가 있는 법이다. 民主主義가 西洋에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받아들일만한 素地가 있었기에 들어온 것임은 仏敎가 外來宗敎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精神生活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高麗의 仏敎가 印度나 中國의 그것과 같아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같을 수도 없었음을 歷史는 說明하여 주고 있다.

民族史의 自主的인 展開過程은 歷史의 主体를 民族에서 찾는데 意義가 있다. 民族意識은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歷史는 그중에 두드러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것이 우리의 關心事이고 敎訓이다. 祖上들의 行爲는 現在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示唆을 주는 것이다.

I. 民族的 自主性的 確立過程

I - I 民族國家의 形成過程

- I) 民族의 概念:

① 民族이라는 概念은 人種 또는 國民과는 별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 民族은 生物學이나 行政上의 区分과 달리 歷史와 文化上의

共同体意識을 基盤으로 成立된다.

② 우리 民族이 單一民族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歷史와 文化뿐만이 아니라 人種的으로나 行政的으로 合致된 稀少한 民族國家라는데 意義가 있다.

③ 特히 世界의 新生國家들이 民族意識을 造成하는데 腐心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우리나라가 이들에 비해 얼마나 有利한 歷史的 展開過程을 거쳐왔는가를 比較結果로 알 수가 있다.

④ 單一民族으로 構成된 國民國家는 民族意識을 바탕으로 結束力이 강하고 發展의 速度가 빠를 수 있다.

-2) 民族形成의 基盤

① 韓民族의 歷史時代는 研究結果에 따라 매우 오랜것이 밝혀지고 있으나 民族形成의 母體가 되는 氏族社會의 構成相은 新石器時代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② 비록 여러 氏族으로 갈라져 살았으나 토tem 신앙이나 생산양식 그밖의 法俗關係를 살필때 이미 同一 文化圈에 들어 있는 生活相임을 알 수 있다.

③ 古朝鮮은 農業定着生活에 들어선 社會로 강력한 族長을 중심으로 뭉친 최초의 政治조직이었다.

④ 支石墓에 나타난 意味는 그들의 族長이 代表者의 위치에서 統治者의 역할로 옮겨왔음을 말하여주고 있다.

⑤ 檀君神話型의 部族社會는 토tem 신앙, 태양숭배, 무속신앙, 天君思想, 政教一致등의 類似한 樣相을 띠우고 滿州一帶와 韓半島에 펼쳐 있었다.

⑥ 鐵器文化의 流入은 政治體制를 聯盟體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제기를 마련하였다.

⑦ 檀君神話型的 社會에서 三國의 建國神話型的 社會로의 移行은 生産力의 增大에 따른 統治樣式 變化이다.

⑧ A.D. 1世紀를 기점으로 하여 高句麗, 百濟, 新羅의 古代國家 嚮設은 이러한 部族聯盟體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⑨ 古代國家의 特徵은 家父長制的 族長들의 貴族化, 私有財産制의 등장, 下層의 選舉權 喪失 등에 나타난 血緣共同體의 붕괴에 따른 身分制의 分化에서 찾을 수 있다.

⑩ 三國은 서로 다투어가며 統一의 盟主가 되기 위한 경쟁을 벌였으나 그 接近方法은 仏敎의 도입, 國史책의 편찬, 敎育의 강화, 농업의 장려등 서로 비슷하였다.

-3) 民族形成 第一期:

① 花郎(新羅) 扁堂(高句麗) 등의 敎育기관에서는 忠孝思想이란 새 가치관을 基幹으로 國家意識을 넣어 주었다.

② 이러한 國民的 敎養은 貴族을 對象으로 이루어졌고 貴族들의 利益追求는 民族觀念에서 벗어난 것이라기 보다는 民族統一에의 促進劑가 되었다.

③ 三國의 境界가 近接하여 가면서 7世紀의 衝突개시는 民族統一에의 烽火였으나 三國의 싸움은 覇者의 다툼이었을뿐 屈服을 위한 征服은 아니었다.

④ 新羅가 統一한 후 高句麗와 百濟에 대한 禮遇나 統一新羅의 地方行政區劃 또 軍制를 볼때, 다른 外侵을 받았을 때와 比較하면 그것은 統一事業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⑤ 三國의 軍隊가 合同하여 唐軍을 몰아내는데 長期間을 보냈다

는 사실은 單純히 三国貴族의 領土慾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立證하여 주는 것이다.

⑥ 新羅의 三国統一은 血緣關係와 同一文化圈에서의 오랜 歷史가 가져다 준 民族統一의 成果이다.

-4) 民族形成 第二期 (民族意識의 抬頭):

① 統一新羅는 領土의 安定을 얻은 다음 꾸준히 三国文化를 融合하여 民族文化를 創造하여 나갔다. 鄉歌, 音樂, 仏敎, 美術 등이 크게 發達한 것도 三国의 共同關心事의 集約이었기 때문이다.

② 新羅下代는 部族國家의 殘滓의 要素를 解体시키고 새 時代로 의 전환을 서두르는 시기였다.

③ 高麗王室에 의한 再統一은 新羅를 계승하는 동시에 自己能力을 自覺하면서 歷史的 課題를 수행하여 나가는 시대이다.

④ 高麗는 王室의 이데오르기와 國家의 이데오르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文化水準이 높은 基盤위에 형성된 것이다.

⑤ 高麗時代를 一貫한 北進政策은 自主的인 民族防禦心이 새로운 國家意識과 結付되었을 때 일어난 現象이다.

⑥ 이 國家意識이 民族意識을 基盤으로 하였다는 증거는 中期에 內的 葛藤을 解消시키기 위한 思想的 支柱는 檀君神話로써 부각시켰다는 데서 볼 수 있다.

-5) 民族形成 第3期 (民族文化의 結果):

① 고려말기에서 朝鮮초기에 이르는 시기는 民族形成의 內的 忠實을 매듭짓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② 朝鮮王朝는 政治的 版圖와 種族的 混合에 있어서 최종적인 선을 그어 地緣關係를 完成하고 다시 歷史的으로 文化的으로 오늘

의 韓民族의 原型을 이루어 놓았다.

③ 表面上으로는 專制君主制를 내세웠으나 이것은 西洋의 絶對君主制와는 다른 것이며 傳統的인 合座의 理念을 살려 合議制 下意上達의 기구를 갖추는데 노력하였다.

④ 世宗朝에 꽃핀 民族文化는 한글의 創製를 필두로 科学, 技術의 發達에 이르기까지 民族形成의 結果를 보려는 諸政策으로 一般化시킬 수 있다.

⑤ 法典과 國史의 編纂이나 儒敎의 社会 規範의 適用등은 單一民族을 바탕으로하는 國家建設의 기틀을 잡기 위한 事業이었다.

⑥ 倭亂과 胡亂이라는 外侵에 보여준 民族意識과 實学派들의 思想은 民族史의 過程에서 배운 것이다.

⑦ 三國의 國史編纂, 고려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李朝의 東國史略 東國通鑑 東史綱目등은 自國史의 認識이 民族意識으로서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일찌기 알았던 증거이다.

I-2 拳族的인 國難克服

① 高句麗는 民族의 居住地域을 防禦하기 위한 防波堤의 구실을 하였다. 漢四郡의 마지막 勢力을 몰아내기 위하여 遼東으로 進出하여 樂浪을 고립시키거나 드디어 中國勢力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때에도 東部의 部族들의 協助가 奏効하였다.

② 隋와의 싸움에서 快勝한 것과 隋唐交替의 原因을 이루었던 것은 高句麗人의 기상ियो 民族의 奮斗이다.

③ 對唐戰에 있어서 中國側史料에만 依存하였다던가 所謂 正史記錄만을 信憑하는 習性이 安市城의 湯萬春을 오랫동안 잊게 한 사실을 反省하여야 할 것이다.

④ 高麗時代に 이르러 北方의 遼, 女真, 蒙古의 계속적인 侵入을 받았으나 北進政策을 固守하여 祖国을 守護하였다.

⑤ 对梁円戰에서 功을 세운 徐熙, 姜邯贊, 康兆등은 한결같이 國家와 民族을 意識하는 사람들이었고 가히 花郎의 後裔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⑥ 尹璣의 女真征伐의 成功은 그가 騎馬戰에 대한 理論을 익히고 女真族의 虛点을 연구한 作戰과 訓練의 結果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別武班은 또한 國民의 總動員體制라는데 뜻이 있다.

⑦ 女真的 세력이 커지자 이들과 和合하자는 李資謙과 같은 貴族들은 자기의 安定勢力의 長期유지를 위한 売國的 行動이었음을 認識하여야 한다.

⑧ 13世紀의 蒙古侵入은 當時 世界最強을 자랑하던 軍대임으로 崇文思想에 물들어가는 고려로서는 刀不足의 상태이나 고려武人, 三別抄들이 줄기차게 繼續 抗爭하였다는 점은 王室보다 國家를 위하는 忠誠에서 나온 것이다.

⑨ 蒙古의 政治的 干涉속에서도 공민왕의 自主的 內政改革과 雙城 總管府나 東寧府의 收復은 國際情勢를 속히 판단하는 統治者의 眼目과 勇氣가 있었기 때문이다.

⑩ 倭寇의 약탈행위는 戰爭은 아니라도 國民生活을 오랫동안 몹시 괴롭혀왔다. 이것은 日本의 國民性과도 關係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⑪ 朝鮮時代의 事大交隣主義는 일종의 外交戰略이었을뿐, 國家의 自主性을 喪失하게 만든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中國에 대한 禮遇와 士大夫들의 儒學崇尚으로 인하여 中國依存으로 바뀌어 가는 歷史展開를 보였다.

⑫ 그러나 事大外交政策의 成果는 四郡六鎮의 開拓이나 倭寇의 근거지인 對馬島征伐을 成功的으로 끝내고 領土의 擴張을 可能케 하였다.

⑬ 壬辰倭亂은 民族文化가 꽃피는 春節에의 暴風雨였다. 이에 대항할 수 있던 것은 武力이 아니라 民族魂뿐이었다. 행주산성의 권틀이나 해전의 이순신도 군인이기는 하지만 義兵들과 꼭 같은 민족정신이 있었다는 점이 다른 군인과 달랐다.

⑭ 의병, 승병 그리고 여성들의 활동은 국가 有事時에 일어나는 民族意識의 表出이다.

⑮ 倭亂이 崇文, 事大라는 과오에서 온 것이라면 胡亂은 党派때문에 일어난 外交政策의 貧困때문에 겪은 고통이다.

⑯ 孝宗의 北伐計劃은 三學士의 굳은 절개와 相通하는 것으로 外勢의 자극을 敎訓으로 받아들인 例이다.

⑰ 國土守護의 主体는 權力에 寄生하던 貴族層 支配層이 아니라 大衆과 兵士들의 自發的 參與에 있었음을 歷史가 말해준다.

I-3 民族思想의 成長

-1) 高麗時代 民族意識:

① 統一新羅時代에는 共同体意識이 強化되고 血緣과 文化의 交叉를 이루어 가고 있었으나 民族思想이 政治意識으로 昇華하지는 못하였다.

② 고려 光宗은 太祖의 遺訓을 받들어 北方族에 대한 自主外交를 내세우고 唐勢刀이 무너진 中國의 空白期를 이용하여 民族意識을 政治的 次元으로 이끌었다.

③ 崔承老의 政策은 中國官制의 適用이나 王權의 견제, 北方경비

강화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단순한 儒學者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고려의 諸制度가 고려의 特有的 性格을 지니고 있음으로 미루어 徐熙, 姜邯贊과 相通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④ 고려朝의 檀君神話내지는 部族國家의 建國神話는 民族意識을 기르는데 必要的 教材였다. 斷片的인 建國神話들이 고려말에 이르러 檀君 - 夫餘 - 高句麗 - 百濟로 系列性을 갖게 된것도 民族形成과 相關이 깊다고 할것이다.

-2) 儒學의 民族思想:

① 世宗朝에 편찬된 여러가지 書籍들중에는 民族生活을 알아내려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은 統治手段이기에 앞서 民族國家의 安定을 위한 知的探究였다.

② 한글, 古典, 地理志, 法典, 科學등에 관한 연구는 儒學과는 無關한 것이지만 民族과 國家의 同一視를 위한 過程에 필요한 작업이다.

③ 朝鮮時代에 朱子學이 크게 환영받은 것은 宋代에 遼金과의 對決에서 강력한 專制王權을 刀說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④ 三綱五倫은 中國儒學이 아니라 三綱領, 八條目과는 전혀 다른 韓國的인 規範이었다.

⑤ 李朝儒學은 朱子學의 正統論, 大義名分論의 政治的 性格에서 차차 벗어나서 理氣論의 形而上學만을 주로 연구하였으나 初期는 그렇지 않았다. 權匠, 金宗直, 趙光祖등은 孝悌 忠信을 信條로 삼는 國家意識을 내세우고 있다.

⑥ 性理學보다는 至治主義儒學이 政治에 寄與한 바 있으나 性理學도 民本主義思想을 통하여 政治意識을 높이고 忠誠과 義理의 一

致와 忠孝의 同一視를 力說하였다.

-3) 実學의 民族思想:

① 実學은 어떤 의미에서 李朝初의 復活이기도 하다. 朱子學의 形而上學의 關心에 反旗를 들고 自國의 安定과 번영을 위하여 改革을 주장하였다는 그 자체가 이미 民族과 國家의 課題를 對象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② 實學思想을 實事求是 또는 利用厚生이라고 보는 것은 그 一面에 불과하고 自我의 작성, 自我의 再樹立의 概念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이가 많다.

③ 實學者들의 知的探究는 原理나 本質論에서 벗어나 現象學에 關心을 두었기 때문에 民族生活이나 國家制度에 관한 내용으로 변질하였다.

④ 國史研究는 中國史의 隸屬을 벗어나서 三韓正統論이 나오고 東史綱目에서도 이를 강조하였다.

⑤ 實學은 南人들에 의하여 独占되었던 것이 아니라 政府에서도 奎章閣등을 통하여 새學風을 지원하였다.

⑥ 實學時代의 經濟政策에 關한 업적뿐 아니라 새로운 價值觀의 定立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庶民文學, 白磁, 風俗圖 등의 大衆과의 連結性이나 自我意識은 民衆들이 大學 民族文化에의 參與를 권장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⑦ 實學의 民族思想이 儒學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丁若鏞의 時間意識(歷史的 認識)이나 技術爲主的 進歩觀은 새로운 近代民族主義의 基盤을 이루고 있었다.

I-4 近代 民族主義의 展開

-1) 開國과 近代化 :

① 우리나라의 近代史는 마치 外来文物에 의하여 전혀 새롭게 展開된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은 十八世紀의 開港(開國)을 마치 서구화의 시초인 것같이 해석하기 때문이다.

② 十七世紀以來 斷片的이나마 中國을 통한 접촉이나 漂流民들의 영향이 서구에 대한 無智를 減少시키고 北學派는 이미 이에 대한 새 觀點을 闢略하였다.

③ 民族意識이 國家主義와 連結되기 시작한 淸후를 實學에서 볼 수 있으며 초기 開化運動者들은 實學의 영향을 받았다.

④ 開化思想이 곧 近代民族主義가 아니라 첫 段階의 開國과 海外知識을 넓히자는 의도로 2단계의 技術의 進步를 주장하는 시기를 거쳐 1890年代의 國家獨立과 民權思想의 主張에서 나타난다.

⑤ 急進的인 開化派가 甲申政變에서 성공하지 못한것은 改革을 서두르는 나머지 大衆의 呼應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과 外國勢力을 이용하려 하였다는데 있다.

⑥ 東學思想도 近代로의 轉換을 이룬 對照的인 潮流이다. 그들이 開化派에 比하여 더 大衆의 呼應을 얻었기에 舊秩序에 果敢하게 對항할 수 있었고 外勞를 배격하였다는 主体性이 그 原動力이다.

⑦ 東學思想에는 루넛상스의 人間復歸와 啓蒙主義의 앞샹레짐을 연상하는 傳統否定이 있으며 甲申政變이 制度改革인데 대하여 多分히 社會改革이다.

⑧ 一部 兩班層의 知識人들이 中心이 된것이 아니라 政局의 혼

란을 의식하는 民衆속에 솟아오는 國家主義였다고 할 수 있다.

⑨ 東學革命軍은 그들의 要求條件 第一條에서 그들의 敵이 政府가 아니라 外夷들임을 내세웠고 포고문에서도 “民本”을 서두에 썼다.

⑩ 獨立協會는 西洋의 自由主義思想을 배운 知識인들이 主動이 되어 民權운동을 일으켰다.

⑪ 최초의 근대식 정치집단의 성격을 갖춘 獨立協會는 大衆의 政治啓蒙을 위하여 구체적인 生活의 範圍에서부터 素材를 잡았고 차차 政治的 次元으로 끌어올렸다.

⑫ 民權思想이 1890年代에 民衆運動으로 번진것으로 미루어보면 西洋이나 日本에 비하여 約 半世紀의 時差에 不過한 것이다.

⑬ 近代化過程은 日本서 開化를 배우고 중국에서 자강을 배우고 서구의 民權을 받아들여 傳統的 民族意識위에 近代民族主義를 形成하려하였다.

⑭ 獨立協會는 親美的 要素가 있다하여 淸·日·露 등의 간섭으로 탄압을 받았는데, 日本의 淸露戰의 勝利와 國恥는 이 近代化 課業을 中斷시키고 새로운 反植民地 民族主義로 면모를 바꾸게 되었다.

-2) 斥邪運動과 自主改革:

① 開港과 外夷의 出入을 反對하던 儒生들은 閔妃事件과 斷髮令 등에서 일제히봉기하여 國內여론을 代表하는 勢力을 形成하였다.

② 亂亂때의 僞徒가 活踏하고 旧韓末에 儒生이 憂國을 表示하며 3.1 運動에 東學의 精神이 甚盤이 된것 등은 國內思想의 向背와 에네르기의 蓄積이 民族意識으로 나타난 現象이다.

③ 開化에 대한 반발로 外見上 保守勢力을 形成한것 같이 보이
나 儒生들은 當時의 知識人을 代表하는 集團이기도 하며 開화와
寡大의 어는쪽에도 加担하지 않았던 純粹한 民族思想의 所有者들이
었다.

④ 斥邪운동은 國民의 總和로서 日本의 植民地化 策略에 對항하
던 指導者들로 보아야하며, 大院君과 閔妃가 淸·日·露의 사이를
往來하며 派爭을 벌이던 爲政者들의 混迷함과는 다른 主体性을 지
닌 集團에 의해 이끌어 나갔다.

⑤ 開化가 가는 方向이 斥邪論者들의 意見과 相反되는 것이 아
님은 東學黨의 改革案이 反動的이 아니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⑥ 斥邪論은 開化를 贊成하면서 洋夷를 배척하고 그 대신 自主
的 開化를 主張하였다는데 意義가 있다.

-3) 對日抗爭:

① 乙巳條約이후의 義兵運動은 乙未義兵과는 훨씬 發展的 意味를
갖고 있다. 乙未義兵은 侵略勢力과 結付된 國內의 官人그룹을 대상
으로 한데 比하여 乙巳이후의 義兵運動은 日本이라는 確認된 敵을
對象으로 對外的 抗爭이다. 또한 乙未때는 士林層만이 參加한 部
分的 參與였으나 乙巳이후는 拳族的 動員이었다.

② 義兵운동의 中心思想인 排他, 自存은 天主教의 전파로 인한
文化的 危機意識과 연이은 通商修好條約에서 洋物禁斷의 기치가 나
오는 經濟的 危機意識을 結合하고 있다.

③ 儒學的 價值體系는 「忠君如父, 憂國如家」의 1次社會的 倫理
體系가 捨身取義, 殺身成仁과 같은 春秋學的 名分論과 結合되어 나

타났다.

④ 20世紀初 韓民族이 맞이 하였던 西歐秩序를 전제로한 近代民族 國家理念의 形成은 決코 西歐의 變數로서 이루어진 西歐化의 結果가 아니라 西歐를 受容해야 할 새로운 歷史段階에서 韓民族이 스스로 이룩한 民族自主意識의 發展的 展開의 形式이다.

⑤ 3.1 운동은 傳統과 近代의 統合이라는 責任을 져야했던 民族이 가야할 方向이었다.

⑥ 開港이후 (1876) 30년간은 抵抗民族意識이오 乙巳 (1905) 이후는 傳統이라는 自己保存時期였고 3.1 운동 (1919) 은 바로 近代的 創造刀의 發揮였다.

⑦ 3.1 民族主義는 抵抗이라는 消極的인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近代國家의 實踐이라는 民族運動이었기 때문에 이에 참가한 民衆들은 憲法制度權力의 全國民的 行爲라는 參政의 性格을 지닌다.

⑧ 33人은 準政府的 性格이고 臨政의 秩序는 勤王復讐이 아닌 自由와 民主라는 近代秩序로 나타난다.

⑨ 日帝下의 政治的 自主性이 中斷된 것이 아니라 義兵運動, 3.1 運動, 臨政으로 이어오는 植民地下에서의 變型的 發展形態인 것이다.

⑩ 解放후 反託運動은 民族的 危機에 나타난 第2의 3.1 運動이었으며 以後에 나타난 철저한 反共思想도 傳統과의 調和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해진 価値選擇이었다.

II. 民族的 進歩의 過程

II-1 民衆의 役割增大

① 政治意識은 近代에 와서 急速度로 民衆에까지 擴大된 것이 아니라 古代以來 徐徐히 進展되어왔다.

② 新羅時代의 和白制는 氏族社會의 遺制인 滿場一致制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서 그 本質은 氏族會議로서가 아니라 古代國家의 共通의 政治制度인 合座機關인 것이다.

③ 三國時代 政治의 큰 特徵인 合座制는 高句麗의 大對盧, 百濟의 政事殿 등과 같이 宰相을 貴族의 互選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氏族長들의 貴族化로 인한 統治體制로의 전환이다.

④ 合座機關의 主要機能은 王位계승 對外戰爭 佛敎의 受容등 國家의 大事를 論議하는 것으로 全國의 靈地를 택하여 會議場所로 택하는 貴族聯合 성격을 띠우는 것으로 滿場一致制는 여기까지 계승되었다.

⑤ 기원 三世紀頃에는 南堂(또는 都堂)이라는 官庁이 생겼다. 部族社會의 性格의 政治機構에서 官吏의 位階가 分化하기 시작하자 王의 政事가 복잡하여져서 一種의 官廳이 생겼다.

⑥ 고려시대의 都兵馬使은 이 都堂의 후신으로 宰臣과 樞臣이 함께 國家의 重大事를 議論하는 合座기관이며 이것이 다시 李朝의 議政府나 備邊司에 계승되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政治組織의 基本姿勢는 이 合座制度의 運營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⑦ 合座機關은 고려시대 武臣政權下에서도 重房이라는 이름으로 存立하였으리만큼 合座의 傳統은 強한 것이다.

⑧ 朝鮮朝의 議政府는 3 政丞의 合座기관으로 이곳에서 決定되는

것이 根本이었다. 차차 官僚化되어가는 朝鮮時代에는 合座의 精神을 돕기 위한 王의 直屬機關을 두었다.

⑨ 近代의 內閣制度에 이르기 까지 民衆의 政治參與의 기회는 차차 增加되어 갔고 政治意識도 차차 높아져갔다.

II-2 民權運動

① 統治階層에 대한 被支配層의 對항의식은 高麗中期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 原因은 流民의 發生, 政治權力圈에서 떨어진 遠隔地, 部曲과 같은 賤民集團, 身分制의 變動등이었다.

② 地方勢力과 결탁한 叛亂民들은 高麗의 身分制의 秩序에 反旗를 든것이고 京都의 萬積은 首都의 奴婢가 團結하여 身分制에 반항한 것이다.

③ 高麗時代의 民權의식은 身分制의 秩序의 變化를 促求하는 古代的 遺産의 清算過程이라 할 수 있다.

④ 李朝의 兩班政治가 그 모순점을 들어내기 시작하자 小作農으로 밖에는 存続할 수 없었던 農民들이 反항을 하기에 이르렀다. 良民인 農民이 事實상 奴婢보다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모순에 대한 反발이다.

⑤ 이러한 民亂은 流民, 火賊의 양상을 띠우다가 普州民亂과 같이 規模가 크고 조직적인 것으로 발전하였다.

⑥ 民亂은 兩班體制에 대한 反항의식과 手工業 발달에 따르는 産業構造의 변화와 탐관오리들에 대한 불평등이 얽혀서 폭력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⑦ 東學革命은 이러한 전통적인 民權의식이 近代의 感覺과 결부되어 일어난 歷史的 契機이었다.

⑧ 東學의 主張은 韓國型 民權의식의 原型이었고 國家나 王에 대한 革命이기는 보다는 社會改革을 앞세우는 主張들이었다.

⑨ 甲午更張은 近代式 改革이기는 하였으나 多분히 政治制度에 기울어진 制度의 改編이었고 그것도 外國의 干涉下에 이루어진 自主性を 잃은 改革이기에 形式에 치우쳤다.

⑩ 獨立協會가 보여준 民權운동은 新知識層을 중심으로 近代式 政治團體를 만들고 自由와 獨立思想을 고취하는 啓蒙을 전개시켰다.

⑪ 國民의 政治參與라든 近代式 民主主義의 도입은 이미 19世紀말부터 韓國에 뿌리 박았고 이것은 自由와 自主를 同時에 부르짖은 것으로 東學과 共通된 理念을 갖는 것이다.

⑫ 舊韓末부터 3.1 운동에 이르기까지의 꾸준한 抗日투쟁은 民族國家의 근대화를 위한 理念구현이 國權회복의 요구와 병행한 民權운동이기도 하며 이로 인한 民族意識과 政治의식의 고취는 歷史추진의 主體가 되었다.

II-3. 社會運動의 展開

① 社會運動은 爲政者나 貴族들에 의한 恤民政策에서 學者들에 의한 倫理的 主張을 거쳐 知識人들의 運動으로 發展하여 왔다.

② 高麗時代의 長生庫나 寶는 그 目的에 있어서 貴族들의 社會運動이기는 하였으나 漸次 利殖事業으로 기울어지는 階級이 생겼다.

③ 그러나 學寶, 廣學寶 濟危寶 등은 事業目的이 뚜렷하였으나 厚生福祉를 위한 濟危寶, 大悲院, 惠民局, 常平倉, 普通院같은 것은 政府와 貴族層의 協力으로 이루어진 機關들이었다.

④ 李朝의 歷代君主의 가장 큰 關心事는 租稅의 能率的인 行政

處理였다. 農業國家에서 田租가 財政의 基本이며 農民이 國民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租稅와 王의 善政과는 거의 正比例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儒敎的 秩序下에서도 鄉約과 같은 制度의 도입으로 傳統的인 相互扶助의 精神을 살려보려는 努力이 있었다. 士大夫的인 內容規制로 一般化하기는 어려웠으나 곳에 따라서는 成果도 있었다.

⑥ 庶民層에는 契와 같은 經濟行爲로 民衆의 厚生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니 이것은 比단 經濟的 要求에서 나온것만은 아니다.

⑦ 그중에 成功的인 例가 世宗大王때의 農業政策이다. 技術的 向上과 租稅징수의 合理化로 農民生活을 도와주었고 그 精神은 實學時代에 다시 한번 復活한다.

⑧ 李朝末의 民亂은 身分制度化와 稅制의 紊亂으로 일어난 것이며 그의 代弁者로서의 東學의 主張이 나왔다. 東學에서 내세운 平等思想이나 그밖의 近代의 理念은 民衆의 要請에 의하여 일어난 社會運動이다.

⑨ 日帝時代에 나타난 農村振興운동은 3.1 운동이 후 民族의 自覺을 바탕으로 植民政策에 저항하는 社會運動이며 總督府의 政策인 自力更生을 逆利用한 것이다.

⑩ 새마을運動은 國際社會와의 경쟁을 意識한 現代的 要求에 對應하는 일종의 社會運動으로 昇華시키고 있으며 民族總和에 의한 發展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II-4 生産力과 技術의 進步

① 韓國社會가 農業中心으로 이어내려온 것은 事實이나 經濟政策이 商工業에 대하여 放任상태였다고 說明함으로써 韓日合併當時의 經濟

의不振을 내세우려는 植民地史觀은 바로잡을 必要가 있다.

② 이미 古代國家에서 보이는 水利事業의 進展은 強力한 統治者의 出現과 때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 學者들의 理論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現存하는 여러 貯水池의 規模나 利用은 新羅의 国力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③ 고려시대의 農業生産技術의 양상이 어떠한가는 分明치 않으나 開城王室의 收租區域이 넓었던 것 같지는 않고 주로 私田主가 收租權者였을뿐 農業경영은 佃民에게 맡겼던 것이다.

④ 貨幣의 발달이 미숙한 高麗는 手工業生産에 있어 部曲이라는 賤民集團을 利用하였으며 여기서 生産되는 特殊產物은 外國과의 貿易을 활발하게 하여주는 原動力이었다.

⑤ 技術者와 노동력을 많이 가진 集團으로서의 寺院은 經濟에 對한 影響과 手工業發達에 貢獻한 바 크다.

⑥ 李朝時代에 이르러 積極적인 勸農政策을 써서 農業의 刊行, 曆學 發達, 天文器의 發明등 모두가 農業生産과 直結되는 政策이다.

⑦ 農業技術은 品種, 地耕, 備穀, 二毛制, 輪作, 水利, 果樹, 소치 病蟲防止등 多彩로운 것이었으며 倭亂때 日人이 다량의 서적을 얻어가서 日本의 農業을 크게 發達시켰다.

⑧ 生産技術의 上昇은 印刷術의 發達에서 얻어진 것이며 大藏經版, 金屬活字의 發明등이 빠른 속도로 새 技術을 傳播시키며 衆智를 모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⑨ 倭亂과 胡亂을 겪은후 荒廢된 農村을 위하여 知識層이 이를 問題삼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큰 意義가 있고 大同法이나 防穀(代納制), 均役法등 稅制改革뿐 아니라 農業技術에 대한 知識의 普及과 研究를 知識人 스스로 하였다는 사실이 歷史的 變換이었다.

⑩ 李栗谷이 農具에 關心을 갖고 柳磻溪가 農土利用의 理論을 펴게 됨으로서 선비들이 技術社會의 先鋒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態度로 바뀌었다.

⑪ 감자, 고구마와 같은 救荒食物을 道入하여 凶作에 대비하고 特殊作인 호박, 고추, 토마토, 사과, 담배 등의 재배가 활발하여 지면서 日常生活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⑫ 實學者중에서도 朴齊家, 朴趾源등 北學派들의 農論이 나와서 양반의 農耕 장려, 農村敎導, 農具改良, 種子改良으로 科學化를 주장하였고 丁若鏞은 이를 集大成하여 果樹, 養蠶, 養蜂, 藥草, 紡績에 이르기까지 多角農業을 권장하고 月會歌까지 만들었다.

⑬ 李朝後期에 手工業의 發達로 인하여 商業資本이 蓄積되어가고 納粟등으로 身分制의 변동이 일어나자 生産의 增大가 近代社會로 이끄는 힘이 強하여졌다.

⑭ 士農工商의 階層的 意識構造때문에 生産과 技術의 進歩를 阻害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러한 中世的 思考方式이 非但 韓國史에 만 있는 것은 아니다.

⑮ 日帝의 植民地下에서의 停滯狀態는 우리가 想像한 以上の 것으로서 그안에서의 民族的 力量을 培養한다는 것은 主權國家에 比하여 몇배의 努力이 必要하였던 것이다.

⑯ 政治的 安定과 産業經濟의 發達의 相關度는 1910年代와 1960年代의 上昇率을 比較하면 알 수 있다.

⑰ 民族의 進歩는 國民의 總和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民族史에서 배워야 할것이다.

Ⅲ . 指 導 上 의 留 意 点

① 政治思想教育에 民族史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겠다는 試圖은 근래의 일이다. 특히 政治史의 考察이 年代史의 接近에 그치지 않고 民族史의 展開를 貫通할 수 있는 史眼을 길러야 한다.

② 民族國家의 形成過程은 既成學習을 土臺로 하면 理解하기 容易하다. 全体 國史의 흐름속에서 民族意識의 形成過程을 中心으로 考察하여도 結局 歷史全体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므로 分析과 綜合의 兼備라는 條件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國難克服史는 連續된 歷史로써 가르치기 보다는 事例中心으로 가르치는 편이 效果的이며 人物中心의 接近도 좋다. 지나치게 國際情勢와 같은 周邊的 史實을 상세히 다루면 核心을 잃는다. 이런 內容에는 參考書籍이나, 歷史小說등이 많아서 學習者들의 既得知識도 상당량 있을 것임을 豫想하는 教授計劃을 세워야 할 것이다.

④ 民族的 이데오르기의 形成이 19世紀에 와서야 이루어진다는 見解는 西洋政治史의 Nationalism 과 同義語로 해석하는데서 나온 理論이다. 우리가 말하는 民族은 歷史와 血緣의 交叉로서 이루어진 文化共同体, 運命共同体意識을 말하는 것이므로 民族意識과 政治意識내지 國家意識과의 相関關係는 時代마다 同一하지 않다. 더구나 仏敎, 儒敎, 天道敎, 基督敎가 준 民族意識은 時代的 背景에 따라 全然 다른 角度에서 別個의 樣相을 띠우고 있다. 西洋史中心의 用語와 概念을 잘못 適用할 때 民族史의 說明이 後進性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⑤ 近代民族主義를 論할때 비로소 世界的潮流와 合流하는 것을 본다. 더구나 日帝와의 抗爭이 民族意識을 자극하고 있다. 日帝

植民地로서 民族史가 中斷된 것이 아니라 36年間 歷史發展의 速度가 鈍化되었다는 事實을 冷徹하게 洞察할 수 있도록 한다.

⑥ 社會發展이나 民衆의 參與度의 擴大는 民族史가 停滯的이거나 惡循環이 아니라 發展的이었음을 알리는 것이 目的이다. 斷片的으로 歷史의 美談으로 흘러내려오는 史實들을 論理的으로 正當한다는 것이 史學界의 任務이기도 하다.

⑦ 民族史안에 있는 所謂 歷史惡도 同時에 이 안에 収録하여 民族的 過誤를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것을 攻擊하는 것이 아니라 그 原因을 究明하는 일이 곧 學問的 態度임을 알려 주는데 意義가 있다. 派党性, 勞動輕視, 技術貧困, 依他性 등은 누구나가 指摘하는 民族의 短点이지만 그것들이 生成한 過程이 分明치 않아 治療가 不可能하였다는 사실이 우리의 關心事인 것이다.

第 2 章 文化傳統의 繼承發展

〈 章 前 文 〉

文化傳統에서 包含시킬것은 人間性, 文化樣相, 文化的 特徵등이라고 할것이다. 民族文化에 대하여서는 從來 國粹的傾向과 自虐的 態度에 두 極端이 對立되거나 또는 二重的으로 共存하고 있던 混迷가 계속되어왔다. 그 첫째 理由는 文化에 대한 概念이 正確하지 못한데 있다. 文化를 狹意로 생각하거나 文化에서 人性이나 生活習性和 같은 감추어진 文化(Covert)는 잃어버리고 外見的이고 顯在的인 文化만을 對象으로 하였을 때에는 金屬活字나 거북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는 文化理論이 빈약하여 文化的 傳播나 創造過程에서 恣意的인 해석을 加하거나 善惡判斷으로 直行하는 까닭에 일어나는 단점도 큰 문제이다. 固有文化만을 쫓다가 民族文化의 深層을 노친다거나 周邊的 價值에서 배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固有한 것도 찾기 어렵지만 모든 文化를 外來文化와의 關聯에서 說明하려는 것도 不可能하다. 그것보다는 土着化過程에서 民族的 傳統과 外來的 要素와의 合流를 考察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세째로 文化的 자랑거리를 羅列하는 立場에서 그 特性이 무엇인가를 찾는 態度로 바꾸어야 할것이다. 農耕民이기 때문에 또는 半島이기 때문에 생긴 文化도 많고 單一民族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것도 많다. 文化的 樣相은 하나하나가 意味를 가진 것이므로 科學的인 分析과 綜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II - 1 韓國의 民族性

-1) 人間性의 尊重 :

① 韓國의 教育制度는 全人的 敎養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小學에 나타난 生涯의 學習過程이나 學習의 內容이 人間의 修養을 前提로 한 綜合教育이었다.

② 技術教育은 粗忽하게 실천한 감이 있으나 階層間의 職業的 分別이 있던 前近代의 社會에서 指導層에만 特別히 人間性을 尊重하였던 것이다.

③ 強靱한 大家族制의 持續은 依他性을 높이고 固定된 身分制의 世襲으로 個性의 伸長이나 自我發見의 기회를 위축당했다.

④ 人間關係에 있어서 直接的인 關係를 重視하였으므로 門閥中心 學閥中心, 地方色 등의 폐단이 생겼다.

⑤ 各時代를 통하여 宗教思想이 思考方式이나 生活樣式을 支配하였던 것은 人間性 優位의 民族性이 있었기 때문이다.

⑥ 韓國人의 思考나 價值觀은 本來的으로 唯物論的이 아니고 人間的이었다. 佛敎만 하더라도 來世觀뿐 아니라 護國佛敎로 現實도 중시하였고 淨土敎와 같이 貴族이 아니라 民衆을 對象으로 布敎하는 人間性이 있다.

⑦ 儒學의 人間性 尊重은 民本思想에 나타난다. 賢君을 기대하는 政치는 國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⑧ 韓國人은 垂直的 人間關係에 더 익숙하고 近代西歐人은 水平的 關係를 가르쳤다. 이 兩者의 調和는 앞으로의 課題이다.

⑨ 孝의 概念은 家族內의 人間秩序유지의 基本德目이다. 이것은

다시 忠의 概念으로 擴大시키나 처음에는 政治的이기 보다는 社会 規範이다.

⑩ 최초의 社会規範은 世俗五戒이다. 花郎의 忠·孝·信·勇·仏 心の 다섯가지는 忠과 孝의 順位를 바꾸어 놓은것에 不過한 傳統的 價值觀의 繼承이다.

⑪ 朝鮮時代의 五倫은 君臣, 父子, 夫婦, 長幼, 朋友의 人間關係를 다른 것이며 李元龜의 九道에 이르러 父道慈, 子道孝, 兄道友, 弟道恭, 友道心, 妻道順, 夫道和, 臣道忠, 君道仁으로 上下秩序가 分明하게 확대해가고 있다.

⑫ 朝鮮時代의 人間關係의 發展은 兩班層에서 平民으로, 位下者에 대한 要求에서 上位者에게 까지 規範을 마련하여 나가고 있다.

⑬ 儒敎에서 말하는 理念的 人間型은 君子이다. 德을 앞세우고 있으니만치 어디까지나 人間的이다. 그러나 儀禮와 形式에 흐르는 폐단도 있고 君子不器가 誤導되어 無能者를 만들기도 하였다.

⑭ 栗谷은 民은 以食為天이니 無食無民이오 無民即無國이라 하여 民本主義를 내세우고 있다.

⑮ 實學은 儒學이 治者를 위한 學問인데 比하여 더 民衆의 問題를 深刻하게 다루려는 意圖가 經世利民으로 나온것이다. 더구나 中國學問에서 國學으로 옮겨온 自主性은 地理 歷史 經濟 農業 自然科學등의 실생활에 접근한 研究를 하게 되었다.

⑯ 이 시기에 春香伝 沈清伝등의 庶民文學이 流行하였다던가 白磁가 大衆的 人氣속에 널리 普及된 것이나 蕙園등의 風俗面가 나온것등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⑰ 韓國史속에서 人間性的 尊重은 非物質的이었다는 것과 차차 大衆의 人間性 描写로 擴大하여 갔다는 特徵과 동시에 西歐와 같이 宗教改革이나 프랑스革命과 같은 血戰없는 歷史的 進展이었다는 데 意義를 發見할 수 있다.

-2) 平和愛護思想:

① 韓民族이 平和를 사랑하는 民族이라는 것은 古代로 부터 外國을 侵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그 첫째 증거로 삼는다.

② 反對로 이것은 平和愛護이가보다는 武力이 弱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많은 것이다.

③ 平和라는것은 싸움의 勝負나 原因에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狀態를 平和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인식적 방법에 달려있다.

④ 大體로 農耕爲主의 定着民族이 갖는 特性과, 半島라는 地政的 要因이 韓國民에게 他國과의 戰爭이나 侵略意慾을 鈍化시킨것도 사실이다.

⑤ 高句麗는 滿洲一帶에서 敵에 包圍되어 있었기에 積極的으로 外敵과 싸웠고 그들의 氣像은 山間地帶의 遊牧民的 特性이 있었다.

⑥ 新羅의 花郎은 戰士이기에 앞서 健實한 中堅指導者들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精神은 姜邯贊, 妙清, 崔瑩, 李舜臣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⑦ 高句麗는 戰爭에 이기고 政治에 敗北한 例라고 할 수 있다.

⑧ 高麗의 李資諫과 같은 故事가 平和愛護가 아니고 政權慾을 維持하기 위한 外勢에의 屈服이며 이것은 李完用의 경우와 相通하는 점이 있다.

⑨ 妙淸의 建元稱帝論은 이에 대항하는 積極論者이고 政府에 反抗하였지만 그가 平和의 破壞者는 아니다.

⑩ 平和의 維持는 民族의 總和와 國論의 統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民族의 分裂에는 平和가 없다.

⑪ 越南派兵은 이런 意味에서 侵略이 아니라 破壞者에 대한 共同守護라는 의미에서의 十字軍이며 征服事業이 아니라 防禦態勢이다.

⑫ 朝鮮의 事大外交는 平和守護의 한 政策이었다. 明의 自尊心을 滿足시켜주는 代價로 世宗 世祖때 民族文化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⑬ 壬辰 丙子の 兩亂은 國論이 分裂된 狀態에서 일어난 悲劇이다. 蒙古의 侵入때와 또 다른 狀況에서 겪은 苦難이었다.

⑭ 士禍는 韓民族의 派党性을 나타내는 첫번째 事件이다. 고려시대의 宮廷内の 對立이나 寄生貴族사이의 分규가 아니라 在野士林을 包含하는 것으로 公公연한 派党的 論爭이며 敗者는 반역자로 地位박탈을 당하는 싸움이었다.

⑮ 政治制度의 모순은 官僚의 수요와 兩班人口와의 不均衡에서 온것으로 儒學은 이를 政黨政治로 昇華시키지 못하고 派爭을 學閥 地方色으로 擴大시키고 말았다.

⑯ 朱子學의 空理空論은 黨派의 論爭點을 禮學으로 이끌어가서 非政治的 對立을 政治現像化하였기 때문에 近代化過程을 찾지 못하였다.

⑰ 東洋的 平和主義는 仏教의 影響도 컸지만 非暴力主義였기 때문에 反正이라는 이름 밑의 구데타가 있었을뿐 王에 대한 忠誠이 前提가 되는 싸움이였다.

⑱ 李成桂의 易姓革命, 東學革命, 3.1 운동의 三大事件도 平和主義的인 性格에는 共通點이 있었으며 中世社會에 있어서도 西洋의 治者級에 比하면 刑具나 処罰에 있어 매우 寬大한 편이다.

⑲ 人乃天思想은 古來부터 내려오는 民心이 天心이라는 人間本位의 思考方式을 宗教理念化시킨 것이다.

II - 2 民本主義的 政治傳統

① 民主主義는 西洋의 民本主義의 意味와 相通하는 用語이며 民主主義가 政治制度인데 比하여 民本主義는 政治哲學이다.

② 韓國의 政治文化的 傳統과 政治意識은 民本主義에 基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傳統은 共產主義와는 容納될 수 없는 것이다.

③ 韓國史를 階級斗爭史로 叙述하려는 사람들이 부닥치는 隘路는 西洋社會와 같은 階級意識이 民衆들 사이에 없다는 점이다. 中世의 階層構造가 없고 부르주아지가 없어 革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④ 東洋的 停滯性은 이러한 隘路를 合理化시키려고 하였다. 東洋을 除外한 世界史의 通則이 맞지 않는 것과 같이 아프리카의 人類史를 世界史에 넣으려면 唯物史觀은 또다른 理論이 必要한 것이다.

⑤ 西洋史의 發展段階가 典型的인 것이고 東洋史는 特殊한 事

例라는 생각은 없어야 民主制度가 借用文化가 아닌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⑥ 우리나라의 民主制의 시초를 和 白에다 두고 있으나 그리이스나 新羅의 萬場一致制는 民族社會의 遺制이고 다만 그 이름을 빌려다가 데모크라시라고 한것이다.

⑦ 韓國의 政治制의 근본정신은 合座制에 있다. 南堂, 都堂, 重房, 議政府, 備邊司로 이어온 合座制는 韓國政治가 專制政治이면서 그것을 克服하려는 制度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⑧ 國王에 대한 견제機關은 大司諫, 春秋官, 實錄編纂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들앞에서는 國王이 언제나 자중하였으며 每事는 重臣會議에서 決定한다.

⑨ 民衆과의 意思疏通을 위한 制度를 마련하는것도 政治參與의 기회를 擴大시킨 것이다. 申聞鼓, 上疏文制度는 地方의 知識層이나 一般大衆에게 意見을 널리 듣고자하는 意圖이다.

⑩ 자칫하면 權威意識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교적 社會規範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기구가 必要하였다.

⑪ 널리 意見을 모아 政策에 反映시킨 例도 많다. 世宗의 農事直說이나 田分六等, 年等九分法은 地方의 實情이나 官吏들의 知慧와 創意的 事例들을 集成한데서 이루어진 業績이다.

⑫ 官吏任用制에 있어 科擧制의 合理的 運營이나 實力主義의 행사 그리고 署經制로서 身元을 確認하는것 등은 專制政治의 短點을 補完하는 制度이다.

⑬ 交通 通信이 發達하지 못한 地方을 統治하는데 暗行御史制는 權力을 規制하고 民生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⑭ 歸屬性이 강한 政治文化에 대한 견제책으로 歸鄉制는 일종의 처벌과 같은 것이었으나 中央集權을 유지하기 위한 制度이다.

⑮ 이러한 制度들이 모두 長點만을 갖는것은 아니다. 歸鄉制가 賜田이 私田化하여 農莊을 形成하고 科擧制가 에리트 意識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上疏文이 投書의 習慣을 길러주기도 하였다.

⑯ 民衆의 抗拒도 時代發展에 공헌하였다. 哀奴, 萬積의 亂은 史書가 전하여준 最初의 것이지만 洪景來, 晉州民亂등도 그 例이다.

⑰ 東學亂은 이러한 政治的 傳統위에서 솟아나온 民衆의 부르짖음이었다. 이는 또한 3·1운동 6.25 동란으로 繼承되는 것이다.

⑱ 爲政者에 대한 直言의 기회가 얼마나 扶與되었느냐에 따르면 韓國人의 政治意識이 非單一部 貴族이나 特殊層에게만 局限되었던 것은 아니다.

II - 3 文化의 繼承과 創造

-1) 藝術文化의 傳統 :

① 民族文化의 傳統自体에 대한 理解와 態度를 바르게 가져야 한다. 正確하게 判斷할 수 있는 能力은 가장 本質的인 것이다.

② 國粹主義者처럼 자기 歷史를 덮어놓고 美化하거나 神聖視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보다도 정고이즘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자기 歷史에 대한 自虐에서 病的인 慰安을 찾는 妥性도 不可하다.

③ 固有性을 지나치게 追求하면 文化의 全体가 視野에 들어오지 않아 그릇 해석하기 쉬우며 情意的 主觀的 判斷이 되어버린다.

④ 伝播論者の 노예가 되면 民族文化는 모두가 中國이나 美國에서 借用한것으로 해석하고 日本은 모두 韓半島를 거쳐갔다는 結論을 내리기 쉽다.

⑤ 民族文化는 모두가 金, 銀이 아닌것처럼 汚物이나 廢品도 아니다. 그안에 남겨져있는 多樣的인 祖上들의 思想이다. 그안에는 美와 醜, 善과 惡, 創造와 模倣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共存한다.

⑥ 民族文化의 연구는 그것을 가려내어 歴史的 作品이 가진 意味를 제대로 찾아내는데 있다.

⑦ 韓國文化의 理解없이 韓國을 알 수 없으며 民族文化의 育成은 未來形成과 直結되어 있다.

⑧ 歴史속에서 찾아본 民族文化는 創造的 價値도 있으며, 外來文化와의 接觸에서오는 葛藤도 있었다.

⑨ 韓國人의 意識構造를 이루어나가는데 影響을 준 要因은 自然環境, 宗教와 같은 具體的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民族史 그 自体임을 알 必要가 있다.

⑩ 韓國人의 習性중에서 默從, 被虐性, 体面尊重등은 儒敎的 遺産으로 보는것보다는 傳統性과 儒敎的 要素와의 接觸過程에서 分析하는 것이 더 正確하다.

⑪ 單一民族으로서의 오랜 歴史展開가 가져오는 諸特徵이 있다. 그러나 儒敎的 힘에 눌려 그 本性이 들어나고 있다는것은 學界의 研究不足에 起因한다.

⑫ 韓國文化가 農業的 性格이며 몬순地帶의 特性을 가지고 있어 樂天的이고 自然的이며 人間的인 기풍을 보여주고 있다.

⑬ 韓文化의 單純함과 劃一性은 民族構成과 關係가 있다. 地方

차가 심하지 않고 階層間的 文化的 隔差가 있는것이 아니다. 仏敎에서 禪宗과 教宗이 다르고 李朝에서 漢文學과 國文學의 差가 上下 階層을 代表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階級文化를 이룬것은 아니다.

⑭ 外國의 政治的 干涉을 甚하게 받던 蒙古의 影響(13세기)과 日帝時代에 있어서도 民族文化의 方向을 바꿀 수는 없었고 오히려 한글普及은 日帝時代에 더 進展하였다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⑮ 韓國文化에 階級性이 없다는 것은 治者級이 文化創造者가 아니며 知識層에 의한 文化創造와 大衆의 追從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원인이 있다. 各時代마다 文化의 主動者는 僧侶, 花郎, 儒者, 學者 등으로 달라지지만 民衆生活에 흡수되어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選拔過程과 時間이 있어야 했다.

⑯ 抗蒙투쟁은 仏敎徒이기보다 花郎의 後孫인 三別抄들이고 倭亂때의 義兵은 儒學時節에 仏徒가 많았고 開化期의 義兵은 儒生들이 많았으며 3.1운동의 主動은 東學의 後裔인 天道敎徒들이었음은 文化의 大衆化까지의 時間的 距離를 말해주는 것이다.

⑰ 韓國美의 創造는 衣裳, 建築, 工藝 조각등 우리 生活周邊에 남아있다. 특히 지붕의 線과 塔婆의 均衡美는 代表的인 것이며 고려 자기의 色彩, 모양, 實用性 무늬의 多樣性은 自主的 發明品들이다.

⑱ 韓民族은 古代로 부터 歌舞를 즐겼고 宗教와 誤樂등에 빠놓을 수 없는 行事였다. 그중에도 춤은 表現의 相極性과 興겨운 舞法이 민족의 感情을 表象하는 獨創性을 지니고 오래 持續하여왔다. 假面舞나 劇은 內容도 豊富하지만 感情의 表現이 특수하여 他民族과 전혀 다른 民衆藝術로 발달하여 왔다.

⑲ 西班牙文化뿐 아니라 이러한 大衆性있는 庶民文化에 대한 關心은 높여야겠다. 李朝 白磁나 風俗面는 上流階層에 限定된것이 아니라

民族全体로 擴大普及된 民族文化로서 그 素朴함과 淸楚함을 자랑할 수 있으며 直線的이고 單調로운 特性이 있다, 四君子, 墨面 또한 美를 創造하는데 독특한 術法이 있다.

㉑ 韓國의 美는 自然的이라는 特徵을 찾을 수 있다. 金弘道의 그것은 자기 주변의 自然에 눈을 돌렸을뿐 아니라 生活 주변, 社會에 對해서도 깊은 흥미를 기우리고 종래 画家들이 경시했던 人物의 動作寫生에 新局面을 개척하였다.

㉒ 中國書芸의 形式만을 뒤따르던 李朝의 병폐를 통감하고 배격한 金正喜는 이른바 秋史체를 만들어내었다, 線의 太細, 線의 曲直, 墨의 濃淡등으로 하나 하나의 글자를 構成하고 力學的인 調和의 美를 찾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書芸는 非具象繪畵요 抽象藝術이라고 할 수 있다.

㉓ 韓國藝術의 調和의 美는 工芸, 書芸 기타에 거이 適用되는것으로 獨創的인 處에는 自然美와 調和(綜合)의 美가 반드시 깃들여있다.

㉔ 高麗時代와 新羅時代에 활발하였던 藝術活動이 李朝時代에 들어서 沈滯한 것은 非單 儒學의 영향뿐 아니라 所謂 兩班層만이 文化를 獨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李朝美術은 前時代에 없던 韓國의 特性이 나타나서 模倣性을 버리게 된 까닭은 佛敎에 의한 美的制約이 없어졌기 때문이며 藝術이 兩班보다는 常民에 의하여 自發的이고 소박하면서도 세련미가 부족한것을 만들어냈다.

㉕ 李朝文化에 實用性이 더 많은것은 이런데 起因한다.

㉖ 李朝時代의 美術이 가장 韓國的이며 그것은 自然의 美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글 割裂로 보아도 뚜렷하다. 卽 前代의 傳統위에 한국적인 類型을 形成하였고 宗教(外來)의 영향없는 純粹性이 강하다.

㉞ 三国時代부터 내려오는 自然主義는 紋樣에 있어서 되도록 人工의 흔적을 줄기려는데서 볼 수 있다.

㉟ 白色의 崇尚은 人工의 排除이고 自然에 대한 황홀의 表現이다. 日本의 美는 庭園과 같이 人工的 自然, 才二의 自然이며 中國은 技術과 技巧가 宋, 淸의 자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完璧에 가까운 技術의 極致를 자랑한다.

㊱ 時調文學 稗官文學은 李朝文學의 創意性이 人間生活에 素材를 求함이고 4·4 調의 別曲體는 春香傳에 까지 影響을 주었다.

-2) 外来文化의 受容:

① 造形美術에 있어서는 中國의 影響을 받은 바 크고 그것이 佛敎文化의 作品이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이 곧 中國文化는 아니며 範本이 外國에서 왔다하나 역시 民族文化임에는 틀림 없다.

② 文化의 受容은 接交, 傳播등이 있어 내용에 따라서는 所要 時間의 長短거리가 심하다.

③ 外来文化의 導入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偏見이고, 外國文化가 언제나 우세한것이라고 보는 것도 옳은 생각은 아니다. 文化受容은 必要한 자에 의하여 選擇한 것이기 때문에 受容過程에 強制性이 있을 수 없다.

④ 固有文化를 고집하고 固有性만 찾으면 原始時代의 衣食住의 生活文化에 風土的樣式을 들 수 없다.

⑤ 그러나 獨自的인 言語, 風習이나 建築, 衣裳등에 固有한 獨創性이 또한 많이 있다. 韓國의 窓살무늬는 獨創的인 것이지만 窓은 어느 建築에나 있는 것과 같다.

⑥ 佛敎은 外來宗敎이다. 그러나 佛敎은 우리에게 最初로 具體的인 倫理의 기준을 준 思想이다.

⑦ 韓國文化가 佛敎을 알고난 후부터 그 真理의 實現과 理解의 과정에서 文化的 創造의 努力이 활발해졌다.

⑧ 韓國佛敎은 民族文化의 傳統을 形成하여 오는 過程中서 深奧하게 도달된 世界性과 더불어 風土性을 들어내게 하였다.

⑨ 土俗宗敎와 쉽게 融合하는 佛敎의 歷史야말로 韓國人의 文化受容의 態度를 잘 表現하여 준 것이다. 現世的이며 政治的이고 文化的인 性格은 三國時代 佛敎의 特性이다.

⑩ 九雲夢이라는 小說이나 金오신화가 中國小說의 모티브를 모방하였다지만 春香伝이나 與夫伝은 韓國的인 해학과 孝와 民生과 價值觀을 豊富히 나타내는 土着化作業으로 이루어졌다.

⑪ 이 土着化는 고려자기에 있어서나 繪畵, 韓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結果를 가져왔으며 民族의 特性이 나타난 李朝의 美術은 白磁와 繪畵가 代表的이다.

⑫ 新羅의 鄉歌는 中國文字를 導入하여 民衆의 歌謠로 옮겨놓은 文化創造의 업적이며 吏說文에서 다시 한글로 發展하며 鄉歌는 長歌別曲體로 大衆化한다.

⑬ 樂器에 있어서도 中國音樂이나 東北巫의 影響이 컸으나 이미 新羅의 玉宝高나 가야금, 玄樂琴이 나왔으니 이는 晉의 七絃琴을 改良한 것이다.

⑭ 東國通鑑은 資治通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면서도 韓國史를 정리한 것은 三國史記의 模倣型에 比하여 훨씬 獨創性이 있다.

⑮ 外來文化와의 접촉은 놀라움과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新文學의 경우에도 新小說이 在來文學에 대한 恣意的인 蔑시와 卑下感에

서 西歐文學의 思潮나 手法에 더 影響을 받았지만 이 時期의 교량적인 役割은 어느 時期나 어느 分野를 막론하고 거 쳐야 할 過度期이다.

⑯ 文化의 研究에서 外來文化와의 接觸에서부터 民族文化로 融解되기까지의 時間的 거리와 融解劑가 된 傳統的 要素를 찾아내어야 한다.

⑰ 民主主義가 西歐的인 것이기는 하나 民族的 價値가 어떤 形態로든지 受容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機械文明에 있어서도 取捨 選擇에 優先順位를 決定하는 것이 價値觀이다.

⑱ 外來文化는 傳統文化로 昇華될 수 있고 民族文化發展에 促進이 될 수 있으나 잘 못 導入할때는 破壤, 混亂을 일으켜 創造를 沮害할 수도 있다.

⑲ 韓國文化는 시베리아文化에서 요람기를 보내고 漢文化圈에서 배우고 印度文化圈에서 成就하여 李朝社會에서 民族化하고 20世紀에 世界潮流와 合쳐 나갔다.

⑳ 佛敎와 土俗信仰이 合致된 要素는 無限模想力의 神秘的 性格이 共通하였기 때문이다.

㉑ 儒敎의 主知主義的 政治文化는 政治制度, 形式敎育, 文字를 통한 疏通등으로 精神文化이기 보다는 知性文化(倫理的, 規範的)로서 받아 들여졌다.

㉒ 고려는 佛敎, 李朝는 儒敎가 아니라 新羅이후 現世까지의 佛敎와 儒敎는 共存하여 왔으며 다만 時代가 받아들이는 態勢에 따라 비중이 달랐을 뿐이다.

㉓ 시베리아文化(北方文化)는 주로 生存에 影響을 주어 民衆生活속에 潛在해 들어갔으며 食器, 衣裳, 木刻工藝, 家屋構造 등에

깃들여 있다.

㉔ 東洋文化의 二大主流와 시베리아文化와의 融合이 이루어진 李朝의 文化위에 海洋文化가 들어왔다. 淸과 日本을 통하여 西洋의 物質文明을 받아들여 經濟面에 着眼하려는데 日帝侵略을 당한 것이다.

㉕ 西歐文化의 빠르고 강한 영향력은 傳統文化와의 葛藤이 심한 것으로 당황하고 있으나 儒學이 新羅이후에 徐徐히 들어와서 李朝에 土着化한 것에 比하면 李朝中期부터 접촉이 시작되어 旧韓末에 강하여졌다가 다시 解放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㉖ 경계해야 할 것은 西歐文明이 日帝以後 日本의 여과작용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이다. 日本이 選擇한 西歐文化를 배운 旧世代가 그것이 마치 우리의 傳統社會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㉗ 西歐文明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儒敎式일때 倫理的 規範的 新價值로 받아들이려고 하며, 基督教을 잘못 받아들이면 佛敎나 儒敎까지도 迷信으로 돌려버리지만 巫俗의 本質도 迷信은 아니다.

㉘ 西洋文化를 技術文化로 斷定하여 버리고 東洋文化를 精神文化로 규정하는데서 오는 오해도 없어야 한다. 利用厚生이나 實事求是는 東洋의 전통에도 있으며 合理的 思考는 西歐가 近代化의 武器로 사용한 한 樣式이 없음을 이해할 必要가 있다.

㉙ 日本은 韓國統治에서 自國의 固有한 것을 強要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西歐文明을 강요한 것에 不過하다.

㉚ 現在속에도 日本文化가 西歐의 탈을 쓰고 스며들어오는 것은 防禦해야할 必要는 아직 남아있다.

㉛ 韓國文化가 家族倫理를 바탕으로 精神史를 전개시켜 왔다는데는

異論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大家族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依存度나 坐食層의 發生, 門閥意識등을 들어 大家族制를 나쁜 習性이라고 斷罪할 수는 없다. 韓國의 老人들이 他民族에 比하여 얼마나 幸福한가도 중요한 일이며 大家族안의 人間關係 訓練이 일종의 政治訓練이나 教育機能이었음도 지나칠 수 없는 일의 하나이다.

㉔ 韓國의 가족제도는 중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었는데 日本이 자기의 民法를 적용하게 되면서 傳統에 혼선이 왔으며 同姓同本の 不婚이나 女性이 結婚후에도 冥家姓을 유지하는 風習이 없어지지 않는 것등 現속까지 남아 있는 文化受容의 態度중에 두드러진 例이다.

Ⅲ - 4. 指導上的 留意点

① 文化理論에 대한 基礎知識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 文化의 定義, 概念, 內容에서부터 接交, 創造에 關한 抽象的 理論이 있어야 民族文化의 具體的 事實을 說明할 수 있다.

② 지나친 國粹主義나 反對로 自己卑下를 막기 위하여 科學的인 說明과 同時에 많은 資料를 수집하여야 하며 年代順이나 分類史的 接近보다는 文化價值의 要因別로 分析, 綜合, 評價하는 方法을 취해야 할 것이다.

③ 되도록 많은 視覺的 聽覺的 資料를 준비하는 한편 既刊書籍을 分類하여 읽기 資料를 提供하여주는 計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④ 文化속에서 人間性을 除外하고 造形文化위주로 다루는 方法은 不當하다. 心理學的 社會學的인 協助를 얻어 民族文化의 本性을 探究하는데 人接學問이 가능한 한 많이 動員되어야 할것이다.

⑤ 精神文化의 發掘은 哲學者나 宗教家들에 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民衆의 日常生活 속에 숨겨진 思考方式에 더 많이 있음을 인식하고 言語, 風習등에 關心을 기울이도록 이끌어 준다.

⑥ 民族文化에 대한 善惡判斷은 政治史의 경우와 같이 排除시켜야 한다. 韓國民이 依存度가 높다는데 대한 原因과 結果는 있을 수 있어도 惡으로만 斷定하기 어렵고 核家族이 無視되어가는 것도 大家族制에 모든 責任을 전가시킬 수도 없음을 알아야겠다.

⑦ 外來文化를 鑿解시키는 能力이 他民族에 우세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도 우리民族에 特有한 것은 아니며, 多角度인 面에서 이 傳統을 더 살리자는 意圖에서 내세운 것이다.

⑧ 外來文化를 無條件 崇尚하는 習性은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다. 自主的인 文化導入을 위한 訓練은 當分간 注力하여야 할 課題이며 그 教材는 傳統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第 3 章 韓 國 的 正 統 性

〈 章 前 文 〉

國家觀의 올바른 育成은 傳統文化의 認識과 國際社會속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國家觀은 하나의 政治意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個人과 共同體로서의 國家와의 一致感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것을 近代民主主義的인 社會에서만 成立하는 意識構造가 아니라 過去의 歷史를 통하여 國家危機에 나타났던 民族의 試練克服過程에서 여러가지 形態의 例를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일은 韓國의 傳統이 社會主義選好型이 아니며 民主指向型이라는 認識이다. 政治的으로나 文化的으로 北韓의 政治集團은 傳統을 繼承한 社會도 아니며 그들의 政治的 目的도 民族文化와는 상치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反共의 隊列은 武器를 들고 싸우는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精神的 姿勢와 民族의 正統性이 大韓民國에 있다는 自信을 知識을 通하여 確固하게 갖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國際的 位置는 국제연합을 비롯하여 自由障當은 勿論 中立國까지도 우리의 正統性을 인정하였다. 근래에 와서 北韓集團의 宣傳공세로 인하여 이러한 國際的 正統性에 대한 動요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을 지키는 길은 韓國의 正統性을 理解함과 同時에 이를 内外에 전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것만이 國家觀을 바로잡는 길임을 명심하도록 가르쳐야 겠다.

I. 文化的 正統性

① 傳統文化를 繼承한 것은 大韓民國이지 北韓集團들이 아니다. 北韓에서는 우리의 美風良俗을 破壞하고 全体主義的 統治方法을 使用하기에 편리하도록 꾸몄다.

② 個人의 神格化나 唯物論을 위하여 우리들의 祖上崇拜思想을 파괴하였다.

③ 固有한 信仰의 기반위에 外來宗教를 받아들여 土着化시키는 民族文化의 特性에 이해 一部 共產圈의 制度를 直輸入하여 그대로 適用하는 것은 傳統에 위배되는 일이다.

④ 孝의 思想이 倫理의 基本이 되어있는 民族文化를 否定하고 社會構成員으로서의 役割만을 강조하는 것은 既存 秩序나 道德規範을 무시하는 일이다.

⑤ 家族制度의 좋은 점이나 家庭의 愛情이 西洋에 比하여 優越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集團農場, 幼兒의 集團收容과 같은 施設의 強要는 勞動力을 利用하는 手段으로서 지나치게 人間性을 無視하는 일이다.

⑥ 胎敎로부터 父母의 敎育을 시작하라는 傳統文化를 저버리고 幼兒때 부터 全体主義思想을 注入하는 것은 人間기계를 만드는 政策이다.

⑦ 韓國의 文化는 精神文化에 있어서나 藝術에 있어서 民族文化를 繼承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民俗舞踊, 宗教의 自由, 祭祀等 美風良俗을 길러 가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民族文化보다는 政治理念을 注入시키는 文化政策을 쓰고 있다.

⑧ 平和를 사랑하는 民族에게 戰爭을 위한 準備에 모든 희생을

강요하는 北韓은 民族性을 바꾸어 놓으려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II. 政治的 正統性

① 韓民族은 社會主義化의 可能性이 적은 文化傳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歷史속에서 찾을 수 있다.

② 歷代의 政治理念이 民本主義로 一貫하였고 福祉社會를 위하여 各時代 나뉠대로의 노력을 기우렸다. 寶, 倉, 院, 局 등의 이름이 붙은 여러제도는 恤民政策을 위한 機關들이다.

③ 王室의 權限을 견제하는 機關을 적절하게 設置하여 專制정치를 예방하였고 理想的 政治는 德治主義이었다.

④ 民衆의 輿論을 듣고자 하는 制度와 좋은 人材를 登用하려는 方法의 모색에서 各時代가 노력한 흔적이 많다.

⑤ 專制政治에 대한 民衆의 反抗의식도 높았고 民亂이나 義拳은 곧 政治에 반영되었다.

⑥ 不義에 대한 信念은 死六臣과 같은 古事로 상징될 것이다.

⑦ 이러한 例들은 韓國의 政治史가 階級斗争史가 아니었음을 말하여주는 것이며 사랑으로 和親하며 不義에 용감하였다는 民族性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⑧ 韓國의 政治的 正統性은 民主主義指向性이었다는데서 北韓이 民族의 繼承者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⑨ 우리民族이 超階級的 民族國家를 건설하여 왔음은 對漢, 對唐, 對女眞, 對蒙古, 倭亂, 胡亂, 斥邪운동, 抗日운동등 對外斗争史를 통하여 超階級性 抗争으로 나타났다.

Ⅲ. 國際的 正統性

① 國際社會에 등장한 것은 民族統一 國家를 세운 新羅統一 때의 對唐外交에서 부터이며 唐세력 구축으로 政治的 獨立을 確保하였다.

② 고려시대의 國際的 地位는 宋, 女眞, 金과의 外交關係가 순조로웠으나 蒙古세력에 강한 干涉을 한때 받았으며 공민왕의 정책이 自主性을 회복시켰다.

③ 朝鮮의 事大外交는 屈辱的인 것이기 보다는 平和유치책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時間이 흐름에 따라 中國依存의 態度로 변한 것은 잘못이다.

④ 事大外交의 効果는 四郡六鎮의 회복, 民族文化의 성숙등 初期를 장식 하였으나 儒學과 黨爭이 심하여 자면서 民族精神에 龜裂이 가기 시작하였다.

⑤ 對明外交가 事大主義로 흐르자 國際的 眼目이 不足하여 對倭政策이 不充分하였으니 高麗朝와 李朝初에 比하여 國際社會속의 자기를 찾지못하였기 때문이다.

⑥ 對淸外交에 있어서도 事大主義를 계속 維持하여 나갔으나 이것은 外交政策이었지 宗主國의 關係는 아니었던 것이다.

⑦ 19世紀에 들어와서 日本과의 開港부터 歐美諸國과의 通商條約에서 國家的目標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동하였던 점을 볼 수있다.

⑧ 國際情勢에 어두웠던 原因은 對淸一辺倒의 文化導入이었다는데 있으며 淸에 대한 過信도 作用하였다.

⑨ 大院君의 鎖國政策에만 그 責任을 돌릴것이 아니라 國內의 權力싸움이 日, 淸, 露三國과의 外交와 더불어 展開되었음을 批判하

여야 한다.

⑩ 韓日合併의 國際政治史的 解釈을 加함으로서 淸, 露와 그 背後에 있었던 英, 仏, 美의 態度도 같이 생각함으로서 自主性 教育을 강화시켜야 한다.

⑪ 어떤 努力이 不足하여 乙巳條約이 일어났던가를 생각할 때 歸着되는 것은 政治指導者들의 國際的眼目과 自主精神이다.

⑫ 海牙密使의 파견은 國際社會에 韓國의 主權을 呼訴하는 方法이었다.

⑬ 三一運動이후 大韓民國 臨時정부의 수립은 近代式 共和政治를 亡命政府로서 實施한 의미를 갖는다.

⑭ 巴里講和會議에 金奎植을 派遣한 것은 國際的 地位를 確保하려는 方法이었다.

⑮ 1944年에 프랑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이듬해 2月에 임시정부는 독일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는 것은 光復軍의 抗日투쟁과 더불어 外交活動이 있었기에 우리가 解放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⑯ 8.15解放은 聯合軍이 勝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民族文化와 民族精神을 간직하여 온 國民들과 國際무대에서 활약한 지도자들의 功勞가 있었기 때문이다.

⑰ 三八線으로 南北이 갈리고 北韓이 共產勢力下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大韓民國을 국제연합이 1948年 12月 唯一合法政府로 승인하였다는 것은 外交的 勝利이며 韓國의 正統性을 인정한 것이다.

⑱ 1948年 5月 10日의 制憲國會에서 以北을 위한 議席을 남겨두고 以北 五道庁을 두고 있는 것도 韓國의 主權下에 統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IV. 國家觀의 定立

- ①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였을 당시에서부터 國家意識이 成立할 때까지는 상당한 時間이 걸렸고 그 變化過程이 있었다.
- ② 우리나라의 國家意識은 單一民族이라는 共同體意識이 속히 形成될 수 있었던 有利한 점이 있었다.
- ③ 血緣共同體意識에서 文化共同體의식으로 進展하는 과정을 歷史속에서 찾아야 한다.
- ④ 統一新羅의 官制나 身分制속에는 政治組織을 갖추어감으로서 國家形態를 정비하여나가는 民族의 固有性이 있다.
- ⑤ 貴族의 共同支配體制의 性格이 강하였던 고려시대에는 王의 專制 權力을 견제하기 보다는 統治方法에 더 노력하였다.
- ⑥ 花郎과 같은 身分이나 花郎精神은 國家를 意識하고 孝보다 忠을 世俗五戒에서 앞세우는 價值觀을 갖게 되었고 이 정신이 고려 때 까지 계승하였다.
- ⑦ 高麗시대에 建國神話를 새롭게 인식하여 民話나 說話를 體系化시켜 民族意識을 形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⑧ 檀君神話와 三國의 建國神話와의 연관성을 갖게 된 것은 金, 蒙古와 같은 外勢의 侵入에 대한 民族意識이 國家觀을 定立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文化創造이다.
- ⑨ 朝鮮時代에도 東國通鑑과 같은 책은 本國史를 더 중히 여기자는 의도에서 나왔으며 內容에 檀君神話를 기재하였고 童蒙先覺이라는 教材에도 수록하였다.
- ⑩ 朝鮮朝에 있어서도 國家觀의 定立을 위하여 初期에는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泰平時가 지속하자 國家觀이 衰하여지고 社會規範

의 形式化로 기우러졌다.

⑪ 朱子學에도 國家意識이 없는 것이 아니다. 朱子學 자체가 宋이 塞外民族에 시달림을 받을 때 大義名分과 王道를 연구하는 學問이었기에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한것이 趙光祖이다.

⑫ 朱子學理論속에 있는 排佛論을 이용한 권근, 정도전이 있는가 하면 宇宙論에 기우러진 中期의 學風과 后期에 禮學으로 기우러졌기 때문에 國家主義에 대한 貢獻度가 弱化하였다.

⑬ 實學의 國家意識이 政治學的으로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朱子學의 낡은 것을 버리고 經濟뿐 아니라 地理 歷史 科學 產業등 것이 모든 方面에 關心을 갖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⑭ 朝鮮時代의 經典大全以來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의 법전편찬은 法治國家로의 면모를 갖추는데 대한 爲政者들의 노력이었다.

⑮ 近代의 國家主義는 國際舞臺에 등장하면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急激한 變化에 대처하는 國民의 態度가 어떠하여야겠는가를 배울 敎材가 十九世紀史이다.

⑯ 처음 反應은 鎖國主義로 나타났다.

大院君의 정책의 可否는 고사하고 全國民이 이에 呼應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⑰ 다음 開化主義者의 出現이다. 外國의 文物을 受容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政權慾과 결부된 사람과 國家的立場에 선 사람과를 区分할 수 있다.

⑱ 斥邪派들의 主張은 단순히 保守主義者로만 볼 것이 아니라 政權慾이 적고 傳統的이면서도 改革에는 反對하지 않는 立場이었다.

⑲ 東學思想은 民衆들의 呼應을 받은 運動이다. 兩班出身의 開化나 斥邪와는 달리 社會改革을 부르짖는 部類들이 固有한 宗教의

형태를 나타냈다.

㉑ 이 三者는 모두가 새 時代를 느끼고는 있지만 見解와 立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對立 또는 反目하였다. 이들이 外勢에 迎奉한 것이 아니라 外勢가 이 變化를 利用하려는 것에 대하여 警戒하지 못한 것이 禍根이다.

㉒ 獨立協會는 西歐式 近代國家를 꿈꾸던 人們으로서 近代化方法이 또 다르기는 하지만 自主性을 강조하는 立場은 開化나 事大의 派黨보다 강하다는 점이 東學과 비슷하다.

㉓ 日帝는 半世紀쯤 앞서 近代化作業을 시작하였음에도 不拘하고 韓國을 植民地化할 수 있을 정도로 国力을 길렀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깊은 인식을 갖어야 한다. 그들이 敗戰國이면서 미국과 經濟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와도 비교할 수 있어야겠다.

㉔ 日帝時代를 통하여 國家意識이 조금도 減少한 것이 아니라는 自負와 꾸준한 抗爭 臨時政府의 수립 등은 他民族에 비해 우수하다.

㉕ 國土兩斷을 他律에 의하여 당하였으나 統一에의 念願으로 이를 克服하는 努力을 계속하여 왔다. 6. 25 이후 또다시 새로운 國際社會에 대한 識見을 必要로 하는 時代가 되었다.

㉖ 共產圈의 多元化, 中立國勢力의 增大, 冷戰樣相의 變化, 平和무드속의 경쟁 등에 대하여 韓國의 立場도 날로 변하고 있다.

㉗ 이 시대는 國家主義時代로 國際間의 경쟁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國家優先임을 관찰할 수 있다.

㉘ 國家優先主義의 이유는 個人生活이 國力和 直結되어 있기 때문에 個人과 國家와의 關係가 過去와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㉙ 個人이 共同體(民族, 國家) 속에 살고 있지 않으면 그 保護

를 잃게 된다는 사실은 곧 生命을 잃는 것과 같다.

㉔ 個人的 權利와 義務는 國家社會와의 調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個人과 國家와의 正當한 關係를 理解하여야 한다.

V. 指導上의 留意點

① 北韓보다 우리가 歷史의 繼承者라는 正統性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는 知識만 依存하지 말고 知識의 內面化를 서두르는 方法을 찾아야 한다.

② 民主主義의 優越性은 알고 있지만 民主主義가 우리의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民主主義를 잘못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③ 歷史를 美化하지 않고 過去의 欠陷도 솔직히 引用하는 태도가 오히려 學生들에게 說得力이 있다.

④ 대부분의 學生들은 共產社會를 嫌惡하는 體質이 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教師는 이에 放心하지 말고 家庭教育에서의 反共教育和 學校에서의 反共이 어떻게 方法上 달라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⑤ 韓國의 正統性은 政治, 文化뿐 아니라 人間性을 중요시 한다는 점을 매사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⑥ 이미 다른 教科에서 배운 知識을 여기서 應用할 수 있는 指導計劃을 짜야 한다. 學習形態도 생각하고 判斷할 여유를 주며 問答, 討論이 더 많아야겠다.

⑦ 學生들의 이야기나 發表內容이 아무리 유치하거나 잘못된 것이라도 진지하게 문제삼아주어야만 教育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知識의 注入을 위한 講演調의 학습은 극력 피해야 한다.

⑧ 教師가 新념이 없이 授業技術에만 의존하는 것도 옳치 않다. 선생님의 소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어린이들의 感性에 호소하는 것도 좋은 方法의 하나이다.

⑨ 教科書이 외의 內容을 미리 준비하여 두어서 어떤 質問에라도 直刻 응답할 수 있는 對策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 第 2 部 —

民主主義政治理念と 體制

.....

..... 紀念冊 目次

.....

..... 目錄

.....

目 標

1. 民主主義 基本理念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
2. 理念具現過程 및 体制의 多樣性에 대한 意義 理解
3. 우리 民族正統性에 依한 民主的 成長過程 理解
4. 韓國 民主發展을 為한 建設的, 創造的 生活能力 培養

概 要

題 目	內 容	強 調 點
I. 民主主義의 基本理念 1. 基本理念 2. 基本條件 3. 民主政治原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間의 尊嚴性과 個人의 最善我實現에 最高價値賦與. • 自由, 平等, 個性尊重, 社會的 責任과 協同의 調和 • 個人의 自決的 能力, 國家權力의 國民歸屬, 國民에 依한 政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存하는 理念體制中 民主主義가 最善의 것임을 강조 • 理念과 理念具現을 위한 條件과의 명확한 区分
II. 民主主義의 成長過程과 政治體制 1. 成長過程 2. 政治體制 3. 多樣性 4. 最近의 傾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메네의 代議的統治體制, 로마法, 自然法, 英國大憲章, 近世人權運動, 美國의 獨立, 불란서革命, UN人權宣言 • 代議制度, 立憲制度, 三權分立, 選舉制度, 複數政黨 • 英國의 議員內閣制, 美國大統領中心制, 仏蘭西大統領優位制 • 專門化, 權限의 集中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理念具現을 為한 民主主義는 항시 努力過程이고 未 完成 • 理念具現을 위한 體制, 制度의 다양성
III. 韓國民主主義의 成長過程 1. 政治文化的背景 2. 成長阻害要素 3. 發展을 위한 課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種族評議會, 和尙制度, 群公會議, 國相制度, 都克制, 議政府, 開化期民權運動 • 形式置重, 初期政治의 混亂, 主體性 欠如, 制度의 欠陥 • 새로운 政治體制摸索: 10월維新, 民族主體性確立, 國民總和, 經濟發展, 國力培養, 能動的 參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民主主義發展을 위한 個人的, 組織的 努力의 必要性
IV. 民主主義生活樣式과 態度 1.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 2. 民主的 人間型 3. 葛藤의 民主的 解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道主義, 個性尊重, 公開社會, 多元的社會, 合理性和 集團知優位社會, • 自律性, 創意性, 協同性, 科學的 實踐의 態度, 社會的 責任感 • 異論認定, 妥協, 合理的 科學的 解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主的 生活樣式의 意義와 그 實踐의 重要性

序 說

第2部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体制”에서 의도하는 教育的 目的은 우리 나라의 理念的 바탕인 民主主義가 現存하는 모든 政治理念과 体制 중 最善의 것이라는 信念을 갖게 하고 理念 具現을 위한 우리의 現實的 努力過程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建設的이고 創意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能力과 姿勢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것을 모르고 남의 것을 批判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것의 자랑스러운 점을 모르고 남의 모순을 올바르게 批判할 수는 없을 것이다. 共產主義의 矛盾과 北韓實情의 矛盾을 批判할 수 있는 能力과 對共 내지 對北韓 警戒心을 육성하기에 앞서 우리의 理念的 바탕과 現實, 그리고 未來像을 이해하고 이에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部가 의도하는 目標을 보다 具體的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存하는 모든 政治理念과 体制 중 民主主義가 最善의 것임을 理解시키고,

둘째,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여러 나라들의 努力過程과 理念 具現을 위한 다양한 制度的 形態의 意味를 理解하여,

셋째, 우리 나라의 民主主義 成長過程에 나타난 試行錯誤를 파악하여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우리의 現實的 努力過程의 意義와 重要性을 理解하도록 하며,

넷째, 이 같은 우리의 現實的 努力過程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建設的이고 創意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能力과 姿勢를 갖게 하며

다섯째, 우리의 理念과 体制, 그리고 우리의 努力을 沮害하고 위협하는 共產主義와 北韓을 비판할 수 있는 能力의 기반을 굳게한다.

이러한 本部가 의도하는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選定되어야 할 教育內容은 먼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 등을 포함하는 民主主義의 政治理念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西歐社會에 있어서의 努力過程을 이해하기 위하여 西洋史에 나타난 重要 運動의 의미를 時代別로 간략히 취급하고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最善의 政治 體制와 制度들을 소개하면서 이들 體制와 制度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內容들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強調되어야 할 것은 여러 自由, 民主國家들이 각기 그들의 實情에 맞도록 採擇되고 運營되는 다양한 形態의 政治制度를 소개하면서 理念 具現을 위한 方法과 手段은 다양할 수 있다는 事實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여기에서는 理念과 그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條件과 方法을 구분하여 提示하고 理念 具現을 위한 方法으로서 構案된 다양한 制度는 그 나라의 文化的, 社會的, 그리고 經濟的 條件에 따라 다른 制度의 形態를 택할 수 있다는 점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그 理念 具現을 위한 努力過程과 그리고 理念 具現을 위한 다양한 制度의 形態들을 이해한 다음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努力過程을 이해하는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政治文化的 背景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여기서 第1部에 취급된 內容의 重要 골자를 다시 간추려 提示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의 傳統이 西歐的인 의미의 民主主義와는 다르지만 民主主義를 受容하고 調和를 이룰 수 있는 可能性은 많았고 共產主義를 受容할 수 있는 政治文化傳統은 아니었다는 事實을 實證的인 例를 제시하면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政治文化的 傳統이 共產主義的 要素보다는 民主的 要素가 더 많았다 하더라도 西歐的 民主主義를 受容하고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 적지 않은 沮害要素가 있었음을 建國以來 시도한 民主主義의 試行錯誤過程에 나타난 事例를 통하여 상기시키고 우리나라에서의 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課題와 現實的 條件을 이해시켜 새로이 시도하는 國民的 努力의 意義와 重要性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民主主義는 비단 政治理念 내지 政治體制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社會生活 내지 個人生活의 한 樣式으로서도 중요한 意味를 갖는 점을 이해시켜 生活樣式과 生活態度에 있어서 個人的 責任을 다하는 能力과 態度를 육성하는 教育的 課題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民主主義는 完全無欠하게 만들어진 既成品이 아니며 계속 가꾸어 키워가는 未來 完成的인 理念임을 이해시켜 당면하는 問題와 矛盾, 그리고 葛藤을 建設的이고 科學的이고 創意的으로 해결해가는 努力의 重要性을 인식키면서 우리가 志向하는 民主主義 理念 具現과 당면한 民族的, 國家的 目標를 달성하려는 努力過程에 能動的이고, 建設的이고, 創意的으로 참여할 수 있는 能力과 態度를 갖도록 하는 教育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에 略述한 目標와 強調點을 토대로 內容이 選定되고 4 個章으로 나누어 組織되었다.

第 1 章 民主主義 政治理念

〈 章 前 文 〉

本部の 첫째章인 本章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그 理念 具現을 위한 基本條件을 이해하여 現存하는 모든 理念과 體制 중 民主主義가 最善의 것이라는 信念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한 本章의 目標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人間의 尊嚴性和 最善我의 實現에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이해한다.

둘째, 民主主義 理念 具現을 위한 必要不可欠한 基本要件으로서의 自由, 平等, 人權 및 個性의 尊重의 意味를 이해하고 이들 條件의 調和를 위한 制度的 措施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이해한다.

셋째, 民主政治制度의 수립을 위한 理念的 바탕을 이해하고 共產主義本質과의 비교와 검토를 통하여 民主主義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을 갖게 한다.

이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급되어야 할 內容은 첫째, 人間의 尊嚴性和 最善我實現에 最高의 가치를 부여하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둘째, 民主主義 基本理念의 具現을 위한 必要不可欠한 基本條件들인 自由, 平等, 人權, 個性尊重, 協同, 責任등의 概念과 이들 기본조건을 調和롭게 形成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的 措施, 그리고 셋째, 民主政治의 理念的 想定인 個人的 自決의 能力, 國家權力의 國民歸屬, 法治主義, 政府의 爲民의 良心에 의한 制度的 運營, 權力을 위임받은 公務員의 責任과 義務등이다. 여기에 제시한 內容들을 설명함에 있어 共產主義의 특성인 真理의 絶對性, 平等의 絶對性和 個人的 自由와 個性의 無視, 國家權力의 絶對性들을 비교

하면서 民主主義의 우월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內容에 포함되는 概念들을 간결히 규정지워주어야 할 것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개념들이 갖는 意義를 多角度로 밝혀주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具體적인 實例를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前提로 本章의 內容이 定立될 것이며 선정된 內容들의 보충설명이 가해질 것이다. 그리고 먼저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民主主義의 本質을 무엇으로 규정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그말은 民主主義의 本質을 규명하는 것은 本章의 內容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章들에서 취급되고 있는 內容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本質을 규정하는 範圍를 미리 지적해두는 것은 혼돈을 피하고 그리고 본장에서 취급되는 內容의 위치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된다. 이에 제시한바와 같이 本章에서 취급될 內容들은 3個의 節로 나누어 설명될 것이며 各節에 포함되는 內容을 다시 細分化하여 內容의 提示 順序에 따라 번호를 부치게 될 것이다.

I . 民主主義의 基本理念

I - 1 . 民主主義의 本質

民主主義의 本質은 民主主義의 理念的 바탕이 되고 있는 人間의 尊嚴性和 個人의 最善我實現에 대한 基本信念과 그 信念을 具現하기 위한 統治体制과의 結合으로 規定된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全 輪廓을 밝히기 위해서는 本章에서 취급되는 모든 內容과 다음 章에서 취급되는 모든 內容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편의상 理念을 具現하기 위하여 만든 統治体制은 다음章에서 취급하기로 하고 本章에서는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을 규명하기로 한다는 要旨를 여기서 強調해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위하여 만든 統治体制 내지 모든 制度의 正当성과 妥當性 與否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가장 잘 具現시킬 수 있는 것이냐로 규정되는 것임을 밝히고 理念과 体制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고 그 具體적인 內容을 뒤에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民主主義가 서고 있는 基本的인 理念的 바탕과 그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手段 내지 條件과의 区分을 분명히 하고 그 關係를 명확히 理解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과 諸 形態를 体系 있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民主主義는 西歐文化史 全体를 통하여 여러가지 意味와 形態로 나타나게 되었으나 (民主主義 成長過程의 發達史的 考察은 뒤에 따로 취급할 것임을 지적해 두어야 할 것임) 변함없이 흘러온 理念的 바탕은 人間의 價値를 向上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념적 바탕은 변함이 없었으나 理念이 갖는 뜻의 精化와 그 理念의 具現을 위한 條件의 改善을 위해서 계속적인 努力을 傾注해 왔기 때문에 民主主義는 다양한 의미의 價値, 概念, 理論, 体制, 制度 등으로 해석되어 民主主義의 本質을 간결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 내지 基本理念을 이해하고 다양하게 설명되는 民主主義와 관련된 모든 下位價値, 概念, 理論, 体制, 制度 등이 基本理念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体系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될 것이다.

I - 2 民主主義의 定義

I - 1 과 관계있는 문제로서 "民主主義" 라는 概念을 定義지우는 것은 民主主義의 本質을 규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된다. 그러나 民主主義를 어떻게 定義하는 것인지의 의문은 흔히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民主主義의 全 輪廓을 밝히는 문제를 취급하기 전에 定義를 간결히 밝히는 것도 体系있는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民主主義의 本質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民主主義라는 概念의 定義도 民主主義의 理念과 그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統治体制과의 종합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인용되는 취질로서 "國民을 위한, 國民에 의한, 그리고 國民의 政府形態" 를 民主主義라고 정의한다. 이같은 정의를 인용하여 民主主義의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나 民主主義의 本質을 밝히기에는 부족한 정의이다.

Henry B. Mayo가 그의 著書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N.Y.: Oxford Univ. Press, 1960, PP. 260-263)에서 여러 定義를 종합하여 내린 정의를 소개 해 둔다.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을 具現하기 위한 社會生活의 原理 내지 政府形態"

이 定義를 해석함에 유의해야 할 점은 民主主義의 理念的 바탕과 그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條件과의 区分이다.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은 人間의 尊嚴性을 믿는 信念이며 나아가 民主主義가 指向하는 理念 내지 中核의 目的은 人間의 價值와 尊嚴性에 대한 信念을 具現하고 人間 各自의 固有의 自我를 最大限으로 實現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定義에서 명시하고 있는 社會生活의 原理와 政府形態

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수단 내지 條件이다.

이렇게 理念과 그 理念 具現을 위한 條件과의 종합으로 民主主義의 本質은 규정되며 "民主主義"라는 概念의 定義도 규정된다.

이렇게 民主主義의 本質은 그 바탕되는 理念과 그 理念具現을 위한 條件과의 結合으로 규정되는 것임을 이해시켜 理念具現을 위한 條件으로서의 政治形態나 經濟體制등의 制度는 時代에 따라 혹은 文化的 傳統과 社会的 條件을 달리하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事實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形態의 政治體制가 가장 좋을 것이냐의 문제는 의문으로 남긴채 먼저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을 규명하는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I - 3 人間의 尊嚴性和 最善我實現에 대한 信念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은 人間 個人的 尊嚴성을 믿는 信念에 있음을 앞서 지적한바 있다. 이들 개념들의 뜻을 밝혀 둔다.

人間의 尊嚴성에 대한 信念의 가장 核心的인 要旨는 個人的 存在價值를 무엇보다 가장 귀중하게 여기며 個人的 最善我實現과 福祉를 最高의 目標로 여기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人間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을 위하여 使用되는 手段으로 취급된다.

人間의 尊嚴성에 대한 信念이란 人間을 모든 것의 地位에 두고 目的으로 대접을 받으며 다른 어떠한 目的을 위해 人間을 手段으로 使用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人間이 目的으로 대접을 받고 人間의 尊嚴성을 最高의 價值로 소중히 여긴다는 뜻은 人間을 神主처럼 단상에 모시고 무슨 보물처럼 창고나 금고속에 잘

간수하여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眞意는 個人이 갖는 固有의 個性을 尊重히 여기고 그가 가진 能力과 成長 可能性을 最大限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밖으로 부터의 무리한 拘束이나 억압, 그리고 制裁를 가함이 없는 自由로운 風土와 機會를 提供하여 各個人으로 하여금 그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價値있는 活動과 生活를 통해 각자의 最善我突現을 可能하도록 모든 与件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I - 4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그 下位價値

民主主義는 人間의 尊嚴性和 最善我突現에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그 最高價値들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려 했다. 여기에서는 이 最高價値를 토대로 여러가지 下位價値들이 定立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民主主義가 갖는 下位價値들을 이해하는 것은 人間의 尊嚴性和 最善我突現에 최고가치를 부여하는 民主主義의 기본이념을 体系的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民主主義가 갖는 下位價値들의 개별적인 해석과 아울러 이들 下位價値들과 最高價値와의 關係성을 지워주는 일도 중요하다.

民主主義가 부여하는 最高價値를 토대로 定立되는 下位價値란, 人間의 目的性, 人間本質의 性善說, 眞理의 相對性, 自由와 平等, 그리고 人間의 基本權利, 個性尊重, 最善我突現을 위한 自決的 能力에 대한 信念, 成長可能性에 대한 信念, 知性優位와 合理性, 그리고 集團知優位에 대한 信念, 人道主義와 道義的 責任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모든 價値는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을 규정하는 概念들이기도 하나 이들 價値를 下位價値라고 하는 까닭은 民主主義의

基本的이고 最高價值인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에서 파생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들 모든 下位價値는 人間의 尊嚴性和 最善我實現이라는 基本價値를 보다 具體的으로 표현한 概念들이기 때문에 이들 下位價値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民主主義가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는 人間의 尊嚴性和 最善我實現의 意味를 具體的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民主主義의 最高價値와 下位價値들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먼저 일괄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즉 人間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人間을 모든 것의 優位에 두는 目的으로 삼으며 다른 어떠한 目的을 위해 人間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인간의 本質을 善한 것으로 믿으며, 각개인은 자기나름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能力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개인의 成長과 思考와 活動에 외부로 부터의 부당한 抑圧이 가해져서는 안되는 것으로 믿어 自由와 平等, 그리고 人間의 基本權利를 허용하고 장려하려 한다. 또한 人間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人間을 理性的 存在로 믿으며 개인의 知的 成長可能性을 장려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의하여 設定된 真理의 絶對性을 부인하고 真理의 相對性의 장점을 믿는다. 따라서 모든 個人의 知性和 合理的 理性을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發展을 가능케 하는 創意的인 真理의 探索의 노력을 장려하여 知的 活動의 自由를 권장하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集團知의 優越性을 받아들인다. 또한 인간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人道主義와 人間愛를 권장하며 他人을 귀중히 여기는 道義的 責任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 人間の 目的性: 人間の 尊嚴性と 最善我實現에 最高の 價値를 부여하는 民主主義 基本理念과 가장 밀접한 關係를 갖는 重要 개념의 하나가 人間の 目的性이다. 民主主義는 인간을 무엇 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人間の 尊嚴性에 대한 信念이란 바로 인간을 모든것의 優位에 두고 目的으로 대접을 받으며 다른 어떠한 目的을 위해 인간을 手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2)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本質과의 比較: 人間の 尊嚴性에 대한 信念과 人間の 目的性 如何로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本質을 比較할 수 있다.

民主主義는 인간을 目的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反面, 共產主義는 인간을 手段으로 취급한다. 그들이 指向하는 ideology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을 手段으로 사용한다. 共產國家에서의 개인은 國家라는 큰 기계에 따라 마치 못해 돌아가는 部分品에 지나지 않으며 黨이나 獨制者의 내키는 생각에 따라 죽고 사는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少數人으로 구성된 黨이나 혹은 몇몇 집권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目的은 國家的 全體的 利益이라고 하지만 기실 그것은 내세우는 名分에 지나지 않으며, 그 國家的 利益 내지 全體的 利益이란 소수 집권자들이 원하는 利益이며 그들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全國民을 手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共產國家에서 國民個人은 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의 구실만을 담당하는 것이며 人間 個人이 主人으로서의 대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自我實現을 위한 자기 價値에 따

른 幸福을 追求할 自由나 개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活動을 할 수 있는 自由란 전혀 허용되지 못한다.

-3) 自由와 平等: 自由와 平等이라는 개념으로 人間의 尊嚴性을 설명하면, 自由로운 思考와 活動이 허용되지 못하는 곳에 人間의 尊嚴性이 인정될 수 없고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努力이 장려될 수 없다. 人間의 尊嚴性은 어느 特定人에게만 인정될 수 없다. 모든 人間은 동등하게 태어났고 同等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며 그 權利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 人間의 尊嚴性은 人種, 文化背景, 社会階層, 經濟的地位, 容貌, 性別, 宗教, 性格, 能力등의 差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平等한 價値를 지닌 存在者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이며, 각 個人은 그의 본분대로 그리고 그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最大限의 自己實現을 성취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가 속하는 社会와 國家의 發展을 위하여 각자의 독특한 방법과 능력으로 공헌하고 참여하는데 기쁨과 보람을 느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인 것이다.

-4) 成長可能性에 대한 信念: 人間尊重의 개념을 心理學的인 관점으로도 중요시 해야 할 것이다. 人間行動에 관한 현대과학은 人間尊重이 한 개인의 成長에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주는 것이며, 그것이 社會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事實을 보여 주고 있다. 人間 個人은 無限한 成長可能性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可能性의 最大限의 發達은 外部로 부터의 구속이 가해지지 않을 때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것이 民主敎育의 기본 理念이기도 하다.

個人的 無限한 成長可能性을 믿는 것은 人間의 尊嚴性과 人間本性的 善을 믿는 信念에서 도출된 것이며 이러한 信念을 具現하기 위해서는 개인 나름의 最善의 成長을 위해 自由로운 活動이 보장되고 권장되어야 한다는 條件은 필수적이 된다. 最大限의 自我實現을 위해서는 人間의 기본적인 욕구의 적절한 충족과 표현이 필요하며, 그리고 욕구충족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한 활동을 가로막는 부당한 억압이나 구속은 개인의 잠재능력의 開發可能性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社會의 發展을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

5) 要約: 以上에 제시한 內容을 歴史的 혹은 現實的 問題에 결부시켜 다양한 각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強調되어야 할 要點을 제시할 겸, 이미 제시한 內容들을 要約해 둔다.

① 民主主義는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믿으며, 目的으로서의 人間의 價値와 尊嚴性에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② 모든 人間은 獨立된 個人으로서 인정되고, 個性이 존중되며, 個人은 스스로의 福祉追求를 위한 能力과 最善自我實現을 위한 能力을 所持한 者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③ 모든 人間은 동등한 權利와 自由를 가지고 있으며 동등한 대우와 尊敬을 받아야 한다는 점

④ 個人的 自由와 權利는 他人의 自由와 權利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되고 장려된다는 점

⑤ 개인 내지 集團의 活動은 公的 복지와 國家의 安全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

⑥ 民主主義가 갖는 下位價値, 즉 人間의 目的性 人間本質의 性

善說, 真理의 相對性, 自由와 平等, 個性尊重, 知性優位와 集團知 優位에 대한 信念, 進歩發達에 대한 信念,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의 能力에 대한 信念, 科學的, 創意的, 實驗的, 問題解決에 대한 信念, 人道主義的, 道義的 責任등은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을 보다 具體的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概念들이나 이들은 民主主義의 基本價值인 "人間의 尊嚴성과 最善我實現에 대한 信念"을 토대로 도출되는 下位價值라는 점.

⑦ 共產主義는 人間의 尊嚴성을 무시하고 그들 소수인의 目的達成을 위해 人間을 手段으로 취급하며 희생시키는 점에서 民主主義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

⑧ 共產主義는 그들의 目的을 絶對視하기 때문에 真理의 絶對성을 주장하며 個人의 知的 活動과 理性的 批判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들의 主張에 맹종만이 허용된다는 점

⑨ 共產主義는 人間의 尊嚴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個性을 무시하고 個人의 행복추구를 위한 自律的 努力이나 活動을 허용하지 않으며, 個人의 自由 또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⑩ 民主主義 理念은 共產主義에 비해 優越한 것이나 그 理念具現을 위한 現實的인 문제는 있으며 이들 문제를 實情에 맞게 해결해가는 過程에 있다는 점.

II. 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

II - 1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그 理念 具現을 위한 基本條件과의 区分

- 1) 人間의 尊嚴성과 最善我實現에 最高의 價值를 부여하는

民主主義 理念과 그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基本條件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흔히 理念과 條件을 혼돈하게 되며 條件을 絶對視할 우려마저 있다. 理念과 條件과를 혼돈하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바와 같은 現實悲觀論이나 過激한 極端的인 改革論에 빠지기 쉽다는 前提로 理念具現을 위한 條件을 理念과 구분하여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2) 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으로 自由와 平等, 人權과 個性尊重, 그리고 社会的 責任과 協同, 그리고 이들 條件의 調和를 위한 制度的 조치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理念具現을 위한 條件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絶對視할 수 없고 均衡과 調和를 이룰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그 調和를 위한 制度的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먼저 이들 概念을 설명하면서 이들 조건들의 조화를 위한 制度的 조치의 필요성과 상호관련성을 밝히기로 한다.

II - 2 基本條件들의 概念

-1) 自由: 人間이 自己個人的 尊嚴性을 인정받고 自己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生活을 하면서 最善我를 實現하려면 健康, 教育, 經濟的 安定등도 필요한 條件일 것이나 가장 重要的 조건은 自由이다. "自由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외친 소리는 自由없는 종과 奴隸 혹은 짐승과 같은 生活에서 탈피하여 人間으로서의 待接과 존경을 받고 自我實現을 可能하게 하는 조건을 부여받기를 원한 生命的 表現이라 할 수 있다. 밖으로 부터 不當한 拘束이나 制裁를 받음이 없이 自己의 의사를 표시하고 行動으로 옮기고, 개인이 원하는 生活과 幸福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民主主義 理念을 구현하는 기본조건이며 生活原理인 것이다. 실상 自由없이 人間의 尊嚴性이 인정되거나 保障될 수 없고 個人의 最善我實現도 不可能하다.

① 自由의 消極的 意味와 積極的 意味: 自由의 소극적 의미란 外部로 부터의 부당한 拘束이나 統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自由의 적극적 의미란 여러가지 可能性에서 自意에 따라 선택하는 思考와 行動을 뜻한다. 眞正한 의미의 자유는 外部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억압과 구속을 排除하는 소극적 자유보다 개인이 行하고자 하는 行動을 意識하면서 決定하고 선택하는 적극적 자유를 뜻한다. 그러나 社会生活에서 實際的 意味를 갖는 自由의 問題는 외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부당한 구속과 억압을 排除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소극적 의미의 自由의 保障없이 적극적 의미의 自由의 行事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적극적 自由를 권장하면서 소극적 자유를 保障하려는 의도가 制度에 反映되어 있는 것이 民主國家의 특징이다.

② 自由와 責任, 그리고 自由의 制限, 積極的 意味의 自由에는 責任이 수반된다. 自己가 선택하고 행한 일에는 그 結果 如何를 막는하고 自己가 責任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적극적 의미의 自由에 강조된다. 또한 無制限의 自由는 共同生活을 하는 社会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無制限의 自由는 남의 自由를 구속 내지 침해하는 結果가 되며 이러한 무제한의 自由는 無秩序한 無政府狀態를 초래할 것이며 弱肉強食의 극한적 사태를 야기시킬 우려마저 있게 된다.

따라서 民主社会에서도 他人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私的인 思考나 行動에는 無制限의 自由가 허용될 것이나 他人에게 영향을 미치는 社会的 意味를 갖는 行動에는 無制限의 自由가 허

용되지 않는다.

③ 自由의 分類와 種類: 社会的 意味를 갖는 行動의 自由도 보는 觀點에 따라 여러가지로 分類할 수 있겠으나 흔히 市民的 自由, 政治的 自由, 그리고 經濟的 自由의 셋으로 区分하고 있다.

이러한 分類는 社会生活의 중요한 領域을 大別한 分類라 할 수 있다. 市民的 自由란 主權의 主体者로서의 國民個人이 누리는 基本權的 自由를 의미하는 것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셋으로 분리하여 說明되고 있다. 즉 身體的 自由, 精神的 自由, 財產權의 自由등이며 身體的 自由란 生命, 健康, 移動에 대한 위협이나 損傷으로 부터의 自由와 부당한 拘束, 審問, 處罰, 體刑으로 부터의 自由를 의미하며, 精神的 自由란, 良心, 信仰, 思想, 言論, 出版, 結社등의 自由를 뜻하며, 財產權의 自由란 個人의 財產을 保護하고 契約行為나 財產處分을 自由로히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自由를 어떻게 分類하든 自由라는 概念에서 중요한 것은 個人 自身の 最善을 이룩할 수 있는 自由 즉 自由로히 成長하고 生活할 수 있는 自由이다. 즉 人間의 尊嚴性을 保障하고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가능하도록 保障하기 위하여 現代 民主國家들은 人間의 基本的인 自由를 규정하고 이것을 國家權力의 侵害로 부터 保護하고 나아가 人間의 基本權을 國家權力으로서 積極적으로 保障해야하는 두 觀點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前者를 自由權의 基本權이라 하고 後者를 生活權의 基本權이라 따로 규정하고 있다.

現代의 民主國家들이 法으로서 保護하고 권장하는 自由 내지 基本權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基本權的 自由

(1) 自由로운 私生活을 할 수 있는 權利

- (2) 信仰을 自意로 선택할 수 있는 權利(信仰 및 宗教의 自由)
- (3) 自由롭게 居住할 수 있는 權利(居住 및 移轉의 自由)
- (4) 自由로운 意思表示와 出版을 할 수 있는 權利(言論 및 出版의 自由)
- (5) 平和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權利(集会 및 結社의 自由)
- (6) 職業을 自由로히 선택할 수 있는 權利(職業選擇의 自由)
- (7) 私有財産을 所有할 수 있는 權利(財産權의 自由)

나. 生活權的 基本權

- (8) 教育을 받을 수 있는 權利
- (9) 自由로히 勞動할 수 있는 權利와 勞動者의 團結權, 團體交涉權, 團體行動權
- (10)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다. 政治的 自由

- (1) 自由選舉와 秘密投票를 行使할 수 있는 權利
- (2) 公務員選舉權과 公務擔任權

라. 經濟的 自由

- (3) 自由競爭을 통하여 利益을 追求할 수 있는 權利
- (4) 契約을 自由로히 締結할 수 있는 權利
- (5) 勞使間에 정당한 調整을 할 수 있는 權利

마. 基本權 보장을 위한 基本權

- (6) 부당한 压迫에 대한 呼訴를 할 수 있는 權利(請願權)
- (7) 犯法者의 正当한 法的 節次를 받을 수 있는 權利
- (8) 政府로 부터 正当한 保護와 審判을 요구할 수 있는 權利

-2) 平等: 平等은 自由와 마찬가지로 人間의 價值를 높이고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통한 각자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民主主義의 理念的 目標을 實現함에 必要不可欠한 條件이다. 自由라는 條件의 부여 만으로 民主主義 理念이 具現될 수 없다. 平等이라는 條件이 自由와 더불어 부여되어야 한다.

平等이란 個人이 차지하는 社会的, 經濟的 地位, 그리고 人種, 文化的, 教育的 背景, 性別의 差異없이 동등한 人間으로서의 價值와 尊嚴性을 인정받고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制度的인 조치로서는 萬人은 法앞에 平等하며 教育을 받을 수 있는 機會의 균등, 앞서 지적한 自由의 동등한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自由 역시 萬人에게 같은 정도로 허용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 平等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自由와 平等은 서로 相衝하는 면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無制限의 自由는 서로의 自由를 침해하는 無秩序한 弱肉強食의 競爭的 混亂을 초래할 것이고 이러한 곳에 平等이 보장될 수 없다. 이렇게 自由를 絶對化하면 平等이 무시되고 반면에 平等을

절대시하여 個人差와 個性을 무시하고 外部의 強壓的인 힘으로 모든 個人의 생활과 활동을 똑 같이 規定한다면 個人의 自由를 억압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같은 自由와 平等의 相衡的 現象은 그것을 각기 絶對視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民主主義는 自由와 平等을 最高理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내지 조건으로 생각하며 어느 하나를 絶對視하지 않고 萬人이 다 各者의 天賦의 能力과 人權에 따라 最善을 이룩하고 각자의 自由로운 선택에 의한 보람있는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自由와 平等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調和와 均衡을 이룰 수 있도록 國家權力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 國家權力의 개입의 限界와 程度를 규정하는 등 現代 民主國家에서는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努力하고 있다.

-3) 社会的 責任과 協同: 自由와 平等의 調和를 통하여 民主主義 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國家的 努力의 의미를 이해시킴과 동시에 個人이 져야할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하여 건전한 社会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制度的 조치의 의의를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自由를 制限하는 까닭은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國家社会의 安全과 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自由가 지나쳐 他人의 尊嚴性을 손상한다든가, 社会의 安全과 秩序를 문란케 한다 든가, 社会의 美風을 해친다든가 또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民主主義的 社会制度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를 法으로서 統制하고 있다.

經濟的 自由 역시 단순히 개인의 利益을 보호하는 目的 이외에

萬人이 人間으로서의 完成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物質的 諸 條件을 보장하기 위하여 計劃에 의한 經濟活動의 統制는 불가피한 조치로 國家權力이 개입하고 있다.

個人이 저야할 社會的 責任과 協同을 個人의 良心에 호소하는 한편 法的인 조치로서는 두가지 方法을 國家에서 사용한다. 그 하나는 自由를 事前에 制限하는 法的 規制이며 다른 하나는 法的 制限을 위반한 사람이나 集團에게 가하는 법적 제재이다. 이렇게 事前統制와 事後 처벌의 두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前者의 方法이 自由를 부당하게 억압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여 政府에 그 통제 의 한계를 엄격히 규정 해 주도록 現代 民主國家에서는 조치하고 있다.

國家權力으로 萬人의 自由와 平等, 그리고 人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制限과 統制를 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外部的 규제에 의한 統制를 民主主義 理想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民主主義가 이상으로 여기는 것은 個人 스스로의 內的 規制에 의한 自律的 統制이다. 여기에 個人이 실천해야 할 社會的 責任의 예를 제시 해 둔다.

- ① 個人은 尊嚴性과 價値를 지닌 人間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最善我實現을 위해 努力해야 한다.
- ② 社會의 道德的 規範에 벗어나는 行動을 삼가 해야 한다.
- ③ 個人이 지닌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그 개인의 행복한 生活을 追求함은 물론 그의 모든 才能을 社會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여 社會福祉增進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④ 개인은 自己의 自由와 權利를 행사함에 있어 他人의 正當한

自由와 權利를 침해하지 않고 社會의 秩序와 福祉를 손상함이 없고 또한 國家의 安全을 위협하지 않도록 自制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 ⑤ 國家의 非常時에 國家의 安全을 위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責任과 義務를 수행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⑥ 民主主義 實現過程에 있어 個人間 혹은 集團間에 協同과 競爭은 불가피한 것이나 正當한 方法에 의한 善意의 경쟁을 택하도록 노력 할것.
- ⑦ 社會事情에 精通하고 社會正義의 實現에 공헌할 義務와 責任에 충실해야 한다.

Ⅲ. 民主政治의 原理

Ⅲ-1 民主政治의 理念的 基礎

民主政治의 理念的 바탕은 말할 것도 없이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인 人間의 尊嚴성과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가능케 함에 있다. 모든 유형의 政治制度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구현하기 위하여 만든 統治制度인 것이나 民主主義의 기본이념은 비단 政治制度에서 뿐만아니라 社會의 모든 制度와 生活樣式에서 具現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바탕인 것이다. 따라서 政治制度를 樹立함에 있어, 혹은 民主政治制度의 本質을 이해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民主政治의 原理를 이해할 것이 필요하다.

Ⅲ - 2 民主政治의 原理

- 1) 個人의 自決的 能力에 대한 信念:

民主主義는 個人의 價值와 尊嚴性을 믿고 이를 더욱 신장시켜 國民個人의 最善我實現을 可能하게 하려는 것이 그 理念的 目的임을 앞서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부합되는 統治體制인 政府는 國民 스스로에 의한 政府라야 할 것이다. 國民에 의한 政府의 수립은 國民 個人의 自治的 能力을 믿기 때문이다. 國民 個人은 그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能力을 가진 것으로 믿는 것이 民主主義의 基本이념과 一致하는 下位價值 중의 하나임을 앞서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信念에 더하여 個人의 自治的 能力을 믿는 信念이 도출된 것이며 이러한 信念에 더하여 民主政治의 原理로서 國民에 의한 政府의 樹立과 選當을 理想視하는 것이다. 國民 個人의 自治的 能力을 믿기 때문에 國民 스스로의 힘과 努力에 의하여 수립 운영되는 政治形態를 國民을 위한 가장 좋은 政治가 될 것으로 믿고 또 바라는 것이 民主政治의 理念的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國民의, 國民에 의한, 그리고 國民을 위한 政治"라는 民主政治의 定義 중 民主主義의 政治的 理念的 核心을 표현한 關鍵은 "國民에 의한 政治"인 것이다. 政治의 形態가 形式上 "國民의 政治"이고 表明上 "國民을 위한 政治"라도 그 것이 "國民에 의한 政治"가 아니면 民主政治의 "國民의 自治的 能力을 믿는 信念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國民에 의한 政治가 아니면 民主政治라고 할 수 없게 된다.

- 2) 國家權力的 國民歸屬에 대한 信念:

民主政治는 모든 政治的 權力 내지 國家權력이 國民에게 있음을 믿는다. 즉 主權在民과 國家權力的 國民歸屬에 대한 信念이 民主政治의 理念的 原理인 것이다. 그말은 모든 政治的 權력은 國民에 의하여 결정되며, 國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國民의 意思에 의하여 政府를 수립하고 또한 國民의 必要에 따라 正當한 法的 節次에 의해서 既存의 政府를 改革하고 變化시킬 수 있는 權限을 國民이 갖는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原理와 이에 터한 다른 原理들을 간략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人間은 自己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自治的 能力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 ② 國家의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 부터 나오며 國民에게 歸屬된다.
- ③ 公務員은 國民公僕으로서의 責任을 갖는다.
- ④ 國民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正當한 法的節次에 의하여 政府를 改編 내지 變化시킬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 ⑤ 政府는 社會福祉를 증진시켜야 할 義務와 責任을 진다.
- ⑥ 政府는 爲民的 良心을 가지고 國民의 最善我實現을 가능하도록 하는 責任을 진다.
- ⑦ 政府는 사람의 恣意에 의해서가 아니라 法에 의하여 選當된다.

國民의 自治的 能力을 喪기 때문에 國民의 自治的 政府가 民主主義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理想的 政府形態일 것이나 實際에 있어서 國民 모두가 政府를 운영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따라서 現代의 民主國家들은 政府를 운영할 사람을 國民이 選출하여 國民의 權限을 委任케 하는 代議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國民의 權限을 委任받은 代表가 그 權力을 恣行할 危險性을 排除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法에 의하도록 하는 法治主義를 택하고 있다. 이들 民主政治의 理想的 바탕과 制度 및 그 運營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될 것임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 3) 共產主義 特性과의 比較 :

- ① 真理의 絶對性
- ② 物質의 必然的 決定論
- ③ 人間의 尊嚴性 否認
- ④ 個性의 無視
- ⑤ 平等의 絶對視와 自由의 抑壓
- ⑥ 國家權力의 絶對性
- ⑦ 暴力의 必須性

여기에 제시한 共產主義의 特性 이외에도 많은 특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別個의 部에서 상세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民主主義의 理念과 民主政治의 原理와를 비교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제시하는 共產主義의 特性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제시하면서 共產主義의 特性과도 비교를 했으나, 여기서 몇가지를 더 첨가하여 비교하는 것은 民主政治의 理念的 바탕의 優越性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 의미가 있을 것이다.

共產主義는 人間의 尊嚴性을 인정하지 않으며 個性 또한 무시한다. 그것은 物質이 만물을 결정한다는 物質의 必然的 決定論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레닌등이 제시한 空想的, 理想國家論과 프로레타리아 獨裁論, 暴力革命論, 階級國家論등에 의한 政治理論(이들 개념들에 대해서는 다음 部에서 설명되고 있어 參考하기 바람)등을 絶對的 真理라고 믿고 있어 여하한 知的, 合理的 批判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특성이다. 이에 反하여 民主主義는 真理의 相對性을 믿어 계속적인 發展을 위한 知的 活動을 허용하고 장려한다. 理想으로서는 平等을 絶對視하나 實際에 있어서는 平等없는 階級을 형성하고 있으며 平等을 絶對視하는 名分으로 個人의 自由를 억압하며 일체의 自由를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民主社會에서 존중되는 私生活의 自由, 居住의 自由, 信仰의 自由, 言論의 自由등의 基本權의 自由도 일체 불허한다.

그들 소수인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權力을 絶對視하여 主權在民과 國家權力의 國民歸屬과 같은 民主政治의 原理는 共產國家에서는 完全 무시된다. 또한 그들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暴力革命을 美化하며 이를 必須要件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個人을 手段으로 희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곳에 個人의 尊嚴性과 個性은 完전 무시되며 個人의 自決的 能力이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能力같은 것은 존치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政治도 國民을 위한 國民의 政治라고 形式上, 그리고 表明上으로 내세우지만 기실 國民에 의한 政治는 아니다.

國民의 自治的 能力을 믿지 않기 때문에 國民에 의한 政治를 할 까닭이 없다. 國民은 政府를 수립할 權限도 政府를 변화시킬 權限도 없으며 그들 獨裁者의 命令에 따를 길 뿐이다.

第 2 章 民主主義의 成長過程과 政治體制

〈 章 前 文 〉

民主主義의 理念과 價值 그리고 이와 관련이 있는 重要 概念들과 理念具現을 위한 모든 體制 制度들이 短時日 內에 그리고 소수인의 努力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랜 歷史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努力과 鬪爭으로 가꾸어지고 키워진 것이다.

그리고 또한 理念具現을 위한 手段과 方法으로 만들어진 統治體制인 政治體制도 수 많은 試行錯誤過程과 試練을 통하여 가꾸어진 것이며 다양한 體制들이 만들어져 각기 그나라의 實情에 부합되는 體制와 制度를 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本章은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努力過程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理解하고 理念具現을 위한 多樣한 制度的 形態의 意味와 그 重要性을 理解하게 함에 강조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具體的 目標을 달성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西歐社會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成長過程을 理解한다.

둘째, 理念具現을 위한 政治體制의 多樣한 形態와 그 運營過程의 重要性을 理解한다.

셋째, 現代의 自由 民主國家들이 택하고 있는 政治體制를 이해하고 各國의 文化傳統과 社會的 實情과 政治體制와의 關係를 이해한다.

넷째, 民主政治體制의 多樣한 形態와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과의 關係를 이해한다.

以上の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西歐史에 나타난 民主主義의 成長過程을 概觀해야 할 것이나 지나친 詳論은 필요치 않을 것

이며 時代別로 나타난 중요한 事件의 意義를 부각시키면서 民主主義의 理念具現을 위한 努力過程이 험난했으면서도 끈질기게 계속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史的 考察을 통하여 第1章에서 제시한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民主政治 理念이 어느 소수인의 創案이나 어느 特定 時期와 어느 特定の 國家에서 創案된 것이 아니라 는 점과 理念의 定立過程과 理念具現을 위한 政治體制의 樹立過程이 얼마나 오랜 時間과 많은 努力이 소요되면서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未完成된 諸條件들을 改善해가면서 民主主義 理念을 具現하기에 努力을 하고 있다는 점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하여 制定된 多様な 形態의 政治體制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그 政治體制의 形態가 갖는 理念具現을 위한 意味를 부각시킬 것이 필요하며 또한 體制의 運營의 重要性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政治體制의 多様な 形態를 이해하고 現代의 民主國家들이 택하고 있는 政治形態와 그 國家들의 實情과의 關係를 이해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몇개의 代表的인 國家의 實例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설명이 있은다음 民主主義의 成長을 위한 先行條件들을 지적하면서 그 先行條件들의 具備을 위한 個人的 國家的 努力의 重要性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以上에 제시한 本章의 目標과 強調點을 토대로 본장에서 취급될 內容들을 셋으로 나누었다.

즉 ① 民主主義의 成長過程 ② 民主政治體制와 그 運營 그리고 ③ 民主政治體制의 多様性의 셋 主題로 分類하였다. 각 主題에 포함되는 內容을 項目別 혹은 概念別로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I. 민주主義의 成長過程

I - 1 民主主義라는 概念

民主主義 (Democracy) 라는 原語는 希臘어의 國民을 뜻하는 Demos 와 支配를 뜻하는 Kratein 을 합친 것으로 紀元前 5世紀에 希臘의 歷史家 헤로도토스 (Herodotus) 에 의하여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民主主義라는 原語는 "國民의 支配"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I - 2 古代 「아테네」의 代議的 統治體制

國民에 의한 統治體制를 처음으로 갖춘것으로 記錄上에 알려진 나라는 古代 希臘의 都市國家 중의 하나인 "아테네" 이다. 이 나라는 希臘에서도 가장 불리한 地理的 條件을 가진 都市國家 중의 하나 였으나 몇몇의 思想的 政治的 指導者 (Pericles Solon, Herodotus Cleisthenes 등) 의 先導와 大衆의 호응으로 그 당시의 支配的 統治體制인 君主制와 貴族制를 타파하고 市民 大多數의 參政을 허용하는 代議的 統治體制를 수립했던 것이다. 市民多數가 野外廣場에 모여 行政權을 담당할 代表를 選출하고 法을 정하는 民會를 구성하고 犯法者에 대한 刑을 결정하는 등 國家意思의 결정과 그 行使에 市民의 多數가 직접 參與했던 것으로 보아 그의 統治體制는 國民에 의한 民主制였고 또한 民主主義 理念과 그 具現을 위한 統治體制의 수립의 가능성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I - 3 古代 "로마" 法の 制定

古代회람時代 以後 人間尊重 思想의 發達에 크게 공헌한 事件은 西紀初에 있었던 "로마" 法の 制定이다. 이法에서 善과 公正을 기한다는 法の 精神을 확립하게된 점도 중요하지만 國家權力을 制限하고 拘束하는 法的 規定과 市民의 權利를 明白히 하고 奴隸의 救濟策을 法에 挿入한 점은 人間尊重 思想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것으로 해석된다.

I - 4 自然法の 制定

"로마" 法の 制定에 이어 「키케로」 (Cicero) 에 의하여 完成된 것으로 알려진 自然法の 制定은 民主主義 發達史에 크게 공헌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人爲的으로 制定되는 모든 實定法の 理念法源으로 관주한 自然法은 時間과 空間을 초월하는 普遍妥當한 規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人間에게 부여되는 自然權을 최초로 밝혀 이 天賦의 自然權은 누구에 의해서도 부인될 수 없으며 모든 人爲的 實定法은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當爲性을 宣言했던 것이다.

I - 5 自然法 思想의 發展

키케로에 의하여 제시된 自然法 思想은 中世에도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계속 발전되었다. 中世의 代表的인 神學者인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 에 의하여 基督敎의 自然法 思想이 발전되었으며 뒤이어 17世紀에 이르러 그로티우스 (Hugo Grotius), 홉스 (Hobbs), 르크 (Locke), 그리고 루소

(Rousseau) 등의 思想家에 의하여 人間의 本能을 自然으로 규정하는 經驗的 自然法을 토대로 社會契約說이 제창되었던 것이며 나아가 人間의 理性을 自然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理性的 自然法을 칸트 (Immanuel Kant)가 完成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思想的 背景은 人間尊重 思想과 民主主義 理念을 定立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I - 6. 民主主義 受難期：中世暗黒時代

人間尊重 思想이 여러 思想家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되었으나 中世紀는 대체로 民主主義 思想이 자랄수 있는 風土는 되지 못했다. 이 시기동안에는 強力한 힘으로 統治體制를 갖춘 封建制度下에 일부 貴族내지 王族이 모든 權限을 독점하고 있어 大衆은 그들의 종노릇을 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點火된 民主主義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되어 간혹 큰 불로 化하여 世界人類의 耳目을 끌기도 했다.

I - 7. 1215年 英國에 있었던 大憲章 (Magna Carta)의 制度

點火된 民主主義의 불길이 큰 불로 化하게된 예 중의 하나가 바로 英國에 있어서의 大憲章의 制定이다. 이 大憲章의 制定으로 인하여 英國에 있어서는 물론 美國의 權利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人權思想과 自由思想이 크게 발달될 수 있었던 刺戟劑가 되었던 것이다.

이 大憲章에 人間의 양도할 수 없는 權利를 규정한 점이라던지 人間이 나면서 부터 自由롭고 平等하다는 基本權的 自由에 대한

言及은 없었지만 많은 부문의 權利를 國民에게 인정하게 되어 이로 부터 英國國民의 權利가 점차 확대되었던 것은 사실이며 뒤이어 1295에는 소위 "模範國會"라는 기구가 구성되어 國民들이 國政에 參與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I - 8 近世의 各種 人權運動

中世 暗黒時代에는 民主主義의 受難期로서 人間尊重思想이 끈질기게 계속 되기는 하였으나 크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눌러 있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事件을 치루게 된 中世末葉에 다시 人間尊重과 自由를 追求하는 불길이 14世紀 伊太利를 中心으로 일어난 르네상스 (Renaissance) 運動을 통하여 크게 번지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여러나라에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人權運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14世紀 伊太利를 중심으로 일어난 文芸復興運動
- 2) 16世紀 獨逸을 중심으로 일어난 宗教改革運動
- 3) 17世紀 英國의 民權運動
- 4) 18世紀의 啓蒙主義運動
- 5) 18世紀 美國의 獨立運動
- 6) 1789年의 仏蘭西 革命

르네상스運動은 그 당시 支配的이던 封建制度和 基督敎會가 가진 모든 權利를 否定하고 人間性을 되찾으려는 運動이었고 묵은 傳統과 굳어진 權威에 反抗하여 사람의 價值를 높이려는 努力에서 시작된 運動이 었으며 이 운동에 자극되어 文芸部門에는 물론 科學的 知識 技術의 발달이 크게 촉진되었다. 科學的 思考의 발달은 過去에 믿었던 真理를 재검토하게 되어 새로운 知識의 보급이 촉진

진 되면서 自由思想과 人間尊重 思想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여 위에 지적한 각종의 人權運動이 폭발되어 막을 수 없는 努力으로 확장되게 되었다. 이러한 努力의 結晶体로서 1948年 12月에 48 個國이 「유엔」總회에 모여 世界人權宣言을 採択 公表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世界人權宣言에 명시된 人間の 基本權利的 요지는 앞장에 소개된 內容과 거의 같은 것이다.

I - 9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계속적 努力

人間の 價値를 높이고자 시작된 民主主義의 成長過程은 험난한 길을 걸어 오면서 수 많은 희생과 혼란을 거쳐 그 理念定立과 理念具現을 위한 體制등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課題는 아직도 수 없이 많이 남아 있다. 人間の 價値를 높인다는 것이 끝이 있을 수 없는 바와 같이 民主主義는 어느 限界線까지를 理想的인 狀態로 假定하지 않는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언제나 未完成的인 것이며 오늘보다 더 나은 狀態로 志向하기 위하여 努力하는 過程을 중요시한다.

II . 民主政治體制와 그 運營

II - 1 民主政治體制의 重要性

民主主義의 本質은 人間の 價値와 尊嚴性을 더 높이고 個人의 最善義 實現을 가능케하는 理念과 그 理念具現을 위하여 만든 統治體制와의 양측면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점을 전장의 첫부분에서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理念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그 理念을 實現하기 위한 方法과 手段을 理念 못지 않게 중요시 한다. 實際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死活的인 問題는 理念을 구현하기 위하여 만든 統治體制와 그 體制의 運營過程 如何에 달려 있다.

II - 2. 古典的 民主政治體制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가장 理想的인 政治制度는 國民에 의한 自治的 政府形態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國民 모두가 政府의 수립과 그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形態를 直接 民主主義라고 하며 이러한 形態의 民主政治는 古代 아테네의 都市國家에서 시도한 예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古代 아테네와 같은 적은 규모의 國家社會를 예상할 수 없는 現代에서는 實際에 있어 그러한 直接民主主義 政治形態는 不可能하다.

그러나 民主主義는 國民의 自治的 能力을 믿기 때문에 「國民에 의한 政治」라야 한다는 信念을 저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信念에 입각한 그리고 現實적으로 實現 가능한 政治體制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國民 모두가 行政府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政府를 운영할 사람을 選出하여 그들 代表에게 國民의 權限을 委任하고 있으며 또한 國民이 選출한 代表에게 立法의 權限을 委任하는 形態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形態를 間接民主政治 내지 代議政治라고 한다.

II - 3. 民主政治體制

民主主義 理念을 具現할 수 있는 民主政治體制는 國民의 意思를 존중하여 國民의 意思가 可能的 限 잘 反映되도록

하려는 制度로 具体化되고 있다. 立憲制度, 代議制度, 權力の 견제와 균형을 위한 三權分立制度, 選舉制度, 複數政黨制度 등이 現代民主國家들이 채택하고 운영하는 政治制度의 예다.

- 1) 立憲政治制度 : 憲法에 따른 統治體制를 수립하는 것이 立憲政治이며 立憲政治制度는 民主政治體制의 본질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시 되는 制度이다.

그 까닭은 종전의 小數 特殊層의 "人間에 의한 政府"를 "法에 의한 政府"로 代置함으로써 國家를 統治함에 있어 人間的 自意의 남용을 방지하고 國民모두의 意思를, 충분히 反映하려는 것이 立憲政治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憲法の 有無로 民主的 혹은 非民主的 統治體制를 판가름할 수는 없다. 先進民主國家의 하나인 英國의 경우 成文化된 憲法은 없으며 共產獨裁國인 소련은 成文化된 憲法을 가지고 있다.

英國의 경우 成文化된 憲法은 없으나 憲法の 구실 (各種 法令, 司法判例, 慣例等)을 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 立憲民主政府로서 손색이 없으나 成文化된 憲法을 가진 소련의 경우 그 憲法이 政府의 權力을 制限하는 制度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立憲制度의 民主性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民主主義 觀念을 토대로 國民의 基本權利를 규정하고 政府의 權力을 制限하고 그밖에 모든 節次와 制度를 규정한 憲法の 內容에 따라 政府가 수립되고 운영될 때 이를 立憲民主政治體制라고 할 수 있다.

- 2) 代議制度 : 代議制度란 國民이 選舉를 통한 그들의 代表를 선출하고 代表로 하여금 國家意思를 決定 집행하게 하는 政治制度를 뜻한다. 따라서 代議政治의 中核은 國會인 것이다. 行政

府의 首班인 大統領도 역시 國民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代表者이기 때문에 政府도 代議的 性格을 갖는다. 國民의 의사를 가장 잘 反映케하는 制度로서는 立法의 權限을 위임하는 国会이며 国会는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과 同等한 地位에서 權力을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 3) 三權分立制度 : 民主政治体制은 實質적으로 國家의 權力을 制限하기 위하여 제정된 制度로서 三權分立의 근본적인 의미 역시 權力의 集中을 피하기 위한 方法으로 採択된 制度이다. 君主나 獨裁者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와 같이 權力을 장악한 者는 그것을 濫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國家의 權力을 立法權 行政權 그리고 司法權의 셋으로 分立시켜 이를 각기 獨立機關에 부여하여 서로 견제케 함으로서 權力의 남용을 방지하고 權力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制度가 三權分立制度인 것이다.

II - 4 民主政治体制의 특징

民主政治体制의 특징은 小數人의 自意에 따른 權力의 濫用을 방지하기 위한 立憲制度和 國民의 意思를 效果的으로 반영할 수 있게하는 代議制度 그리고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보장하고 代表에게 委任한 權力을 서로 견제하고 補完하기 위한 三權分立制度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制度의 기본적인 특징은 앞장에서 제시한 民主主義 기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意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理念具現을 위한 方法으로서의 政治制度和 그 運營技術에는 나라의 特殊事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立法權이 주어진 立法府도 單院制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兩院制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行政府 역시 나라마다 다른 形態의 制度를 택하고 있다.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가 그 代表的인 例이다. 오랜 歷史를 통하여 다듬어진 이들 制度는 民主主義 理念을 效果的으로 具現할 수 있는 現存하는 모든 制度 중 最善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修正과 補完이 必要치 않는 絶對的인 것으로는 믿지 않으며 나라의 實情과 必要에 따라 多樣한 形態의 制度와 政治技術의 活用이 필요하고 계속 修正과 補完이 필요한 것으로 믿는 것이 民主政治의 特性이다.

II - 5 民主政治體制의 運營

民主政治의 成敗는 民主主義 理念을 效果的으로 具現할 수 있는 制度의 수립과 그 制度의 運營過程 如何에 달려 있다. 制度의 수립에 있어서도 民主主義 理念을 가장 效果的으로 實現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核心的 要旨일 것이며 制度의 運營過程에도 항상 그 制度의 수립취지에 맞게 運營의 妙味가 요청된다. 制度의 運營如何에 따라 그 制度의 設立趣旨를 效果的으로 살릴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되며 나아가 民主主義 理念이 實現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制度의 運營에 중요하 구실을 하는 要素는 選舉, 國家意思의 形成過程으로서의 與論, 政黨, 多數決의 原理, 社會各種利益團體의 參政過程, 國民의 權限을 委任받은 代表들의 爲民의 良心에 의한 制度의 運營, 國民 個人 및 集團의 參政에의 責任등을 들 수 있다.

- 1) 選舉：國民의 意思와 權力을 委任하게 될 代表를 選출하는 方法이 곧 選舉인 것이다. 그러나 選舉의 意義는 國民이 選출한 代表에게 國民의 自治的 權利를 委任하는 것이기 때문에 選舉制度의 存在有無보다는 國民의 多樣的 意思를 가장 效果的으로 集約 表示하여 좋은 代表를 選출하느냐의 선거과정과 國民의 權力을 委任받은 立法府의 議員이나 行政府의 首班이 國民의 意思를 어느 정도 反映하게 되느냐에 의하여 규정된다. 民主國家들이 택하고 있는 國民의 權利行使 方法은 國民의 直接的 行使가 아니라 權力을 代表에게 委任하는 것이기 때문에 代議政治制度의 成敗는 選舉過程의 公正과 國民의 權力을 위임받은 代表들의 爲民的 良心에 의한 權力의 代行過程 如何로 결정된다.

- 2) 政黨과 複數政黨制：選舉를 除外하고는 國民의 意思를 개별적으로 政府에 反映시키기란 어렵고 개개 國民의 意思가 組織化될 때 가장 效果있게 政府에 反映될 수 있게 된다. 國民의 의사를 組織化하여 政府에 反映케 하는 役割을 담당하는 단체가 政黨인 것이다. 따라서 政黨은 代議政治制度의 實際 運轉過程에 있어서 核心的 役割을 담당하는 것이다.

國民의 意思는 多様하고 또 그 多樣性을 民主主義는 尙장하기 때문에 그 多樣的 國民의 의사를 多様하게 반영시킬 수 있을려면 選舉때 國民의 選拔 범위가 넓어야 한다.

이렇게 多樣的 國民의 의사를 多様하게 반영시킬 수 있게하고 선거에서 選拔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民主國家들은 複數政黨制度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政黨 以外의 社會 各種의 利益團體도 國民의 多樣的 意思와 利益을 政府에 反映하는 機能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연해 둔다.

- 3) 代表의 原理와 多數決의 原理 : 代議政治制度를 운영하는 基本原理는 國民의 意思를 代弁하고 國民의 權利를 代行할 代表를 選출하는 代表의 原理와 國民의 意思를 통합하여 國家意思를 決定하는 多數決의 原理가 그 주축을 이룬다. 代表의 原理란 다양한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고 統合하여 國家意思로 決定하는 過程을 의미하는 것이며 多數決의 原理는 相異한 國民의 意思와 主張을 통합하여 國家意思로 결정하는 過程을 의미하는 것이다. 國民의 意思와 主張이 다양하고 서로 相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많은 代表를 選출하고 서로 相異한 의견과 主張을 調節 統合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다수의 의견과 主張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小數의 意見도 尊重되는 것이 民主社會의 特色이다.

- 4) 與論과 討論 : 國民의 다양하고 相異한 意思가 多數의 意思로 造成되기 위해서는 討論을 통한 與論의 形成過程이 必要하게 된다. 討論을 통하여 서로의 相異한 意見과 主張이 交換되고 說得과 妥協 理解와 諒解가 이루어져 合意에 도달되고 나아가 全體의 意思를 綜合하게 된다.

따라서 討論은 民主的 政治過程에 必要不可欠한 要件이 되며 또한 중요한 教育的 過程이기도 한 것이다. 討論은 國民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教育的 過程인 동시에 多數의 意見 내지 國家意思를 形成해가는 民主的 過程인 것이다. 共產國家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討論의 自由가 없는 多數決은 도리어 獨裁나 小數支配를 偽裝하는 節次에 不過한 것이다.

- 5)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가 갖는 意味 : 民主政治體制의 운영에 있어 國民의 意思를 존중하며 이들 다양하고 상이한 意思를 統合하여 國家意思로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가 보장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言論 및 結社의 自由는 國民의 다양한 의사를 國家意思로 반영하기 위하여 必要不可欠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 6) 個人 및 集團의 責任

① 國民은 社會的 問題와 그 問題解決을 위해 취해지는 政策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責任을 갖는다. 制度的으로 國民의 意思가 反映될 수 있도록 조처되어 있다 하더라도 國民이 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올바른 이해와 자기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려 들면 그 制度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

② 國民은 각자의 意見과 主張을 正當한 方法으로 표현하고 그 意見들을 集約하여 國民의 權利를 委任한 代表들에게 전달하고 그들 代表들을 통하여 國民의 要求가 政策에 反映되도록 할 責任을 진다.

③ 個人의 意見을 제시하고 集團的인 意思로 集約하기 위하여 民主的인 合意의 過程이 重視되고 個人은 合意된 多數의 意思에 따라야 하며 多數는 少數의 意見을 所重히 여기는 責任을 진다.

④ 國民은 政治的 權力을 위임한 代表를 선출하는 選舉에 적극 참여할 責任을 진다.

⑤ 國民은 國家的인 非常時에 政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國民의 義務를 충실히 이행하고 協調하는 責任을 진다.

④ 個人과 集團은 法을 준수하고 不合理함을 是正할 必要가 있을 때는 法이 規定한 正當한 節次와 方法에 따라야할 責任을 진다.

II - 6 民主政治와 經濟體制

- 1) 資本主義 經濟體制 : 民主主義의 經濟體制는 흔히 資本主義 經濟體制로 알려져 있다.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基本原理는 自由經濟에 두고 있다. 自由經濟의 基本精神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個人의 幸福追求를 最大限으로 보장하고 장려하는 經濟活動의 基本원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 2) 自由經濟의 基本理念 : 民主政治制度의 基本原理는 個人의 自治的 能力을 믿는 信念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바와 같이 自由經濟의 基本原理는 個人이 자기의 幸福追求를 위한 能力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이를 最大限으로 보장하고 장려하려는 理念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個人의 幸福은 自意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 幸福追求를 위한 個人의 能力을 믿는 것은 民主主義 基本理念과 일치하는 것이다. 個人으로 하여금 自由스러운 經濟活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려하여 經濟活動에의 意慾을 고취하고 個人의 幸福追求를 위해 個人이 갖는 能力과 努力을 최대한으로 동원케 함으로서 個人의 幸福과 發展은 물론 國家의 經濟的 成長도 촉진될 것이라 民主主義는 믿는 것이다.

- 3) 自由經濟의 長點 : 人間은 外部的 強要에 의하여 일에 임할 때와 스스로의 幸福追求를 위하여 일에 임할 때 意慾과 努力에도 큰 差異가 있게 된다. 個人의 幸福追求를 위한 能力과

努力을 믿어 個人에게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허용하는 民主國家와 勞動을 強要하는 共產獨裁國家와의 經濟成長에서의 差異는 長期的으로 볼 때 크다. 그 예로 自然資源이 豊富치 못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民主的 自由經濟體制의 採択과 그 効果적인 운영으로 經濟成長이 촉진된 나라의 예이며 2次 世界大戰 以後 西獨과 日本의 경우도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 4) 經濟的 自由 : 앞장에서 市民的 自由, 政治的 自由를 설명하면서 經濟的 自由의 의미를 설명한바 있다. 좀더 부가하면 經濟的 自由란 모든 個人이 自己의 願에 따라 일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所得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權利에 속하며 그 財産을 自己의 意思에 따라 処分할 수 있는 自由를 의미한다. 우리의 憲法이 保障하고 있는 經濟活動의 自由와 私有財産權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正當한 法的 절차없이 個人의 私有財産을 침해할 수 없다.
- ② 犯罪에 대한 處罰의 경우 이외에는 個人을 強制勞動시킬 수 없다.
- ③ 正當한 補償없이 個人의 財産을 共有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國民의 合意없이 稅全을 부여할 수 없다.
- ⑤ 個人은 土地 家屋 財産 貨幣를 自由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 ⑥ 個人은 自然資源과 生産手段을 自由로 所有할 수 있다.
- ⑦ 個人이 自己의 財産을 그가 自由로 택한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 ⑧ 個人은 公衆衛生 安全 秩序 公益등 共公福祉를 침해하는 일

에 그의 財産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등이 그 主要 內容으로 되어 있다.

II. 民主政治体制의 多様性

III - 1 政治体制의 多様성이 要求되는 理由

統治体制은 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手段 내지 方法에 불과하다. 따라서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方法과 手段은 唯一한 것일 수는 없고 多様할 수 있으며 時代에 따라 文化的 背景과 社会的 与件을 달리하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더욱이 前節에서 밝힌 바와 같이 統治体制의 制度的 形態와 그 制度의 運營의 묘미에 따라 理念이 구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制度 自体도 그럴 수 있겠으나 그 制度의 運營過程에서는 더욱 그 나라의 政治文化的 傳統과 社会的 与件의 여러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國民에 의한 政治를 理想으로 여기고 國民의 參政을 間接的이기는 하나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民主政治의 특징이기 때문에 國民의 教育水準과 自治의 能力 그리고 文化的 要素가 支配的인 國民의 生活樣式과 意識構造 政治意識등이 그 政治制度의 運營過程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要素가 反映되는 制度와 그 制度의 運營과정은 文化와 社会的 与件을 달리하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그 多様性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民主政治에서 要望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더욱이 20世紀에 들어와서 각국이 多様한 形態의 民主政治制度를 택하고 운영하게 된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간

결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各國의 社會的 條件이 크게 달라진 이유 : 民主政治制度를 비교적 빨리 받아들인 나라들은 주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고 이들의 文化的 背景은 비교적 유사했다. 그러나 20世紀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각국의 社會的 經濟的 條件은 큰 差異를 갖게 되어 그들의 實情에 맞는 制度의 改革과 運營을 하게 된 것이다.

② 各國이 당면하는 심각한 社會的 問題가 각기 다른 양태를 보이며 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도 다양하게 된 이유

③ 社會의 組織과 機能이 分化되고 복잡해져 이를 복잡한 社會의 諸機能을 통합하는 統治體制도 다양하게 된 이유

④ 各國의 民族主義的 傾向이 外國의 文物을 받아들임에 있어 그들 나름대로의 創意的 受容을 강조하게 된 이유

Ⅱ - 2 先進 民主國家의 政治制度와 그 特徵

- 1) 英國의 政治傳統과 議院內閣制 : 英國은 議會制度를 최초로 채택한 나라로 議會制度의 母國으로 알려져 있다. 英國에 있어서의 議院內閣制의 起源은 古代 樞密院 (Privy Council) 에 由來한다. 7, 8世紀의 색슨 (Saxon) 時代의 賢人會議, 노르만 (Norman) 時代의 大會議 그밖에 小會議 常設評議會등 여러 名稱으로 불려진 이 樞密院은 初期에 소수인의 代表들로 구성되었고 계속 그 代表數가 늘어났으나 그들 代表들은 國王과 國事를 密議하여 결정하는 現代的 意味의 立法權 司法權 行政權을 겸하여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國王의 大權은 絕對的이어서 初期에는 國王의 諮詢機關의 구실정도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였으나 1215年 John 王에 의한 大憲章에 의 날인, Henry 3世와 Edward 1世때

시몬 . 드 . 몬포트 (Simon de Monfort) 가 이끈 貴族指導 者들의 승리로 인한 庶民代表를 포함한 大會議의 創設, 模範會議의 創設 Edward 3世 (1327 - 1377) 때의 貴族院과 庶民院의 兩院制 實施, Charles 2世 때의 政黨 (Whigs당과 Tories당) 勢力의 확대 등을 거쳐 議會의 權限이 차츰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진통기를 거쳐 英國에서 議院內閣制가 확립된 것은 대체로 1688年의 소위 各眷革命 이후라고 할 수 있다. 革命的 결과로 탄생한 權利章典 (Bill of Rights) 에 의하여 王權神授說은 完全히 부인되고 議會의 權威가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國王의 大權이 하루 밤사이에 完全히 무너질 수는 없었고 뒤이어 1832年 中産階級에게 選舉權을 부여하는 선거법의 개정으로 오래동안 지배적이던 貴族 寡頭政治로 부터 民主的 政治에로 전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國王은 선거의 결과 下院에서 多數를 차지한 政黨의 黨首를 首相으로 任命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內閣은 上下院의 議員들로 구성되며 行政府의 最高權威는 樞密院의 中核인 內閣에 주어지고 있어 議院內閣制를 中心으로 하는 民主政治體制를 수립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충 살펴본 이러한 英國의 政治傳統은 어느 다른 先進 民主國家의 政治體制와는 다른 형태의 制度의 수립과 그 制度의 운영을 기하게한 것이라 설명될 수 있다.

- 2) 美國의 大統領 中心制 : 美國의 大統領 中心制를 이해하려면 먼저 美合衆國의 成立과 國家聯合의 성격을 이해해야할 것이다.

18世紀 中葉부터 아메리카 大陸은 英國의 支配下에 있어 植民地政策을 받아왔다. 英國의 一方的인 立法措置로 美國의 여러 地方에 課稅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등 植民地 政策이 強行되자 여러지역에서 反對의 운동이 전개되고 1765年 10월에 9個의 植民地 代表들이 모여 "美國에 있어서의 植民地人의 權利와 不滿에 관한 宣言"을 의결하여 정식 彙의까지 한바 있고 1774년에는 12個 植民地 代表들이 모여 大陸會議를 개최 1776年 7月4日에는 13個州의 代表들이 모여 獨立宣言을 초안 공포하고 各州는 主權을 가진 獨立國임을 선언했던 것이다. 이 獨立宣言에는 ①自然權 ②契約權 ③革命權등 기본적인 政治의 原理를 명시하였다. 그다음 해 大陸會議에서 聯合同盟規約을 의결한바 있고 1781년에는 13個州가 法律上 聯合國家의 형식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中央政府의 組織을 뜻한 것은 아니며 英國에 反抗하기 위한 힘의 규합에 불과했던 것으로 그후 1787年 憲法會議를 통해 憲法이 制定되고 이에 同意한 13個州로 聯邦政府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당시 各州는 英國의 植民地 政策下에서도 自治的 統治體制를 갖추고 있어 植民地 自治의 中心은 植民地議會였고 그 議會의 中心은 代議院에 있었다. 이러한 自治的 性格을 띤 各州가 聯合政府를 구성함에 있어 強力한 中央政府의 組織이 必要했음 것이다.

그러나 大統領 選舉過程에나 聯合政府의 權限의 범위에도 自治的 州政府의 性格을 살리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大統領制를 택하고 있는 美國의 政治體制에 있어서 政治的 指導權은 大統領에게 부여되어 있다. 大統領은 行政府의 首班으로서의 地位 뿐만아니라 合衆國의 元首로서 最高의 外交指導

者로서, 軍의 總司令官으로서, 主要한 立法政策 形成者로서, 政党的 指導者로서 그리고 輿論의 指導者로서 모든 制度的 또는 實質的으로 중요한 지도적 地位와 權限을 갖는다.

따라서 美國에 있어서의 大統領의 地位는 政治体制의 全裝置의 樞軸的 地位이며 政治指導의 焦點의 地位를 갖는다. 그러나 州單位로 하는 地方自治制의 性格은 살려서 上下院의 聯合議會의 議員構成이며 그 選舉樣式은 州單位로 되어 있는 것이 또한 特性이다.

- 3) 仏蘭西의 議會絶對優位制에서 大統領優位制로의 轉換: 現在의 仏蘭西의 統治体制은 傳統的 議會政治와 美國式 大統領制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仏蘭西의 전통적 議會政治란 1848年의 2月革命으로 오래 지속된 王政을 廢止하고 共和主義者와 社會主義者들의 主導權아래 보통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議員 900名으로 國民議會를 구성하여 여기서 共和制憲法을 제정 새로운 共和國 成立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후 많은 시련을 거쳐 1875年 2月 25日에 國民議會에서 第三共和國憲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이른바 第3共和國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憲法의 本質은 英國의 議會를 모방한 것으로 議院內閣制의 統治体制을 갖추는 制度的 基本原則을 제시한 것이다.

仏蘭西에는 英國이나 美國에서 볼 수 있는 二大政黨制가 발달하지 못하여 仏蘭西의 議會는 多數의 群少政黨으로 分裂되어 있었으므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더욱이 大統領은 首相을 지명하는

정도의 權限만이 주어져 있었고 首相과 內閣은 異質의 諸政黨을 배경으로한 異質의 聯立內閣으로 政治的 一體를 형성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정책수행에 있어 統一성과 權위를 잃고 있었다.

요약하면 政府에 대한 議會的 萬能, 議會에 대한 政府의 無力, 政局의 극도의 不安定 등이 第三共和國의 政治的 傳統的 慣習이 되었다.

世界第2次大戰의 종말과 더불어 드골 (De Gaulle) 이 불란서의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 전통은 계승되어 그 당시의 制憲議會는 國民議會에 強力한 權力을 집중시켜 行政府를 立法府의 지배하에 두려했다. 이에 드골은 反對하여 強力한 行政權力을 갖는 大統領制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드골의 政治生命은 짧았으며 그뒤 몇번의 制憲過程을 거쳐 1946年 10月에 第二憲法草案이 國民投票의 찬성을 얻어 채택되어 第四共和國이 탄생되었다.

第四共和國 역시 10年동안 20 여회나 內閣이 바뀌는등 政局의 不安이 계속되었다가 1958年 드골이 政界에 복귀하여 혼란한 政局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10年前 주장했던 강력한 大統領制의 수립을 위한 改憲을 주장하여 그의 주장이 國民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第五共和國憲法이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行政府가 強化되고 議會的 地位는 低下되었으며 行政府內에서도 大統領의 權限이 확대되었다. 종전의 大統領은 하나의 象徴的 儀式的 代表에 불과했으나 이제 實質的 權限을 갖게 되

어 美國의 大統領制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大統領은 行政府의 首班으로 統治權을 갖게 되었고 安全政府를 構築하는 기반을 만들게 된 것이다.

- 4) 英國의 議院內閣制과 불란서의 議院內閣制의 比較 : 英國의 議院內閣制는 多數與黨의 政府에 대한 信賴, 政府와 議會를 맺는 강력한 紐帶, 統治作用과 野黨 作用과의 명확한 区分등으로 內閣의 優位性이 보장되어 있었으며 이는 兩黨制와 小選舉區制등의 制度에 기인된바 크며 이러한 制度의 수립이나 그 運營에는 건전한 英國의 政治傳統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英國의 議院內閣制는 建在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불란서에서는 議會의 無秩序, 內閣과 議會의 不調和, 行政府의 停頓狀態, 無氣力등은 內閣의 弱化和 行政府의 議會에의 優越성을 초래했으며 이는 議院內閣制가 比例代表制와 小黨分立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制度와 그 運營은 그들의 政治傳統에 기인된바 크다 하겠다.

Ⅲ - 3 現代 民主政治의 特徵

- 1) 政治制度 運營의 專門化 : 現代社會의 特徵으로 大衆社會의 出現, 科學 技術의 發達, 社會 諸機能의 細分化和 技術化, 社會問題와 經濟問題 解決을 위한 고도의 專門적 지식 技術의 필요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社會領域의 專門化는 國家統治와 制度의 運營에도 專門性이 要求되고 있다.

이렇게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화된 專門家에 의한 統治는 국민 大衆이나 國民에 의하여 선출된 凡常한 議員들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게 된다.

-2) 議會制度에 대한 懷疑: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화된 專門家에 의한 統治와 各種制度의 운영은 議員들의 地位와 발언권이 低下되고 議員들의 國民代表意識 내지 選良意識, 為民意識 등이 弱화되고 그들의 利害關係를 중심한 論爭은 도리혀 혼란을 야기시켜 國民에 의한 信賴感이 약화되고 있어 議會制度에 대한 不信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議會制度의 無用論이나 危機說은 前近代의 社会条件과 經濟的 条件下에 형성된 낡은 自由主義的, 議會主義的, 民主政治制度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에 대한 것이며 民主主義 理念과 生活原理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3) 國家權力의 集中化: 복잡한 諸般 社会問題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行政府의 權限이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현대의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은 民主政治의 兩大 中核的 制度를 택하고 있는 英國의 議院內閣制에서나 美國의 大統領中心制에서나 마찬가지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 4 民主主義 成長을 위한 先行條件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努力過程은 끝이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은 앞서 지적한바 있다.

民主主義는 現世完成的인 理念이 아니며 發展的, 進步的 理念이며 未來完成的 理念이기 때문에 그 理念具現을 위한 努力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발전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이냐에 있다.

여기에 民主主義의 成長을 촉진시킴에 필요한 先行條件들을 항목별로 지적 해 둔다.

- ① 國民의 教育水準과 높은 文字解得率
- ② 비교적 高度의 都市化
- ③ 비교적 높은 經濟水準
- ④ 文化的 同質성과 國民感情의 同質性
- ⑤ 中產階層의 擴大
- ⑥ 광범한 地理的, 社會的 流動性
- ⑦ 大衆的 意思傳達 媒介體의 발달
- ⑧ 잘 調和된 利益團體의 組織
- ⑨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 活動過程에의 광범위한 參與
- ⑩ 國民의 民主的 態度와 生活樣式
- ⑪ 外勢侵略에 대한 安保確信

第 3 章 韓國民主主義의 成長過程

〈 章 前 文 〉

本章에서는 우리의 政治, 文化的 傳統이 西歐的인 의미의 民主主義와는 달랐다 하더라도 共產主義的 要素나 共產主義를 受容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 民主主義的 要素와 民主主義를 受容할 수 있는 態勢가 더 많았음을 인식시켜, 짧은 歷史동안 西歐的 民主主義를 受容하고 발전시킴에 적지 않은 阻害要素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民主主義 발전을 위한 當면課題를 분명히 하고 발전을 위한 國民的 努力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強調點을 초점으로 하여 本章이 의도하는 目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韓國의 政治文化的 背景을 理解한다.

둘째, 初期의 民主主義 受容을 위해 시도된 試行錯誤過程을 이해하여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阻解하는 要因을 分析 批判할 수 있게 한다.

셋째, 民主主義 發展을 위해 취해진 制度的 조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課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넷째,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個人的 組織的 努力의 重要性을 인식케 한다.

以上の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급되어야 할 教育內容과 그 組織은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① 三國時代, 高麗時代, 李朝時代 그리고 開化期 등의 時期에 나타난 民主主義的 要素가 내포된 政治制度와 그 운영, 그리고 民權運動 등을 개관하면서 우리의 政治文化的 傳統의 特性을 밝힌다.

② 大韓民國 初期의 民主主義 受容過程에 나타난 試行錯誤를 分析하면서 民主政治文化 形成을 阻害한 要素를 밝힌다.

③ 過去의 政治制度와 그 運營과정의 모순점을 시정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制度的 조치의 의의를 밝힌다.

④ 韓民主主義 발전을 촉진하는 課題를 밝혀 國民的 努力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本章의 첫째 主題에 관한 內容은 第1部 「民族意識과 國家觀」에서 보다 상세히 취급되고 있어 여기에서는 그 중복을 피하고 다만 우리의 政治文化的 傳統 중 民主主義 要素가 내포된 의미만을 강조하여 우리의 政治文化的 傳統이 西歐的으로 가꾸어 지고 키워진 民主主義는 아니지만 이를 受容할 수 있는 要素가 많았고 共產主義를 받아들일 수 있는 傳統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그리고 ②③④에 관해서는 民主主義를 발전시키기위해 排除되어야 할 그리고 극복되어야 할 요소와 조성되어야 할 條件들을 부각시킴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며 다음 章에서 취급될 내용과의 연계를 지우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民主主義 발전을 위한 課題와 國民的 努力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내용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I. 韓國의 政治文化的 背景

I - 1 古代： 種族評議會

우리의 古代 原始共同社會는 그 社會의 統治權이 近世西歐社會에 있었던 絶對君主와 같은 獨裁者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선출된 주장 내지 촌장에게 주어져 운영되었다고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여 토론하고 代表를 선출하는

기회까지 주어진 것이 種族評議會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種族評議會의 유산으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宗中會議, 門中會議같은 것이 社会的 遺風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I - 2 三国時代

三国時代로 접어들면서 古代 原始共同體的 政治는 貴族政治로 전환되었으나 古代의 民主的政治體制는 계승되었다. 그 흔적으로 新羅의 骨品制度, 高句麗의 大對廬制度, 百濟의 國相制度같은 政策을 협의 결정하는 統治制度가 발전된 것이다.

- 1) 新羅의 和白會議制度 : 이는 古代 種族評議會의 參與者 滿場一致制의 전통을 이어 받는 것으로 近世 西歐의 代議制와 유사한 民主的 統治機構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2) 高句麗의 大對廬制度와 群公會議 : 古代 民族 내지 種族會議의 성격을 넘어서 여러 貴族들의 代表들이 모여 政事를 논하고 결정하는 合座機關으로 氏族長들의 貴族化로 이루어진 統治體制의 하나이다. 政事를 맡는 宰相들은 이 大對廬會議에서 貴族代表들의 互選으로 이루어졌다.

그뿐 아니라 政事를 확대된 群公會議에서 토론하는 制度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 3) 百濟의 政事殿과 國相制度 : 이 制度역시 高句麗의 大對廬制와 유사한 것으로 三国時代의 政治制度의 共通의 特徵인 合座制의 일종인 것이다. 이들은 政事를 논하는 代表들의 代議制와 같은 것이며 이들은 王位繼承 問題까지 논의하는 重要기구의 구실

을 했으며 會議場所도 여러 명지를 찾아 순회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I - 3 高麗王朝時代

三國時代 以後 高麗朝가 樹立되면서 中央集權的 封建社會로 변모되었지만 專制勢力的 登장을 排除하고 獨裁的 君主의 登장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보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예로는 高麗의 官制가운데 都堂制, 事審官制, 科擧制度, 司憲部, 弘文館, 取民有度의 收取制등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수 있다. 政事가 복잡해짐에 따라 일종의 行政府와 같은 官庁이 생기게 되었으며 南堂 혹은 都堂으로 불리워진 이 기구로 宰臣과 樞臣들이 함께 모여 國事를 의논하는 都堂會議를 가졌으며 王에게 政事를 건의하고 王의 獨斷的 결정을 견제하는 과실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代議的 性格을 띤 合座機關의 운영 傳統이 계승되는 한편, 王朝에 있어서도 寬仁政治思想이 지배하게 되고 이같은 寬仁政治의 실질적인 표현으로 黑倉制度, 救恤制度등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I - 4 李朝時代

三國時代와 고려시대를 거쳐 계승된 合座機關의 傳統은 李朝시대에도 계승되어 議政府와 備邊司와 같은 기구가 제정되고 운영되었다. 그밖에 廟堂制, 祖事, 經筵, 輪村制度등도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였으며, 專制的 傾向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제도로 言官三司, 民意의 暢達을 위한 直訴制, 上訴制 示威制度등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制度的 조치와 아울러 李朝의 政治概念은 고려의 仏敎思

想에 더한 寬仁政治에 못지 않게 儒敎的 政治理念에 더한 民主的 統治理念이 支配的이 었다.

즉 爲民思想과 民本思想은 民主的 統治理念에 손색이 없었다.

더욱이 支配者의 합리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이른바 博詢採納에 의한 政策決定過程은 民主的 결정과정을 위한 討論과 議決의 方式과 같은 것이 었다.

또한 李朝時代의 民主的 傳統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鄉約등 士林을 중심으로 하는 鄉里自治의 傳統과 哀慶相助나 農事에서의 協同作業의 전통이 地方의 連帶意識을 강화하는데 크게 작용한 전통으로 아직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事例로 남아 있다.

I - 5 開化期の 民權運動

統治階層에 대한 被支配層의 對항의식은 高麗中期에 流民, 賤民 등이 地方勢力과 結탁 身分制的 秩序에 반기를 든 소위 叛亂民의 運動으로 전개되기까지는 했으나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民權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民權運動의 始發점을 만든 계기가 된 것이며, 李朝 때 역시 兩班政治에 반항하는 農民들의 산발적인 民亂이 있었다가 東學革命에 이르러 民權意識이 近代的 感覺과 결부된 하나의 民權運動으로 일어난 歷史的 事件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東學은 西歐에서 볼 수 있었던 群主나 王, 혹은 貴族들에 대한 反抗의식 보다는 社會改革을 앞세운 階級으로 보아 民權意識의 한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I - 6 獨立運動

李朝末期 日帝의 침략에 항거한 政治運動은 自由와 獨立思想을 고취하는 社會계몽운동 내지 民族계몽운동으로 전개되어 自由와 自主의 意識으로 계속된 抗日鬪爭運動은 民族國家意識과 政治參與意識을 고취한 民族主体意識強化의 礎를 마련한 것이다.

II. 韓國民主主義 成長의 沮害

우리의 政治文化的 傳統에는 西歐의인 民主主義 傳統과는 다른 것일지 모르나 어떤 의미에는 西歐의인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한 民主的 傳統을 가지고 있었다. 더우기 人間尊重思想과 여러형태로 나타난 民主的 政治制度들은 民主主義를 수용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傳統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民主的 受容態勢의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이를 살려 크게 開花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여러가지 沮害要素도 크게 작용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沮害要素는 韓國만의 결점은 아니며 어느 나라에서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일 수도 있으나 유독 韓國社會에 크게 작용한 民主主義 발전을 沮害한 要素를 分析하고 批判할 것이 필요하다.

II - 1 民主政治文化 形成의 傳統的 沮害要素

- 1) 原始的 生産社會에서 탈피 못한 점
- 2) 世襲적 權威에 대한 존경과 순종
- 3) 秩序와 社會規範 形成의 主體者로서의 意識 欠如.
- 4) 封建的 身分制의 지속

- 5) 近代的 生産社会건설의 기회박탈 (日帝침략으로 인한)
- 6) 植民主義的 權威意識의 조장
- 7) 民主的 自治能力 배양의 기회박탈
- 8) 他律的 타성 강화
- 9) 政治 否定的 性向
- 10) 法治意識의 약화
- 11) 폐쇄성과 政治参与意識의 결여

II - 2 初期 民主主義 受容過程의 試行錯誤

西歐社会에서의 東洋社会에 있어서 소위 封建的 身分制가 강요되었던 時代에서는 民主主義가 크게 발전할 수 없었다.

西歐社会에서는 前近代的 生産社会에서 工業化와 産業化를 통한 近代的 生産社会로 옮겨 다시 大衆消費社会로 발전되면서 前近代的 封建社会의 질서가 무너지고 人間回復意識이 社会秩序形成의 主體者로서의 의식과 더불어 강하게 작용하여 人權尊重思想이 크게 나타나 前近代的 社会의 모순과 前近代的 統治體制에 항거하는 각종 운동을 통하여 民主主義가 開花期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이러한 開花思想이 始作은 되었으나 国内外情勢가 이를 피우게 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他力에 의하여 日帝에서 해방되어 建國을 하게 되었으나 이것 역시 他律에 의하여 南北으로 양단되는 불행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与件아래 西歐的 民主政治制度의 이식과 그 운영에는 순조로울 수 없었다. 그 몇 가지 결함을 지적해 본다.

- 1) 形式的 制度에 置重 : 建国理念의 바탕으로 民主主義 理念을 도입한데는 어느 누구의 反對도 없었다. 그러나 理念具現을 위해 만들어 지고 수정되고 운영의 妙로서 그 制度의 뜻을 살피가는 西歐式 議會民主主義를 그대로 移植하여 制度만 갖추어지면 民主政治는 훌륭히 運營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큰 모순이 었다.

앞서 지적한바 있듯이 民主主義의 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制度의 수립과 그 운영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일려면 先行條件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具備條件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西歐式 民主政治制度를 이식하여 形式的인 制度에 집착한 것이다.

- ① 政黨組織과 그 운영의 모순
- ② 國會中心의 國政混亂
- ③ 選出된 代表들의 政治生命을 위한 利己的 行動
- ④ 行政府의 非能率化
- ⑤ 為民的 責任政治 實行難

- 2) 初期의 政治的 混亂 : 代表選出의 후보의 亂立에서 볼 수 있었던바와 같이 政黨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政治資金의 확보와 난립한 政黨들의 黨利黨略에 치중 政治的 混亂을 면치 못했다. 黨의 政治的 理念의 결여는 물론 政策의 빈곤으로 政策的 對決없이 人物中心의 對決은 自然 分裂과 感情的 對立이 극심하게 되었으며 國民 역시 政治的 혼련과 경험 부족으로 私利的 期待로 代表를 선출하는 경향이 높아 후보자는 이를 最大限으로 이용, 있을 수 없는 私的 公約의 남발, 善心攻勢, 權謀術數.

票의 買收 등으로 資金의 탕진, 民心의 혼란, 社会的 分裂, 国政의 문란 등을 招來했다.

- 3) 個體的, 觀念的 自由의 범람과 不調和 : 他律的 구속과 통제에서 벗어난 韓國民은 해방후 自由처럼 甘味스러운 幻想的 概念은 없었다. 社会 및 國家의 安全과 秩序, 그리고 社会的 福祉와 正義를 前提하지 않는 責任없는 自由만을 내세웠던 것이다. 따라서 反社会的, 國家社会的 利益에 역행하는 行爲들이 범람하여 社会的 혼란상이 버러지게 되었다.

- 4) 빈곤과 낭비 : 自主經濟의 터전을 구축할 여유도 없이 建國한 우리는 外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經濟發展의 터전을 마련하는 産業構造의 改革은 도외시한체 形式的 民主政治 制度의 운영에 급급하여 낭비만이 계속되었다. 國民은 또한 外來文物에 자극되어 奢侈와 浪費의 風潮만이 高潮되었다. 이렇게 資本主義的 經濟成長을 촉진한 西歐의 精神的 背景을 터득하지 못한체 外形的 소비성향만 전염되어 貧困의 惡循環이 계속되었다.

- 5) 事大主義와 受惠意識의 고조 : 外國의 援助에 힘입은 우리는 남의 힘과 도움만에 의존하는 受惠意識이 強化되고 있었으며 事大主義意識 또한 고조되게 되었다. 남의 것은 다 종와 보이고 우리것을 천시하는 풍조가 고조되고 있었다.

- 6) 主體意識과 主權意識의 欠如 : 國家의 理念과 體制, 制度 등 西歐的인 것의 移植에 불과 하여 經濟的 貧困으로 인한 受惠意識과 事大主義意識의 고조와 더불어 主體意識의 발아가 沮害되어

있었다. 文化的 伝統으로 계속된 民族의 主體性마저 弱화되어 모든 것을 우리의 傳統과 實情에 맞게 창조하는 主體的 創造意識이 欠如되어 있어 發展的 추진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 또한 國家의 주인으로서의 主權意識이 欠如되어 있어 他律的 性向이 계속되었다.

- 7) 價值觀의 混亂 : 外來의 文物에 자극되어 西歐的인 價值觀을 形式的으로 받아드리는 풍조가 고조되고 事大主義的 意識과 결부하여 우리의 傳統的 價值觀은 극단적으로 부정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行動感情 思考등에 있어서는 傳統的인 樣式이 지배적이면서 이들 양식의 바탕이 되는 價值觀만을 부정하려는 모순을 가져 價值觀의 혼란과 갈등상이 家庭을 비롯하여 學校등 모든 社會 人間 關係에 노골화 되고 있었다.

Ⅲ .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課題

Ⅲ - 1 새로운 政治理念과 體制의 模索

過去의 西歐式民主主義 移植을 위한 試行錯誤過程에 나타난 모든 모순을 제거하고 급변하는 國際情勢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앞당기고, 經濟的 發展을 촉진하기 爲하여 새로운 統治理念과 體制의 定立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단행된 改革이 10月維新이다.

- 1) 10月維新의 理念 : 民族의 生存과 번영, 그리고 平和的 祖國統一을 期約하기 위한 民族主體性의 確立과 발전에 그 기본적인 이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유의해야 할 것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뜻은 아니며 그 民主理念을 具現

하는 우리의 統治理念에 새로운 뜻을 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民族的 主體性和 自主性 없이 우리의 現實 위에 民主主義 理念이 効果적으로 具現될 수 없다. 또한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先行條件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經濟的 自立力量없이, 外勢에 대한 自衛的 力量없이 自主独立的 主權意識없이, 그리고 政治的 安全없이 民主主義 理念이 具現되기 어렵다.

그리고 또한 國家意思의 總화에 의한 政策을 効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行政力이 결여되고 發展역시 촉진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政治理念의 定立과 體制의 改革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 2) 體制의 改革 : 憲法의 改定과 制度의 改革은 위에 지적인 새로운 理念的 要請에 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 ① 非能率的 制度의 改革
- ② 周刃情勢變化에의 能動的 対応
- ③ 韓國의 文化傳統과 社会的 經濟的 實情에 맞는 制度의 수립
- ④ 韓國民主主義 발전 土건 구축
- ⑤ 祖國의 平和的 統一課業 早期完成

II - 2 維新體制의 目標

世界史的인 大轉換點에서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대응하고, 南北對話를 통한 祖國의 平和統一에 積極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國內體制를 改革하고, 國力의 効果적인 組織化를 도모하여 安

定을 이룩하고, 能率을 극대화하여 번영과 통일의 영광을 차지하려는 維新體制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된 기본 目標은 다음과 같다.

① 自主的인 民族活路를 개척하여 安定과 繁榮을 기약할 수 있는 国力 培養을 加速化하고 国力의 組織化를 이룩한다.

② 民族主體勢力을 형성하여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성취한다.

③ 韓國民主主義를 定立 발전시킨다.

④ 國土와 資源의 綜合的 開發과 自助的 地域社會 開發로 祖國近代化와 福祉社會를 건설한다.

⑤ 우리 社會의 모든 不條理, 非能率, 非生産性, 無秩序를 剷絶하여 社會革新을 이룩한다.

Ⅲ - 3 民主主義發展을 위한 課題

- 1) 民族主體性의 確立 : 民主主義 理念을 구현하는 主體는 過去에도 民主的 傳統을 가진 우리의 韓民族이며, 우리 民族 이외의 다른 民族이 우리를 위해 모든 여건을 구비해줄 民族이나 國家는 없다. 우리 韓民族을 위한 民主主義 理念具現이기에 우리 땅에, 우리를 위해 民主主義를 발전시킬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民族主體性이 確立되어야 한다. 따라서 韓國民主主義는,

① 우리가 主體가 되어 스스로 발전시키려는 民主主義이기에, 그것은 韓民族의 主體的 創造의 한 課題이며,

② 그것은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實踐하려는 民主主義이기에, 그것은 韓民族의 歷史的 自立을 위한 過程이며,

③ 또한 民主主義는 우리의 韓民族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것이기에, 그것은 民族的 主體의 한 實踐理想이다.

이러한 韓國民主主義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課題는 民族主體性의 確立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民族主體性的 確立을 위해서는,

- ① 民族傳統에 대한 자부심.
- ② 民族國家觀의 확립.
- ③ 韓民族의 正統性에 대한 확신.
- ④ 民族力量에 대한 自信.
- ⑤ 民族力量培養에의 사명감, 등을 갖도록 하는 문제들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 2) 國家一體感과 國民總和의 形成 : 民族的 國家觀의 確立은 먼저 民族으로서의 一體感이 형성되고, 個人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더전인 國家와의 同一視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國家一體感은 國民의 意思의 총화를 낳게 한다. 國民총화 없이 分裂과 對立, 마찰과 갈등만이 만행되면 安定과 번영을 위한 기반은 물론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社會的 기반이 조성될 수 없다.

- 3) 經濟發展과 國民福祉 增進 : 現實的으로 빈곤과 굶주림으로 부터 탈피하지 않고 個人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個人의 尊重性이 보장될 수 없다. 理念具現을 위한 現實的 條件은 經濟生活의 향상이며 당면 目標 역시 社會正義 實現과 福祉增進일 것이다.

- 4) 自律的 創意的 活動과 能動的, 協同的 參與 : 依存的이고 勞働的인 活動으로 主體性과 創意性이 육성될 수 없으며 進步

와 發展 또한 약속될 수 없다. 더우기 民主主義 理念具現은 불가능하다. 社會의 革新과 經濟建設과 그리고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해 모든 國家的 事業에 自律的이고 創意的이고 그리고 能動的이고 協同的인 參與資勢가 크게 요청된다.

- 5) 国力培養의 加速化와 国力의 組織化 : 以上에 제시한 課題를 성취하기 위한 方法的인 課題로서 ,

- ① 不条理 , 非能率 , 非生産的 요소의 除去.
- ② 制度的 결함의 시정
- ③ 国力培養을 촉진하기 위한 制度的조치와 組織化의 필요 등이 요청된다.

第4章 民主的 生活樣式과 生活態度

〈 章 前 文 〉

政治나 經濟가 國民의 生活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民主主義를 논하고, 그 本質을 규명할 때 흔히 政治體制나 經濟體制에 결부시켜 그 의미를 규정하게 된다. 政治生活 및 經濟生活은 社会生活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이 民主主義를 政治形態나 經濟體制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民主主義의 한 부분만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

民主主義는 統治原理 以上の 것으로 모든 社会生活의 原理인 것이다. 民主的 政治體制역시 國民 個人이 民主的 生活原理에 따라 行動할 것이라는 前提를 하고 있다. 만일 國民 各者가 民主的 生活原理에 따라 行動하지 않는다면 政治體制나 制度가 民主的이라 하더라도 그 것은 허울만의 것이지 眞正한 의미의 民主社會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制度는 사람이 實際에 있어서 어떠한 行動을 해야 할 것이라는 規定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制度는 사람이 그 규정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게 될 때 그 體制는 善體制가 되며 그렇지 못한 制度는 허울만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本章은 建設的이고 創意的인 國家生活, 集團生活, 그리고 個人生活을 위한 民主的 生活樣式의 의의와 그 實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目標달성을 위한 內容要素의 선정과 組織에 유의한다.

첫째,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의 意味를 이해한다.

둘째, 韓國民主主義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態度와 生活能力을 갖게 한다.

셋째, 問題를 建設的이고 創意的으로 解決하는 態度와 能力을 갖
게 한다.

以上の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內容의 組織은 다음과 같이 設定
한다.

1. 生活原理로서의 民主主義의 의미
2.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위한 社会的 特性
3. 民主的 人性和 態度
4. 問題의 建設的 解決

I.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

I - 1 社会生活의 原理와 信條

- 1) 人間 觀 :

- ① 사람의 價值를 가장 귀중한 가치로 존중하는 人間觀
- ② 人間의 有目的 的存在로의 人間觀
- ③ 人間의 性善的 本質을 믿는 信念
- ④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能力을 가진 사람으로 믿는 人間觀
- ⑤ 自治的 能力의 所有者로서의 人間觀

- 2) 人間關係의 原理 :

- ① 他人을 존경하는 態度
- ② 個性을 존경하는 態度
- ③ 妥協과 協同의 態度
- ④ 社会的 責任을 지는 態度

I - 2 民主社會의 特性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할 수 있는 民主社會란 무엇보다 人間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自由와 平等을 기둥으로 하는 社會인 것이다. 여기에 民主社會의 特性을 좀더 具體적으로 규명해 둔다.

- ① 사람의 能力을 믿는 社會
- ② 個性을 존중하는 社會
- ③ 多元社會
- ④ 自律的 活動이 존중되는 社會
- ⑤ 知性優位의 社會
- ⑥ 科學的 實驗을 통한 創意的 問題解決을 존중하는 社會
- ⑦ 協議와 協同의 社會
- ⑧ 多數와 少數가 다 같이 존중되는 社會
- ⑨ 公共의 福祉를 위하는 社會
- ⑩ 公開社會
- ⑪ 法이 다스리는 社會
- ⑫ 進步的 社會

여기에 지적한 民主社會의 特性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을 바탕으로 個人의 最善我的 實現을 위한 能力, 個人의 自治的 能力, 個人의 幸福追求를 위한 能力을 民主主義는 믿는다. 이러한 信念위에 民主社會는 세워지는 것이다.

II. 民 主 的 人 間 型

民主主義는 外部에서 주어지는 物件이나 制度와 같은 形式的인 허울만의 體制가 아니며 사람이 생각하고 行動하는 生活原理임을 밝혔다. 그러나 前節에서는 社会的 水準에서의 民主的 生活原理를 밝힌 것이며 여기에서는 個人的 水準에서의 民主的 生活原理를 밝히려는 것이다. 理念이 民主的이고, 制度가 民主的이라고 해서 社会生活이 民主的일 수 없으며, 制度의 운영이나 对人關係가 이루어지는 過程에 참여하는 個人이 갖는 人性和 態度 여하가 그 民主性 여하를 결정하는 基本요소가 되는 것이다.

더우기 民主主義는 個人的 尊嚴性和 能力을 믿는 精神的 土전 위에 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民主主義의 발전 여하는 個人의 人性 및 態度의 特性에 의존되는바 크다. 여기에 民主社会에서 존중되고 장려되는 人間的 特性을 지적해 둔다.

II - 1 民主的 心理特性

- ① 獨立心
- ② 自律的 態度
- ③ 他人에 대한 尊敬心
- ④ 異見에 대한 尊重
- ⑤ 妥協과 協同心
- ⑥ 創造的 態度
- ⑦ 科學的 實驗的 態度
- ⑧ 開放的 性格
- ⑨ 集團知에 대한 信念

⑩ 積極的 社會參與의 態度

⑪ 社會的 責任感

民主的 人性特性 중 가장 중요한 특성은 獨立性和 自律性이다. 個人이 自身の 存在價值와 能力을 믿지 못하고 他人에 의존하여 그의 命令과 指示에 따라 行動한다면 個人의 尊嚴性和 能力에 대한 概念의 토대위에 세워지는 民主主義는 그 的의를 잃게 될 것이다.

獨立心과 自律的 態度는 다른 유사한 개념으로도 풀어 설명될 수 있다. 自己自身の 存在價值를 인정하는 自尊心, 自信感, 個性신장에 대한 自信, 自決的 能力, 自治的 能力에 대한 肯定的 態度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와같이 위에 제시된 心理特性들을 풀어 보충설명할 것이 필요하다.

Ⅲ. 現實的 問題의 建設的 解決

民主主義는 完全無欠하게 만들어진 既成品이 아니며 가꾸어 나가는 發展的 未來 完成的인 理念임을 여러차례 설명한바 있다. 따라서 問題와 葛藤이 全혀 없기를 기대할 수 없고 民主主義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個性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성을 믿기 때문에 一律的인 統制가 허용되지 않으며 多樣性을 허용하기 때문에 混亂해질 가능성도 있다. 民主主義는 이러한 多樣性 속에 調和를 찾으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고 問題의 해결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그러나 民主社會에서는 問題와 葛藤을 隱蔽하지 않고 도리어 문제와 갈등의 所在를 찾아 밝히고 이를 建設的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더

욱 가치있는 일로 여긴다.

民主社会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共通된 문제와 葛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나라마다 文化的 背景이 다르고, 社会的, 經濟的, 地理的 与件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특수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며, 또한 문제해결과정에 사용되는 方法 역시 다를 것이다. 따라서 民主国家마다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를 찾아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나 民主主義 理念을 구현하기 위하여 갖는 공통적인 문제를 예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좋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韓國의 狀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찾아 그 문제가 야기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예시하여 討論케 하는 방법도 권장될 만한 것이다. 먼저 共通된 문제 몇가지를 예시하고 그 건설적 해결방안을 예시하기로 한다. 무엇보다 먼저 강조해야 할 점은 問題에 임하는 태도나 그 해결 방법에 있어 民主国家和 共產独裁国家와의 차이 점을 밝히는 점이다.

III - 1. 民主主義가 敢行하는 冒險

民主主義도 個人的 尊嚴性을 믿는 信念위에 서 있기 때문에, 個性을 존중하고 多様な 個人的 意思와 主體를 허용하고 장려한다. 그리고 문제들의 해결도 個人的 知性的 努力으로 발전을 위해 建設적으로 해결될 것을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는 冒險性이 수반된다. 多様な 個人들의 의사와 主張은 社会的 혼란과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어 社会的으로 수습하기 힘든 큰 문제로 化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일체의 문제와 갈등을 抑圧하는 独裁国家 보다 문제들을 밝혀 個人들의 知性的이고 創意的인 努力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 民主国家的 冒險이 歷

史的 事實이 立証하고 있듯이 失敗하지 않았고 발전과 진보를 위해 도리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난관을 民主國家들은 갖지 않으며 個人的으로, 集團的으로 혹은 國家的으로 계속 努力하는 價値를 높이 갖는다.

Ⅲ - 2 民主社會가 갖는 共通된 問題

- 1) 個人的 존중과 個人的 意思를 존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 ① 個人的 利益과 利己의 主張과 行動
- ② 社會의 혼란과 마찰
- ③ 社會秩序의 문란

- 2) 自由와 平等, 自由와 統制와의 調和 問題

- ① 機會의 不均等
- ② 貧富의 隔差
- ③ 勞使間의 갈등
- ④ 競爭과 協同의 問題

- 3) 政治制度 運營上의 問題

- ① 國家意思의 형성문제
- ② 選舉制度의 운영문제
- ③ 政黨의 운영문제
- ④ 政治資金의 문제

- 4) 個人과 組織, 個人과 社会, 國家間的 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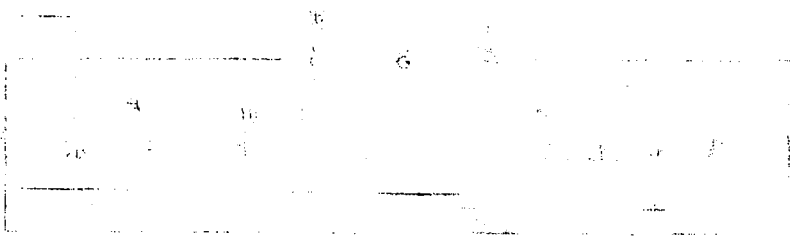
- ① 協同의 問題
- ② 個人利益과 組織利益간의 갈등
- ③ 愛國心の 問題
- ④ 利他心の 問題
- ⑤ 公共福祉의 問題
- ⑥ 總和의 團決의 問題

Ⅲ - 3 民主的 問題解決過程

- 1) 討論과 妥協
- 2) 多數決의 原理
- 3) 科學的 實驗的 方法
- 4) 創意的 問題解決
- 5) 合理的 解決

— 第 3 部 —

共 産 主 義 의 理 論 과 実 際



7

目 標

1. 共產主義理論과 實際의 矛盾性 批判
2. 共產主義의 宣傳과 煽動에 對処하는 態度와 能力
3. 北韓의 實情理解와 北韓挑戰 克服能力
4. 民主理念과 韓國民主體制의 優越性 確認

概 要

題 目	內 容	強 調 點
I. 共產主義理論과 그 批判 1. 發生背景 2. 哲 學 3. 政治論 4. 經濟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獨逸의 古典哲學, 英國의 政治經濟學, 프랑스의 空想的 社會主義의 集大成 • 弁證法的 唯物論, 史的 唯物論의 概要 및 批判 • 階級鬭爭論, 革命論, 「프롤레타리아」獨裁論, 國家死滅論, 前衛黨論, 「프롤」의 國際主義와 平和共存論의 概要 및 批判 • 「資本論」, 勞動價值說, 剩餘價值說, 資本主義崩壞論, 帝國主義論의 概要 및 批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스」의 獨創物이 아니라는 點 • 共產主義理論은 分析對象인 資本主義의 發達로 變質이 不可避하다는 點 • 現代共產主義는 힘의 哲學을 信奉하면서 世界赤化를 획책한다는 點 • 民主主義 優越性
II. 北韓實情 1. 北韓共產主義의 特殊性 2. 「主体思想」批判 3. 政治實態 4. 經濟實態 5. 軍事實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偽裝民族主義, 好戰性, 教條主義, 閉鎖性 • 「主体思想」의 概念, 性格, 戰略的 利用 • 金日成의 政權掌握過程, 權力構造 및 行使, 對南戰略에 對한 概要 및 批判 • 經濟體制, 基本路線, 現況分析과 脆弱點 導出 • 北韓의 軍事思想, 軍事戰略 및 戰爭準備狀況分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實態分析을 통한 脆弱點 • 對話以後에도 韓半島 赤化野慾을 포기치 않는다는 點 • 国力培養이 戰爭抑制 및 統一의 契機이라는 點
III. 戰略戰術 1. 概 念 2. 類 型 3. 北韓의 戰略戰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戰略: 對象 및 主力軍의 決定, 戰術: 條件 • 戰略: 프롤레타리아의 革命戰略, 人民民主主義 戰略 • 戰術: 統一戰線, 上下層 統一戰線, 其他 • 赤化統一戰略, 人民民主主義 戰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戰略戰術은 對象地域의 脆弱點을 노린다는 點 • 戰略戰術은 政治路線과 一致한다는 點

序 說

從前까지 시도되어온 우리의 反共教育의 가장 큰 弱点中の 하나는 共產主義와 北韓의 正체를 이론적으로 정확히 理解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못한 點에 있다. 共產主義 내지 北韓에 대한 反感 내지 嫌惡心을 갖도록 함에 力點을 둔 從前의 反共教育의 次元에서 進一步하여 認知的 理解를 더욱 강조하는 次元의 教育이 크게 要請되고 있다. 이러한 要請은 國際情勢의 변화와 南北對話를 통한 接觸 以來 더욱 切實해진 것이다. 그밖에 教育的 效果로 보아서도 認知的 理解를 土台로 한 否定的 感情樣式은 더욱 강화되고 지속된다고 보아 금후의 政治思想教育은 종전의 反共教育에서 試圖한 共產主義 내지 北韓에 대한 否定的 感情을 갖게하는 次元을 포함하였는데 이에 추가하여 共產主義와 北韓의 正체를 정확히 理解하고 批判할 수 있는 能力을 育成하는 教育을 強化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部는 共產主義의 理論의 모순성을 정확히 理解하고 批判할 수 있게하여 北韓의 實情과 挑戰樣相을 理解하고 그 挑戰을 克服하는 能力을 갖도록하는 認知的, 情意的 特性을 育成하는 點에 強調를 두게 된다.

오늘날 共產主義라 하면, 주로 「레닌」에 의하여 修正된 「마르크스」主義를 意味한다. 특히 共產主義는 人間의 問題에 關하여 解決策을 가지고 있다고 主張하는 點에서 역사상 다른 教理와 유사하다. 教理는 追從者를 이끌어 그 目的을 爲하여 心血을 바치게하는 매력에 있다. 共產主義者들도 그의 追從者에게 「유토피아」

的 約束을 한다. 뿐만 아니라 産業時代를 包含하는 歴史的 發展段階에서 發生하는 모든 問題를 科學的으로 說明할 수 있다고 自負한다. 이처럼 共產主義는 民族이나 기타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모든 人間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可恐할 全体主義 敎理로서 登場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事實을 감안하여 第3部인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는 共產主義理論의 矛盾性和 實際의 협오성을 바탕으로 共產主義의 正體를 올바르게 理解하고 그 正體를 은폐하기 위한 戰略戰術을 分析하여 이에 賢明히 對處함과 同時에 反射的으로 民主主義의 優越성을 確信케 하는 態度를 培養함에 그 基本目標을 두고 있다.

이를 爲하여 本部는 크게 共產主義理論과 그 批判, 北韓의 實情 그리고 共產主義의 戰略戰術 등 3個章으로 나누어 그 內容을 組織 整理하였는 바 그 內容과 強調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

第1章 “共產主義理論과 그 批判”에 있어서는 共產主義理論의 矛盾性和 그에 따른 變質不可避性を 理解시키기 위하여 共產主義의 發生背景과 共產主義의 哲學, 政治, 經濟理論을 提示하고 그 矛盾性을 하나 하나 指摘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共產主義理論이 「마르크스」의 獨創的인 理論이 아니라 當時의 政治, 經濟學說을 集大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과 初期 資本主義를 그 分析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資本主義의 發展과 더불어 그 理論의 矛盾性이 露骨化되었고 그를 合理化시키기 爲해서는 理論의 變質이 不可避하다는 點 그리고 變質된 現代 共產主義는 「힘의 哲學」을 信奉하면서 世界赤化를 劃策하였다.

는 것등을 論証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第2章 “北韓實情”에 있어서는 共產主義理論과 關聯하여 北韓實情을 綜合적으로 批判할 수 있고 大韓民國의 優越性を 認識하도록 함과 同時에 「10月維新」을 비롯한 各種 政府의 統一努力에 積極 參與하고자 하는 意欲을 鼓吹시키는데 그 目標을 두었다. 따라서 그 內容을 크게 北韓共產主義의 特殊性을 分析하고 이와 關聯하여 金日成의 主体思想, 政治, 經濟, 軍事實態를 分析 批判하였다.

第3章에서는 共產主義 戰略戰術의 臨機應變性과 이에 対処하는 能力을 培養하는데 그 目標을 두고 共產主義 戰略戰術의 概念과 類型을 分析한 다음 北韓共產主義 戰略戰術의 性格을 究明하였다. 特히 戰略戰術分野에서 強調하여야 할 點은 共產主義가 相對方의 脆弱點을 노린다는 것이다.

第1章 共產主義理論과 그 批判

〈 章 前 文 〉

第1章에서는 共產主義理論의 矛盾性을 理解시키고 이를 批判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키 爲해 다음과 같은 細部目標을 設定하였다.

첫째, 「마르크스」主義는 「마르크스」의 獨創的인 理論이 아니라 當時의 古典的 學說을 그 나뉠대로 集大成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理解시키고

둘째, 共產主義理論은 資本主義 初期의 現象을 分析對象으로 하였고 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미 하나의 진부한 空論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과 繼續 變質되는 가운데서 하나의 全體主義的인 「이데오로기」로 轉落되었다는 事實을 理解시킨다.

셋째, 그러면서도 共產主義는 그 理論上의 矛盾性과 虛構性을 은폐하기 爲하여 「힘의 哲學」을 배경으로 世界赤化를 圖策하고 있다는 事實을 共產主義理論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끝으로 共產主義의 理論批判을 通해 民主主義의 優越性을 確信하고 韓國民主主義의 發展에 積極 參與하는 態度를 기른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本章의 內容은 다음과 같이 組織되었다.

첫째, 共產主義의 發生背景은 당시 유럽의 思想潮流를 一括하여 「마르크스」가 어떤 思想의 影響을 받아 그 理論體系를 定立하였는가를 分析하고

둘째, 共產主義의 基本哲學으로서 弁証法的 唯物論과 史的唯物論의

概要를 提示한 後 그에 對한 批判要素들을 簡略히 記述할 計劃이다.

셋째, 共產主義 政治理論은 그 前提가 되고 있는 階級鬭爭論의 矛盾性을 分析하고 이에 根拠한 暴力革命論,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前衛黨論, 國家死滅論, 「프롤레타리아」 國際論 및 平和共存論등을 相互關聯하에 그 基本概念과 矛盾點을 하나하나 指摘할 것이다.

네째, 共產主義의 經濟理論은 「마르크스」의 「資本論」의 紹介와 經濟理論의 骨幹인 勞動價值說 및 剩餘價值說이 이미 學說로서나 理論적으로 成立되기 어렵다는 事實을 論證하고 이에 기초하여 主張한 資本主義 沒落論과 帝國主義論의 虛構性을 論理的으로 立證할 것이다.

특히 本章에서 強調하여야 할 事項은 共產主義理論이 相互關聯性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편이상 나누어 놓은 哲學, 政治, 經濟理論을 相互關聯性을 지우면서 綜合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例컨대 政治理論과 階級鬭爭論만 하더라도 이는 哲學의 唯物史觀과 經濟理論의 國家死滅論과 密接한 關聯이 있으므로 그 어느 하나를 獨立적으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共產主義는 그 理論自体가 矛盾투성이인 데다 分析對象으로 하였던 資本主義가 變化發展됨에 따라 그 變質이 不可避하고 그 變質된 內容을 中心으로 國民을 現혹시킨다는 事實을 強調하여야 하며 變質된 現代共產主義는 「힘의 哲學」을 信奉하면서 多樣한 戰略 戰術을 通해 世界赤化를 圖策하고 있다는 것을 強調하여야 한다. 특히 共產主義의 正體는 다음 第3章에서 詳述될 것이다.

I. 共產主義理論 發生의 背景

I-1 社会的 背景

-1) 18世紀 中엽 英國을 비롯한 유럽 諸國의 資本主義는 民主主義가 制度로서 만족하게 具現되지 못한 여건에서 工場勞動者들에 대한 勞動條件은 应当 社会問題로 登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크스」主義는 이와같은 社会問題 解決의 여망을 반영한 것처럼 論理를 展開함으로써 社会의 새로운 思想으로 脚光을 받았다.

-2) 「마르크스」主義의 特異한 點은 制度의 改善에 의해서 社会問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既存制度 즉 資本主義의 止揚에 의해서 問題를 本質적으로 解決해야 한다고 하는 革命的 立場이었다.

-3) 「마르크스」의 이러한 革命的 立場은 人類社会의 歷史를 敵對的 階級間의 鬪爭歷史로 보았다. 이는 資本家階級과 政治權力을 一體化시킨데 기인한다.

-4) 「마르크스」主義의 根本的 誤謬는 資本主義의 沒落과 共產主義 社会의 必然的 到来를 唯物弁証法과 唯物史觀에 기초를 둔 社会發展 法則으로 본다 있다.

-5)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内部의 적대적 矛盾은 革命的 方法으로 밖에 解決할 길이 없다고 보았고, 그의 모든 理論體系는

이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民主主義 思想의 發達과 그의 制度化로 資本主義 矛盾은 革命이 아닌 政策으로 克服할 수 있다는 事實이 證明되었다.

-6) 「마르크스」主義의 本來 対象인 초기 資本主義는 「마르크스」의 예측과는 다른 方向 즉 國民 복지의 方向으로 發展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資本主義 社會를 「마르크스」 理論으로 說明할 수 없게 되었다.

-7) 「마르크스」主義는 당시의 制度的 特殊性을 分析하였다는 점에서 그 價値가 認定될지언정 時대를 초월한 普遍的 真理일 수는 없다.

1-2 學說的 背景

-1) 「마르크스」의 共產主義 理論은 社會를 客觀的으로 研究 分析해서 도출한 科學的인 것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의한 共產主義 實現이라는 目的을 미리 의식하고 짜낸 것이기 때문에 真理가 될 수 없었다.

-2) 「마르크스」는 「헤겔」의 弁證法과 18世紀 「프랑스」 唯物論 및 「포이엘바하」의 形而上學的 唯物論 그리고 英國의 古典 經濟學說을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의해서 必然的으로 到來한다는 共產主義의 政治的 圖式에 맞추어 援用하였다.

-3) 「칼·마르크스」는 처음에 「헤겔」研究의 忠實한 學徒였

으나 革命家로 出發하면서 「헤겔」弁證法의 바탕인 觀念論을 버리고 대신 「포이엘바하」의 唯物論을 가져다 「唯物弁證法」을 만들었다. 그리고 英國의 古典 經濟學說에서 「勞動價值說」을 배워 이를 剩餘價值說의 土臺로 삼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초기 資本主義를 分析하였다.

-4) 「칼·마르크스」는 「산·시몽」, 「로버트·오웬」 등의 소위 空想的 社會主義의 影響을 받았다. 「마르크스」는 社會主義 내지 共產主義가 社會發展 法則에 의거하여 必然的으로 實現된다는 原理를 밝혔다하여 空想的 社會主義를 非科學的이라 하고 그의 學說을 科學的 社會主義라고 불렀다.

-5) 「마르크스」主義의 學說的 背景은 以上과 같이 多元的이고, 一定한 목적을 爲해 그 原理를 顛倒시켰거나 異質化시켰다.

-6) 올바른 의미에서의 「마르크스」主義는 1910年頃 「第2 인터내셔널」의 事實上的 終末과 더불어 하나의 社會思想으로서의 位置를 喪失하였다. 오늘날 共產主義라 함은 주로 「러시아」의 「볼셰비즘」을 가리킨다. 共產主義者들은 「볼셰비즘」이 「마르크스」主義를 가장 올바로 繼承 發展시켰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프롤레타리아」革命의 戰略戰術에만 重點을 두었고 學說的 價值는 거의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7) 오늘날 共產主義者들에 依해서 「마르크스」主義가 修正되었거나 歪曲되고 있는 것은 時代錯誤로 말미암아 現實에 옳게 대

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Ⅱ. 共 産 主 義 哲 学

Ⅱ-1 唯 物 弁 証 法

-1) 唯 物 弁 証 法 的 概 要 :

① 唯 物 弁 証 法 是 「헤겔」의 觀 念 論 的 弁 証 法 과 「포이엘·바하」의 唯 物 論 을 結 合 하여 獨 特 한 理 論 體 系 을 이 루 어 놓 은 것 이 다 .

② 唯 物 弁 証 法 은 世 界 의 本 質 은 物 質 이 며 物 質 이 內 在 된 矛 盾 에 의 하여 正 (肯 定 - Thesis), 反 (否 定 - Anti-thesis), 合 (否 定 의 否 定 - Syn-thesis) 의 3 段 階 方 式 으 로 不 斷 히 運 動 하 여 變 化 發 展 하 며 이 것 이 世 界 發 展 의 原 動 力 이 라 고 한 다 .

③ 「헤겔」 弁 証 法 의 核 心 은 理 念 (精 神 , 觀 念) 인 데 「마르크스」 弁 証 法 의 理 論 은 그 래 로 반 아 들 이 면 서 그 核 心 을 理 念 이 아 니 라 物 質 이 라 고 하 였 다 . 즉 「헤겔」 과 「마르크스」 는 自 然 界 , 人 間 界 를 包 含 한 全 世 界 를 부 단 한 流 動 過 程 이 라 고 보 는 데 있 어 서 는 同 一 하 다 . 「헤겔」 은 世 界 의 根 源 은 精 神 (意 識 , 理 念) 이 며 모 든 物 的 現 象 은 精 神 의 外 的 表 現 이 라 고 본 데 反 해 서 「마르크스」 는 世 界 의 本 質 은 物 質 이 며 모 든 精 神 現 象 은 物 質 의 作 用 이 라 고 보 았 다 는 데 큰 差 異 가 있 다 .

④ 「마르크스」 의 唯 物 弁 証 法 은 「레닌」 과 「스타린」 에 의 해 서 그 의 獨 自 的 見 解 가 加 味 되 어 비 로 서 體 系 化 되 었 다 .

-2) 唯物弁証法の 批判

① 唯物 弁証法은 一切의 物質이 矛盾을 품고 있다는 命題로부터 出發되고 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勿論 「엥겔스」나 기타 그후의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物質은 矛盾을 품고 있다는 事實을 實例로 들어 證明하려고 努力했었다. 그러나 現實世界는 矛盾을 지니고 있는 物質이 있는가 하면, 矛盾을 갖지 않는 物質도 許多하다는 事實은, 곧 弁証法の 前提가 옳지 않다는 것을 立証하는 것이다.

② 또 가령 어떤 物質이 矛盾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 矛盾이 都大體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마르크스」와 그의 追從者들은 說明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그들이 말하는 矛盾은 實証되지 않은 오늘날 假定の 限制에 不週하다.

③ 唯物 弁証法은 發展의 矛盾을 契機로 無限히 繼續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共產社會가 社會發展의 最後段階라 하므로써 자가당착의 矛盾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④ 唯物 弁証法の 原理가운데 量으로부터 質에의 轉化法則은 (正一反一合의 原理) 被支配階級에 依한 變革의 努力을 正當化하는 法則으로 「마르크스」主義者가 特히 重要視하고 있다. 「엥겔스」는 이것이 真理임을 證明하기 위해서 炭素化合物과 물을 引用하고 있다. 設使 量으로부터 質에의 轉化法則이 適用되는 物質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物質이 許多한만큼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⑤ 唯物 弁証法은 요컨대 科學이라기 보다는 미리 政治的 效果를

노린 하나의 의식적인 圖式에 不過하며 政權樹立 段階에만 適用될 수 있을 뿐이다. 萬一 矛盾의 法則이 政權을 掌握한 後에도 適用된다면 共產政權도 朝晩間 否定當해야 하기 때문이다.

II-2 唯物史觀

-1) 唯物史觀의 概要:

① 唯物史觀은 唯物弁証法을 人間社會의 歷史에 適用한 것으로서 唯物弁証法에 기초를 둔 歷史觀이다. 따라서 앞서 提示한 바와 같이 唯物弁証法이 올바른 世界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適用한 唯物史觀이 虛構에 不過한 것임은 두말 할 必要도 없다.

② 唯物史觀은 「마르크스」以來 系統的으로 說明된 일이 없으나 「레닌」과 「스타린」에 이르러 政治的 目的에 따라 처음으로 唯物史觀이 理論的으로 體系化되었다.

③ 唯物史觀은 物的 一元論으로써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과 그 解決過程을 通해 歷史發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生産力의 不斷한 發展으로, 生産關係(經濟的構造)가 生産力의 發展에 障害가 될 때, 낡은 生産關係는 革命的 方法에 의해서 生産力과 調和된 새로운 生産關係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④ 한편 生産關係의 總和는 當該社會의 經濟的 構造를 形成하며, 이 經濟的 構造가 人間社會의 기초로서 소위 下部構造에 該당하며 이 下部構造위에 政治, 法律, 學門, 藝術, 道德, 宗教, 哲學 등의 上部構造가 形成된다는 것이다.

-2) 批 判 :

① 唯物史觀은 歷史發展에 있어서 人間의 精神的 要素를 全커 度外視 한다.

② 唯物史觀의 理論은 生産力의 概念에서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즉 生産力은 自然力, 生産手段等 物質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勞動組織, 科學技術, 教育水準等 精神的 要素까지 包含되는 것임으로 物的一元論의 唯物史觀은 合理的일 수 없다.

③ 唯物史觀은 人類社會生活의 發展과 變化의 原因을 生産力의 變化에서 찾고 있으면서도 生産力의 不斷한 發展과 變化가 必然的으로 共產主義의 方向으로 向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說明을 하지 못한다.

④ 唯物史觀은 資本主義는 內在的矛盾 때문에 沒落하고 社會主義 社會가 必然的으로 到來한다는 社會發展의 法則을 맹신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革命이 必要하다고 主張하는 것은 理論上의 矛盾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唯物史觀이 眞理라면 共產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의 主体的인 革命 努力을 絶對 不可欠한 것이라고 主張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⑤ 唯物史觀으로는 歷史的으로 偉大한 人物과 指導者의 役割을 說明할 수 없다.

⑥ 唯物史觀의 오류성은 先進資本主義國家일 수록 「프롤레타리아」革命의 可能性이 더욱 희박하다는 事實이 잘 代弁해 준다.

-3)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物質은 사회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要素는 될 수 있지만 오직 그것만이 歷史發展의 原動力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人間의 精神的 要素가 歷史發展의 重要な 要因인 것이다. 그것은 歷史發展의 여러가지 可能性 가운데 精神을 기조로 한 人間의 創造的 行爲가 가장 큰 影響力을 行使하기 때문이다.

II. 共產主義 政治理論

II-1 階級鬭爭論

-1) 概 要 :

「마르크스」는 唯物史觀에 立脚하여 生産手段의 私的所有關係가 人間에 依한 人間의 搾取關係를 만들어 내어 結局 人類社會에 階級社會를 形成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들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은 鬭爭을 하게 되고 이 鬭爭은 漸次 政治鬭爭으로 發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理論은 人類歷史를 階級鬭爭의 歷史로 看做하는 한편,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間의 矛盾은 적대적이기 때문에 타협이나 進歩的 方法에 依해서가 아닌 革命에 依해서만 矛盾을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革命은 社會發展 法則의 必然的인 結果라고 主張한다.

-2) 批判 : 階級鬭爭論은 다음과 같은 矛盾點을 內包하고 있다.

① 共產主義者들은 모든 社會의 歷史를 階級鬭爭의 歷史라고 斷定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搾取者와

被搾取者의 두階級間的 搾取關係로만 볼 수 없고 오히려 多樣하고 複雜한 關係이다. 즉 어떤 問題를 두고 對立關係에 있는 集團이 다른 問題에 있어서는 協調의 側面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共產主義者들은 否定的 側面만을 強調하므로써 그들의 主張인 階級鬭爭論을 合理化시키고 있다.

② 共產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階級을 歷史上 選定된 革命階級으로 보고 그의 利益이 바로 社會全體의 利益을 代表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主張은 讓步나 妥協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무자비한 鬭爭만을 앞세우므로써 一種의 暴力煽動論인 것이다. 特定階級の 利益만을 내세우는 것은 自体가 너무나 편협하고 感情的인 主唱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現代國家에서는 民族的利益, 國家的利益, 國民連帶意識 등으로 보다 높은 次元의 人類全體의 利益도 엄연히 있는데도 不拘하고 유독 「프롤레타리아」階級の 利益만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現代社會의 秩序를 顛覆하여 그들의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려는 意圖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③ 「階級鬭爭論」이 저지른 오류는 現代의 中間階層의 存在를 全然 無視한다는 結論에 도달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現代의 中間階級이 沒落되어 下部階層으로 轉落한다고 主張하였으나 오히려 現實은 그 反對의 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先進工業國家의 社會構造는 「피라미트」型이 아니라 「다이아몬드」型으로 變化되어 가고 있으며 少數의 富裕階級과 少數의 貧困階級 間에는 大量의 中間階層이 形成되어가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더우기 中間階層中에서 企業의 經營에 參與하는 경우는 勿論 여

러가지 利害關係에서 보면 오히려 資本家階級과 결부되는 수가 많은 것이 오늘날의 現實이며 또한 先進資本主義諸國은 政策的으로 中間階層을 育成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④ 共產主義者들은 「부르조아」는 沒落되고 「프롤레타리아」의 勝利는 必然的인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資本主義社會의 現實을 볼 때, 거기에는 「부르조아」의 沒落은 勿論 勞働者階級の 勝利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暴力과 革命으로 政權을 잡은 所謂 社會主義國家에서는 前「유고」의 副統領이었던 「밀로반·질라스」의 말대로 새로운 特權階級이 形成되고 그들에 依한 새로운 搾取關係가 일어나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⑤ 先進 資本主義國家들에서 階級政黨은 위축되고 國民政黨으로 發展하고 있는 事實이라던가 國民福祉 向上을 期하고 있는 先進 資本主義 國家들을 볼 때, 共產主義의 階級鬪爭論이 그 얼마나 時代錯誤的이고 진부한 理論인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오늘날 後進 國家에서의 共產化 過程이 階級鬪爭의 結果가 아니었다는 事實은 더욱 階級鬪爭論의 虛構性을 立証시켜 줄 것이다.

II-2. 革命論

-1) 概要: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고 있는 革命論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그 하나는 資本主義國家에서 生産力이 一定한 發展段階에 이르르면 生産關係에 있어서 矛盾이 表面化되고 勞働者와 資本家의 衝突이 不可避할 때 일어난다는 「프롤레

타리아」革命論과 다른 하나는 世界第2次大戰의 終結과 더불어 東
歐에서 나타난 「人民民主主義 革命」이다. 즉 「人民民主主義 革
命」은 前者가 資本主義가 發達된 때 必須的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前提로 하나 後者는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達되지 않은 條件下에서
도 共産黨이 다른 政治勢力과 聯合하여 執權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한 点에서 差異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革命論은 社会制度의 變化가 스스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걸 안 그들은 人爲的인 暴力革命을 通하여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의 手中에서 生産力과 政治權力을 奪取하고 끝
내는 「프롤레타리아」政權을 樹立하여 社会構造의 轉換을 이룩하여
야 한다고 主唱한 것이다.

「레닌」은 이러한 暴力革命의 戰略的 展開를 爲해서 勤勞者의
大多數가 革命의 必要性을 充分히 理解하고 그를 爲하여 스스로의
生命을 犧牲시킬 覺悟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強調한 바 있다.
그래서 「스타린」時代까지는 暴力革命만이 唯一한 것으로 그의 追
從者들에게 믿어져왔다. 今後 「호르시초프」에 이르러서는 「社会主
義에로 나가는 多樣한 체제」라는 命題가 제시되고 議會에는 共産
黨이 多數를 占할 경우 社会主義에로의 可能性이 시사되었다. 이
것이 所謂 「平和革命論」인 것이다.

-2) 批判: 暴力革命論은 다음의 事實을 들어 批判함이 보다
効果的일 수 있다.

① 共産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있어서 暴力을 「必要

惡」으로 보지 않고 없어서는 안될 必須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共產主義者들은 暴力을 崇拜하여 「프롤레타리아」革命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政權을 掌握한 後에도 이를 戰術的인 手段으로 繼續活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스탈린」의 恐怖的인 苛의 肅清, 毛澤東의 文化革命에 依한 暴力行爲 그리고 金日成의 唯一思想體制 確立을 爲한 무자비한 肅清等이 바로 이들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줄 필요가 있다.

② 暴力革命論은 特定 國家의 暴力革命을 合理化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理論에 依하면 社會主義革命의 前提條件으로 資本主義의 經濟的 成熟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레닌」은 이를 修正하여, 「오늘의 帝國主義時代에 있어서의 革命의 客觀的 條件은 한 나라의 經濟的 成熟에 있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인 階級關係 如何에 달렸으며 따라서 革命을 遂行할 主体的 力量의 成熟 即 共產黨의 組織이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主張하였다. 이와같은 「레닌」의 修正論은 「러시아」革命을 合理化하고 나아가서는 後進國에서 革命을 선동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었다. 즉 第2次大戰 直後에 태동한 人民民主主義 革命도 그 例外일 수는 없을 것이다.

③ 共產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 階級政黨인 共產黨의 歷史的 使命을 過大評價하고 있다. 겉으로는 共產黨이 그 나라의 民主勢力을 代弁하고 民主化의 歷史的 使命을 지니고 있는 듯이 主張하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自由롭고도 合法的인 選舉節次를 通하

여 樹立된 既存民主秩序를 破壞하고 「이데올로기」만을 고집한 나머지 妥協과 調整의 길을 스스로 폐쇄하고 있으며 또한 自己의 主張을 狂信하고 相對方을 全적으로 無視하는 偏협한 思考方式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主張을 絶對 眞理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나 「레닌」 그리고 「毛沢東」이나 「金日成」 등에서 한 없는 眞理를 캐내는 것이다.

④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共産黨 宣言」에서 現存하는 모든 制度를 오직 暴力으로 전복하여 共産主義의 所期の 目的을 達成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後 共産主義 追從者들은 이 暴力萬能의 極限的 革命論을 政治理論의 龜鑑으로 主唱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忠實한 弟子인 「카알·카우츠키」는 그의 力作 「프롤레타리아 革命과 그 강령」에서 暴力革命을 社會主義革命의 不可欠의 條件이라고 主張한 「레닌」을 「마르크스」主義의 自体變質이라고 크게 痛駁하였으며 한편 「마르크스」가 죽은지 7年後인 1890年 獨逸에서 社會政策立法에 依한 社會保障制가 널리 施行되고 있는 것을 目撃한 「엔겔스」는 1848年의 「프랑스」가 失敗한 2月革命 當時의 革命戰術을 回想하는 다음과 같은 有名한 말을 했다. 即 「1848年의 鬪爭方法은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關係에서 뒤떨어진 것이 되었다. 意識없는 大衆의 先頭에 서서 意識있는 少數者가 遂行하던 革命의 時代는 지나갔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革命」理論이 勞動階級の 權益과 生存問題가 國家로부터 전면 방치된 상태를 假想한 一種의 時代錯誤的인 遺物임을 立証하는 것이다.

⑤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은 東歐諸國이 소련의 武力과 共產化 政策을 背景으로 共產化된 事實을 감안할 때, 「人民民主主義 革命 理論」은 一種의 擬制된 것으로 世界赤化의 現代版 手段에 不遇한 것이다.

⑥ 「平和 革命論」 亦是, 右傾機會主義者의 主張이라 批判한다든가, 中蘇間의 論爭거리가 되었다는 事實로 미루어 볼 때 理論體系가 미흡함을 스스로 自認한 結果가 되는 것이다.

II-3.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1) 概要: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은 「暴力革命」으로서 「부르조아지」의 階級支配를 打倒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에 依한 階級支配를 이룩하고 同時에 「부르조아」階級の 手中에서 모든 生産手段을 빼앗는 등 反革命的 要素를 除去하기 爲해서는 「프롤레타리아」 階級の 獨裁가 過渡的段階로서 不可避하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政治機構로 「마르크스」는 1871年의 「파리·공문」을 들었다.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은 「레닌」과 「스탈린」에 이르러 크게 強調되었다. 특히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獨裁에 부과된 任務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① 資本家들의 權力復活企圖의 粉碎 ② 勞働者들의 組織化 ③ 帝國主義와 싸우기 爲한 革命의 武装化 等이다.

-2) 批判: 「프롤레타리아」獨裁는 다음과 같은 點에서 批判의 要素를 안고 있다.

①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에의 過渡期에 있어서의 唯一한 支記形態로서 「프롤레타리아」階級政黨 以外の 어떠한 競争的인 政黨도 그 存在을 단호히 배제하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唯一黨에 依한 獨裁政治이다. 그곳에는 立法機關이 民意를 代表할 必要가 없으며 重要的 政策이나 法律案은 直接 立案할 必要가 없으므로 複數政黨의 存在가 不必要한 것이다. 오늘날 共產國家의 現實은 勞動階級の 獨裁도 아니고 오직 共產黨의 獨裁이며, 나아가서 共產黨 少數 지도자의 獨裁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밀로반·질라스」는 共產主義 政府는 黨의 政府라고 까지 개탄한 바 있다.

②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名分은 反革命을 抑制하기 爲한 것이라고 하나 실은 共產黨政權 내지 獨裁者의 權力을 유지하기 爲한 反對派의 肅清口實로 活用되고 있을 뿐이다.

③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多數의 勞動階級에 依한 少數者에 對한 獨裁라는 뜻에서 「브르조아」獨裁와 對比시키고 이를 民主主義的이라고 과찬하고 있으나 資本主義社會에서 「브르조아」獨裁가 存在하지 않은 만큼 이는 虛構에 찬 理論에 不過한 것이다.

④ 「프롤레타리아」獨裁는 새로운 主從關係를 탄생 시켰다. 즉, 政敵의 肅清, 反革命分子의 소탕, 舊指導者의 除去등, 너무나 많은 人命을 犧牲시켜, 黨과 個人의 權力을 獨占化 함으로써 새로운 形態의 搾取階級을 造作해 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政治權力이 都市와 農村의 勤勞人民에게 있다고 宣傳하며 滿場一致制로 끝나 버리는 「소비에트」選舉를 世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자랑한

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의 虛構性이 있는 것이다.

II-4. 國家死滅論

-1) 概要 : 于先 共產主義者들은 國家란 階級の 發生과 함께 생긴 것으로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搾取하고 暴力으로 支配하기 爲한 組織에 不過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搾取와 被搾取의 階級關係가 消滅되면 國家도 當然히 消滅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레닌」은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國家論을 一部 왜곡하여 國家의 撤廢는 暴力革命에 의한 撤廢를 意味한뿐 國家自體의 最終的인 絶滅나 消滅을 意味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國家는 「프롤레타리아」 國家로서 再生되어 그것이 오랜 期間이 經過한 다음에 비로서 死滅된다는 것이다.

「레닌」은 國家死滅 過程을 다음 세 段階로 区分하였다.

“첫째로, 資本主義 社會로부터 共產主義 社會로의 移行期에 있어서는 多數者인 被搾取者가 少數者인 搾取者를 抑壓하기 爲한 特殊機構로서 國家가 必要하며 그것은 國家가 存在하지 않는 共產主義 社會에의 過渡期的 國家 即 半 國家의 段階이다.

둘째로, 共產主義社會의 第1段階 다시말해서 社會主義 社會에서는 벌써 資本家도 없고 階級도 없으므로 어느 階級을 抑壓할 必要가 없다는 意味에서 國家는 死滅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도 「부르조아」적 權利의 잔재가 많이 있으므로 國家가 完全히 死滅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不完全한 國家의 死滅 段階이다.

셋째로, 生産力의 巨大한 發展으로 말미암아 分業이 없어지고 精

神勞動과 肉體勞動과의 区分이 없어 짐에 따라 共產主義의 높은 段階로 進展하면서 國家는 完全히 死滅한다.

이와같이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프롤레타리아」 國家를 實現하고 더 나아가서는 「프로레타리아」 國家도 死滅過程을 밟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2) 批判 : 國家死滅論은 다음과 같은 矛盾을 가지고 있다.

① 國家를 단지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支配, 搾取하기 위한 機構라고 主張하고 있다는 點이다.

우리들의 經驗的 事實에서 判斷한다면 國家의 存在 理由는 被支配階級の 抑壓機關으로서 存在했다기 보다는 實로 人間全體를 爲하여 그것이 普遍的 價值를 가진 機能을 遂行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國家의 存在 理由는 그의 公共的 性格에 있는 것이므로 社會의 秩序 維持와 國民福祉 增進을 目的으로 하는 機能的 任務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것처럼 國家는 階級の 搾取機關으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階級間的 搾取를 배제하는 方向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② 오늘날의 共產主義 國家들은 歷史上 보기드문 가혹한 權力을 行使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스탈린」은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의 國家死滅論을 大幅 修正하여 資本主義 社會가 남아있는 限 소련이라는 強制機構를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強化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즉 “設使 全世界가 共產化 된다고 치며

라도 經濟의 組織化와 思想的 教育을 爲하여 國家行政機關과 같은 形式의 中央統制機關은 남아 있게 된다 ”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主義의 「國家死滅論」은 實現될 수 없는 架空的인 환상론임을 스스로 自認한 結果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共產國家에서 政治를 斷行하기 爲하여 보다 가혹한 國家機能을 惡用하고 있다는 現實을 볼 때, 「國家死滅論」은 黨獨裁를 合理化하는 名分的 理由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③ 共產主義者들은 國家를 必然的이고 絶對的인 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國家는 人間이 만든 것이며 人間의 個性과 尊嚴性을 保護하기 爲하여 그의 創造的 努力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문에 國家는 必要惡이 아니라 오히려 그 反對인 것이다.

外部勢力으로부터의 侵略에 對處하여 對外的으로는 國民과 國土를 防衛하며 對內的으로는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安保機構로서의 國家의 必要性은 날이 갈 수록 增大해 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教育・保健・社會保障制度・交通・체신等 公共福祉機構로서의 國家의 役割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國家는 支配階級の 利益보다 오히려 國民大衆의 利益을 더 크게 記慮하고 있는 것이다.

④ 共產主義者들이 地上樂園이라고 하는 共產國家의 現實은 한마디로 말해서 폐쇄된 統制社會인 것이다. 英國의 속담에 滿足한 바보가 되는 것보다 不滿足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드시 뭐니뭐니해도 人生의 目的은 人格과 個性의 成長과 發展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오늘의 共產國家의 現實에서 共產國家는 本質적으로 一黨
獨裁國家이며 一大兵營의 社會이며 軍事的 官僚國家이며 秘密警察의
統制社會임을 잘 알고 있다. 그곳에는 職業選擇이나 居住移轉 및
旅行의 自由조차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良心의 自由, 信仰의 自由
는 말할 것도 없고 파업이나 賃金引上의 要求權도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人間의 基本權은 完全히 剝奪당하고 있는 것이다.

II-5. 前衛黨論

-1) 概要: 「레닌」은 모든 勞動階級이 한결같이 「마르크스」
主義的 階級意識으로 武裝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래서 勞動
者 階級을 階級意識이 微弱한 勞動組合主義的 大衆組織과 「마르크
스」主義的 階級意識이 透徹한 少數의 精銳와 職業的 革命家로 區
分하여 後者에 依해서 構成된 前衛黨이야말로 革命을 主導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한편 「레닌」은 前衛黨에는 組織의
硬固性과 行動的 性格 그리고 指導性이 뒤따라야 한다고 強調했었
다.

그리하여 「레닌」과 「스탈린」은 共產黨의 特徵으로 다음과 같
은 것을 提示하고 있다. 즉 黨은 ① 勞動者 階級の 核心的 前
衛隊이며 ② 勞動者階級の 組織된 指導部隊로써 (中央黨部가 黨活動
을 指導하는 原則, 일단, 決定된 事項을 鐵의 規律로써 遵守시킨다
는 原則等) 「中央集權制」를 組織原則으로 삼는 「프롤레타리아」獨
裁를 斷行하기 爲한 政治 道具이며 ③ 「프롤레타리아」 階級組織
의 最高 形態이며 ④ 일체의 分과를 許諾하지 않는 單一意思의

統一체로서 「批判」과 「自我批判」을 活用한다는 것이다.

-2) 批判 : 階級鬭爭의 前衛組織으로서의 共産党理論의 虛構性은 다음과 같다.

① 아무리 階級을 主導하는 階級政党的이라도 國民的, 民族的, 利益을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特히 오늘날의 國際關係에 있어서 모든 國家가 超党的이고 超階級的인 立場에서 國家의 總力을 集結하고 있는 現實을 볼 때,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前衛黨論은 國民的, 民族的, 利益을 無視한 少數階級の 利益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②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前衛黨理論은 結局 黨과 個人獨裁를 強化하기 위한 方法論이다. 「레닌」이 말한대로 共産黨이 勞動者階級에게 革命的 階級意識을 注入한다면 「프롤레타리아」獨裁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에 依한 「黨의 獨裁」를 意味하게 되는 것이며 黨의 獨裁도 少數의 黨政治委員이나 黨最高指導者에 依하여 움직여 진다면 結局 前衛黨理論은 個人獨裁를 合理化하는 手段에 不過한 것이다.

여기에 黨의 最高指導者에 對한 偶像化가 必然的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例로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의 個人崇拜는 말할 것도 없고 中共의 文化 大革命 以後 毛澤東 思想의 神聖不可侵性이나 金日成 唯一思想의 絶對性等 個人에 對한 神格化를 들 수 있을 것이다.

③ 共産主義者들은 所謂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 組織原理를 가장

民主主義的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共産黨이 眞正한 民主主義的 機構라고 한다면 自由討論이나 少數意見이 尊重되어야 함은 勿論 少數派나 分派의 存在도 許容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共産主義 國家에서는 이러한 事例를 볼 수 없을 뿐더러 共産黨 指導部에는 「오류란 있을 수 없다」는 所謂 「無오류성」과 「絶對性」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임으로 共産黨의 所謂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는 獨裁를 위장하기 爲한 「民主主義」라는 用語의 남용에 不過한 것이다.

④ 共産黨이 곧잘 使用하는 「自我批判」은 共産主義의 發展을 爲한 열쇠로 活用하고 있다. 그들은 自我批判을 다음과 같은 目的에서 使用한다. 첫째는, 上級黨部에서 이미 決定한 政策을 完遂하기 爲하여 모든 關心을 이에 集中시키고 둘째는, 共産主義에 懷疑를 느끼는 幹部를 組織적으로 洗腦하여 自己들의 目的에 맞도록 再訓練시키며 셋째는, 指目된 黨幹部를 무자비하게 糾彈하며 넷째는 黨의 無限한 權力과 能力을 黨員에게 誇示하기 爲해서이다.

이것은 黨員個人은 오류를 犯하지만 全體的인 黨은 決코 오류를 犯하지 않는다는데에 根拠를 두고 있는 바 이는 共産黨이 黨의 統制를 強化하고 黨員을 그들의 손아귀에 장악키 爲해서이며 北韓의 경우 「相互批判」이나 「誦報會」도 이와 類似한 性質의 것이다.

Ⅲ-6.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平和共存論

-1) 概要: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는 世界 各國의 勞動階級이 自己 나라 및 世界 革命을 위해서 國家的, 民族的 理解關係를 超越해서 團結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平和共存論은 「스탈린」以後 소련의 外交路線을 반영한 것으로서 武力에 依한 世界赤化가 그 可能性이 희박하다는 評價下에 非武力的 方法에 依한 世界革命의 길을 모색한 것이다.

-2) 批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는 世界各國의 勞動者들에게 소련을 宗主國으로 섬기게 하려는 저의에서 발단한 것이나 共產主義 國家가 實際로 勞動者들의 權益과 幸福을 구현할 수 없다는 事實이 들어남으로써 이는 世界 勞動者들에게 아필하지 못하고 일종의 환상론으로 그치고 말았다.

平和共存論도 戰爭을 通하지 않은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를 부식시켜 世界赤化를 圖策하려는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共產主義의 好戰的 性格 내지 鬪爭的 本性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軍事力의 均衡이 깨어지면 언제든지 戰爭을 야기시킬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Ⅳ. 「마르크스」 經濟理論

「마르크스」는 그의 著書 <資本論>에서, 그의 經濟學說을 体系化 內至 集大成하였다. 그는 「資本論」에서 近代資本主義 社會의 經濟運行法則을 分析하는데 目的을 두고 그 分析道具로는 唯物論的

弁証法을 活用하였고 分析對象으로는 資本主義社會의 生成과 發展 그리고 消滅過程을 檢討하여, 資本主義가 必然的으로 沒落하고 그 廢墟위에 社會主義가 樹立된다는 結論을 내렸다.

IV-1. 勞動價值說

「마르크스」는 以上の 結論을 導出하기 爲하여 「勞動價值說」과 「剩餘價值說」을 適用하였는 바, 그 中에서 우선 「勞動價值說」의 主要骨子에 對해서 說明하겠다.

-1) 概要 : 「마르크스」의 「勞動價值說」은 일찍이 英國의 「아담·스미스」가 그 研究를 試圖하여 그의 弟子 「리카르도」가 發展시킨 「投下勞動價值說」을 다시 그나름대로 整理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投下勞動價值說」은 商品生産에 投下된 勞動의 量에 따라 價值가 決定된다는 理論입니다. 例를 들어서 한마리의 고래를 잡는데 所要되는 勞動과 열마리의 사슴을 잡는데 所要되는 勞動量이 같다면, 한마리의 高래와 열마리의 사슴이 서로 같은 값어치를 갖고 交換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위의 理論을 土臺로 勞動을 具體的 勞動과 抽象的 勞動으로 區別하여 說明하고 있다.

具體的 勞動은 쌀이나 보리처럼 人間에게 必要한 物件을 生産하여 「使用價值」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抽象的 勞動」은 生産에 投下된 勞動의 量에 따라 「交換價值」를 形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抽象的 勞動」이 어떻게 價值를 生産하는가에

처하여 「마르크스」는 社会的으로 必要한 「平均勞動量」이란 概念을 使用하였다.

例컨대, 한필의 베를 짜는데 있어서 10時間의 勞動을 必要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時間을 必要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平均的으로 勞動者가 그것을 짜는데 있어서 5時間이 걸린다면 그 5時間의 勞動이 곧 베의 價值를 決定한다는 것이다.

-2) 批判: 勞動價值說의 矛盾點은 다음과 같다.

① 「마르크스」는 勞動의 異質的 現象을 等質的으로 取扱하였다는 點이다. 多樣한 環境속에서는 人間自体가 能力과 素質을 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勞動이라는 것도 多樣한 條件 속에서 異質的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決코 同質的으로 單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自明한 事實이다.

모든 經濟的 財貨의 價值가 勞動에 依해서만 決定되고 形成될 수 없음은 勿論 勞動의 質이 多樣하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勞動量의 嚴密한 計算은 不可能하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勞動의 量과 質이 多樣한 社會에서는 勿論이고 「마르크스」가 살았던 그 當時에도 合理的일 수 없는 것이다.

② 勞動價值說은 近代資本主義社會에서의 利潤率 平準化 現象을 無視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主張에 따르면, 勞動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은 輕工業分野에서의 利潤率は 높아야 하고 比較的 機械依存度가 높은 重工業分野에서의 利潤率は 반드시 낮아야 한다는 結論에 到達한다. 이렇게 되면, 投下勞動量에 依한 價值와

生産費의 平均利潤을 보태야 비로소 現實의 商品價格이 形成된다는 一般的 價值決定 法則과는 一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一部 商品은 價值以上으로 販賣되고 一部 商品은 價值以下로 販賣된다는 것을 認定하여 價值法則은 個別的으로 妥當치 않으며 全體를 通해 平均적으로 作用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궁색한 弁明에 지나지 않은 平均概念의 盜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要는 「마르크스」가 需要와 供給關係에 依한 價值變動을 充分히 다루지 못한데서 나타난 當然한 結論인 것이다.

③ 勞動價值說은 勞動生産物 以外の 商品을 전혀 度外視한다.

「마르크스」는 價值를 오직 勞動生産物에만 局限시키고, 勞動以外的 生産要素는 考慮하지 않았기 때문에 土地나 天然資源인 温泉, 鉍脈, 火力等 非勞動生産物을 全혀 無視하였다. 여기에 또한 勞動價值說이 經濟一般論이 되기 어려운 理由가 있는 것이다.

IV-2. 剩餘價值說

-1) 概要: 剩餘價值說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資本家階級은 生産手段을 所有하나 勞動者階級은 勞動力을 팔아서 生存을 維持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依하면, 資本家들이 所有하는 生産手段과 勞動者들이 提供하는 勞動力이 結合하여 商品이 生産되며, 生産된 商品의 價值속에는 生産過程에서 投下된 資本과 勞動의 價值에 比하여 더 많은 超過分の 剩餘價值가 生成되는 바 그것이 結果적으로 利潤.

地代, 利子等の 形態로 資本家에게 돌아가므로 資本家들은 富의 蓄積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生産要素中 勞働以外的 生産要素는 그 自体의 價値가 勞働生産物에 그대로 移轉될 뿐이나, 勞動力만은 生産過程에서 自体의 價値보다 더 큰 剩餘價値를 生産한다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勞動力 自体의 價値는 勞働時間에 依하여 決定되고, 그것도 勞働者들의 最少限度의 生活費와 一致하는 範圍를 넘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勞賃의 固定性을 主張하였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剩餘價値論을 通해서 利潤의 本質을 資本家에 依한 勞働者의 搾取關係로 說明하려 하였기 때문에 利潤의 源泉인 私有財産制度의 廢止를 主張하였던 것이다.

-2) 批判: 剩餘價値說은 다음과 같은 矛盾點을 內包한다.

① 剩餘價値說의 根本的인 問題點은 價値要素를 勞働一辺倒로 解決하고 있다는데 있다. 商品을 生産하기 爲해서는 資本, 原料, 勞働以外에도 企業能力等 其他의 生産要素들이 必要한 것이다. 資本에 依해 機械나 原料들이 購入되고 勞働者가 應用되며 其他 生産要素들이 結合하여 비로소 하나의 商品이 生産된다는 것은 거의 常識化된 事實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는 商品의 價値가 오직 勞働者들의 勞働에 依해서만 創造되는 것이기 때문에, 勞働者가 그 價値를 全部独占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은 바로 勞働에만 生産性을 認定하고 資本이나 其他의 生産要素의 生産性은 認定하지 않는데 그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一部共産圈에서도 生産의 非能率性を 止揚키 爲한 利潤導入說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農民들에게 小農具의 私有를 認定함으로써 剩餘價值說의 矛盾性이 무너진 것은 이미 그 오래인 것이다.

② 「마르크스」는 그 價值論에서 商品의 供給만을 問題視하고 需要問題는 전혀 無視하였다. 商品의 價值는 오직 投下된 勞働이나 其他의 生産要素에 依해서만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商品에 對한 需要와 供給에 依해서 價值의 決定이 左右되는 경우가 더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날의 經濟現實이다. 다시 말하면 勞働이나 其他의 生産要素는 그 商品의 供給을 決定하는 生産費 構成要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生産費란 商品의 價值를 形成하는데 어느 程度의 影響을 미치는 것은 分明하지만 어떤 商品의 價值를 單獨으로 決定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는 利潤은 오직 商品의 生産過程에서 勞働時間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主張하므로써 流通過程을 度外視하였다. 그러나 商品의 生産量에 比해서 需要量이 많을 때에는 그 商品이 높은 價格으로 팔리기 때문에 流通過程에서 利潤이 發生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또한 같은 商品을 生産하는데 있어도 能率的인 企業은 非能率的인 企業보다 生産費의 節減에 따라서 利潤이 發生하게 될 것은 自명한 經濟現實인 것이다.

③ 「마르크스」는 資本主義體制下에서는 勞働生産性이 向上될지라도 勞働者의 賃金は 最少限의 生活費를 保障하는 線에서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經濟가 高度로 發達한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는 勞賃은 勞動生産性과 함께 上昇一路에 있으며, 勞動者의 貧困은 初期資本主義時代에 있어서 人口의 都市集中에 따른 過渡的인 現像에 지나지 않았다.

最近에 들어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이른바 「生産性 賃金制」라 하여 勞賃의 上昇率을 勞動生産性의 上昇率과 一致하도록 法的 措置를 取하고 있는 現像에 비추어보아 共產主義者들이 아직도 이 진부한 「마르크스」의 剩餘價值論을 내세워 企業家들이 勞動者들의 勞賃을 搾取한다 함은 時代錯誤的인 不當性을 立証하는 것이다.

④ 勞動者에 對한 搾取現象은 오히려 「勞動者의 樂園」을 만들겠다는 共產社會에서 일어나고 있다. 共產社會에서의 剩餘生産物은 勞動者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使用되지 않고 軍事力強化나 獨裁政權維持에 使用되거나 所謂 「새로운 階級」의 사치스러운 生活을 爲하여 탕진되고 있는 것이다.

共產國에서 脱出한 「수잔느·라방」은 <共產主義 50年의 現實> 이라고 하는 冊子에서 勞動者 一人당 生産價值가 月 750 「루블」인 데 反해 勞動者에게 支給되는 金額은 月 125 「루블」밖에 되지 않는다고 指摘한 바 있다.

이를 分析해보면 勞動者가 搾取당하는 比率은 600%나 되는 것이며 이는 「마르크스」가 資本主義社會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豫言했던 숫자보다 2倍나 더한 搾取率인 것이다.

勞動者에 對한 搾取는 北韓에서도 마찬가지다. 金日成은 1962年 內閣秘密會議에서 「北韓勞動者 1名의 年間 生産額은 3千원이며

勞働者에게 支払되는 賃金は 年間 480 원 내지 500 원이다」라고 指摘한 바 있다. 이를 分析해 보면 勞働者の 搾取率は 約 800 % 以上이 되는 것이다.

⑤ 「마르크스」의 말대로 勞働者の 賃금이 最低生活線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資本家에 對한 勞働者들의 技術革新이란 想像할 수도 없다.

오늘날은 社會가 發達하고 産業體制가 날로 多樣化됨에 따라서 人間資本이란 概念이 점점 普遍化되어가고 있으며 富의 概念도 物質的 富 以外에 「人間에게 응결된 富」가 매우 重視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勞働者는 畚耨에 허덕이는 근육의 農夫가 아니라 知識과 技術을 가진 人間資本이라는걸 생각할 때 「마르크스」의 「最低生活賃論」 주장은 不當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다.

IV-3. 資本主義 崩壞論

-1) 概要: 「마르크스」에 依하면, 資本家들은 보다많은 剩餘價值를 얻기 爲해서 勞働者들의 勞動時間을 延長시킨다든가 勞働者들의 勞賃을 떨어뜨리게 되나 그것은 모두 限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大部分의 경우, 技術革新을 통해서 勞動生産性を 높이는 方法을 揆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資本家들의 技術革新은 産業의 機械化를 促進시킴으로써 不變資本의 有機的 高度化를 造成하는 反面에, 可變資本인 勞動의 減少現象을 일으킨다 하였다. 이같은 勞動의 減少現象은 勞動에 依하여 發生한다는 剩餘價值를 減少시키게 되어, 結果的으로는

資本家들의 利潤率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資本家들은 利潤率의 下落을 막기 爲해서 資本의 蓄積에 依한 資本의 有機化를 더욱 高度化시키고, 生産費를 줄이려고 努力하는 한편, 國內의 劣等企業들을 흡수 併合함으로써 獨寡占에 依한 生産량을 擴大시키게 된다. 하였다. 이에 反하여 勞動者들의 경우를 보면, 生産량이 擴大된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技術革新 즉 機械化에 依한 것이므로 勞動者들의 고용기회는 機械화된 만큼 減少됨으로써, 人口의 增加에도 不拘하고 失業者는 늘어나게 되며 결국 勞動者들은 貧困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資本主義社會는 資本家들의 大量商品 生産과는 달리, 勞動者들의 貧困에 따른 商品수요가 줄어들음으로서 商品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以上과 같은 傾向이 長期化되면 資本主義 社會는 過剩生産과 過少消費의 矛盾을 일으켜서 마침내는 경제공황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矛盾을 克服하기 爲해서 資本家들은 國內적으로는 獨占結合에 依한 搾取體制를 더욱 強化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自然히 階級對立이 첨예화 되고, 國際적으로는 資本主義 國家間的 海外로의 資本輸出과 海外植民地 開拓을 爲한 競爭이 수반되어, 結局 資本主義 國家間的 戰爭이 不可避하게 되며 終局에는 資本主義가 崩壞되고 만다는 것이다.

-2) 批判: 「마르크스」의 「資本主義 崩壞論」의 矛盾은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批判할 수 있다.

①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發達함에 따라 資本家の 利潤率이 低下된다고 主張한다. 理論的인 面에서 考察해 볼 때 經濟發展을 一定한 時點을 基準으로 보는 靜態的인 側面에서 보면 投資가 增加됨에 따라서 資本家の 利潤이 一時的으로 低下되는 現象을 일으킬런지 모르나 보다 長期的이고 動態的인 立場에서 보면, 資本家の 利潤率은 얼마든지 上昇될 수 있다.

그것은 人間의 嗜好가 恒常變化하여 새로운 商品이 開發되고, 이에 대한 需해도 늘어나기 때문이며, 새로운 宇宙産業이나 原子工業 등의 發達は 해마다 새로운 高率의 投資를 刺戟하기 때문이다. 한편 實際面에서 考察해 볼 때, 先進資本主義國家는 利潤率의 下落에 따른 經濟的 여러 矛盾으로 因하여 이미 沒落되었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高度의 成長을 보이고 있고 沈滯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 共産國家들인 것이다.

② 共産主義者들은 産業의 機械化에 따른 勞動者의 貧困을 내세워, 勞動者들이 資本家들에게 鬪爭할 것을 煽動하고 있다.

우선 理論的인 面에서 볼 때, 勞動者들이 機械化로 因하여 部分的으로 解雇된다 하여도 새로운 機械製作工業에 취업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機械의 發明으로 因하여 一部 勞動者들이 그들의 職場을 當分間 잃는 局部的인 現象을 가지고 모든 勞動者들이 解雇되고 窮乏에 허덕이게 된다고 主張한 것은 매우 獨斷的이고 誇張된 判斷이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實際面에서도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發展初期의 經濟現象

을 分析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部分的으로 發展途上의 國家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勞動過剩現象이 일어났을런지 모르지만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勞動力 過剩狀態로부터 勞動力 不足狀態로 轉換되고 勞賃도 上昇一路에 있음은, 先進資本主義國家의 否認할 수 없는 現象이다. 그리하여 共產主義者들도, 그들의 主張인 勞動者들의 「絶對的窮乏化」 理論을 배격하고 相對的으로 窮乏化된다는 主張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그것 마저도 現實的으로 맞지 않는 実情이다..

③ 資本主義가 그 發生過程에서 内部的 矛盾때문에 生産과 消費의 不均衡이 일어나서 一大 經濟恐慌이 수반되고 나아가 資本主義가 崩壞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實際面에서 볼 때, 資本主義經濟體制에 있어서 항상 均衡이 維持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침체요소가 作用하여 景氣變動이 나타나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로 因하여 資本主義가 沒落한 나라는 아직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經濟의 持續的인 不均衡은 資本主義社會보다도, 社會主義社會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現象이다. 단지 資本主義社會에서는 조그마한 不均衡도 당장에 表面에 나타내데 反하여 社會主義 統制經濟社會에 있어서는 보다 더 큰 不均衡도 表面化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資本主義國家들이 恐慌抑制策을 講究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卽 國家는 財政金融政策을 中心으로 한 需要의 調整, 景氣變動을 自動的으로 安定시키는 失業保險이나 社會保障制度 그리고 누진 세율의 자동안정장치 등을 活用하여 恐慌의 發生可能性을 事전에 抑

制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主張은 經濟恐慌의 發生을 抑制하는 國家의 多量한 機能을 豫상치 못한 것이라 하겠다.

IV-4. 帝國主義論

-1) 概要: 「레닌」은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學說을 이어 받아 이른바 帝國主義段階에 있어서 資本主義的 經濟의 諸般實態를 分析하였다. 「레닌」은 競爭이 支配하는 産業資本主義가 漸次的으로 独占支配하는 独占資本主義 即 帝國主義로 發展되며, 이 帝國主義가 資本主義의 最後의 段階이며 社會主義革命의 前夜期라고 보았던 것이다.

「레닌」은 帝國主義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① 巨大企業체가 中小企業을 從屬化하여 生産은 勿論 市場과 價格을 独占하게 되며 ② 銀行資本이 産業資本과 結託하여 金融寡頭體制를 形成하게 되며 ③ 商品輸出보다 資本輸出에 重點을 둠으로써 後進國의 植民地化를 이룩하고 ④ 國際独占체가 形成됨으로써 世界分割이 이루어지며, ⑤ 資本主義 列強사이에 植民地爭奪戰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世界的 規模의 戰爭이 不可避하고, 資本主義가 存在하는 限 國際平和는 決코 存在할 수 없다는 主張이다.

-2) 批判: 帝國主義論은 다음과 같은 虛構성과 그 矛盾性을 內包하고 있다.

① 帝國主義論은 「마르크스」式 歷史觀이 가지는 理論의 貧困性

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바, 「独占資本主義段階」라는 概念 그
自体가 架空的이다. 勿論 境遇에 따라서는 資本主義國家에서 大企
業이 盛行한 것도 事實이긴 하지만, 大企業化現象과 独占化 現象은
그 概念이 一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共產主義者들이 大
企業化의 現象을 独占現象과 混同하여 「独占資本主義」를 主張하였
다면 이는 分明 理論上的 重大한 誤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資本主義社會의 「國家」機能을 전혀 無視하고 國家의 調整
的 機能이 마비된 無政府狀態를 가상하였다는 데도 論理上的 重大
한 虛點이 있는 것이다.

② 帝國主義論은 現實과 一致할 수 없는 一種의 後進國住民의
煽動論이다. 共產主義者들은 金融寡頭體制가 資本主義의 末期에 일
어난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그의 虛構性은 다음의 事實에서도 立証
된다.

오늘날 企業의 資金調達方法을 보면, 各國의 實情에 따라 多少의
差異는 있어도, 資本主義가 發達할 수록 資本의 銀行依存度가 점차
낮아지는 傾向에 있다. 이것은 株式의 公募를 통한 一般國民의
家計費中 貯蓄金을 企業資金으로 吸收하는 傾向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勞動者 等 小市民의 投資가 점차 擴大되어가고 있음을 立証
하는 것이다.

또한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國家들이 原料의 供給이나 市場의 拓
大를 爲해서 植民地開拓을 하게 된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그의 虛
偽性은 다음의 事實에서 立証될 것이다. 즉 오늘날 先進資本主義
國家들은 後進國 國家에 對하여 無償援助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長期的인 低利公共借款을 제공하고 있으며, 國際金融機關을 通한 後進國工業化에 最大의 便宜를 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者들이 資本主義國家에 對하여 寡頭金融制나 植民地開拓을 爲한 資本輸出을 한다느니 하는 것은 先進國과 後進國의 住民들을 煽動, 相互 離間시킴으로써 그들의 窮極目標인 世界赤化를 성취하려는 一種의 後進國 住民煽動論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③ 「레닌」은 經濟的인 世界分割로 말미암아 資本主義 列強사이 에 戰爭이 不可避하다고 主張한다. 戰爭이라는 事態가 人類 歷史 上에 빈번히 일어났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나, 그 原因은 대개 의 경우 國家間의 利害의 對立, 民族間의 敵對感情, 宗教上의 갈등, 政治指導者의 征服慾 等に 起因되었음을 누구도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第2次 大戰以後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戰爭은 共產主義者들에 依하여 유발되었다는 事實입니다.

例를 들어서, 1950年 韓國의 6.25 動亂, 1956 「헝가리」 反蘇鬪爭, 1968年 「체코」의 自由化強壓, 1969年 中·蘇 國境紛爭 그리고 越南戰 등이 모두 그렇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者들이 모든 戰爭의 原因을 經濟에서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常識에 벗어난 主張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④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國家들이 植民地政策을 쓰고 있다고 하나 오히려 그들이야 말로 새로운 赤色植民地政策을 주사하고 있는 것이다. 共產黨의 宗主國인 소련의 경우를 보면 1939년부터 1949년까지의 期間에 政治的으로는 684,300 km의 領土와 2,500

萬에 가까운 人口를 強制的으로 그들의 支配下에 넣었고, 經濟的으로 東獨으로부터 45億 「달러」, 「루마니아」로부터 20億 「달러」 滿洲에서 20億 「달러」等 都合 85億 「달러」를 수탈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經濟的 利權을 박탈하여 衛星國家들의 自立的 經濟体制 運營能力을 抹殺하고 말았다.

일찌기 共産圈專門家로 널리 알려진 美國의 「오버스트리트」는 「코메콘」을 中心으로 한 소련의 對外經濟政策을 다음과 같이 批判한 바 있다.

첫째, 衛星國家의 主要産業政策을 調整하여 소련이 지정해 준 商品만을 過剩生産토록 하며

두째, 衛星國의 基幹産業을 監督하는 管理者, 顧問 그리고 專門家들을 任命하고,

세째, 衛星國家와 資本主義國家와의 通商을 監督하며,

끝으로, 衛星國의 銀行을 掌握함으로써 現地通貨를 소련의 「루블」貨에 예속토록 하고 있다고 指摘하였다.

이처럼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主張과는 달리, 赤色植民地政策을 쓰고 있어 賊反荷杖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제 2 章 北 韓 의 實 情

〈 章 前 文 〉

本章에서는 北韓의 實情을 보다 綜合的이고 合理的인 方法으로
터득케 하는데 그 根本目標을 두고 그에 따른 細部目標을 다음과
같이 定立하였다.

첫째, 北韓 共產主義의 特殊性을 分析하여 敎條主義的 범주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을 認識시키고

둘째, 金日成 「主体思想」은 하나의 政治造作的 슬로간에 지나지
않다는 點과 이는 結局 金日成을 偶像化 시켰다는 點을 認識시키
며

셋째, 政治實態는 史上 그 類例를 찾기 힘들 정도로 一人獨裁體
制을 確立해 놓고 있다는 點을 理解시키고

네째, 經濟實態에서는 經濟構造의 乖行성, 기술수준의 低下, 생산시
설의 노후, 그리고 財源의 不足등으로 原始的 低水準 經濟體制를
免치 못하고 있다는 點과 그로 말미암아 體制의 變質이 不可避하
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끝으로, 北韓의 軍事戰略은 政治戰略과 不可分の 關係에 있으며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은 南北對話에도 不拘하고 變化되지 않고 있
음을 터득시켜 總力安保體制의 必要性을 절감케 하여야 한다.

以上の 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 本章의 內容構成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全體的으로 北韓共產主義의 特殊性을 國際共產主義 運動과의
關係에서 分析하고 그로인한 北韓共產主義의 性格을 究明하였다.

둘째, 北韓의 「主体思想」은 그 背景과 概念 및 內容 性格을
分析한 다음 그 利用狀況을 밝혔고.

세째, 政治實態는 北韓政治体制의 頂點이 되고 있는 金日成의 權力掌握過程과 그 特徵을 分析한 다음 對南戰略의 樣相을 提示하였으며

네째, 經濟實態에서는 經濟体制, 政策路線, 部門別現況을 分析하여 北韓經濟体制의 脆弱點을 도출하였고 그 結果에 對한 展望을 하였다.

끝으로 北韓의 軍事戰略은 軍事思想과 共產軍의 性格을 規明한 다음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과 戰爭準備 現況을 提示하였다.

특히 本章에서 注意하여야 할 點은 以上 提示한 內容을 中心으로 하되 보다 綜合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個人生活을 설명한 경우 以上의 內容만 確實히 인식한다면, 이를 主体思想, 政治論, 經濟論 등 어느 것으로도 充分히 說明할 수 있다.

또한, 北韓의 革命戰略이 變質되고 있지 않다는 事實과 北韓의 戰爭準備狀況에 被教育者들이 공포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點 그리고 우리의 国力培養이 곧 戰爭抑制方案이라는 點등을 強調하여야 할 것이다.

I. 北韓共產主義의 特殊性

I-1 偽裝된 民族的 立場

-1) 북한 공산당은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그 活動의 最高目標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이에 조화시키려 피하고 있다. 즉 공산주의는 우리民族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통일노선과 그 방안에 민족적 염원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의 실현을 民族主義의 세력과 제휴해야 한다는 計略에서 緣由되는 것이다.

-2) 본래 民族主義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는 대립된 개념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민족적 입장과 결부시키려는 것은 일종의 위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북한 공산당은 또한 위장된 민족적 입장과 관련시켜 그들이 애국자인양 가장하고 있다. 그들은 「스탈린」이 對獨전쟁 때 제창한 바 있는 소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이론을 빌려 애국자임을 自認하려 하나 그것은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전통적 개념의 애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4) 북한 공산당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민족적 입장과 애국적 입장은 6.25 남침을 비롯한 反민족적 범죄로 그 거짓이 드러났고, 또한 민족적, 국가적 이익을 국제공산주의 이익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공산주의 입장에 비추어서도 진실한 것이 아니다.

1-2. 鬭爭的 및 好戰的 性格

-1) 북한 공산주의는 오늘날 공산세계 가운데서도 가장 전투적이며 호전적이다. 북한 공산주의가 가장 투쟁적이고 호전적인 배경은 赤化統一의 집념과 또한 國際共產主義의 東方哨所라는 사명감에서 연유된 것이다.

-2) 한편 북한 공산주의가 투쟁적이고 호전적임은 대내적 긴장이 김일성 독재권력의 정신적 기초로 되고 있다는 데서도 기인된다. 김일성은 정당한 명분없이 반대파를 연이어 숙청했으며 동시에 폭력통치로 일관시켜 왔다는 사실이 이를 立証한다.

I-3. 敎條主義體制

북한은 전통적 공산주의의 敎條, 그 중에서도 「스탈린」의 命題에 가장 충실하다. 그리하여 북한은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신속성있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北韓이 敎條主義的體制를 固守하는 것은

첫째, 權力의 體制와 統治方法의 바탕이 「스탈린」주의적이며, 여기서 이탈하는 것은 現存權力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國際共產主義 운동과 세계혁명의 사명에 충실하려는데 있다. 오늘날 소련과 중공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국가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키기 위해서 「마르크스」, 「레닌」의 명제를 수정하고 또한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사실과 대조해서 북한의 교조주의적 입장을 평가해야 한다.

I-4. 閉鎖性

-1) 북한 사회는 공산세계 가운데서도 가장 閉鎖的이다. 그 이유는 外界와 접촉하는 것이 그의 권력과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그다른 하나는 「자기편이 아니면 敵이라는 「스탈린」 시대의 冷戰의 유물을 답습한데서 기인된다.

-2) 북한은 공산세계의 새로운 時代 思潮가 들어오는것 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지극히 閉鎖的이기 때문에 情勢의 판단이 객관적이 되지 못하고 있어 誤解와 誤算에 따른 무모한 행동이 저질러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Ⅱ. 「主体思想」批判

Ⅱ-1. 「主体思想」의 개념

北韓에서 「主体思想」이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55年 12月 「党 宣傳, 煽動일꾼」 앞에서 행한 「思想事業에서 教条主義와 形式主義를 퇴치하고 主体를 確立한데 對하여」라는 金日成의 演說에서 비롯된다.

당시의 對內外的 상황을 보면 공산권 내부에서는 「스탈린」格下 運動과 東歐共産國家들의 自由化 傾向이 농후하였으며 한편으로 北韓 내부에서도 金日成의 偶像化와 1人 獨裁에 대한 延安派 및 一部 蘇聯派의 反撥이 있었고 生活의 窮乏과 勞力 착취에 대한 住民들의 不滿이 高潮된 상태에 있었다.

以上과 같은 對內外的인 事情을 감안한 金日成은 住民들의 不平 不滿을 抑制하고 政敵들로부터 金日成 自身을 보호하며 對外的 名分을 내세우기 위해 내놓은 것이 바로 北韓의 「主体思想」이다.

Ⅱ-2. 「主体思想」의 性格

對內的으로 불리워지는 「唯一思想」이란 党이 숨쉬고, 생각 하고, 말하고, 行動하는 대로 党的 命令에 絶對 服從하는 것이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主体思想」을 운운함으로써 마치 金日成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北韓의 現實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한 共産主義者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共産主義者들은 全世界의 共産化와 各己 自身이 살고 있는 自國의 共産化를 그 目標로 하고 있다. 金日成도 「우리가 主張하는 自主性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万若 프

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등을 돌린다면 곧 民族利己主義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여 「主体思想」이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從屬物임을 자인하고 있다.

II-3. 「主体思想」의 内容

革命과 建設의 主人이 人民大衆이라 規定함으로써 「主体思想」이란 어디까지나 革命을 위한 住民動員 手段인 바 그 主要内容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主体思想」의 主体는 金日成이라는 것이다. 北韓에서는 金日成이 다녀간 곳이면 農村일 경우 豊년이 들고 工場일 경우에는 作業実績이 2倍 3倍로 增加한다고 宣傳하는 등 金日成은 마치 「全知全能」한 神같이 偶像化되어 있으며 그의 말이, 곧 党的 命숨이요, 法이 되고 있는 実情이다. 結局 「主体思想」이란 「金日成思想」으로 集約되며 「主体思想」의 主体는 金日成이라는 結論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党的 主体思想」 「金日成의 唯一思想」이라고는 強調하지만 「民族主体性」이라는 말은 使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主体思想」이란 民族主体와는 何等의 關係가 없는 共產主義者들의 宣傳口號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2). 北韓共產主義者들은 「主体性」을 내세워 党 政策의 絶對性과 正當性を 主張한다.

그들은 「勞動党的 政策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依拠하여 現實을 科學的으로 分析한 主体思想의 基礎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實現할 수 있으며 모든 事業의 成果 与否는 党政策을 正確

하게 把握하고 有益하게 執行하는가 안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고 한다.

이는 金日成 自身이 決定하는 党的 最高政策에는 어떠한 잘못도
있을 수 없고 다만, 党的 意思를 執行하는 過程에서 생기는 소
위 官僚主義, 形式主義, 利己主義 등이 原因이 되어 多少 失敗가
있을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主体思想은 누구를 莫論하고 党政策에 對한 批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金日成의 命令대로 高분고분 따라 오도록 하려는데
그의 實質的인 意圖가 있는 것이다.

II-4. 「主体思想」의 戰略的利用

北韓共產主義者들이 「主体思想」을 어떻게 戰略的으로 活用하고
있는가를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한다.

一) 우선 北韓共產主義者들은 「主体思想」을 對外的 體制 방
어策으로 活用하고 있다.

北韓은 中蘇紛爭의 틈바구니에서 北韓이 無節制한 外交路線을 取
함으로써 中共 및 소련으로부터 異端視 當했을뿐 아니라 援助까지
中斷되어 資本 및 技術이 極度로 不足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金
日成은 中共과 소련이라는 두 상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兩面外
交의 手段으로 「主体思想」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實際에 있어서는 暴力革命論을 固守하는 中共側에 기울고 있는 것
만은 아무도 否認할 수 없다.

二) 對內的으로는 「主体思想」을 金日成 偶像化에 活用하고
있다. 北韓에서의 金日成 偶像化 政策은 歷史上 그 例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進行되고 있다. 金日成에 對한 偶像化 및 神格化 政策의 基本方向은 허위날조된 抗日鬪爭史를 全住民들에게 徹저히 學習시키고 그것을 通해 「主体思想」을 익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傳統的인 倫理觀을 變形시켜 「어비로서의 金日成」, 「首領으로서의 金日成」을 強調하고 모든 生活과 政治的 正統性의 根柢를 金日成 그로부터 求하게 하고 있다.

-3) 「主体思想」을 北韓住民에 對한 對內的인 統制手段으로 活用함으로써 派閥을 整理하고 궁극적으로는 1人獨裁體制를 確立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北韓을 革命基地化하고 全國的 범위에서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데 있어서 主体思想(唯一思想)以外에는 어떠한 思想도 있을 수 없다」하여 政敵들에 對한 숙청과 住民들의 勞動力 작위를 合理化시키고 있다.

結果적으로 「主体思想」은 對內的으로 北韓住民들의 思想과 行動을 統制하고 體制를 整備하기 위한 大衆 操作의 戰略的 手段 내지 1人獨裁體制 確立의 効果的인 武器로 利用되고 있을 뿐이다.

-4) 要컨데 「主体思想」의 궁극적인 目標은 韓半島 全域의 共產化에 두고 이를 위해 政治, 經濟, 軍事, 社會, 教育, 文化 등 모든 領域에 걸쳐 이른바 「主体思想」을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主体思想」은 藥房의 甘草처럼 어디에나 選用되는 共產主義者들의 不文律로서 北韓住民들을 強制로 이끌어가는 一種의 체적인 것이다.

Ⅲ. 北韓의 政治實態

Ⅲ-1. 金日成의 權力掌握過程

우선 金日成의 權力掌握過程을 살펴 보면 모든 共產社會에서와 마찬가지로 4半世紀동안 피의 숙청으로 點綴된 歷史라 할 수 있다. 特히 金日成이 行한 숙청의 특징은 自己의 權力維持에 障礙가 되거나 威脅이 되는 政敵들의 除去와 自己 政策의 失敗에 對한 責任을 全部 다른 사람한테 轉嫁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金日成의 手法은 「스탈린」式 숙청에서 一步 前進하여 反對할 可能性이 보이면 先手를 쓰는 手法으로서 이러한 숙청사는 일찍이 共產主義史에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극은 共產獨裁의 피치못할 歷程이므로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主要 숙청사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첫번째가 民族主義者 및 國內派 公산주의자에 대한 숙청이다. 解放後 소련軍의 등에 업혀 北韓에 들어온 金日成은 소련軍의 비호 아래 權力을 장악하였으나 政治的 基盤이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民族主義者를 비롯한 수많은 知識人들을 民族반역자로, 共產主義者들을 共產主義의 탈을 쓴 民族反逆者라 하여 숙청하였다. 그 결과 民族勢力이 말살되고 이를 피해 500 萬에 이르는 北韓 주민이 피난길을 택해 남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2) 두번째가 南勞黨派의 숙청이다. 1948年 朴憲永等 南勞黨派는 黨과 權力機關에 自派勢力을 扶植하기에 狂奔하였으나 要職은 金日成 一派에게 모두 빼앗겨 버림으로써 不平不滿을 늘어놓기

始作하였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南勞黨의 朴憲永 一派에게 「정권 전복」과 「美帝의 고용間諜」이라는 어마어마한 누명을 씌워 숙청함으로써 누구도 감히 異議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 버렸다.

-3) 세번째가 소련 및 연안파의 숙청이다. 中共勢力을 背景으로 北韓땅에 들어온 延安派는 金日成 一派에게 적지 않은 不安을 주었다. 金料奉, 崔昌益, 韓斌, 武亭, 朴一禹, 許貞淑, 李相朝 등 共產主義 先鋒에 比하면 金日成은 보잘것 없는 存在였다.

이들은 金日成의 政策路線과 個人 崇拜에 對한 不滿을 품고 있던 中 1956年 經濟원조 구실차 소련을 비롯한 東歐 위성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金日成이 8月 全員會議을 召集하자 연안파는 그 會議席上에서 幹部 登用의 不公平性, 經濟政策의 失敗, 그리고 個人 崇拜 思想에 對해 露骨的인 비판을 加했다. 이것을 계기로하여 延安派는 「國家반란의 음모」를 꾸렸다는 罪目으로 숙청당하게 되었다.

-4) 네번째가 1967年부터 始作된 黨 및 軍部에 對한 숙청이다. 當時까지 金日成은 住民生活의 惡化에도 不拘하고 계속 戰爭준비를 強行하였는데 反해, 朴金喆, 李孝淳等 黨僚派들이 우선 經濟建設을 先行시켜야 한다는 主張을 내세운데다가 이들은 黨의 조직과 선전, 對南問題 等 核心 權力을 掌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除去하고 代身 自己세력을 들여 앉히지 않고서는 4大軍事路線을 밀고 나가는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自己에 對한 偶像化 역시 一定한 制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들 高位層 100여명을 修正主義, 消極主義, 宗派主義等

의 理由를 붙여 1967年 3月에 숙청하였고. 또 1969年 初에는 계
속해서 民族保위상 金昌奉, 총참모장 崔光, 對南 工作責 허봉학 等
軍高位層까지를 숙청함으로써 金日成은 名實 共히 全權을 自己에게
集結시켜 놓았다.

- 5) 族閥政治의 確立 : 金成柱라는 自己本名을 감추고 집권한
金日成은 最近에는 自身을 追從하는 自派 勢力까지도 믿지 못하여
族閥政治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即 金日成은 「스탈린」式 숙청手法에 依해서 이루어 놓은 獨裁
權力을 維持하기 爲하여 自己의 친동생인 金英柱를 中央黨 組織指
導部長과 政治委員會委員兼 조직담당비서로 登用하였고 큰아들 金수
라(영철)는 金日成 自身の 養子 責任者 兼 勞動黨 文化課長으로
앞혀 將次 權力者로서의 經驗을 쌓게 하고 있으며 妻 金聖愛를
女性同盟委員長 겸 中央人民委員會委員에, 次子 人民會議 代議員으로
그리고 사촌누이 金貞淑을 社勞靑副委員長으로 登用하였다.

뿐만 아니라 外叔 康良焜은 副主席, 對外文化連絡委員會 委員長,
平和統一委員會 副委員長, 民主黨委員長,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으로, 4촌 매
부 許談은 外交部長(外務長官)에 勞動黨 中央委員, 最高人民會議 代
議員으로, 次子인 양형섭은 黨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候補委員에 祕書局
思想담당 祕書兼 勞動黨 中央委員,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을 맡겨 놓
았다.

- 6) 政治權力的 特徵 : 以上과 같이 族閥정치를 確立한 北韓
의 政治權力은 아래와 같이 특징 지을 수 있다.

北韓의 政治權力은 原理上으로는 「마르크스-레닌」 主義的 敎理
와 一致하지만 權力的 支配樣式만은 특이한 것이다. 이는 北韓의

政治權力이 共產主義的인 發展段階를 거쳐 形成된 것이 아니라 金日成이라는 個人을 中心으로 해서 權力집단을 서둘러 만든데 그 原因이 있다.

다시 말해서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暴力革命이나 계급투쟁의 適用없이 소련군에 依하여 急造되었기 때문에 이념이나 제도 등이 모두 正常的일수 없는 것이다.

이를 기회로 金日成은 共產社會建設이라는 現實의 추구보다는 自己 個人의 支配力 強化에 더 注力하게 되었는데 傳統的 社會基盤과 傳來的 文化價値의 파괴에 앞장서 왔던 것이며 「엘리트」 形成面에 있어서도 특별주의적 基礎에서 充員하고 있다.

Ⅲ-2. 北韓의 權力構造와 行使

- 1) 制度上으로 본 權力構造: 制度上으로 볼때, 北韓의 權力構造는 最大人民會議가 形式上 行政府인 政務院을 組織하고 中央재판소의 判사들을 任命함으로써 三權分立制를 배제하고 있다. 더욱이 權力構造에 관한 共產主義的 論理 即 「공산당이 國家기관 및 모든 社會團體에 對한 指導的 核心이며 權力의 源泉이다」라는 原理에 따라 노동당 영도하에 三權이 黨 中央기관에 集中되어 있으며 內外政策의 全般이 이의 頂上部에 依하여 決定되고 執行되고 있다.

그런데 共產社會에서는 黨을 모든 것에 優先시키고 있다는 것이 一般的 理論이라면 北韓에서도 黨의 權限에 依한 모든 決定만이 至上의 것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에서는 黨의 決定보다도 金日成의 이론바 「敎示」가 보다 重要視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黨과 金日成을 同一視하고 있으며 權力

역시 金日成에 依해서 行使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2) 労働党的 組織: 北韓의 労働党은 高度로 中央集權화된 官僚 組織으로서 그 피라미 型的 頂點으로는 形式的인 代表기관인 党大会가 있으나 實質的인 最高政策 決定기능을 行使하는 것은 党 中央委員會이며 그 中에서도 中央委員會의 全員會議에서 選出되는 政治委員會와 그 執行部署인 秘書局이다. 이 外에 党的 下部 組織으로서 道, 市, 直轄市, 구역, 郡党 및 初級党이 있고 이들은 中央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命令指示에 따라 그들의 任務를 遂行해 나가고 있다.

北韓에서는 都市, 農村할 것 없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党組織이 있어 이른바 党政策遂行을 統制하고 監視하고 督勵하고 있는 것입니다.

-3) 金日成權力掌握의 公式化: 이 상으로도 不足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1972年 12月 所謂「새憲法」을 制定하여 金日成의 全權 掌握을 公式化시켰다. 即 從前에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委員長이 名目上 國家元首의 役割을 遂行해 왔으나 새憲法에는 主席制를 新設하여 金日成으로 하여금 그 權限을 行使토록 하고 있다.

Ⅲ-3. 北韓의 對南戰略

-1) 北韓의 政治的 目標: 그러면 北韓의 對南戰略의 一環으로써 金日成을 頂點으로한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政治的 最終目標은 무엇인가? 労働党은 그들의 투쟁로선을 뒷받침하는 党規約 前文에서 「朝鮮労働党的 當面目標은 共和國 北半部に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範圍에서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目標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궁극적 目標가 革命에 依한 全韓半島의 赤化統一에 있음을 明白히 한 것으로 이는 南北對話가 開始된지 3年이 지난 오늘에도 何等의 變化가 없는 것이다.

- 2) 北韓對南革命戰略의 基礎: 그들의 對南戰略의 基礎는 「스탈린」의 共產主義 革命戰略에 바탕을 두고 있다. 即「스탈린」은 「戰略은 革命의 一定段階에 있어서 勞動階級の 主要打擊方向을 決定하는 것이며 그를 爲한 革命予備軍配置計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基礎하여 北韓은 그들이 直面한 特殊條件으로 첫째, 南北이 分斷狀態에 있는만큼 1次的으로 北을 完全 支配하여 南을 北의 支配領域에 넣는다는 點과 둘째, 南北의 分斷이 國際的 勢力關係에 依해서 이루어졌으므로 革命에 依한 統一問題도 國際的 性格을 띠는 點을 考慮하고 있다.

- 3) 革命의 三大力量 設定: 이상에 근거하여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소위 「三大力量」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고 있다. 첫째, 「北韓을 革命基地」로 強化하고 있다. 그들은 1960年代 後半期에 이르러서는 北韓이 韓半島赤化의 背景的 役割에서 脫皮하여 韓國에서의 革命을 行動으로 支援해야 한다는 戰鬪的 決意下에 1.24 事態, 삼척을진 武裝共匪事件 等の 挑發行爲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反共意識을 고취시키고 勝共態勢를 더욱 갖추도록한 結果를 초래하였다.

둘째, 「韓國에서의 革命力量」을 強化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국에서의 공격대상과 이용대상을 別途로 設定하고 있다. 우선 공격대상으로는 美國과 資本家 그리고 一般官僚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美國을 革命에서 主要한 攻擧對象으로 보고 있는 것은 美國의 對韓政策과 韓美間의 굳건한 유대관계가 韓半島赤化에 決定的 장애가 된다고 評價하고 있는데 起因하며 그리고 資本家와 一般官僚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傳統的인 共產主義 理論에 의한 것으로서 韓國에서의 革命을 階級革命으로 유도하기 위함인 것이다. 한편 그들이 設定한 韓半島赤化의 利用對象으로서 勞働者, 農民을 根幹으로 青年學生과 民族資本家를 들고 있다. 이는 그들이 美國과 資本家에게 抑壓되고 있어 革命力量으로 돌려질 수 있다고 억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戰略理論은 現實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共産黨이 非合法化된 大韓民國의 与件下에서는 소위 「革命力量」을 組織化하고 나아가 革命鬪爭을 展開하기 위한 地下黨의 구축과 이를 통한 社会秩序破壞를 重視하기에 이르렀다.

끝으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韓半島赤化를 爲해 「國際的 革命力量」의 強化를 고려하고 있다.

그들은 50年代의 國際情勢는 共産圈 乃至는 國際共產主義運動에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는 評價를 하였으나 60年代에 들어서면서 「韓國에서의 共產革命」에 미치는 「國際革命力量」의 影響을 再評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北韓은 從來의 소련을 비롯한 共産圈 일변도의 外交政策을 止揚하고 中立國 乃至 西方國家와의 關係改善을 圖謀하기 위한 柔軟性있는 外交라는 戰術的 變化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自由中國과 中共의 關係처럼 北韓의 國際的 地位向上과 韓國을 國際政治에서 孤立化하여 國際적으로 赤化統一에 有利한 情勢를 造成해보려는 戰略이라 할 수 있다.

-4) 決定的 時期: 戰略에 있어서 또 하나의 重要的 問題는 如何한 條件과 時期를 이룬바 決定的 時期로 택하느냐 하는 問題가 제기된다.

그들은 全面戰爭이 일어나거나 「三大革命力量」이 同時에 이루어지지 않는限, 自己들 뜻대로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스탈린」은 「決定的 時期」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民衆의 革命氣運이 팽배하여 黨이 提示한 「테-제」보다 大衆運動이 앞서 있을 때, 둘째, 敵진영에 있어서 絶망, 혼란, 퇴폐, 崩壞등 否定的 要因이 充滿되었을 때, 셋째, 이 상의 두가지 계기가 同時에 造成되었을 때」라고 하였다.

이같은 「스탈린」의 「決定的 時期」규정은 한 國家內에서 革命情勢에 對한 규정으로서 對外國關係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試圖하고 있는 「決定的 時期」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여 北韓에서의 南侵準備의 完了, 그들에 有利한 國際情勢의 도래, 그리고 韓國內에 自己들을 支持하거나 同調하는 勢力이 強化되었을 때를 「決定的 時期」라고 보고 있다.

Ⅲ. 經濟實態 批判

Ⅲ-1 經濟體制

-1) 體制의 比較: 自由主義 經濟體制란 私有財産의 基盤 위에

서 價格機能 (Price Mechanism)에 依한 自律的인 資源의 配分이 이루어지는 制度的 形態이다. 따라서 個人的 合理的 利潤追求는 勿論, 投資의 主体도 어디까지나 民間企業이 為主가 되고 있다.

反面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生産手段의 私有를 否定 함으로써 資源의 配分이 中央集權的 計劃에 依하여 劃一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먼저 着手되는 것은 生産手段의 固有化와 集團化인 것이며 個人的 私的利潤追求는 否定 當하기 마련인 것이다.

-2) 生産手段의 固有化: 共產國家에서는 私有財産을 모든 罪惡과 不平의 根源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社會發展이 이루어질 수 없다하여 生産手段을 固有化 하였다.

그러나 共產社會의 現實은 私有財産을 無償으로 沒收하고 個人에 依한 商工業 活動을 禁止시켜도 無階級社會로는 되지 않고 새로운 階級인 特權層의 疇포가 더욱 심해졌을 뿐 아니라 階級鬭爭의 形態인 權力鬭爭이 계속되고 숙청선봉이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者들은 私有財産을 계속 否定하고 있다. 그리하여 北韓에서도 一次的으로 鈹工業 및 商業을 固有化한 다음 農業의 集團化를 斷行하였던 것이다. 即 北韓은 다시 지난 1954년에 所謂 農業協同組合의 組織에 着手하여 1957년에 대체로 完了했고, 또한 이 期間에 個人商工業은 「利用」 「制限」 「改造」의 段階를 거쳐 기만과 背信, 壓力과 強制手段으로 國營 또는 協同조합에 흡수시켰다.

一般的으로 共產主義 理論에 따르면 農業의 集團化는 工業化 過程이 成熟하여 農機械를 供給할 수 있는 經濟的 基盤이 갖추어져

을 때 비로소 遂行되기 마련이지만 北韓은 이같은 与件을 完全 度外視 하였기 때문에 生産性 低下等의 農業危機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3) 生産管理体制: 한편 北韓의 生産管理体制는 모든 資源이 計劃機構인 「國家計劃委員會」에 依하여 配分 調整되고 있다. 이는 私有財産을 基盤으로 한 市場經濟體制를 排除하고 있기 때문에 人爲的 計劃과 統制가 不可避한데 起因하는 것이다.

특히 北韓 生産管理体制를 볼것 같으면 産業經營은 國營企業과 協同組合으로 再分되고 國營企業은 다시 中央産業과 地方産業으로 区分되고 있다.

이러한 産業經營 形態의 内部的 管理面의 特徵을 보면: 첫째, 國營企業에 있어서는 支配人 責任下에 嚴格한 獨立採算制를 實施하고 있으며, 둘째, 모든 生産指標는 中央의 劃一的 管理下에 統制 管理되며, 셋째, 中央銀行이 「원」의 統制를 實施하여 企業活動을 調整 감독 함으로써 모든 商品과 用役은 國家의 計劃價格에 依하여 公定制로 評價되고 있다.

그런데 絶對的인 權力을 行使하고 있는 勞動黨 黨僚들은 企業管理나 運營에 技術과 經驗이 全혀 없이 各部門 企業체에 浸透하여 自己의 主觀에 따라 命令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고 독려하고 있어 많은 不作用을 일으키고 있다.

-4) 官僚主義 抬頭: 이상과 같은 中央集權的 計劃管理体制는 地方과 下部 組織間의 創意와 能率의 缺如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官僚主義를 抬頭시켰다.

蘇聯을 비롯한 東歐 諸國에 있어서는 이같은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미 1950年代末부터 企業에 있어서 利潤制度의 導入等 生産

能率을 增大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決定機能의 分散을 시도하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은 아직도 50年代에 소련이 취하던 낡은 形態의 中央集權的 計劃管理体制에 그대로 집착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따라서 이같은 管理体制는 結局 北韓經濟에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대두시켰다.

첫째 生産者들은 上部의 指示에 따른 生産量에만 拘碍된 나머지 生産品의 質이 粗惡하며, 둘째, 利潤率이 무시되고 資材의 낭비가 많음으로써 生産原價가 높으며, 셋째, 生産者의 創意性 欠如와 技術의 落後性으로 生産性이 鈍化되고 있다는 點 등이다.

Ⅲ-2 政策의 基本路線

-1) 重工業 優先政策: 우선 重工業 優先策을 들 수 있다. 지난 50年代와 60年代에 걸쳐서 北韓이 이를 계속 추진하여온 理論的 基礎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基本敎理를 形成하고 있는 「마르크스」 理論에서 그 名分을 찾고 있다. 卽 社會主義工業化 理論에 依하면: 經濟成長의 目的 達成을 위한 最善의 方式은 보다 많은 資源을 生産財生産 다시 말해서 기계공업을 核心으로 하는 重공업에 割當하고 反面에 消費財生産의 割當分을 減少시켜야 궁극적으로 成長率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重工業에 치중하는 그들의 저의는 순수한 意味의 經濟開發의 原理에 입각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軍需生産의 基盤을 確立하는데 1次的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重工業 優先策은 産業間에 심한 不均衡을 招來하였다. 卽 北韓은 耐乏生活에 위한 最大限의 蓄積과 軍需産業爲主의 重工業 優先策을 強力히 추진함으로써 日常生活에 必要的 生必品 産業 卽 輕工業 部門

에의 投資는 極도로 抑制되어 있다.

이 같은 産業間의 不均衡은 結果的으로 北韓住民의 生活을 희생시켰고 더우기 輕工業으로부터 重化學工業으로 發展시켜야 한다는 「호프만」式 工業化 過程에 逆行하는 發展過程을 답습함으로써 生産性은 물론 全体經濟 成長率을 鈍化시켰다.

한마디로 말해서 北韓의 經濟는 消費의 最大 抑制과 住民들에 對한 勞動力의 最大 搾取에 의지하고 있다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2) 國防·經濟併進 政策: 다음으로 國防·經濟의 併進政策을 들 수 있다. 經濟力 發展과 強化의 併進政策은 1966年 10月 黨代表者 會議에서 宣言되었고 全員 會議에서 決定 採択된 以來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北韓은 60年代 中半期の 共產國 内部의 理論 紛爭과 中蘇 紛爭의 격화에 따라 「國防에서의 自衛」를 提昌하고 同時에 「經濟發展을 一定하게 지연시키더라도 軍事力을 一層 強化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決議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國防經濟의 併進政策은 結果的으로 北韓住民에 對한 過重한 軍事費의 負擔을 強要하게 되었다. 1967年度의 軍事費는 總歲出額의 30.2% 였으며 그 後 해마다 增加하여 70年度에 이르러서는 約 31.4%에 達하였으며 이 같은 額數는 同年 北韓의 G. N.P의 約 23%에 達하였다.

-3) 自給經濟政策: 끝으로 自力更生에 依한 經濟的 自立策을 들 수 있다.

1966年 10月 勞働黨 代表者 會議에서 「社會主義 建設에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經濟的 自主性을 強化하는 것이며 自力更生の 原則에서 自主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一貫된 路線이다」라고 強調한바 있다.

이 같은 自給自足 經濟路線은 첫째로, 「各國은 綜合的인 産業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所謂「스탈린」式的 「一國社會主義」體制를 그대로 模倣한 것이요. 둘째, 60年代 中半期를 前後하여 共產國內에서 노골화하기 始作한 理論上的 分裂과 中·蘇紛爭의 激化에 따른 經濟協助 不振에서 緣由된 것이다.

이 같은 自立經濟 體制는 必然的으로 經濟體制를 封鎖化시켰고 結果的으로 새로운 資本의 導入과 技術革新의 蹉跌을 招來하여 勞動生産性을 더욱 減退시켰다.

오늘날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最大의 弱點은 低水準의 勞動生産性이다. 그것은 이미 「레닌」 탄생 100週年을 記念하기 위한 蘇聯 邦最高會議에서 「브레즈네프」 스스로가 是認하였거니와 이 같은 事實은 오늘날의 蘇聯과 共產諸國이 直面하고 있는 經濟 沈滯의 原因으로서 蘇聯의 指導層까지도 「레닌」의 理念에 對한 再檢討를 不可避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연한 現實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勞動生産性이 낮은 것을 만회하는 手段으로서 「千里馬運動」을 위시한 各種 社會主義勞動競爭運動을 展開함으로써 北韓 勞動者들의 勞動強要와 責任基準量을 增大시키려 하고 있을 뿐이다.

Ⅲ-3 主要部門別 經濟現況

다음은 北韓經濟의 主要部門別 現況으로서 重工業, 農業 및 對外 貿易現況을 簡單히 살펴 본 다음 北韓 經濟의 취약점을 導出해 보기로 하겠다.

- 1) 重工業: 우선 重工業 分野에 있어서 投資 現況을 보면 7個年計劃 期間中에는 總投資의 46%가 重工業 分野에 投資된데

比하여 輕工業 分野에서는 11% 農業 分野에는 20%가 投資되었고 6個年計劃期間中에도 重工業 分野에는 40.7%이나 耕工業 分野와 農業分野에는 各各 8.3%와 18%의 投資가 計劃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産業間的 극심한 不均衡으로 인한 住民의 生活이 희생당하더라도 계속 重工業 우선 主義로 나가겠다는 그들의 底意를 알 수 있다.

-2) 農業: 다음 農業分野의 現況을 살펴 보면 現在 北韓에는 3千余個의 協同農場과 180余個의 所謂國營農牧場 그리고 이를 支援하는 農機械 製作所가 있다.

1970年 現在 協同農場이 所有하고 있는 耕地는 全體의 94%에 이르고 있으며 國營農牧場의 所有耕地는 나머지 6%로 되어 있다.

그들은 黨 5次大會에서 強調한 것처럼 農業의 機械化, 水利化, 化學化 및 電氣化를 指向하고 있는 듯하나 單備強化에 밀려 不振한 狀態에 있으며, 70年度의 食糧生産 目標量은 600~700만톤이었으나 그것도 71%인 500만톤 밖에 生産치 못하였으며 現在 北韓은 食糧 不足을 解決하기 위하여 平野와 山間의 中間에 位置하는 山間地帶 農業을 開發하는데 注力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東歐 諸共產國家에서 集團農場制를 中斷 또는 해체하는 추세를 外面하고 農民들에게 아무리 革命的 熱意에 따른 生産력증대를 호소한다 해도 農業의 發展은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3) 對外貿易: 北韓은 對外 貿易에서도 政治와 經濟는 分離하지 않으며 經濟는 政治目標을 뒷받침한다는 社會主義原理에 立脚하고 있다.

따라서 對外 去來도 이에 따라 運營되고 貿易은 그들의 經濟計

割手段의 一部에 不過한 것으로 社會主義建設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對外 貿易은 政治的 目的의 從屬物이며 保護主義에 徹底할 뿐 아니라 原則적으로 國際分業을 拒否하는 性質의 것이라 할 수 있다.

-4) 貿易現況: 貿易의 現況을 살펴 보면 1970年度의 경우 輸出 3億弗, 輸入 3億8千萬弗로서 輸出入 總額이 겨우 7億弗水準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額數는 같은 해 韓國의 30億弗에 比較하면 4分の1도 안되는 規模이다. 北韓 總輸出入의 81.7%는 對 共產圈 貿易이며 그中 對蘇 貿易이 차지하는 比率은 53%에 머무르고 있다.

-5) 北韓經濟의 沈滯狀: 北韓의 經濟成長 過程은, 다음 三段階로 区分하여 볼 수 있는바 1段階인 1953년부터 60년까지는 經濟成長이 比較的 順調롭게 進行되었던 時期로서 外國援助와 經濟成長이 比較的 円滑하였으나 才2段階인 60年代는 構造的 모순과 外援의 不足으로 計劃에 커다란 蹉跌을 빚었고 才3段階인 70年代는 各種資源 技術이 限界에 到達해서 經濟成長이 沈滯一路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60年代 以後의 經濟 沈滯는 「어-터키」型 基本路線을 그대로 固守함으로써 惹起되는 問題點이라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 北韓과 같이 制限된 資源을 가지고 있는 小國이 低水準의 「自給自足體制」를 固執하는 것은 經濟的 自害 行爲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自給自足の 封鎖經濟 體制는 北韓의 經濟發展을 鈍化시켰는바 이는 1962년부터 8年間의 平均 經濟 成長率이 6.9%

인데 反해 同期間에 韓國은 約 10%에 達하였다는 事實이 이를 立証하고 있다.

-6) 開放體制로의 變質不可避: 따라서 北韓의 經濟 體制는 閉鎖體制로부터 開放體制로의 變質이 不可避할 것이다.

지난 71年 3月 西方世界에 公開된 「사하로프」의 書翰은 「앞으로 4~5年 以內에 果敢한 自由化 政策이 實現되지 않으면 소련은 二流 國家로 轉落하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것은 소련과 共產諸國이 直面한 本質的 모순과 開放體制로의 履行 不可避性을 指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共產國內의 一般的 추세와 더불어 北韓은 現在 추진중인 「6個年計劃」(1971~76) 遂行을 위하여 最近 日本의 大企業에 對한 發電機 製造프랜트 等 10億弗 相當의 商談을 推進하고 있으며 覺醒貿易의 形式을 통한 對日貿易을 70年代 中半까지 5億弗 水準으로 增大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漸次 西方世界 特히 독일, 영국, 佛蘭西 等에 資本과 技術의 協力을 強化코저 노력하고 있어 이것은 封鎖體制로부터 開放體制로의 轉換을 意味하는 것이며 이러한 基本路線의 急激한 變化는 合理主義思想의 대두와 教條主義 權力體制의 崩壞의 危機를 뜻하는 것이므로 分明히 70年代 初半期는 北韓 高位 指導層에게 重大한 試練期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IV. 軍事戰略 批判

IV-1. 北韓의 軍事思想

일찍이 獨逸의 軍事戰略專門家 「카알, 본 클리우세비츠」는 「戰爭

은 다른 手段으로 하는 政治의 繼續에 不過하다」라고 主張함으로써 戰爭과 平和를 区分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思想은 後 「레닌」 「스탈린」 「毛沢東」 등에 의해 계승되었고 現在에도 共產主義者들로부터 높은 評價를 받고 있다. 金日成은 「레닌」의 主張을 이어받아 6.25 南侵을 「祖国解放戰爭」이니 「正義의 戰爭」이니 美化하면서 合理化시키고 있다.

또한 「銃口로부터 政權이 派生한다」는 毛沢東의 主張을 본받아 暴力革命을 強調하였고 한편 「체 게바라」의 「革命條件이 欠如된 狀態에서는 外部로부터 革命의 点火가 있어야 한다」는 論理에 따라 金日成은 中南美 및 아프리카 地域에 게릴라를 輸出하여 물을 일으킨바 있으며 韓國에도 武裝共匪의 南派를 통해 革命의 点火를 試圖한 바 있다.

따라서 金日成은 「레닌」 「스탈린」의 「革命戰爭論」과 毛沢東의 人民戰爭論 그리고 「체 게바라」의 戰略을 模倣하면서 韓國의 赤化를 暴力의 方法으로, 實現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IV-2. 軍事戰略

-1) 目 標: 北韓의 軍事戰略의 目標은 所謂人民民主主義 革命 理論에 根拠를 둔 大韓民國의 政權 탈취이다. 即 韓國에 우선 共產地下勢力을 扶植시켜 全韓半島를 共產化하겠다는 것이다.

金日成은 5次 党大會에서 「南韓人民들은 自己들의 革命鬪爭에서 외롭지 않으며 北韓에 強力한 革命基地를 가지고 있다. 北韓人民들은 같은 民族으로서 南韓人民들의 革命鬪爭을 積極支援할 責任이 있다」고 強調함으로써 韓國의 赤化를 爲한 北韓의 支援이 그들의 責任이라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이는 곧 韓國의 共產化를 위해 北韓의 支援이 要請되는 것처럼 假裝宣傳함으로써 各種形態의 武力挑發을 合理化시키려는 底意인 것이다.

-2) 內容: 政治戰略 具顯의 手段인 軍事戰略의 內容은 첫째, 소위 「革命의 決定的時期」가 造成되기 前에는 이를 爲한 「積極的防禦概念」下的 持久戰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軍事力이 韓國을 능가하도록 準備하는 한편 韓國의 社會秩序를 混亂시켜 우리의 国力增強을 抑制하고 나아가 人爲的으로 「決定的時期」를 造成하려는 戰略的 개념인 것이다.

둘째, 「決定的時期」가 到來한 後에는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配合에 依한 速戰速決戰略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누누히 強調하고 있는바와 같이 「大小部隊의 結合」 「적극적방어와 背後교란의 配合」 「韓國軍背後에 才2戰線形成」等 非正規戰과 正規戰을 配合하고 短期速決戰에 依하여 우리 友邦軍의 支援이 마치지前에 韓半島赤化를 既定事實化시키려는 戰略인 것이다. 여기에 대처 하려는 것이 곧 우리의 비상 사태宣言이요 10月維新인 것이다.

IV-3. 北韓共產軍의 性格

-1) 첫째, 北韓共產軍은 所謂 「革命傳統의 繼承者」로서 革命의 道具이다. 1968年 2月 北韓共產軍 創建 20週年 記念式에서 金日成과 金昌喆은 「人民軍은 人民의 榮光스러운 抗日武裝鬪爭의 直接的 繼承者로서 革命傳統을 全面的으로 繼承하였다」고 強調하여 「人民軍」은 韓國革命의 道具임을 밝히고 있다.

-2) 둘째, 北韓共產軍은 黨의 手足이다. 1961年 9月 18日

北韓勞動黨 才 4 次黨大會에서 採択된 規約 才 66 條에 「朝鮮人民軍은 勞動黨의 武裝力」이라고...規定함으로써 黨의 軍隊임을 明示하였고

- 3) 끝으로 金日成의 私兵이다. 73年 2月 8日 共產軍創建 25週年 記念式에서 北韓軍의 總參謀長인 오진우는 「人民軍은 黨의 軍隊이며 勞動階級의 軍隊로서 金日成의 敎示와 命令을 끝까지 貫徹할 任務를 띠고 있다」고 強調함으로써 人民軍은 1個人으로서의 金日成의 軍隊인양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진대 北韓 共產軍은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外國의 侵略으로부터 領土를 防衛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의 戰略을 실천하는 武裝力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Ⅳ-4. 軍事力強化와 戰略準備狀況

- 1) 4大軍事路線: 여기에서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이 韓半島赤化를 爲한 軍事力 強化와 戰爭準備狀況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우선 1962年 12月 勞動黨 才 4 期 5次 全원회의에서 채택된 소위 4大軍事路線 추진 현황을 살펴 보면

첫째, 「全人民의 武裝化」는 金日成이 모든 住民이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 있게 되었다」고 호언하듯이 현재 북한은 戰爭에 直刻 動員할 수 있는 兵力이 正規軍 45萬, 勞農赤衛隊 150萬, 붉은 青年近衛隊 70萬, 都合 265萬이며 그 以外에도 軍事訓練을 生活化 시킴으로써 全北韓住民을 戰鬥兵化시키게 된 것이다.

② 北韓 「全地域의 要塞化」는 金日成이 말한대로 全地域에 철옹성 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重要한 施設들까지 地下에 들어가게 된 실정이며

③ 「軍裝備의 現代化」에 있어서도 그동안 「샘」 「A. S 미사일」

等 現代的 戰鬪機材와 裝備를 갖추게 되었고

④ 끝으로 軍의 幹部化 問題에 對해서는 「모든 將兵이 한 等級 높은 部隊를 指揮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게 되었다」고 金日成이 장담한 바와 같이 5次黨大會를 前後하여 이미 4大軍事路線의 目標가 거의 整備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2) 國防費支出 現況: 北韓이 發表한 歲出予算에 의하면 國防費는 60年代의 경우 總歲出額의 30%를 上廻한 31億弗에 達하며 이는 同期間産業部門에 投資된 基本建設費 34億弗과 거의 같은 水準이었다. 1971年度에는 8億4千萬弗로서 같은해 韓國 國防費의 2倍 以上이나 되는 規模인 것이다.

한편 72年度와 73年度에는 各各 總歲出額의 17%와 15%로 國防費를 과소 策定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이는 예산편성 技術上으로 國防費를 他項目에 은폐시켜 南北對話와 關聯하여 平和攻勢를 펴기 위한 一種의 위장술책인 것이다. 이에 對하여 日本의 有力한 北韓關係 研究機關은 「北韓의 軍事力이 削減되지 않은채 예산삭감은 不可能한 것이며 軍事費는 實質的으로 줄지 않았고 兵器生産費는 人民經濟費로, 軍事研究 및 軍敎育費는 社会文化費로, 民族보위성 관계費用은 國家管理費로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3) 軍需産業: 한편 北韓의 軍需産業現況을 살펴보면 그들은 現在 20余個의 兵器工場과 45個의 分工場에서 일체의 個人火器는 勿論, 박격포 等 一部 共用火器와 各種 實彈, 砲彈, 手榴彈, 地雷, 火藥等を 自体生産하고 있다.

또한 20余個의 特級 및 一級工場은 短時間內에 戰時體制로 轉

換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卽 岐陽과 江界의 「트락타」工場은 有事時 戰車生産工場으로 大型機械生産工場은 大砲生産工場으로 轉換시킬 수 있는 措置가 完了되었다는 것이다.

現在 北韓의 兵器 工場 가운데 規模가 가장 큰것은 從業員數만도 約 1萬2千名에 達하며 年間 AK 自動小銃의 生産能力만도 10萬정에 達한다.

따라서 그들은 飛行機를 除外한 在來式의 兵器를 自体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4) 最近動向:그럼 南北對話以後 그들의 動向은 果然 어떠한 變遷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地上軍의 動向을 보면 從來의 26個師團에서 28個師團으로 2個師團을 增設하였으며 特別히 前線 3個集團軍에 蘇製 AF-1 對戰車 유도탄部隊를 新設하였다.

海軍에 있어서는 O.S.A級 유도 경비정 등 大型 함정을 追加 導入했는가 하면,

空軍의 경우에는 各種 戰鬪機種을 廣範하게 配置시킴으로써 航空機의 攻撃能力을 더욱 높였고 72年度에도 SU-7 전투기 2台, MIG-8 「헬리콥터」 5台, 기타 MIG-19 전투기 多數를 導入하는 등 戰鬪力強化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5) 偽裝平和 攻勢:北韓은 以上과 같이 軍機構의 增改編은 勿論 新裝備을 大量 導入하면서도 겉으로는 偽裝平和攻勢를 펴고 있다. 卽 外軍撤収와 双方 10萬 以下로 兵力減縮 그리고 平和 協定締結 등의 主張을 하고 있다.

이것은 對外的으로 그들의 對南侵略政策과 好戰性을 은폐하여 마

치 緊張緩和와 平和 指向的인 國際潮流에 副應하는 듯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제적인 지지 내지는 동조세력을 확보하여 北韓의 地位를 높이려는 것이다. 한편 韓國에 對하여는 總力安保態勢를 弱화시키고 韓國民의 對共驚覺心을 해이시키며 國論을 分畧시켜 韓國에 對한 힘의 極少化를 획책하려는 低意인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만반의 戰爭準備를 完了해 놓고 이른바 決定的 時期가 到來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 北韓을 過大 評價하여 두려워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戰爭의 勝敗는 武裝한 軍人에 依해서 左右되는 것이 아니라 国力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나할 것 없이 國力배양에 힘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第 3 章 共 産 主 義 의 戰 略 戰 術

(章 前 文)

共産主義의 偽裝性과 欺瞞性이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이에 對
処키 爲해서 마련한 本章은 그 細部目標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
다.

첫째, 共産主義의 戰略과 戰術의 形態를 理解하고 그 底意가 世
界赤化와는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를 알게한다.

둘째, 共産主義의 戰略戰術에 基礎한 宣傳煽動을 批判하고 이에
對処할 수 있는 態度를 기른다.

以上の 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 本章의 內容은 다음과 같이 구
성하였다.

첫째, 戰略戰術은 共産化의 手段으로 活用되고 있다는 事實에 기
초하여 戰略의 概念과 類型을 考察하였고

둘째, 戰略에 기초한 戰術의 概念과 類型을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北韓의 戰略戰術에 關한 概要를 살펴보았는 바, 이는 前
述한 才 2 章에서 詳述하였으므로 이와 關連시켜 그 內容을 把握함
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本章에서 留意하여야 할 事項은 共産主義가 理論으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實踐을 前提로 할 것이기 때문에 戰略戰術은 그
對象地域의 條件에 따라 各樣各色이 라는 點을 強調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는 共産主義者와 對峙하고 있다는 事實을 감안하여 北韓
共産主義者들의 戰略戰術의 원용사항과 그 전개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南北對話가 展開되고 있다해서 北韓의 戰略이 變質된 것은
아니라는 事實과 變化된 것은 但只 戰術에 약간의 差異가 있다는

점을 외국에서의 실패를 중심으로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I. 戰略戰術의 概念

I-1 革命戰略

-1) 革命戰略의 概念은 革命의 對象 즉 打倒對象이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革命의 主力軍과 同調勢力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의 것이다. 特히 革命戰略의 개념은 러시아 「블세비키」 혁명을 모델로 짜낸 것으로 각국 또는 각 사회의 사회적 및 역사적 조건에 따라 特異性이 있는 것이다.

-2) 혁명 전략에 있어서 보편적인 원칙은 어떤 사회이든 혁명의 과제가 무엇이든 노동계급이 혁명의 主力軍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毛沢東이 지도하는 공산당은 중국혁명에서 主動세력으로 보았다. 이것은 「레닌」「스탈린」의 혁명 전략 이론에 어긋난 것으로 소련과 중공사이에 논쟁의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레닌」「스탈린」의 이론에 의하면 노동계급이 혁명의 주력군이며 농민은 노동계급의 동맹자에 지나지 않았다.

-3) 어떻게 현재 자본주의의 발달로 보아 대다수의 노동계급 또는 농민이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를 指向하는 혁명을 원하고 있는 징후는 찾아 볼 수 없음에 비추어 볼때 노동계급 또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이 혁명의 主動세력이라는 命題에 기초를 둔 혁명 전략 이론은 虛構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의 혁명전략의 구현을 위한 組織과 宣傳은 교묘하고 교활함으로 이를 설코 경시해서는 안되며 이에대한 효과적

인 대비책이 요청되는 것이다.

1-2 戰術

- 1) 戰術은 전략을 이룩하기 위해 정세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바꾸어 진다. 전술 역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전술이 모델로 되고, 여기에 각국의 相異한 조건에 따라 特異點이 가미되고 있다.

- 2) 전술은 그 實施의 次元에서 혁명운동 昂揚期의 전술과 혁명운동 退潮期의 전술로 区分되고 있다. 혁명운동 양양기의 전술은 革命組織과 力량을 革命 高地의 점령에 적극적으로 동원시키는 것으로 罷業 시위로부터 武裝暴動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혁명운동 퇴조기의 전술은 혁명조직과 역량을 되도록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고 혁명역량의 保存과 축적에 注力함으로써 혁명운동 양양기에 對備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다.

- 3) 혁명 전술은 虛構的인 혁명전략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만큼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객관적인 사회운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모략과 기만에 입각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혁명전술은 전략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虛點 및 脆弱點을 착안하고 구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동시에 전술 전개의 현실적 素地를 제거해야 한다.

II. 戰略의 類型

II-1. 「프롤레타리아」革命 戰略

-1) 혁명전략은 혁명의 主敵과 혁명의 主動세력이 문제인 만큼, 혁명의 성격 즉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나 혹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나에 따라 상이하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는 主敵이 例外없이 자본가 계급이고 혁명의 主動세력은 노동계급과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勞農同盟이다. 중국공산당 혁명에서 농민을 혁명의 주동세력으로 본것은 「레닌」 「스탈린」의 혁명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特例인 것이다.

-2) 「프롤레타리아 혁명」전략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계급이라고 하는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키고 있어서 中間세력의 지위는 비교적 경시되고 있다. 한편 해당 자본주의 사회의 경진발전 및 역사적 조건과 계급 구성에 따라 어떤 사회 계층을 동조세력으로 끌어들이고 또 어떤 사회계층을 中立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 계획은 다소간 特異點을 가지고 있다.

-3)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전략 이론은 오늘날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따르면 응당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야 할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징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II-2.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

-1) 「人民民主主義 革命」은 자본주의의 폐기를 直接的 解決

課題로 삼는 것이 아니라 共産黨 執權에 길을 여는 政治的, 社會的 條件의 확보를 그 기본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 전략과 다르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도 노동계급이 혁명운동의 주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프롤레타리아 革命」과 같다. 혁명의 대상은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및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各異하나 階級革命의 개념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2)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類型: 이로서는 그 모델 케이스로 東歐諸國의 공산화 과정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의 전략은 아직 大衆的 기반이 미약한 공산당이 사회민주주의 및 反파시즘 정당과 제휴하여 공산화에 장애가 되는 자본주의 세력, 보수세력 및 지주와 西歐的 민주주의 세력을 除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東歐諸國의 「인민민주주의의 혁명」 전략은 사회발전 법칙을 밝혔다는 공산주의 이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소련 점령군의 비호에 따른 물리적 세력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어떠한 東歐諸國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은 공산당이 背信하지 않으리라는 환상을 가진 지각없는 민주주의 정당과 그 정치세력에는 주요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역사적 교훈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3)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은 特異性이 있으나 이는 중공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중공은 폭넓은 民主, 民族政黨 및 政派와 제휴하여 국민당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집권 후에 있어서도 소위 사회주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 민주정과와 동의할 수 있는 공동강령을 내놓고 그들과 제휴하였다. 그러나 중공의 경우에도 그 전략은 기만적이고 정권의 획득 및 공고화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 4) 한편 해방후 북한 공산당도 「인민민주주의 革命」 전략을 원용하여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선」 등의 이름으로 민주,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로 공산당정권의 기반구축을 꾀하였다.

Ⅲ. 戰術의 形態

Ⅲ-1 統一戰線 戰術

- 1) 통일전선 전술은 공산당이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 민족주의 세력등 비공산주의 세력과 제휴하는데 있어서의 전술이다. 통일전선은 혁명전략의 일환으로써 그 전술은 지극히 중요시되고 있다. 공산당의 최고 정치강령은 공산주의의 실현인 만큼 여기서는 통일전선이 개재할 여지가 없으며, 사회주의 혁명과 또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혁명의 主敵을 반대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는 비공산주의 세력과 제휴하기 위해 통일전선 전술이 적용된다.

특히 공산당은 그가 指向하는 혁명의 과제에 전면적으로 同意할 수 있는 사회계층은 물론 部分的인 共通利解關係를 같이하는 사회세력과도 제휴하려고 한다.

- 2) 統一戰線의 原則은 共產黨과 提携하는 정당 또는 정파의 獨立性을 살리는 반면 어떠한 경우에도 共產黨의 原則的 立場은 고수된다는데 있다. 특히 統一戰線 전술은 東歐諸國의 공산화 과정에서 主軸하였고 한편 통일전선 전술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도 중요시되고 역사적으로 볼때 1973년때의 反파시즘 인민전선은 통일전선의 이론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오늘날 공산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과도 특정의 투쟁과제에서 제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사실의 하나이다.

Ⅲ-2. 上層統一戰線과 下層統一戰線

이는 통일전선의 상대방이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지도부나 그렇지 않으면 정당 사회단체의 일반 구성원 혹은 대중이냐에 따른 区分이다. 즉 前者를 상층 통일전선, 後者를 下層統一戰線이라고 부른다.

공산당은 兩者가운데 下層統一戰線을 기본으로 하고 보다 중요시한다. 공산당과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정당, 사회단체의 지도부는 공산당을 배신할 가능성이 비교적 큰데 대해서 하층 대중은 소위 비판과 교양으로 혁명의 기본세력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Ⅲ-3. 各種 鬭爭形態

-1) 혁명운동에서는 소극적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적극적 형태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전략 전술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투쟁형태를 보면 怠業, 파업, 시위등의 경제적 투쟁과 反정부의 성격을 띤 정치적 투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다시 법의 태두리안에서의 투쟁이냐에 따라 합법투쟁과 非합법투쟁으로 구별되고 또한 투쟁방법에 따라 비폭력투쟁과 폭력투쟁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폭력투쟁의 최고형태를 무장투쟁이라고 한다.

-2) 공산당이 조직하고 선동하는 각종투쟁가운데 정치적 요구를 내건 정치적 투쟁은 소위 혁명정세가 성숙되고 있을 때 제기되며 경제적 투쟁은 주로 노동자들의 소위 혁명성 제고와 혁명세력 확장에 活用된다.

이밖에도 議會鬪爭을 들 수 있다. 이는 의회에 선출된 공산당 소속 의원들이 공산당을 대표하여 여러가지 정치적 요구를 하며, 그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鬪爭이다.

Ⅳ. 北韓의 戰略戰術

Ⅳ-1. 赤化統一의 戰略·戰術

-1) 북한은 통일문제를 혁명의 문제로 斷定하고 남한에서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되어야 적극적 혁명(통일)이 수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은 韓半島革命의 성격을 「反帝, 反封建民主主義革命」이라고 밝히고 혁명의 主敵으로 韓美의 協力 및 共同防衛관계를 設定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의 추진세력으로 노동계급과 농민을 主力軍으로 보고 中小資產層, 學生, 知識層 및 一部 민족자본가 까지 혁명의 協조세력에 끌어들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이를 爲하여 지하 공산당을 조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많은 간첩을 남파하였던 것이다.

-2) 북한은 反美, 反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요소를 이용하려 한다. 즉 反共的인 세력이라도 反美的 요소가 있으면 그와 제휴하려고 하며 또한 보수적 정치세력이라도 反정부적일 때는 통일전선을 형성하려고 피하는 것이다.

-3) 북한은 한국의 공산화가 오직 폭력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혁명 전술의 軸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정세를 소위 혁명의 퇴조기로 보고 지하

혁명역량의 보존과 축적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무장간첩 및 게릴라의 남파로, 혁명의 양양기 시대를 조성시키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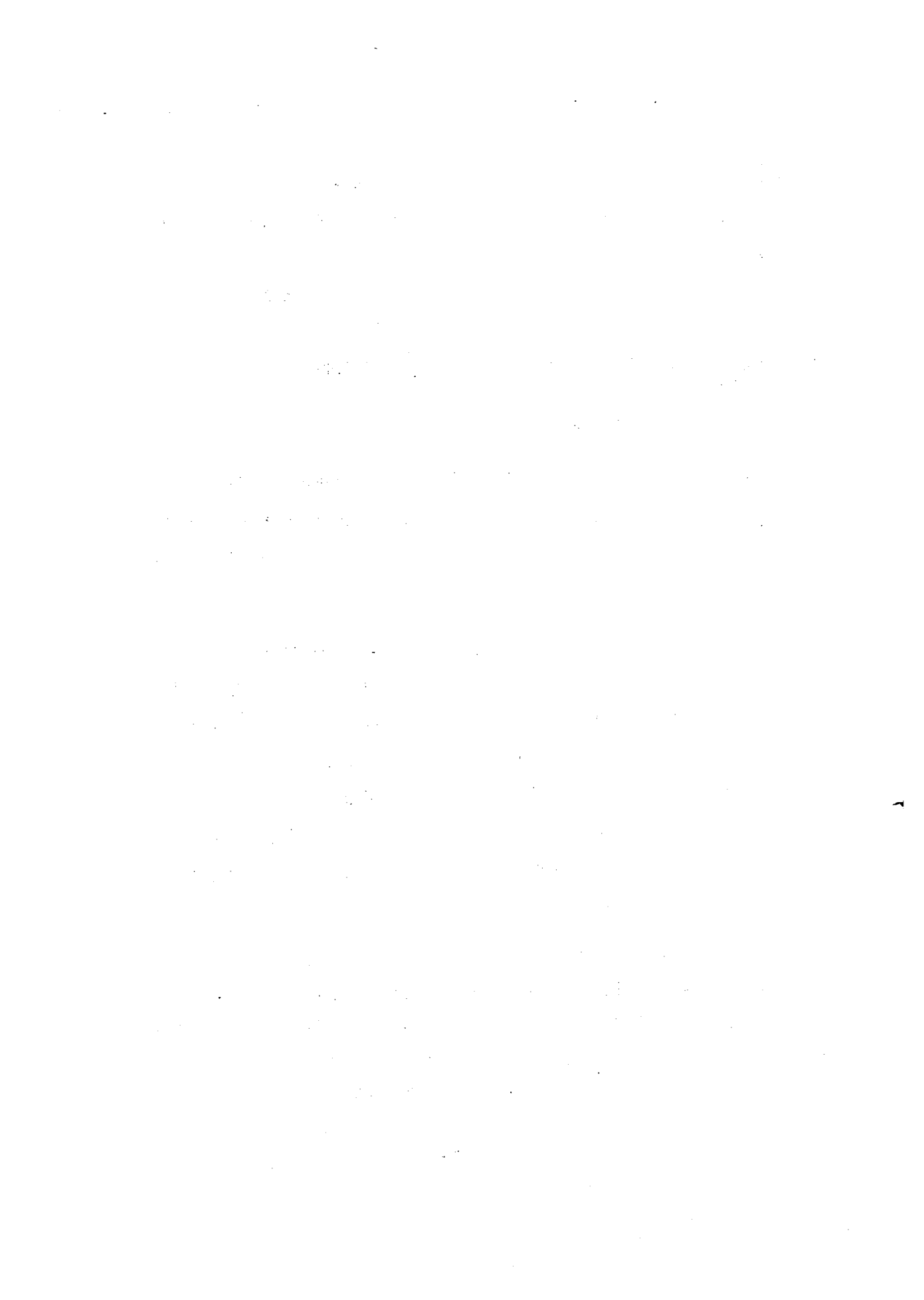
특히 그들이 혁명의 투쟁형태로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 및 半合法鬪爭,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을 配合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혁명의 위축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IV-2 革命的 手段

- 1)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주체는 남한내의 혁명역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군사력을 혁명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것은 6.25남침의 역사적 사실이 시사해주고 있다.

- 2) 북한은 또한 게릴라전을 對南革命的 手段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사실은 1960년대에 시도한 일련의 게릴라대의 남파가 말해주고 있다. 정세의 변동에 따라 게릴라전의 비중을 높게 또는 낮게 잡을 뿐이다. 한편 게릴라전의 시도가 전쟁발발의 誘因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對南 게릴라전이 대한민국에게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그에 대한 보복을 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으로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 3) 북한은 혁명의 수단으로 물리적인 것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데올로기 및 사상 선전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다. 남북대화 및 접촉의 시대에서는 대남 혁명의 수단과 방법이 가능한 모든 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보다 多様하게 전개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각별한 경계와 대비가 요청되는 것이다.



— 第 4 部 —

南 北 關 係 外 統 一 問 題

海
九
字
漢
編
四

目 標

1. 祖国分断의 由來와 南北間의 对立關係理解
2.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의 性格과 우리의 統一政策 理解
3. 統一問題解決의 主導的 役割 遂行을 위한 課案에 的 支援姿勢確立
4. 올바른 統一觀의 定立

概 要

題 目	內 容	強 調 點
I. 祖国分断과 南北關係 變遷 1. 祖国分断의 悲劇 2. 南北韓의 政治理念과 体制 3. 우리의 統一努力과 北韓의 挑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国分断의 背景, 祖国分断의 他律性 • 異質的 政治理念과 体制 • 우리의 統一努力, 6.25 動亂의 悲劇 • 北韓의 繼續的 野慾과 挑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国分断의 他律性과 北韓의 妨害로 統一遲延
II. 祖国統一의 要請과 要件 1. 要 請 2. 要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史的 要請, 人道的 要請, 國家發展의 要請, 國際政治的 要請 • 民族國家 同一體意識, 民主力量, 社會正義의 高揚, 国力培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의 必要와 統一의 要件
III.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政策 1. 南北對話推進의 理論的 背景 2. 統一原則 3. 相異한 統一目標과 政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話의 效果, 期待值, 目標 • 南北對話의 背景과 意義 • 우리의 統一目標과 段階的 接近方法의 正當性 • 北韓의 野慾과 革命的 立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對話推進의 原理와 우리의 接近方法의 妥當性
IV. 南北關係發展의 方向과 展望 1. 南北關係發展方向 2. 南北間의 对立과 競爭 3. 韓國의 主導的 役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的 同質性의 回復 • 南北間의 理解와 信賴의 增進 • 南北間 競爭의 不可避性 • 總力安保의 意義, 統一問題解決의 長期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問題解決過程에 있어 国力培養과 國民總和的 團結의 重要性

序 說

四半世紀동안 完全 두절 상태에 놓였던 南北關係가 歴史的인 7.4 共同声明으로 對話를 통한 接觸이 시작되었다. 7.4 共同声明이 發表되자 民族의 念願이었던 祖國統一이 短時日內 이루어지리라는 期待感에 환성을 올린바 있다. 그러나 막상 南北接觸이 試圖되는 過程에 國民은 統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게 되어 失望的, 회의적, 낙관적 견해들이 엇갈리게 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南北關係와 南北의 相異한 統一目標와 政策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도 이 시점에 올바른 南北關係와 統一問題解決을 위한 課題를 理解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契機에 호응하여 本部가 의도하는 것은 祖國分斷의 由來와 南北間의 누적된 對立 關係를 理解하고 쌍방이 시도하는 南北接觸의 性格과 統一問題를 바르게 이해하여 善意의 競爭을 통한 統一問題 解決의 主導的 役割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課題를 理解함으로써 올바른 統一觀을 갖게하는데 있다. 이러한 本部의 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具體的 目標가 설정되었다.

첫째, 祖國分斷의 由來와 理念 및 體制를 달리하는 南北關係의 性格을 理解하고 北韓의 계속적 挑戰을 克服하기 위한 課題를 인식케 한다.

둘째,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을 이해함으로써 國民의 健全한 統一觀을 樹立케 한다.

셋째, 南北間의 相異한 統一政策과 7.4 南北共同声明의 意義 및 統一原則을 이해하여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過程과 異議에 對한 健全한 인식을 갖게 한다.

接近方法의 方向을 提示하면서, 統一問題 解決의 長期化 不可避性을
지적하였고 그리고 南北關係改善을 위한 우리의 主導的 行割遂行에
國民의 總和的 團結과 努力이 절대 必要함을 強調하였다.

第1章 祖國의 分斷과 南北關係의 變遷

〈 章 前 文 〉

祖國의 分斷은 우리民族의 意思에서가 아니라 他律的인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他律的 힘에 의하여 祖國이 分斷되었으며 分斷된 이래 어떠한 狀態로 進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젊은 世代는 적으리라 짐작된다. 祖國分斷의 유대와 分斷된 후의 南北關係를 정확히 理解하는 것은 祖國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南北接觸關係 過程과 그 展望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며 統一課業 遂行에 必要한 課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本章은 다음과 같은 目標을 설정하였다.

첫째, 祖國分斷의 國際史的 背景과 人爲性を 理解하고

둘째, 南北間의 理念 및 体制의 性格과 差異를 理解하여 우리의 理念과 体制의 優越性を 認識하며

셋째, 北韓의 挑戰성과 그의 克服을 爲한 課題를 理解한다.

以上の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本章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構成하였다.

첫째, 1945年을 前後한 國際情勢와 韓半島 分斷의 經위를 整理하였다

둘째, 南北의 政治理念 및 体制의 比較를 하였으며

셋째, 韓國의 政府樹立後 統一을 위한 努力과 北韓의 挑戰樣相을 時代別로 整理하였다.

特히 本章을 取扱함에 있어서 留意할 點은:

첫째 大戰 終戰後의 國際勢力 關係가 韓半島에 어떻게 作用하였는가를 檢討함과 아울러 當時 소련의 策略을 詳細히 說明하여야 한다.

둘째 南北分斷이 人爲的이었다는 事實을 밝혀야 하며 그것이 國內 問題와도 어떠한 關聯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國際情勢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國民의 態도의 重要性을 力說하여야 한다,

셋째 南北의 分斷은 体制의 異質化를 招來하였고 体制의 異質化는 統一의 阻害要素임을 強調하여야 할 것이다. 特히 理念과 体制의 比較를 통한 大韓民國의 優越性이 被敎育者로 하여금 確信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의 統一을 爲한 努力이 政府樹立 當時로부터 계속되었다는 事實을 例舉하므로써 北韓이 統一을 妨害하였다는 것을 實證시킬 必要가 있다. 이는 南北對話以後 北韓이 그들만이 統一努力을 한양 宣傳하는 것이 虛偽라는 事實을 確信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너무나도 명확한 6.25 南侵을 北侵이라고 생트집을 잡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虛偽宣傳事實을 生々한 資料를 통해 立證시켜야 한다.

I. 祖國分斷의 悲劇

I-1 祖國分斷의 背景

-1) 分斷論議의 始初: 韓半島의 分斷은 꽤 오랜 동안의 國際 權力 政治的 背景을 가지고 있다. 일찌기 1895年 8月 駐韓日本 公使이며 犯關弑侯의 元凶인 「三浦梧棲」는 對 러시아 國交 調整案으로서 韓半島의 勢力圈 分割을 提議한바 있었고, 1896年 5月에는 「山嶽有朋」이 38度線에 依한 韓半島 分割을 러시아 外相「로바노

프]에게 提議하였으나 拒否된 일이 있었다. 그리고 日露戰 直前인 1904년에는 러시아가 39度線에 依한 分割管理를 日本에 提議한 바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韓半島는 그 地政學的 位置때문에 大陸勢力의 東進 또는 南進을 위한 발판이 되어왔고, 海洋勢力의 大陸進出을 위한 橋梁的 役割을 맡게 되어 周辺強大國들의 勢力角 逐場 내지 鬪爭場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2) 國土의 分斷 : 第2次大戰이 끝날무렵인 1945년 2월 美·英·蘇 三大國은 「알타」에서 會談을 갖고 蘇聯의 對日 參戰과 戰後 處理에 關하여 協議한 바 있었는데, 當時 蘇聯은 이 會談에서 韓國을 包含한 極東에 있어서의 旧領土 勢力範圍 및 諸利權의 回復을 確約받음으로써, 帝政러시아 때부터의 傳統的인 南進政策을 굳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國土를 兩斷시키는 原因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蘇聯은 이미 帝政러시아 當時 日本과의 勢力均衡을 위해 暫時나마 38線을 境界로 勢力均衡線으로 정한 일이 있었거니와 알타會談에서도 38線을 主張했던 것은 對韓國南進政策을 目標로 하는 蘇聯의 傳統的 極東政策을 具現하는 데 뜻을 두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韓半島에서의 어느 한 強大國에 의한 主導權을 主張할 수 없다는 態度를 取한 戰時 聯合國의 利害關係와 結付되어 우리 民族의 運命을 다시금 列強 國際權力政治의 犧牲物로 만들고 말았다.

1945年 8月 15日字로 太平洋聯合軍 最高司令官 「맥아더」將軍에게 傳達 公布시킨 「一般命令 第一号」는 韓半島 38度線 以南의 日本軍은 美軍에게 그리고 그 以北의 日本軍은 蘇聯軍에게 降伏하

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이 文書야 말로 韓半島의 分割을 招來한 公文書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이 軍事作戰上의 必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아무런 政治的 考慮가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戰時 聯合国会談, 특히 카이로會談 및 알타會談에서의 어떤 公約을 履行한 一環이었던 것인지는 分明하지 않다. 이에 관한 公文書는 아직 未達인채 38線 分割占領을 둘러싼 論議는 거듭되고 있다.

-3) 蘇聯의 分斷 고집 : 38線을 分界로한 美蘇 兩軍의 進駐는 韓半島에 두개의 軍政을 結果했고, 暫定的이기를 바랐던 38線은 始初부터 軍事的 考慮 이상의 複雜性을 띠면서 마침내 單一民族의 統一을 沮害하는 障壁으로 되었으며 時間이 지남에 따라서 事實상 하나의 政治的 分界線으로 굳어가고 말았다. 이러한 事態를 是正하기 위해 美軍司令官은 北韓의 蘇聯軍司令官에게 協商을 提議했으나 이 提議에 대한 蘇聯軍司令官의 非妥協的 態度에 直面하여 韓國 獨立問題를 보다 高位層에서 取扱할 것을 美國政府에 建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建議에 따라 45年 12月 美·英·蘇의 모스크바 外相會議가 열렸고 여기에서 合意된 모스크바協定에 의거하여 美蘇共同 會議와 美蘇共同委員會가 서울에서 열렸다. 美·蘇 共同委員會는 46年 3月과 47年 5월에 2次會談을 가졌으나 蘇聯이 臨時政府樹立에 관한 協議對象에서 信託統治를 反對하는 政黨과 社會團體를 除外하자는 主張을 固執함으로써 아무런 成果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狀態에서 韓國問題解決의 어려움을 안 美國은 47年 8月 再次 모스크바會議 開催를 提議했으나 蘇聯의 拒否로 挫折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蘇聯이 줄곧 非妥協的이고 破壞적으로 나온 것은 설

사 共産黨을 包含한 聯政統一政府가 樹立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韓國의 反共勢力이 強해 早速한 全韓國赤化가 어려우므로 당분간 南北韓의 分斷狀態를 維持하여 우선 以北에 「革命基地」를 強化하고 南侵을 위한 實力을 培養함이 좋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모스크바協定の 테두리 안에서 蘇聯과 더 이상 直接 交涉하는 것은 無意味함을 認識한 美國은 47年 9月 17日 韓國獨立問題를 「유엔」에 上程하였는 데, 이로 해서 韓國問題가 유엔과 因緣을 맺는 契機가 되었다. 蘇聯은 韓國獨立問題의 유엔 上程을 모스크바協定 違反이라고 하여 反對하였다.

-4) 政府樹立: 유엔總會는 47年 11月 4日 韓國獨立의 節次를 規定하는 美國의 決議案을 採擇하여 「유엔 韓國臨時委員團」을 設置하고 同委員團으로 하여금 統一, 獨立, 民主의 韓國政府樹立을 위한 南北韓 自由選舉를 실시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취하도록 委任하였다. 유엔韓國臨時委員團은 蘇聯의 協力拒否와 38線以北에의 入北拒絶에 부딪쳤으나, 유엔小總會는 48年 2月 26日 全韓國을 通한 選舉監視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委員團이 接近可能한 南韓에서 만이라도 選舉監視에 臨해야 한다는 決議를 하였다. 이리하여 5.10 選舉를 치루어 48年 8月 15日에 드디어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고 우리 政府는 유엔決議에 의해 樹立된 正統政府이며 韓半島에 서의 唯一 合法政府로서 承認을 받은 것이다.

한편 蘇聯軍政下의 北韓에서는 46年 2月 金日成徒黨에 의해 사실상 共産政權인 「北朝鮮人民委員會」가 組織되었고 47年 11月 蘇聯軍政當局에 의해 「憲法起草委員會」가 任命되었으며 48年 9月

9日 金日成의 共產政權이 樹立되었다. 그후 蘇聯은 南北을 侵攻하면 쉽게 赤化시킬 수 있으리라는 誤算으로 北韓으로 하여금 南侵을 敢行케 하였다. 予想대로 大韓民國은 軍備가 없었고 共產軍은 서울을 거쳐 쉽게 南下하였으나 유엔은 合法的 節次에 따라 우리 政府를 支援하고 유엔軍을 派遣함으로써 危機를 克服할 수 있었다.

休戰協定の 成立과 더불어 軍事分界線이 38線에 代置되는 새로운 分斷線으로 設置된 後 오늘까지 南.北韓을 完全히 갈라놓는 境界線 役割을 해왔다.

I-2 祖國分斷의 人爲性

-1) 敗戰 日本軍의 무장해제라는 名分으로 美軍은 우리나라 북위 38도선 以南에 蘇聯軍은 그 以北에 進駐하였다. 美軍은 우리나라의 解放國으로 온 겨레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데 반해서 蘇聯軍은 불과 일주일이지만 對日戰爭에 參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방자로 自處하면서 非 人道的 行爲를 감행하였기 때문에 민족의 증오를 받았다.

-2) 미국은 처음부터 國際政治的 立場과 價值觀에 따라 우리나라를 民主獨立 國家로 發展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그의 軍隊가 進駐한 北韓地域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 괴뢰공산 政權을 急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美英蘇의 3國 外相會議가 열리고 여기서 우리나라에 관한 결정이 내리게 되었다. 그 要旨은 臨時 政府를 구성하되 5년간의 四大國 信託統治를 거

친 후 완전 獨立을 實現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은 前後 美·英·蘇 사이의 타협의 산물로서 早速한 統一 獨立을 갈망하는 우리 民族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信託統治를 反對하는 運動이 거족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蘇聯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民族의 희망을 저버리고 信託統治를 資成하였다.

-3) 蘇聯 政策의 代行者이며 民族的 要求를 저버린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統一을 願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共產化 統一을 위해서 北韓에 所謂 革命的 基地를 建設해야 한다는 政策을 포방하였다. 國際關係가 朝国分斷의 第1次的 人爲的 要因이라면 北韓의 反民族的 民主統一의 거부는 그 第2次的 要因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모스크바 3 相會議 결정에 따라 임시 統一政府를 樹立하기 위한 第2次에 걸친 美蘇共同委員會 事業은 共產側의 부당한 要求로 좌절되고 国土統一의 展望은 더욱 어두어 지게 되었다.

II. 南北韓의 政治理念과 體制

II-1. 理念的 側面

-1) 國際聯合의 감시 아래 民主主義的 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政府를 樹立하여야 한다는 國際聯合의 決議에 따라 南韓地域에서는 1948년 5월 10일 總選舉를 실시하였으나 共產側의 거부로 北韓地域은 보류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동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樹立되었고 동년 9월 北韓에는 「조선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이라는 불법 共產政權이 서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民族의 歴史的 念願과 時代的 要請을 반영하여 自由 民主主義의 理念아래 人間의 尊嚴性을 政治의 最高價値로하여 議會民主主義, 主權在民, 代議政府 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북한에는 民主主義의 基本條件으로 되는 3 權分立制를 「프롤레타리아」獨裁의 理論에 의해서 부인하고 모든 權力을 共產黨에 集中시켰다. . 때문에 人間의 尊嚴性은 共產黨 獨裁에 依해 無視되고 市民의 基本權은 짓밟히게 되었다. 共產主義자들은 이러한 정치 제도를 「프롤레타리아 民主主義」 或은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로 정당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괴변에 불과한 것이다.

III-2. 體 制

-1) 政治體制：反對黨의 存在와 그 活動의 保障은 民主主義 政治의 하나의 징표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民主主義 原理를 政治에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共產黨의 政策을 무조건 지지해야 하는 조건에서만 다른 政黨의 存在가 許容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북한에서는 政權의 평화적 교체가 불가능 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共產黨 內部에서도 執權者에 對한 비판이 금지되며, 執權者에 위협이 되는 사상과 政治적 見解는 가차 없이 탄압을 받는다. 所謂 金日成 唯一思想이란 獨裁者 金日成을 반대하는 어떠한 사상 및 政治적 見解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獨裁者의 獨斷으로 인한 政策의 시행착오가 불가피 하며, 동시에 대중의 창의성이 위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經濟體制 : 대한민국은 自由競爭과 需要供給의 原理에 立脚한 市場의 機能에 依存하는 동시에 國家의 經濟活動에 對한 調整적 機能에 依해서 國家 資源 配分의 適正을 期하며 生産效率의 極大化를 示顯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北韓은 모든 生産手段의 私有를 폐지한 바탕위에서 官僚에 依해서 經濟體制가 運營되며 主觀主義에 依해서 經濟計劃이 樹立되고 있다. 따라서 經濟의 合理化가 無視되며, 經濟 發展의 原動力이 되는 生産자의 物質的 關心이 生産性 向上에 活用되지 못하고 있다. 이리하여 經濟 발전의 能率面에서도 대한민국의 체제는 북한에 비해 상대적 優位임이 實證되고 있다.

-3) 國民福祉 向上面 : 대한민국은 經濟의 高度成長을 기하는 동시에 勤勞者의 權益을 制度的으로 保障하고 있는 기초위에서 國民 生活가 均衡을 이룩하고 있다. 즉 國家의 富強과 國民福祉를 經濟 政策의 至上 目標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民主主義 制度에 연 유한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勞動階級의 國家」란 이름뿐이 고 勤勞者의 權益이 유린됨으로써 正當한 勞動代價를 지불받지 못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거운 勞動苦와 嚴한 勞動組織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빈곤한 生活를 면치 못하고 있다.

-4) 文化分野 : 대한민국은 슬기로운 民族文化의 傳統을 계승 발전시키는 同時에 先進文化를 섭취하는 정책적 바탕에서 創作의 自由와 多樣한 文化活動이 保障 育成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 는 所謂 社會主義와 金日成 唯一思想에 文化를 肅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民族文化가 歪曲되고 있으며 文化活動이 嚴한 統制속에 있

는 것이다.

Ⅲ. 祖國統一을 爲한 우리의 努力과 北韓의 挑戰

Ⅲ-1. 우리의 統一努力

-1) 政府樹立以後 動亂休戰까지 : 1948年 5月 31日 北韓同胞를 위한 100個 議席을 남겨둔채 召集된 制憲國會는 6月 12日의 決議에서 北韓同胞가 國會에 보낼 國會議員 選出하기 위하여 自由 選舉를 實施하고 獨立, 統一의 韓國政府를 樹立하기 위하여 北韓의 國會議員들과 合流하기를 呼訴하였다. 特히 우리政府는 8月 15日 獨立을 内外에 宣布하고, 統一實現을 위한 努力으로서 다음과 같은 內容을 闡明하였다.

① 大韓民國政府는 그 憲法의 規定에 따라 全韓半島에 對한 主權을 가진 唯一 合法政府임을 内外에 宣言하고 ② 選舉가 保留된 北韓에서 早速히 民主的選舉를 實施하여 北韓同胞를 위해 國會에 空席으로 남겨둔 100席의 議席을 채우도록 促求하였으며, ③ 北韓收復은 北韓同胞들의 自發的 意思에 의하여 成就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自由意思가 계속 封鎖되는 경우에는 大韓民國은 武力에 依해서라도 北韓에 對한 主權을 回復할 權限이 있음을 明白히 하였다.

第三次 유엔總會는 48年 12月 12日의 決議로써 大韓民國이 韓半島에서 唯一合法政府임을 宣言하고 유엔韓國委員會를 設置하여 全韓國의 完全獨立을 위한 努力을 繼續할 것을 闡明하였다. 유엔韓國臨時委員會의 任務를 계승한 유엔韓國委員會는 49年 2月 그 活動을 開始하였으나 北韓地域에서의 活動은 遂行하지 못하고 말았다.

50年 10月 李大統領은 收復된 北韓地域에 對한 行政權을 大韓民

국이 行使해야 한다는 見解를 表明하고 第6次 유엔總회에서 北韓에서만의 유엔 監視下 自由選舉를 主張하였다. 그후 休戰協商의 氣運이 成熟해지자 李大統領은 어떤休戰도 反對하며 統一을 爲한 單獨戰鬪繼續의 意思를 闡明하였다. 그러나 53年 7月 28日 李大統領은 「유엔과의 協同下에 韓國統一을 이룩하겠다」고 함으로써 統一을 위한 單獨行爲를 保留하고 다시 유엔을 통한 統韓原則로 되돌아 갔다. 그리고 53年 11月 23日 特別聲明을 통해 李大統領은 「北韓만의 選舉로 國會의 殘餘議席을 채우는 것이 原則이나 北韓住民이 願한다면 全國選舉를 받아들일 用意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休戰後「北韓만의 選舉」에서 「全國總選舉」로 바뀐 政府의 統一方案에 關한 最初의 聲明이었다.

-2) 제네바會談 以後 4.19까지 : 休戰協定 第4項에 따라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하여 열린 高位政治會談이 제네바會談 (54年 4月 - 6月)이 었다. 이 會談에 參席한 卞榮泰外務長官은 1次發言에서 北韓에서만의 選舉實施를 主張하였으나 聯合國代表들의 希望을 받아들여 韓國統一에 關한 14個項目의 綜合的提議을 하였는데 그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 ① 6個月 以內에 유엔監視下에 大韓民國憲法節次에 따라 秘密普通投票에 의하여 南北韓을 통한 自由選舉를 實施할 것.
- ② 選舉區의 正確한 人口比例에 따라 韓國會議員數를 定하기 위하여 유엔監視下에 國勢調査를 實施할 것.
- ③ 유엔監視團員과 立候補者들의 移動 및 言論의 完全한 自由를 保障할 것.

- ④ 總選後 서울에서 開催될 全韓國立法院가 헌법을 改正할 때까지는 大韓民國 憲法이 繼續効力を 維持할 것
- ⑤ 選舉日字 1個月前까지 中共軍은 完全撤收할 것
- ⑥ 유엔軍의 撤收를 開始하되 유엔軍撤收는 統一政府가 全韓國에 대한 完全統治를 達成하고 이를 유엔이 確認할 때 完了할 것 등이다.

위의 提案은 韓國의 平和統一을 이룩하는 데 있어 가장 建設的이고 理想的인 方案으로 友邦들의 全幅的인 支持를 받았으며 聯合國의 立場을 代表로 하는 것으로 看做되었다. 그러나 共產側은 全韓國選舉에 있어 유엔의 監視役割을 認定할 수 없다는 理由로 14個條項을 全面拒否하였다. 원래 共產側은 休戰協定을 그들의 再武裝을 위한 軍事的 休憩時間으로 利用하려던 것으로 그들은 터무니 없는 「平和的 解決」을 云云하면서 會談場所를 常習的인 宣傳場으로 惡用하였다.

-3) 4.19 以後 5.16 까지 :北韓만의 選舉내지 武力北進統一을 主張하던 自由黨 政府가 무너지고 過渡政府가 수립되자 無秩序와 不安속에서 革新系의 抬頭와 더불어 各樣各色的 統韓論이 抬頭하여 國內의 統一論議는 混亂相을 露呈하였다.

이러한 混迷속에서 7.29 選舉를 통해 執權한 民主黨政府는 그 統一方案으로 頑強한 武力統一論을 撤回하고 「南北韓總選舉에 의한 平和統一」이란 제네바 原則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러한 立場에서 60年 8月 發表된 外交施政方針은 "北進統一과 같은 無謀하고 無計劃的인 슬로건을 止揚하고 유엔 決議를 尊重하며 유엔監視下에 南北韓을 통한 自由選舉에 의한 統韓政策을 遂行한다]고 闡明하였다. 自由黨 때와 달라진 것은 「유엔決議에 의하여」라는 語句를 「유엔決議를

尊重하여」로 變更한 것이다. 이는 15次 유엔總회에 匪·阿新生國이 大舉加入하게 되면 유엔會員國數가 近 100個國으로 늘어나므로 58개국의 會員國을 想定하고 세워진 統一方案은 再考되어야 한다는 點과, 만일 유엔에서 容共的決議가 採擇되는 境遇까지를 考慮해서 取해진 對策이었다.

-4) 5.16以後 10月維新까지 : 革命政府는 무엇보다도 먼저 統一方案에 대한 國論統一을 圖謀하였다. 革命政府는 革命公約으로 「民族的 宿願인 國土統一을 위하여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全力을 集中할 것」을 闡明하는 同時에 「유엔憲章을 尊重하고 國際協定을 充實히 履行할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反共體制의 再整備強化와 國家自立經濟의 再建을 이룩하고 民主的力量을 培養함으로써 國土統一에 對備하는 「反共, 先建設, 後統一」의 方針을 세웠다. 革命政府의 統一方案으로서는 61年6月 「우리는 武力에 의한 國土統一을 願하지 않으며,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을 追求하며, 유엔監視下의 南北韓 總選舉實施를 強調한다」고 闡明하였다. 이 方針은 63年12月 民政移讓에 의한 第三共和國誕生後에도 變換 없는 政府方針으로 繼承되고 있다.

朴正熙大統領은 해마다 年頭敎書에서 統一에 대한 政府方針은 確固한 것이고 그 以外에 어떠한 다른 統一方案도 있을 수 없음을 確言하고 感傷的인 空論과 非現實的인 統一論議를 排摯하며 共產主義와 對決하여 民主主義의 勝利로써 祖國統一을 成就하는 바 統一의 길이 祖國近代化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① 67年 年頭敎書에서는 「着實하고 꾸준한 統一의 努力은 統一을 위한 過程에 있어서 수많은 政治的·經濟的·文化的 課業에 充實하는데서 所期의 成果를 爭取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여 統一

自體의 努力에 앞선 諸課業에 充實해야 한다고 強調하고, 오늘 이 段階에서는 經濟建設과 民主力량의 培養만이 統一에의 捷徑임을 밝혔다.

② 1970年의 新年辭에서 朴大統領은 「70年代에는 國土統一方案을 積極적으로 摸索・追求해 나가는 一方, 平和的 方法이든 非平和的인 方法이든 어떠한 方式의 統一方案에 대해서도 即刻적으로 對処하고 對應할 수 있게끔 北韓에 비해 絶對優位の 힘을 恆常 確保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해 1月 記者會見에는 「政治・軍事・經濟・文化・社會 모든 分野에서 高地를 먼저 占領하고 統一에 대한 主導權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3) 朴大統領의 平和統一에 대한 積極적인 意志는 70年 8.15 慶祝辭에서 더욱 具體적으로 表明되었다. 여기에서 朴大統領은 同族相殘의 戰爭을 避하면서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을 이룩할것과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 수 있는 條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과 製造의 競爭」即 「善意의 競爭」에 나설 것을 北韓에 促求하였다. 當時 緊張된 韓半島 情勢에도 不拘하고 北韓에 대하여 緊張緩和와 善意의 競爭을 促求한것은 統一에 대한 長期的 眼目에서 나온 英斷이 아닐 수 없으며 統一問題에 있어 우리가 主導權을 掌握할 수 있게 하는 契機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統韓政策의 一大 轉換點을 이룩하게 하였다.

-4) 8.15宣言에 이어 우리는 71年 8月 12日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였거니와 政府는 人道主義的 接觸, 非政治的 交流, 政治的 對話라는 三段階統一方式을 提議하였다.

-5) 또한 朴大統領의 一大 英斷으로 72年7月4日 發表되기에 이른 南北共同聲明은 恆久的으로 戰爭을 抑制하기 위하여 北韓을 對話의 廣場으로 誘導한 것이었고, 이는 곧 平和統一을 위한 政治的인 南北對話의 開始이었으며 南北關係에 新紀元을 劃한 것이었다.

-6) 1973年6月23日에는 平和統一外交政策을 闡明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Ⅲ - 2. 6.25의 悲劇

-1) 北韓의 武力南侵의 史的背景: 當時의 對內的 狀況은 다음과 같다.

① 蘇聯은 帝政러시아時代부터 韓半島에 대한 南下政策이 2次大戰以後 北韓의 占領 및 傀儡政權樹立으로 나타났고 繼續해서 南韓까지 併合赤化시킴으로서 아시아 大陸에서의 起點을 確保하며 同時에 美國의 對共產阻止能力 및 覺悟를 試驗하기 위하여 金日成을 사주하고 積極支援하였다.

② 中共이 本土에서 国民党政府를 逐出하고 1949年10月1日 共產政權을 樹立, 北韓의 南侵意慾을 間接적으로 支援하였다.

③ 美軍이 1949年6月, 南韓에서 撤収하고 50年1月初에 發表된 「에치슨·라인」에서 韓國이 除外되었다는 發表와 50年1월에 締結된 「韓·美軍事防衛援助協定」에서 美國側이 韓國에서 要求한 重武器供給을 拒絕함으로써 南北韓軍備面에서 不均衡을 招來할 것이라는 北韓의 勝戰에 대한 確信

④ 北韓이 當時의 南韓實情에 대하여 政治, 經濟面에서 不安定하다고 誤判하였다.

⑤ 「南勞黨」系가 南韓에 潛在하는 共產殘黨勢力을 50만으로 誇張하고 戰爭發生時에는 이들이 暴動을 일으켜 呼應할 것이라고

豪言하고 「金日成」이 이를 또한 믿었다는 點 등이 北韓이 6.25를 挑發케 한 것이다.

-2) 6.25의 影響：6.25 動亂은 數 많은 人命과 財産被害를 가져 왔을 뿐 아니라 南北間의 不信의 障壁을 드높였으며 外勢誘致를 더욱 強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여 우리 民族의 至上 目標인 統一을 沮害하게 되었던 것이다.

-3) 「国軍北侵」云云하는 宣傳의 虛偽性 暴露：動亂當時 国軍이 押留한 証拠品 가운데 몇가지만 列挙한다면 1950年 6月 18日 字 傀儡軍最高司令部情報本部司令官으로부터 第4師團長에게 보낸 偵察命令書第1号와 50年 6月 18日 字 傀儡軍第4補兵師團司令官 「이건부」의 戰爭命令書第1号등에 의하면 北傀의 事前南侵計劃을 明白히 探知할 수 있다. 즉 위의 根拠에 의하면 侵攻에 대한 모든 준비는 6月 22日에 完了되었고 平壤에 있는 蘇聯軍 顧問團은 北傀 「민족보위성」에 命하여 戰鬥命令第1号를 前方師團長에게 下達하여 1950年 6月 23日 12:00時까지 이른바 「李承晩軍隊」를 무찌를 수 있는 만한의 態勢를 갖출것을 指示하였다는 事實이 이를 立証한다.

Ⅲ-3. 北韓의 挑戰

-1) 1950年以前：1945年 8月 15日 解放後 金日成을 우두머리로 하는 北韓集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淸南韓地域까지 併合 赤化하려는 野慾을 버리지 않고, 地下黨 組織과 계릴라南派등의 繼統的인 對南攻勢를 取하고 있다. 最初에는 南韓地域이라는 緣故關係를 생각하여 주로 南勞黨을 中心으로 即 北勞黨의 前衛黨으로

對南工作을 展開하였으나 金日成은 6.25의 敗戰 責任을 엉뚱하게 南勞黨에 轉嫁시켜 他們을 全面的으로 肅清하는 殘虐한 手法을 썼다.

-2) 5.16 以前 : 金日成 一派는 이른바 民主(共産) 基地 戰線을 再確認하고 여기에 따른 韓國의 赤化를 企圖하는 그들의 野望을 버리지 않고 再次 南韓에 北勞黨系를 主軸으로 하는 地下黨을 組織하기에 바빴다. 한편 軍需工場 특히 兵器生産에 狂奔하여 經濟·軍事力強化 併進政策遂行에 住民을 總動員한 金日成은 어느 程度 兵器生産 展望이 밝아지자 다시 武力南侵의 野慾이 생기어 對南工作을 加一層 強化하는 한편 1959年부터는 모든 部分을 戰時體制로 整備하고, 正規軍外에 勞農赤衛隊등 予備軍까지 訓練시키기에 이르렀다.

4.19가 일어나고 한때 政局이 어수선 해지자, 金日成 一黨은 금시에 赤化統一이라도 達成 되는 듯이 南韓地域을 統轄할 人的 構成까지 서둘렀고, 平和統一攻勢를 強化하여 聯邦制案을 提議하는 등의 게스츄어까지 썼다.

-3) 5.16 以後 : 5.16 軍事革命이 일어나자 이에 唐慌한 金日成 一黨은 一切의 平和攻勢를 버리고 武力強化에 全力을 기울여 戰爭 準備를 다해왔다.

그러나 越南戰 支援의 余裕까지 保有한 第三共和國의 實力에 制壓되었음은 勿論 經濟가 高度로 成長되어 가는 韓國에 共産主義의 뿌리를 播種하는 것은 어려운 問題라고 予測하고 1968年에 들어서면서 本格的으로 武装共匪南派등 暴力戰術로 對南 積極攻勢를 取하였다. 그러나 一元화된 強力한 組織과 韓國國民들의 高潮된 反共思想과 防諜觀念으로 그들의 暴力戰術이 失敗로 돌아가자, 1969年부터는 暴力戰術을 一時 後退시켜 地下黨工作으로 轉換시켰다.

第2章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

< 章 前 文 >

祖國統一은 全民族의 念願이라는 當爲性으로 흔히 규정한다. 그러나 막연한 急願으로는 굳은 信念을 형성할 수 없게 된다. 統一이 되어야 한다는 念願의 當위성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統一을 위한 信念을 굳게 하고 나아가 統一을 위한 努力을 強化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前提로 本章은 祖國統一의 要請과 要件을 분명히 이해케 하여 國民으로 하여금 올바른 統一觀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이에 따른 細部 目標은 다음과 같다.

첫째, 統一의 要請과 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要件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둘째, 統一은 民族正統性を 繼承한 韓國의 民主的 理念을 具現하고 民族國家로서의 發展을 保障하는 우리의 統一理念에 의하여 實現되어야 한다는 信念을 갖게 한다.

셋째, 統一問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忍耐와 꾸준한 努力으로 해결하는 姿勢를 가져 統一課業을 완수하는 歷史的 使命을 깨닫게 한다.

以上の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內容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統一의 要請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統一의 要件에 관한 內容이다. 統一의 要請은 최소한 네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즉 ①民族史的 要請, ②人道的 要請, ③國家發展을 위한 要請, 그리고 ④國際政治的 要請等의 그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취급되어야 할 統一要件의 內容으로서는 ①民族國家同一體意識의 強化, ②民主力량의 強化와 韓國民主體制의 強化, ③社會正義의 高揚, 그리고 ④國力培養과 民族正統性에 의한 國家繁榮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취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本章의 目標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統一을 해야겠다고 信念을 굳게하기 위하여 그 信念의 타당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는 점이다. 이에 덧붙혀 강조되어야 할 점은 祖國統一은 民族의 正統性을 繼承하고 있는 우리의 統一理念인 民主勝共統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民主勝共統一의 信念은 統一成就方法과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점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그 까닭은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現在 進行되고 있는 南北關係를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統一의 要件에 관한 내용을 취급함에 있어서도 다른 部와 章들에서 취급된 내용들을 인용 내지 상기시키면서 本章에서 의도하는 요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民主主義 理念의 優越性(第2部)을 지적하고 그 理念具現을 위한 우리의 体制의 우월성 역시 지적하면서 이러한 기반조성을 위한 國民的 努力의 중요성이 아울러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統一을 위한 要件具備는 全國民的 努力이 重要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要件의 구비는 우리측에 유리하게 統一問題가 논의될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I. 祖國統一의 要請

I-1 民族史的 要請

-1) 單一民族 文化傳統의 繼承과 發展의 歷史的 要求; 三國時代에 一時 分裂된 歷史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民族은 古朝鮮 以來 新羅·高麗, 李朝를 통하여 文化的 共同 運命體로서 歷史를 같이

해왔다. 新羅의 統一은 한 民族 한 國家로서의 基盤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歷史的 意義가 注目된다. 唐나라의 힘을 일부 利用하여 三國을 統一하였지만 一旦 統一된 後에 新羅는 唐의 勢力을 몰아내기 위하여 共同 運命體로서 온 民族的 團合을 誇示하였다.

高麗 時代에는 거란, 女真, 蒙古의 侵略等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옛 高句麗의 失地를 回復하기 위하여 아래로는 臣民으로부터 王에 이르기까지 온 民族이 한 덩어리가 되어 꾸준히 北進政策을 遂行하였다. 朝鮮 時代에도 우리 民族은 淸의 侵入(丙子胡亂) 倭의 侵入(壬辰倭亂) 등을 맞이하여 大同 團結함으로서 民族的 團結力을 尤감없이 발휘하였다. 近世에 와서도 3.1 運動을 비롯한 수 많은 크고 작은 歷史的 事件을 通하여 우리 民族은 運命 共同體로서 團合된 民族的 底力을 誇示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民族의 公高한 結束과 團合은 古朝鮮 以來 文化 共同體로서, 運命 共同體로서 單一民族으로서 반만년의 歷史를 같이 呼吸하면서 이룩된 것이다.

共產 侵略에 依한 人爲的인 民族의 分裂은 歷史를 通해 形成된 結束된 單一民族으로서의 自負心에 큰 傷處를 주었다. 共產主義에 依하여 우리의 文化와 傳統이 여지없이 破壞되고 있다는 것은 民族的 矜持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文化와 傳統을 繼承하고 發展시켜 새 歷史를 創造함에 있어서 共產主義로 因하여 民族의 일부가 參與하지 못한다는 것은 悲劇이 아닐 수 없다.

悠久한 民族 文化의 傳統을 繼承 發展시키고, 民族 總和的 새 歷史를 創造하기 위하여, 그리고 民族的 自負心과 矜持의 損傷을 回復하기 위하여 民族의 統一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I-2 人道的 要請

-1) 人道的 要請: 共產 侵略과 強大 國들의 利害關係에 依한 人 爲的인 國土分斷은 많은 우리 同胞에게 父母兄弟를 잃고, 家族 또는 親知와 헤어지거나, 故鄉을 등지고 살아야 하는 人間으로서 참을수 없는 苦痛을 안겨주었다. 文化, 言語, 風俗, 人種을 같이하는 우리와 같은 單一民族 國家는 歷史上 흔치 않다.

이와 같은 文化的 歷史的 條件은 우리 民族을 거의 血緣的으로 結合시켰다.

民主 生活 倫理로 보나 우리의 傳統的인 倫理로 보나 間に 한 家族과 親戚이 헤어져서 生死 消息조차 모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人間の 참을 수 없는 苦痛이 아닐수 없다. 놓고 자란 故鄉이 지척에 있으면서도 消息조차 듣지도 못하고 鄉愁病에 젖어 살아야 한다는 것은 人間 情理로 보아 悲劇이다. 더욱이 人間の 自由와 平等이 박탈된 共產治下에 家族과 親知, 故鄉을 두고 온 同胞들의 苦痛은 말로 形容키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民族的 苦痛을 解決하는 길은 오직 하루빨리 國土統一을 成就하여 民族이 再結合하는 길 뿐이다.

大韓赤十字社는 이러한 民族的 苦痛을 덜어주기 위하여 共產主義者들과의 어려운 對話를 繼續하고 있다. 우리의 赤十字社는 人道的인 主張에서 어디까지나 非政治的인 原則에서 對話를 進行하려 하고 있으나 共產主義者들은 同胞들의 苦痛을 아랑곳 하지 않고 實現 不 可能的인 政治的인 諾言만을 繼續하고 있다.

1-3 國家 發展을 위한 要請

經濟 發展, 文化的 結合, 國家의 安全保障은 國家發展의 基本 要件이며 同時에 國家가 追求하는 目標가 된다. 國土 分斷과 民族의 分裂은 우리의 經濟 發展을 鈍化 내지는 中斷시키는 結果를 가져왔으며 文化的으로는 固有傳統 文化의 斷切과 破壞를 招來하였고, 國家 安保上으로는 戰爭의 可能性을 恒時 안고 있도록 만들었다.

-1) 經濟: 南, 北 地域의 地理的 條件은 資源 分布의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南쪽은 氣候的 地理的 條件으로 보아 農産 資源이 比較的 豊富하고, 北쪽은 相對的으로 地下資源이 豊富하다. 이와 같은 資源 分布는 北쪽에서 基礎 資源材의 生産과 重工業이 發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고 있으며 南쪽은 農産物 加工, 最終 消費材 生産을 위한 輕工業이 發達할 수 있는 條件을 갖추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地理 資源的 條件은 産業構造上 南·北 相互 補完的 關係 維持가 産業發展上 必要 不可欠한 要素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國土分斷은 우리나라의 均衡 있는 經濟發展의 커다란 障礙 要因이 아닐 수 없다.

-2) 文化: 文化의 發展없이 國家發展이 이룩될 수 없다. 文化란 思考 樣式과 生活 樣式의 反映이다. 文化 傳統이란 오랜 歷史를 通하여 이룩하여 놓은 民族의 遺産이다. 文化傳統의 共有없이 民族이 統合될 수는 없다. 우리는 世界 歷史를 通하여 宗教等 文化의 差異로 말미암아 民族이나 國家가 分裂된 例를 볼 수 있다. 傳統 文化의 統合과 繼承發展은 民族의 總和的 努力에 依해서만 可能하다. 北韓 共產主義는 우리 傳統 文化를 破壞 또는 斷切

시키고 있다. 北韓 共産党에 의해 우리의 固有한 歷史는 階級 史觀으로 뒤집어지고 歪曲되고 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은 共産党에 의해 尤물론적 世界觀의 形成을 強要받고 있다.

累千年의 歷史를 通하여 우리 民族이 이룩한 文化 傳統을 共産主義가 破壞 또는 斷切시키고 있다는 것은 民族的 矜持로서 참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傳統 文化의 斷切과 破壞를 止揚하고 統合된 文化를 형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하루 速히 國土가 統一되어 民族이 結合하여 總和的 前進를 해야할 것이다.

-3) 安保 : 國土分斷은 國家의 安全 뿐 만 아니라 亞細亞 및 世界平和의 威脅이 되고 있다. 北韓은 共産主義의 侵略 戰略에 따라 武力 赤化統一의 原則을 버리지 않고 있다. 武装間諜의 繼續的인 남파 軍事 分界線의 挑發等 北韓의 侵略戰爭을 위한 活動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北韓의 軍事的 武装의 增強은 계속해서 韓半島의 平和를 위협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우리의 國家安保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北韓 共産党的 挑發은 經濟發展과 國民福祉에 投入해야할 많은 予算을 國防費에 浪費하도록 만들고 있다.

6.25南侵을 비롯한 北韓 共産党的 끊임없는 挑發은 國家의 安保와 平和를 危脅할 뿐 만 아니라, 文化的. 經濟的인 面에 있어서도 發展의 커다란 障害가 되고 있다. 國家 安全과 平和, 世界平和를 위해 國土統一과 民族의 再結合은 하루 速히 成就되어야 한다.

I-4 國際政治的 要請

國際 政治 社會에 있어서 行爲者는 國家가 最終的 單位

이다. 한 民族 集團이 하나의 國家로서 統一되어 있지 못하다면 國際 政治 社會에서 確固한 地位와 信賴를 얻기는 어렵다. 더욱이 民族이 分裂되어 서로 正統的 國家로서 地位를 確保하려고 각축하고 있다면 國際的 信賴와 地位를 獲得하기는 커녕 오히려 國際 社會의 秩序를 어지러피는 存在로서 疎外 當하거나 異端視될 可能性이 크다.

國際 政治社會의 當당한 一員으로서 國家의 地位를 確保하기 위하여는 統一된 民族 國家를 形成해야 한다. 國際 政治學上 韓半島의 統一은 世界 平和 共榮에 이바지 하는 길이 된다. 韓半島의 統一은 東남아시아의 긴장과 戰爭의 불씨를 없애는 길과 直結되며 同時에 世界 平和에 連結된다.

國際 政治는 最近 理念 對立에서 實利 追求의 方向으로, 兩極 冷戰體制에서 多極 平和 共存 體制로, 그리고 分斷國들은 그대로 現狀을 維持시키는 方向으로 強大國들에 의해 展開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國際 政治의 展開가 韓半島의 平和에 어느 程度 公現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完全한 平和와 國家安全을 保障하지는 못 할 것이다. 오히려 強大國들의 이와 같은 潮流에 휩쓸려 平和와 安保가 破壞될 可能性도 크다. 따라서 우리 民族의 統一은 어디까지나 우리 自身の 責任이라는 것은 늘 銘心하여 國際政治의 變化를 能動的으로 利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地政學的으로 볼때 소련, 中共, 日本의 가운데 位置하고 있어서 不可避하게 國際政治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의 國土 分斷이 強大國들의 利害關係에 얽혀 이루어졌듯이 統一 또한 國際政治의 영향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國際 政治社會가 우리의 統一을 支援하는 方向으로 展開되도

록 努力해야 한다.

世界 平和는 國際 政治社会의 理念이며 人類의 目的이다. 國際 平和에 이바지하고 國際 政治社会의 當당한 一員으로서 參與하기 위하여 國土統一과 民族의 再結合은 반드시 成就되어야 한다.

II . 統 一 의 要件

II-1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의 強化

統一의 要請중의 하나이면서 統一이 성숙될 수 있는 要件으로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南北이 같은 民族으로서의 意識이 지속되는 한 地理的 兩端과 政治的 兩分은 결국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南北間의 同族意識이 統一要請의 근거가 되는 바와 같이 統一의 要件으로서도 韓國民의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이 高潮되면 그만큼 民族正統性을 이어 받은 우리의 團結이 強化될 것이고 強化된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은 統一을 위한 重要한 要件이 될 것이다.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은 民族文化와 現在의 國家가 韓國民에게 어떻게 보람있는 榮光된 것으로 보이느냐에서 形成된다.

이러한 同一體意識은 民族史에서도 얻을 수 있고 国力에 對한 意識에서도 얻을 수 있으며 일상적인 社會生活에서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經驗에서 얻어지는 國家榮光觀 내지 民族과 國家에 對한 自負心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성되는 民族國家 同一體意識은 강력한 社會的, 國家的 結束力을 추구해 주는 것으로 統一을 위한 필수적 要件이 된다.

II-2 民主的 力量

우리가 표방하는 統一을 위한 重要的 原則의 하나인 民主勝共統一은 곧 民主主義에의 國民的 同化내지 民主主義 理念의 內面化와 生活化를 통해 이룩되는 것이며 共產主義에 對한 批判과 共產主義 勢力을 이겨낼 수 있는 精神的 힘이 培養되었을 때 可能하다 이를 爲한 民主的 力量을 培養하기 爲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點이 고려되어야 한다.

-1) 民主主義 基本理念具現을 위한 社会的 保障: 第2部에서 설명된 民主主義 基本理念 즉 人間의 尊嚴性和 個人的 最善我實現을 위한 社会的 保障이 강화될 때 우리의 民主力量이 크게 배양될 것이며 나아가 共產主義의 道건을 저지시키기 위한 우리의 長點이 될 것이다. (第2部の 內容을 參照하여 보충 설명함이 좋을 것이다.)

-2) 自由 民主體制의 強化: 形式的 民主體制가 아니라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이 具現될 수 있고 우리의 現實에 맞는 體制, 制度의 정비와 효과적 運營이 요청되며 이러한 요청에 호응한 體制의 정비를 단행한 것이 維新課業의 一次的 課題였다. 실질적으로 人間이 존중되고 個人的 最善我實現이 가능하도록 하는 體制의 強化는 共產主義를 弱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自由 民主體制는 다른 기반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즉 다음에 제시할 社会正義의 實現과 經濟力을 근간으로 하는 国力培養의 기틀위에 自由, 民主體制는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으며 더욱 伸張될 수 있게 된다.

II-3 社会正義의 高揚

社会正義는 自由와 平等과 더불어 民主主義의 3大지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理念的으로 民主主義에 對한 우리의 統一은 社会正義의 高揚이라는 要件을 統一에 대비하여 갖추지 않을 수 없다.

國民의 自由를 최대한으로 인정하고 최대한의 平等을 保障하려는 社会와 國家일수록 人間關係를 規律하는 社会正義가 수반되어야 보다 進歩된 民主社会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社会正義의 정신은 그 기원을 人間의 존엄성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社会질서 의식과 道德的 責任感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民主主義가 지향하는 궁극적 目標가 人間의 生活 全体를 道德化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民主主義란 하나의 道德的 改造運動이라 할 수 있으며 人間을 目的으로서가 아니라 手段으로 이용하려는 非人間的인 社会와 共產主義 社会를 排除하려는 改革運動이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社会正義의 實現은 北韓의 共產體制를 弱화시켜 民主勝共統一을 이룩함에 重要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II-4 国力培養

여러곳에서 強調되고 있듯이 国力培養만이 共產主義 내지 北韓과의 對決에서 승리하는 힘이된다. 앞서도 지적 했듯이 民主主義 理念具現도 어느정도의 經濟的 力量이 성숙되어야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더우기 對話를 통한 善惡의 競爭을 南北間에 시도하고 있는 지금 實力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國民의 호응을 받으면서 北韓住民을 우리의 體制에로의 同化를 유도하려면 우

리의 전반적 經濟水準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自主的 그리고 自立的 經濟成長은 우리가 내세우는 統一의 諸原則에 합치하는 統一課業遂行에 앞서서 반드시 이룩해 놓아야 할 기본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第 3 章 統一原則과 南北의 統一政策

〈 章 前 文 〉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이 試圖된 以來 南北間의 相異한 統一接近으로 南北關係改善 過程이 용이하지 않다는 事實이 들어남과 同時에 國民은 統一觀에 여러가지 見解를 스스로 가지기 始作하였다. 統一에 對한 悲觀論, 懷疑論, 樂觀論等 구구하다. 이러한 見解는 統一原則과 南北의 相異한 統一政策을 올바르게 理解하지 못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統一努力을 爲한 國論統一을 어렵게 하는 重要한 問題로 提起되고 있다. 이러한 點에 유의하여 本章은 統一原則과 南北間의 相異한 統一政策에 대한 正確한 理解와,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 過程의 展望에 대한 健全한 理解를 토대로 올바른 統一觀을 갖게하기 위하여 設定된 것이다. 이러한 本章의 意圖에 따라 설정한 細部目標는 다음과 같다.

첫째, 7.4 南北共同聲明의 意義와 統一原則을 정확히 理解하고,

둘째, 南北韓의 相異한 統一目標와 政策을 理解하여 우리의 統一目標와 政策의 正當性을 인식하며,

셋째,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의 계속적인 努力過程에 忍耐와 信賴로 서 支援할 수 있는 態度를 갖게 한다.

이러한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淸급되는 本章의 內容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영역에서는 南北對話의 機能, 目標, 效果를 理論的 分析模型을 援用하여 考察하고

두번째에는, 7.4 共同聲明의 背景으로서 國際情勢의 變動에 能動的으로 對應하고 韓半島에 戰爭挑發을 抑制하기 위하여 淸해진 8.15 宣言의 內容과 意義를 分析하는 問題들이 淸급되며 7.4 共同聲明의 內容으로

는 自立, 平和, 民族團結 등이 내포되는 統一原則의 意味 등이 취급된다.

세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南北間 統一目標과 政策의 對立에서는 우리의 統一目標인 自由民主理念과 우리의 體制에 의한 統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北韓의 對南赤化 內容을 비판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現時的 段階的 接近方案과 北韓의 革命的 立場과를 比較하면서 우리의 統一接近方法의 正當性을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內容을 취급함에 있어 留意해야 할 點은 北韓이 提示한 統一原則과 目標, 政策의 이면적 의미를 充分히 理解할 수 있도록 하는 點과 쌍방의 統一政策과 接近方法을 比較 檢討하여 우리方案의 正當性을 充分히 理解할 수 있도록 하는 點이다. 그리고 나아가 올바른 統一觀을 갖도록 內容을 說明함에 強調를 두어야 할 것이다.

I . 南北對話의 理論的 背景

I-1 對話의 效果判斷

-1) 理論模型 :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會談이 變化된 內外情勢속에서 統一에 對한 希望을 갖게 함과 同時에 國際緊張緩和 潮流에 寄與할 수 있다는 것은 客觀的 事實보다는 오히려 東西關係를 包含한 集團關係의 理論에 그 根據가 있는 것 같다.

우선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키는 것이 南北間에

高潮되고 있는 緊張을 緩和시킨다는 것은 「칼·도위치」(Karl Deutsch)의 이른바 決裂制衡效果(Lock in Effect)에서 살필 수 있다. 「도위치」教授는 「아나톨·라포포트」(Anatol Rapoport)의 競技理論을 紹介하면서 敵對하는 두 集團間에 우연한 契機로 對話가 始作되면 이 對話는 결렬되기보다는 결렬되지 않고 계속 대화가 지속되는 一種의 決裂制御效果가 나타난다고 指摘하고 있다. 이것은 「치킨·게임」에 있어서 「플레이어」(Player)가 서로 約束動作을 취할 수 있을 경우 「兩플레이어들이 모두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 동시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 協同이 일어나는 경우」와 비슷하다. 또 「囚人의 딜레마」에 있어서 「罪囚들이 침묵을 지켜 報償金品이 自由를 獲得하는 結果」유도가 可能할 것이기 때문이다.

-2) 對話의 持續: 對話는 비록 戰略目標는 相異하더라도 相互間의 對話需要 때문에 결렬되지 않고 지속되며 이로 因하여 兩側의 緊張은 對話以前보다 緩和된다. 特히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變節보다 協同하는 選擇이 強하게 作用하기 때문에 効果는 더 高潮되고 個人間의 關係에서는 對話를 통한 約束動作에 의한 協同效果가 더욱 크게 된다.

이같은 分析이 國家間의 關係에 있어서도 그대로 適用된다는 保障은 없다. 그러나 國家間 關係라고 하더라도 緊張緩和가 選好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한번 열린 對話는 決裂되기 보다는 계속 유지될 可能性이 있다. 왜냐하면 對話의 決裂은 問題解決手段으로서의 對話의 機能停止를 意味하기 때문에 武力對決一步前의 關係가 助成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번 열린 對話가 결렬되면 當學者 關係에서는 對話가 있기전 보다도 한층더 심각한 緊張을 유발할 것이며 이 경우 어느 側도 對話開始以前에 지속되던 緊張維持負擔보다 더 加重된 負擔을 擔當할 能力을 確保하기가 至難하게 된다.

兩行爲者 關係에 있어서 兩者間에 均衡이 파괴되지 않고 對決狀態가 持續될 수 있었던 것은 兩側에서 總力을 기울여 動員한 緊張 維持能力이 保合勢를 維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對話가 開始되고 相互間에 協同이 助成되면 緊張維持負擔은 그만큼 줄어들어나 다색금 變節이나 背信 등으로 因해 對話가 결렬되면 緊張이 對話以前보다 增加되는 것은 不可避한 現象이 아닐 수 없다. 새롭게 增加된 緊張에 適應키 위해 兩側은 새로운 負擔을 支拂해야 하는바 兩側은 어느側도 外部의 支援없이는 먼저 必要한 費用을 調達할 수 없다.

그러나 緊張造成이 統制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어느 側도 外部의 支援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얻을 수 없다는 事實을 當事者들도 認識하고 있다.

따라서 當事者들은 이같은 負擔增加의 結果를 초래할 事態의 發生을 회피하려는 選擇에 관심을 갖는다. 이 선택욕망에 의해서 한번 열린 對話는 成果에 關係없이 계속되는 效果를 갖는 것으로 推理된다.

따라서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키는 措置는 理論上 決裂制御效果에 의하여 對話를 維持시키면서 나아가 緊張을 緩和시키게 된다. 이 점에서 赤十字會談決定 南北調節委員會會談 決定은 初期段階의 效果面에서는 理論的 妥當性を 갖는 選擇으로 評價할 수 있다.

I-2 對話效果의 期待值

南北間에 對話가 열렸다는 事實은 그것이 앞에서 檢討한바와 같이 Lock in Effect에 의해 緊張을 緩和시킬 對話持續의 效果를

産出한다. 그러나 이것이 有効한 選擇이 되기 위해서는 苦痛輕減論으로 再定義되는 統一接近에 寄與할 수 있다는 것이 證明되어야 한다.

-1) 對話效果의 理論模型: 苦痛輕減論에 必要한 理論的 證明은 對話不在期에는 想像할 수 없었던 南北間의 協力이 對話開始로 可能해 졌는지의 與否를 밝혀야 한다.

現在까지 알려진 理論으로서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에 의해 定說化된 機能主義 (Functiona liom)는 体制와 理論의 差異에 關係없이 相異한 体制間의 對話에서는 理念的 制約이 적은 機能間의 協力이 可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같이 非政治分野에서 조그마한 形態의 協力이 이루어지면 이 協力は 보다 큰 協力を 生産하는 波及效果를 갖는바 樂觀論的 見地에서는 이 效果가 雪人效果 (Snow Ball Effect)로 說明되기도 한다. 이같은 效果가 國際關係에서 定說로서 妥當성을 갖기는 國際聯合專門機關 및 經濟社會 理事會 所轄의 非政府機關에서 行해진 美蘇協力 以後부터이다.

-2) 機能主義의 論據: 이상과 같은 前提下에 機能主義의 論據를 國際關係의 協力으로 置換해서 吟味하면 다음과 같다.

각 國家가 解決해야 할 社會福祉問題는 各 國家가 共同으로 協力하는 가운데 더욱 그 解決이 促進될 것이며 目標達成이 容易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國家單位의 個個領土의 테두리를 벗어나 超國家的 見地에서 論하는 것이 가장 效率的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論理展開를 간추려서 간단히 紹介해 본다. 먼저 機能主義者들은 國家間에 協力할 수 있는 課業을 政治的인 것과 非政治的인 것 즉 技術的인 것과 機能的인 것으로 區別한다. 그 理

由는 後者가 前者보다 國家間 協力이 더 容易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福祉事業을 함께 協力해서 해나갈 때 그 過程에서 習得한 知識은 國際社會의 共同利益을 위해 自然히 한 事業分野에서 다른 分野로 옮겨 利用될 수 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더욱 重要한 事實은 그때 發生하는 協同心은 國家에 對한 忠誠心과 경합하게 되어 결국 國際的인 協力體制에 對한 忠誠心の 可能性마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分野의 專門家들에 比해서 政治人들이나 外交官들 또는 軍人들은 그 思考가 너무 閉鎖的이며 排他的이라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機能別로 各國家가 모여 協力하게 되면 自然的으로 또한 無의식중에 한 主權國家의 統治權이 조금씩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業務를 調節해야할 必要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綜合的 政治 權力 (A general political authority)의 形成이 要求된다.

이와 같은 미트라니 (Mitrany) 敎授의 學說은 몇가지의 根本的 假說을 基礎로 하고 있다.

첫째 人間은 合理的인 存在 (Human beings are rational) 라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점진적 向上과 發展 (Evolutionary steps) 이 可能하다는 것이고 根本적으로 人類는 鬪爭과 對立보다는 調和와 和平 (Harmony over conflict.) 을 더 希求한다고 믿고 있다. 그뿐 아니라 戰爭의 根本原因을 社會的인 또는 經濟的인 問題에서 起因된다고 믿고 따라서 國際平和로의 途徑은 貧困을 一掃하고 文盲과 疾病을 정복 (The conquest of poverty, ignorance and disease) 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 機能主義 理論은 차츰 一般의 큰 關心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西歐의 指導者 「스쿠만」 (Schuman) 이나 「모네트」

(Jean Monnet), 「홀스타인」(Walter Hallstein) 또는 미드랄 (Gunnar Myrdal) 같은 者들은 그 代表的인 人物들이다. 그러나 이 機能主義에 對해서 懷疑的인 學者들도 적지않다. 그中 가장 著名한 學者는 國際機構學에서 널리 알려진 「클라우드」(Inis Claude, Jr.) 教授이다. 그는 機能主義를 批評하면서 國際間의 紛爭이 經濟的 社會的 要因에서 起因된 것이 아니라고 指摘하고 「켈센」(Hans Kelsen) 教授의 그 有名한 말을 引用해서 世界經濟의 不安은 오히려 戰爭의 所致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政治的 問題와 經濟的 社會的 問題를 分離할 수 없다고 主張하면서 萬一 그와 같은 分離가 可能하다고 해도 各國은 政治的 問題가 解決이 될 때까지 우선 福祉 (Welfare) 問題는 뒤로 미룰 것이라고 했다. 또한 人間의 協同精神이나 또는 그 經驗이 傳授의 可能性에 對해서도 懷疑的이었으며 나아가서는 人間의 合理性과 忠誠心의 理性的인 傳移까지도 의심스럽다고 한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Claude) 教授의 批評에도 不拘하고 機能主義에 對한 研究는 日益 活潑해져서 그들은 이 機能主義에 의하여 世界各地에서 일어나는 統合運動을 說明해 보려고 힘써 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代表者인 業績을 낸 學者는 「하스」(E.B. Haas) 教授로써 그를 中心으로 한 하바드大學의 「나이」(Joseph S. Nye)나 위스콘신大學의 「린드버그」(Leon N. Lindberg) 및 시카고大學의 「슈미터」(Philippe C. Schmitter) 등은 「미트라니」의 理論에 다시 政治的인 效果를 加味해서 新機能主義學派를 形成하게 되었다. 그들은 「미트라니 教授의 學說에다 좀더 具體的인 變수의 性格을 檢討하고 그 運動의 政治的 統合에의 意義를 分明히 하여 다음과 같은 幾 가지 點을 特히 지적하였다.

첫째, 가장 重要한 理論的인 貢獻은 傳播機能 (Spillover Capacity)에 對한 理論이다. 「하스」敎授는 ITU 와 ILO (國際勞動機構)를 比較 考察하면서 國家間에 協力할 수 있는 機能中에서도 ITU와 같이 너무 그 業務 自体가 技術的인 경우 그것은 擴張하고 成長하는 能力을 缺如한다는 것이다. ITU의 歷史는 1百年을 헤아리나 ILO는 그 半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의 業務는 훨씬 廣範 闊하게 擴大되어 國際統合에 貢獻한 바 至大하다고 評價했다. 이것은 오직 그 機能의 傳播能力 즉 連鎖反應效果의 結果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 그들은 「미트라니」敎授가 專門家나 技術者는 다른 政治人이나 外交官 또는 軍人들과 달라서 훨씬 自由롭게 協力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事實은 그들도 性格上 유연성이 적은 者들이라고 했다. 따라서 오히려 專門知識을 所有한 者로서 政治人이나 外交官이 된者가 더욱 適格이라고 主張한다.

세째는, 忠誠心이 새로운 求心點을 찾게 된다고 한것에 對해 條件을 붙여 市民이나 社會一般에서 國際機構가 自己나라에 對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事實이 認識되어야만 그 國際協力機構에 對해서 國民의 關心이 集中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오직 開放社會에서만 可能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고로 共產主義社會와 같은 閉鎖된 社會에서는 自由化의 물결이 일고 나서, 비로소 國民들의 關心이 國境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하스」敎授는 協同할 課業이 簡單하게 明示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國家間的 協力이 이루어 질려면 課題가 明確해야 한다. 즉 人道的인 事業이라든가 또는 非政治的인 社會文化事業 또는 經濟的인 交流 및 協調中 어느 領域이라는 것을 正確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爲政者들의 同意와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3) 機能主義과 南北會談 : 機能主義는 赤十字會談을 起點으로 始作된 南北對話를 利用, 段階的統合을 指向하는 政府選擇의 正當性을 立證해 준다.

그러나 現段階의 南北關係처럼 體制守護를 위한 戰略이 相衝하는 狀況에서는 雪人效果의 可能性에 대한 實質的 展望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容易하지 않다. 또 現在의 南北關係에는 合意될 수 있는 分野와 合意될 수 없는 分野가 明白히 分割되어 있기 때문에 機能主義만으로는 南北對話를 통한 統一의 展望을 밝게 내다 보는 데는 限界가 있는 것이다.

이 限界性 認識에서 統一에 關聯되는 理論的 根柢를 摸索해야 한다.

I-3 對話의 目標判斷

-1) 分斷國 : 第2次 世界大戰이 終結된 이래 現在 地球上에는 體制와 理念의 差異로 말미암아 國土가 兩斷된 4個의 國家가 있다. 그런데 이 4個國中 어느 國家도 傳統的 概念으로서의 統一이나 現代的 狀況論理를 反映하는 再結合 (reassociation)에 成功한 國家는 없다. 現在까지 紹介되어 있는 社會學的 統合理論 (integration theory) 들은 例外없이 同質社會內部에서 作用하는 機能의 統合, 均衡維持에 關心이 集注되었을 뿐 理念을 달리하는 異質體制의 統合에 關한 研究는 태우한 實情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南北間에 열린 對話가 機能分野에서 協力을 促進시킬 수 있다고 前提하더라도 그러한 協력이 果然 體制差異, 理念差異에서 發源하는 모든 갈등 (conflict) 과 緊張을 克服하고 하나의 秩序에로의 統合을 成就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分명한 해답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赤十字會談을 계기로 열린 南北對話가 단순히 緊張을 緩和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全國民이 願하는 統一의 代價들로 評價되기 위해서는 對話開始에 의한 緊張緩和, 對話維持를 통한 機能分野別 協力の 擴大 및 緊張緩和秩序의 定着이라는 理論的背景以外에 統合의 可能性에 관한 論證이 隨伴되어야 한다.

그러나 經驗의 世界에서는 相異한 体制의 統合이 具體化(Materialization)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理論的 明證을 期待할 수 없고 다만 未來學的 觀點에서 提起되는 새로운 理論 構想에서 必要한 類推를 期할 수 있다.

-2) 收斂理論: 60年代 初半부터 하나의 假說로서 登場한 收斂理論(Convergence theory)은 두가지 論拠에서 機能主義 限界性 내지 悲觀的 局面을 克服할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于先 收斂理論家들은 現代의 産業社會(Industrial society)를 分析의 場으로 設定하고 現代社會는 工業化(Industrialization)와 都市化(Urbanization)에 의해서 오늘날 世界를 東西로 兩分시키는 이데올로기의 制約을 벗어나서 漸次 工業化와 都市化의 要求에 부응하는 方向으로 社會態度가 收斂한다(converge)고 主張한다. 同時에 이들은 世界 各國이 發展段階는 다르지만 經濟的 後進國들은 基本的으로 工業化되고 都市化된 産業社會의 形成을 發展의 目標로 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에 의하면 共產主義 政黨은 그 社會와 國家가 工業化에 成功하여 需要를 공급할 수 있는한 그 이데올로기의 使命은 終了되고 다만 工業化의 要求에 부응하는 管理者의 役割을 맡게

될 것으로 展望하면서 그 實例로 自動車 工業都市인 美國의 디트로이트 (Detroit) 市와 蘇聯의 스베들로보스크 (Svedlovsk) 를 指摘한다 .

이 두 都市는 各各 理念과 體制가 根本적으로 다른 國家와 政府의 支配下에 있지만 多같이 自動車工業을 發展시키는 過程에서 體制維持의 理念差異와는 關係없이 高度로 類似한 (Similar) 管理體制를 示顯하고 있다고 한다 . 그리고 이러한 類似性은 처음에는 産業構造와 管理와 같은 下部構造에서 나타나지만 이것이 普遍化될 경우 政治體制에서도 收斂化的 變化가 期待된다고 展望한다 .

-3) 理論의 適用 : 수렴理論을 南北韓 關係에 代入시켜보면 現在의 南北韓은 多같이 開發途上國 (産業化의 程度에서 南韓이 多少 優勢이지만) 으로서 對話를 통한 協力の 範圍가 極히 制限되어 있지만 앞으로 南北共히 工業化와 都市化의 程度가 더 심화되고 또 이 構造에 附屬하는 엘리트群과 리더십이 形成될 경우에는 「現在 南北間에 協力에 對한 合意가 不可能한 分野일지라도 얼마후에는 合意possible한 分野로 轉換될 수 있다는 希望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 그리고 南北韓이 앞으로 工業化를 中心으로한 産業社會로 發展하여 이데올로기 보다는 能率性을 重視하는 態度가 形成된다면 窮極적으로 統治體制에 對한 合意形成도 可能해질 것이다 .

이 點에서 이 理論은 南北對話의 最終結果를 明確히 豫見할 수 없는 現時點에서 南北間의 對話를 통한 緊張緩和와 分野別 協력이 窮極적으로 平和統一에 연결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 同時에 極能主義的 接近에서 制約되는 要素로서 波及效果 (Spillover effect) 에 對한 懷疑도 克服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이 理論은 政策의 實踐原理로 採択하는데는 限界가 있다 . 첫째 經驗의 世界에서 豫測possible한 推論이기는 하지만 事實로서 証

명된 것은 아니다. 둘째로는 모든 國家의 發展經路와 目標을 單一化시키고 있다는 點이다. 現代世界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文化相對主義(Cultural Relativism)를 無視하고 있다는 批判을 免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理論은 南北關係처럼 競爭的 共存이 肯定的이나마 不可避하게 到來될 狀況下에서는 南北韓의 收斂化的 變化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며 結局 統一의 展望도, 對話의 成果도 이 論理에 依存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南北赤十字會談의 決定家들이 以上の 理論的 背景을 통해서 對話戰略을 選擇했다는 證據는 없다. 오히려 理論的 考慮보다는 內外情勢變化의 考慮가 더 큰 作用을 했을 可能性이 크다.

그러나 赤十字會談 決定도 多數의 共感과 支持를 받는 決定이 그러했던 것처럼 經驗의 世界에서 抽出된 理論的 根拠에 비추어 볼때 分明히 現實性和 妥當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同時에 以上 檢討한 論拠는 決定家들에게 心理的 正當感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 南北共同聲명의 背景과 統一原則

II-1 南北共同聲명의 背景

-1) 8.15 宣言: 朴正熙 大統領은 1971年 8月 15日 光復節 26週年 慶祝辭가운데서 平和統一의 構想을 밝혔으며, 이 宣言은 南北對話와 또한 南北關係 改善의 方向 및 平和統一의 原則에 合意한 南北共同聲明이 나오게된 契機가 되었다. 8.15 宣言은 北韓이 戰爭準備를 서두르고, 한편 南韓에 對하여 武裝挑發을 하고 있는 狀況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의 戰爭을 防止하고 南北關係를 平和的으로 誘導하며, 그 바탕위에서 平和統一의 條件을 造成하고자한 것이 그 背景이며 趣旨이다.

8.15 宣言의 主要内容은 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① 統一은 반드시 平和的으로 이룩해야 한다. 統一이 時急을 要하는 民族의 至上 課題라고 하더라도 동족 살육의 戰爭은 反對해야 한다.

② 北韓은 武裝공비의 남과等 모든 戰爭挑發 行爲를 즉각 中止하고 所謂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다 暴力에 의한 大韓民國의 건복을 기도해온 從前의 態度를 完全히 拋棄한다는 것을 明白하게 對外에 宣言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証해야 한다.

③ 이러한 우리의 要求를 北韓이 수락하여 實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認定할 수 있고, 또한 UN에 의해 明確하게 確認될 境遇에는 南北間에 가로놓인 入爲의 障壁을 段階的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다.

④ 北韓에 對해 「더 以上 무고한 北韓同胞의 民生을 犧牲시키면서 戰爭準備에 광분하는 罪惡을 범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爭, 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 수 있는 條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証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用意가 없는가를 묻고 싶다는 것」이 그 主要 骨幹이었다.

-2) 戰爭防止 : 同族間에 流血의 慘劇을 빚어내고 나라의 財富과 國民의 財産을 깃더미로 化하게 하는 戰爭은 어떻게 해서라도 防止하는 것이 民族의 所願이며 歷史的인 課題이다. 특히 우리 民族은 6.25 動亂의 慘狀을 體驗하였기 때문에 戰爭 防止는 무엇보다도 艱요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戰爭을 防止하기 爲해서는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해야 하며, 또

相互 誤解와 不信을 解消해 나아가야 한다. 南北關係가 이와같은 方向으로 改善되어 나아가기 爲해서는 南北間의 對話가 必要한 同時에 広範한 南北交流를 通해서 相互 理解의 분위기를 造成해야 한다.

한편 戰爭 防止의 要件이 確保됨이 없이는 平和統一의 努力은 奏効하지 못한다.

-3) 平和統一에 對한 民族의 念願: 祖國의 平和統一은 8.15 解放後 民族의 一貫된 念願이다. 祖國의 分斷은 外勢에 의한 우리 民族에게 強要된 것인만큼 統一을 平和的으로 이룩할 수 있는 機會를 찾아야 하며 이를 爲해 稽進해야 한다. 單一 民族으로 統一國家의 悠久한 歷史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祖國 統一의 歷史的 任務를 한시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平和統一은 民族의 主体的 努力에 의해서만 이룩할 수 있고, 무언가 南北間에 對話의 通路가 必要하며 統一의 要件을 造成하기 爲한 南北의 共同 努力이 있어야 한다. 南北共同聲明은 이와같은 民族의 歷史的 念願을 反映한 것이다.

-4) 統一問題에 對한 大韓民國의 主導的 地位: 祖國統一은 民族의 至上 課題이며 統一의 內容은 民族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되는 만큼, 여기서 統一問題에 對한 大韓民國의 主導가 必要하다. 大韓民國의 主導에 의한 統一만이 民族이 念願하는 民主主義 統一國家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統一問題에 對해 大韓民國의 主導的 地位를 確保하기 爲해서는 다음과 같은 要件이 必要하며 現在 그 要件을 대충 갖추었고 그 展望은 밝다. 그 要件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經濟 및 社會 發展에서 南韓이 北韓에 對해 相對的 優越性을 確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統一 問題에 對한 國論이 統一되고 統一 努力에 對한 國民 總和가 이룩되어야 한다.

③ 敵의 어떠한 挑戰 또는 背信的 侵攻에도 能히 對處할 수 있는 防衛態勢가 갖추어져야 한다.

④ 統一問題에 對해 大韓民國의 國際的 協力關係가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어야 한다.

1960 年以來 大韓民國의 經濟開發計劃은 成功的으로 進行되어 民族 中興을 期約하는 祖國 近代化 作業은 밝은 展望을 보이고 있다. 1980 年代 初에 輸出 100 億弗, 國民所得 1人當 1000 弗의 指標가 達成되면 經濟 發展에서 南韓은 北韓에 比해 圧倒的 優位를 占할 것이며, 이에따라 國民福祉 向上도 획기적으로 轉換될 것이다.

한편 政府의 經濟政策 및 統一政策에 對한 國民의 支持와 協調는 그 어느때보다도 두터워지고 있으며 10月維新에 의한 國民總和의 基盤이 굳혀졌고 同時에 새마을 事業에 따른 國民의 開發과 創造의 精神이 偉大한 結實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國家 發展과 國民 生活 向上의 原動力이 될 것이다.

-5) 國際情勢 : 國際情勢는 美國과 中共사이의 和解가 象徵해 주고 있거니와 획기적인 緊張緩和의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極端的으로 對立한 東西兩陣營이 多元化되고 있는 國際關係를 反映하고 있는 同時에 世界 平和에 對한 人類의 興望을 反映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情勢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戰爭勃發의 危險地域으로 남아 있는 것은 國際潮流와 逆行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大韓民國의 政策이 國際的 要請과 背離되면 폭 넓은 國際的 支持 및 協調 關係를 維持, 發展시키기 어려우며 統一問題에서도 國際情勢에 맞추어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가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適應해 나가는 가운데서 國家의 安全保障을 期하며, 同時에 統一問題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7.4 南北共同聲明은 이와같은 國際情勢의 추이가 또한 主要 背景의 하나로 되고 있다.

II-2. 統一原則

大韓民國 政府가 밝힌 一貫된 統一原則은 平和, 自主 民主的 統一이며 이와같은 統一原則을 구현하기 爲한 것이 國際聯合 監視下의 南北韓 土着 人口 比例에 의한 自由 總選舉이다.

-1) 國際 監視下 自由 總選舉 : 우리나라에 統一 臨時政府를 樹立하기 爲한 美·蘇共同委員會가 1946年 3月과 1947年 5月의 2次에 걸쳐 開催되었으나 蘇聯側의 不當한 主張으로 挫折되었다. 그리하여 1947年 9月 美國에 의해 우리나라 問題를 國際聯合에 上程하였으며 國際聯合 總會는 國際聯合 監視下에 南北韓 土着人口 比例에 의해 自由 總選舉를 實施, 統一政府를 樹立할 것을 決議하였다. 이 決議는 北韓側의 拒否로 全國적으로 구현되지 못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南韓 地域에 限하여 1948年 5月 10日 國會議員 選舉를 實施하고 그해 8月 15日 大韓民國 政府를 樹立하였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統一原則은 그후에도 유엔에서 每年과 같이 再確認되고 大韓民國 政府와 國民은 國際聯合 總會 決議를 北韓이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렇듯 國際聯合 監視下 南北韓 土着 人口 比例에 의한 自由 總選舉는 國際的인 輿望인 同時에 우리 民族의 念願을 反映한 것이며 그 正當性은 良心있는 者라면 누구도 否認할 수 없다.

여기서 한가지 指摘할 것은 國際聯合의 監視가 우리나라 統一問題에 對한 外勢 干섭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點이다. 서로 統一 目標가 對立되고 특히 共產側의 赤化統一의 野望이 치열한 狀況에서는 公明 正大한 公正 選舉가 어려우며 公正選舉를 爲해서는 嚴正 中立을 지키는 國際機構의 監視가 있어야 하며 그 監視 機構로서 國際聯合보다 더 適合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 平和統一의 原則 : 朴正熙 大統領이 8.15 宣言에서 밝힌 平和統一 構想은 平和統一의 原則을 再確認한 것이다.

統一은 國民의 보다 幸福한 生活와 民族國家의 正統性 回復과 繁榮을 추구하는데 目的이 있다. 따라서 統一의 手段과 方法은 嚴密히 選擇되어야 한다. 戰爭은 民族에 慘酷한 災禍를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民族 分裂을 招來하는 것이기 때문에 統一의 手段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우리 民族은 오직 平和統一을 念願하는 理由가 있는 것이다.

-3) 自主統一의 原則 : 朴正熙 大統領은 8.15 宣言에서 우리 韓半島의 將來에 關한 問題는 列強이나 國際情勢가 解決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主体的인 努力과 自主的인 決斷에 있음을 闡明한 바 있다. 이는 自主的 統一의 原則을 再確認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統一은 民族의 뜻대로 이룩되어야 한다. 만일 다른 나라들 사이에 우리나라 統一에 관한 어떤 合議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 民族의 뜻과 合致되리라는 期待는 하기 어렵다. 머우기 國際關係는 東西關係가 極端的으로 對立된 兩極時代로부터 多元化時代로 變化되어 列強들은 國際權力 政治의 立場으로 부터 自己 國家의 利益中心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統一問題에 對한 依他心은 時代 錯誤的이며 危險한 일이다.

勿論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統一問題에 對한 國際的 協力을 排除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 統一問題에 關해 國際的 利害 關係가 상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大韓民國이 能動的으로 國際的 協力을 확보하는 것은 統一問題를 民族이 念願하는 方向으로 解決하는데 매우 必要한 일이다.

-4) 民主統一 原則 : 民主統一은 民族의 念願이며 大韓民國 政府의 一貫된 統一 原則이다. 國際聯合의 監視下에 南北 總選舉를 實施해야 한다는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를 支持하는 것도 바로 民主統一을 구현해야 한다는 立場때문이다.

北韓이 統一問題를 革命의 問題로 보고 大韓民國 政府의 전복을 기도하고 南韓 社會의 混亂가운데서 共產勢力이 政權을 奪取하고 그 바탕위에서 赤化統一을 이룩하려고 피하고 있어 民主統一의 原則을 거역하고 있다.

民主統一이 이룩되어야 民族의 歷史的 念願이 成就되며 民主主義 發展과 民族 國家의 繁榮이 保障되는 것이다.

1-3. 7.4 南北共同声明에서의 統一原則과 南北關係의 方向

-1) 統一原則 : 1971年 9月 20日 開始된 南北赤十字 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1972年 南北當局者間의 一連의 秘密 接觸으로 7月 4日 南北共同声明이 發表되었다. 南北共同声明에서 合議된 統一原則은 다음과 같다.

①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解決되어야 한다.

②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 行使에 依拠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되어야 한다.

③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招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여야 한다.

以上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7.4 南北共同声明에서 合意된 統一原則은 平和, 自主, 民族 等 大韓民國의 一貫된 統一政策과 合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측의 主導的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南北間의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的 團結을 圖謀하여 統一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은, 南北間의 對立된 理念과 社會制度를 論題로 삼고 서로 自己側의 理念과 體制를 相對方에게 強要한다면 緊張이 強化될뿐, 統一問題 解決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認識에 基礎한 것이며, 結局 民族이 指向하는대로 統一을 한다는 것으로서 民主統一의 原則과 合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로 南北共同声明은 民族이 바라는 統一問題 解決의 방식을 올바르게 反映한 것으로서 歷史的 課業이었다. 問題는 이 声明에서 合意한 統一原則을 北韓이 모두 誠實하게 지켜 나가느냐이다. 어떻

은 戰爭準備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던 北韓側을 南北共同聲明에 同意토록 이끌었다는 것은 大韓民國 政府의 成功이라고 일단 보고, 合意된 統一原則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우리측은 忍耐性 있는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다.

-2) 南北關係의 方向: 7.4 南北共同聲明에서는 統一原則을 밝힌 同時에 南北關係 改善의 方向을 아울러 提起하였다.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雙方은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기 爲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力 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적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爲한 積極적인 措置를 取한다는 點.

② 雙方은 끊어졌던 民族的 연계를 回復하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南北사이에 多方面的인 諸般 交流를 實施한다는 點.

③ 南北赤十字 會談이 하루 빨리 成事되도록 積極 協調한다는 點.

④ 雙方은 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直接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爲하여 서울과 平壤사이에 常設 直通電話를 設置한다는 點等を 合意하였다.

즉 南北間의 緊張緩和, 理解와 信賴의 增進, 人道的 問題의 解決 不意의 軍事的 事故의 防止等を 그 骨子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南北關係 改善의 方向은 大韓民國의 一貫된 統一政策과 符合되며, 올바른 것이다. 休戰線 주변에서의 武力衝突 事件,

1948年 1月 21日 北韓 武裝 特공대가 서울에 침투하여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未遂에 그친 事件等 北韓의 武力 挑發은 南韓 內部

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같은 武力 挑發과 그에 의한 軍事的 衝突은 南北間의 緊張을 고조시켰을뿐만 아니라 戰爭의 誘因으로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한편 南北間의 敵對關係를 解消하고 平和統一을 위한 對話의 廣장을 넓혀나간다면 相互 理解와 信賴의 분위기가 造成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자면 南北間의 各 分野에 걸친 폭 넓은 交流가 實施되어야 한다. 朴正熙 大統領은 8.15 宣言에서 이미 北韓의 態度에 따라 南北間의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할 用意가 있다고 宣言함으로써 南北交流에 對한 적극적인 자세를 시사했던 것이다.

다음 南北間의 人道的 問題 解決을 위한 南北赤十字 會談은 恩겨래의 기대속에 進行되고 있는바 이의 成功은 南北關係 改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同時에 이 會談의 成功与否는 南北對話의 앞날을 가름하는 試金石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평양간의 直通 電話의 加設은 不意의 軍事事故 내지 戰爭을 防止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美國과 蘇聯사이에서도 平和共存 關係에 들어선 以來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 直通電話(Hot Line)를 加設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는 6.25의 不意의 南侵에 따른 뼈아픈 經驗에 비추어 南北間 直通전화의 設置가 주는 가치를 再認識하여야 될 것이다.

II. 南北韓의 統一目標와 政策의 對立

II-1. 우리의 統一目標

-1) 우리는 自由 民主主義 體制의 統一國家의 實現을 目標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代替될 수 있는 어떠한 統一目標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統一目標가 合理的인 것은 다음의 事實이 立證한다.

① 自由 民主主義 体制의 統一國家는 大韓民國 國民의 要求이며 온 겨레의 念願이라는 點.

② 自由 民主主義 体制의 相對的 優越性은 大韓民國 國民이 實際 生活을 通해서 體驗되었다는 點等이다.

-2) 統一目標 具現을 爲해서는 다음과 같은 點이 考慮되어야 한다.

① 7.4 南北共同聲明에서 合議된 統一原則은 自由 民主主義 体制의 統一國家 實現으로 具現되어야 하며

② 自由 民主主義 統一國家 實現을 爲한 우리의 努力은 強要가 아니라 民族의 支持를 바탕으로 쟁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大韓民國의 自由 民主主義의 優越性을 國民生活을 通해서 實証하여야 하고

③ 自由 民主主義 理念을 具現하는 統一은 絶對的 課題인 만큼 이에 對한 挑戰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하며, 同時에 이를 저해하는 要素를 가차 없이 除去해야 한다.

II-2. 北韓의 統一目標

-1) 새로운 南北關係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統一目標는 여전히 共產主義의 實現에 있다. 共產主義者들이 共產主義의 目標를 버리는 것은 自身이 共產主義者임을 否認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이 民族的 立場에 서 있는 것처럼 主張하고 있으나 北韓은 自身이 國際 共產主義의 東方哨所라고 自處하고 있어 그들의 共產主義 統一目標는 國際共產主義運

動 내지 世界革命 目標의 一環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2) 赤化統一의 方法:北韓은 共產主義 統一目標을 達成하기 爲해서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다. 6.25의 南侵도 그 기도의 發露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모험적이고 反民族的 行爲를 감행할는지 모르는 일이다. 北韓은 所謂 「南朝鮮革命」을 先行시키고 共產主義 統一을 이룩하려고 기도해 왔다. 南北對話 時代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기도를 拋棄했다는 증거를 아직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II-3. 새로운 南北關係에서의 南北의 統一政策

7.4 南北共同聲明에서 統一原則이 合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統一目標가 相異하기 때문에 南北의 統一政策은 對立되고 있다. 對立 樣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政策의 基礎:우리측은 統一에 民族의 自由意思가 民主主義的 方法으로 反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對해서, 北韓側은 民主主義 方式에 의한 統一을 反對하고 있다.

-2) 接近方法:우리측은 比較的 용이한 問題부터 풀어나가 南北間의 理解와 信賴를 토대로 問題 解決의 폭을 넓혀 나가며 統一 問題 解決에 점차 接近해 나가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北韓側은 이에 反해서 大韓民國의 安全과 반공體制를 惡化시키는데 主眼點을 둔 問題를 先行시키려 하고 있다.

-3) 問題點:以上과 같은 接近方法의 差異에 따라 많은 問題點이 빚어지고 있다. 南北조절委員會에서 우리측은 經濟 및 社會

文化 분과위원회를 먼저 構成하고 이 분야의 交流를 조속히 實施하자고 提議한데 對해서 北韓側은 相互 軍비축소, 駐韓美軍의 철수 등 軍事問題를 우선적으로 解決해야 한다는 提議를 되풀이 하고 있다. 北韓이 이같이 南北關係의 現實的 여건을 外面하고 非現實的 主張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所謂 「南朝鮮革命」을 통한 韓半島 赤化戰略을 具現하고자 하는데 그 意圖가 있는 것이다.

北韓은 「南朝鮮革命」의 가장 큰 障礙는 駐韓美軍을 비롯한 韓美關係와 南韓의 強力한 反共體制라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南北 赤十字 會談에서 離散家族의 고통을 덜어 주는 人道的 赤十字事業의 전제 조건으로 大韓民國의 反共法 및 國家保安法의 폐지등을 主張하고, 南北 조절위원회에서 軍事 問題의 우선적 解決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北韓은 南北對話 가운데서도 武力 挑釁을 감행하고 있어 그들의 韓半島 赤化 底意를 白日下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4) 近來의 動向 : 우리측은 또한 南北間에 民族的 共通點을 넓혀 나가는 것이 平和統一 接近의 契機이라고 보고 이를 爲한 經濟, 社會, 文化交流等 폭넓은 接觸과 交流에 積極적 態度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北韓은 말과는 달리 實際로는 이를 기피하고 民族의 念願은 어떻든간에 그의 政治的 立場에 이롭지 않은 南北關係의 改善은 事實上 反對하는 立場에 있다. 즉 北韓側은 현단계에서는 關係改善에 實効를 거둘 수 없는 남부 諸政黨, 社會團體 代表 및 各계 各층 인사들의 政治협상회의를 開催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主張을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우리측의 對應 태세를 分擘시키려는 획책인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이 南北對話에서는 誠實하

지 못한 態度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위장된 平和統一 宣傳에는 對
內外에 열을 올리고 있다. 同時에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을 中傷
誹謗하므로써 大韓民國 政府를 國民과 이간시키고 國際的 위산을
손상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南北關係에서 北韓이 相對的으로
有利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그들의 집요한 계략이라 보아야 할 것
이다.

第 4 章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과 展望

〈 章 前 文 〉

人道的 問題解決을 위한 南北赤十字 會談과 南北間의 關係改善 및 統一問題 解決을 위한 南北調節委員會 會議가 서울과 平壤을 번갈아 왕래하면서 열리고 있다. 이렇게 變化되고 있는 南北關係를 어떻게 理解하며 그 方向과 展望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는 教育의 主要 課題로 되지 않을 수 없다.

本章의 目標은 새로운 南北關係의 性格과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 및 展望을 올바르게 理解함으로써 民主統一의 歷史的 使命感을 鼓吹하고 南北關係의 改善 및 平和統一에 對한 우리의 政策을 國民 總和로 뒷받침함으로써 南北對話가 소기의 成果를 견우게 함에 있다.

本章의 內容 및 強調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은 무엇보다도 平和的 關係의 維持가 先行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民族的 同質性 回復을 위한 努力과 南北間의 相互理解 및 信賴의 增進에 注力함으로써 漸次 平和統一에 接近하는 方向으로 發展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南北間의 異質的 理念과 體制間의 調化에 依한 統一은 期待할 수 없는 만큼 南北間 善意의 競争에 依한 統一問題解決의 主導的 地位確保가 必要하며 그 중에서도 國家安保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國際的 協力關係의 確保가 소중하다는 점

셋째, 南北關係의 性格으로 보아 統一問題의 解決은 短時日內에 解決될 可能性은 없는 만큼 이에 對備하여 統一問題 接近에 原動力으로 되는 國力을 培養하고 國民意志의 總和를 기해야 한다는 점

네째, 南北對話의 發展과 그에 依한 南北間 平和關係의 維持는 平和統一에의 接近에 緊要한 課題로 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6.23 宣言은 南北關係의 方向과 平和統一에 대한 接近方式을 賢明하게 提示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南北對話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韓半島 赤化를 拋棄치 않고 있다는 點 등을 強調하여야 할 것이다.

I. 南北關係 發展의 方向

I-1. 南北間의 理解 및 信賴의 增進

-1) 必要性 : 南北間의 誤解와 不信은 바람직한 南北關係의 發展을 阻害할뿐 아니라 緊張의 要因이 되며 나아가서 戰爭勃發의 要因이 되기도 한다. 特히 北韓은 一貫된 教條主義的 思考方式에 立脚하여 大韓民國의 政策을 認識하고 韓國의 情勢를 判斷하고 있기 때문에 南北間의 關係改善 및 平和統一에 對한 우리側의 誠實한 態度에 대해서 까지도 믿으려 들지 않는다. 우리側은 南北對話와 接觸을 通해서 北韓의 이러한 誤解를 풀어주고 同時에 北韓을 올바르게 理解하는데 努力할 것이다.

-2) 北韓의 態度 : 理解와 信賴가 南北關係 發展의 基調로 되는 만큼 南北關係의 發展은 段階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現實的 條件을 無視하고 「合作」을 主張한다. 7.4 南北共同聲明은 南北間에 到達할 目標과 그 方法을 提示한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는 「合作」主張의 根拠로 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間의 理解와 信賴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合作」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우리의 立場과 方向 : 南北間의 理解와 信賴는 對話를 통한 見解 交換과 함께 接觸과 交流의 폭을 넓힐 때 增進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73.3) 이래 經濟 및 社會·文化交流의 조속한 實施와 더불어 南北間의 相互社會開放을 提議하고 있다. 南北間의 理解와 信賴는 南北 當局間에 서만이 아니라 同胞間에서도 增進되어야 한다. 當局間의 理解와 信賴는 限界가 있으나 南北同胞間에는 무한히 增進될 수 있고 이것은 곧 國土統一의 原動力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社會를 開放化시켜 同胞들 間의 交流의 폭을 넓힐 計劃인 것이다.

I-2. 民族的 同質性的 回復

-1) 必要性 : 南北間에는 理念과 體制가 맞지 않고 統一目標가 對立하고 있기 때문에 南北關係의 改善 및 平和統一 努力은 民族的 同質性的 回復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對話의 課題 : 對話에 있어 각기의 理念과 體制에 걸리는 問題를 解決課題로 어느 일방이 提起할 때는 논쟁만 되풀이될 뿐 南北關係의 改善이 어렵고 問題接近이 어려울 것임으로 相互利益이 되거나 民族的 立場이 南北對話의 課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南北은 본래 같은 民族이면서도 南北間에는 民族觀이 달라지고 있으며 더욱이 政治的 對立意識으로 말미암아 相互 적대시되고 있다. 이와같은 民族의 異質化가 南北關係 緊張의 要因 가운데

하나로 되고 있어 統一問題 解決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상 및 政治意識上的 對立에도 不拘하고 하나의 民族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共通된 民族的 立場이 存在한다. 이 共通點을 넓혀나간다면 相對的으로 思想 및 政治意識上的 對立은 緩和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統一은 南北의 相異한 理念과 體制 및 對立된 統一目標에 對한 妥協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고, 오직 民族的 同質性의 回復 및 擴大로서만이 비로서 可能할 수 있다. 따라서 民族的 同質性의 回復은 우리의 統一努力의 中心的 課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南北對話 素材開發方向: 南北韓에 걸친 民族的 意志와 指向의 連結은 北韓의 反民族的 立場과 政策을 견제하는 強力한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南北關係의 바람직한 發展 및 統一問題 解決의 接近을 推進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單一民族이고 또한 民族 共同運命體로서의 歷史意識이 강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南北關係에서 民族的 同質性 回復의 意義를 各별히 重要時 해야 할 것이다.

II. 南北間의 競争과 韓國의 安全保障

II-1. 南北間 競争과 그 意義

-1) 競争의 不可避性: 南北間에 統一目標가 對立되고 있으며 그것이 妥協에 依해서 합치될 可能性이 없기 때문에 自然히 競争이 不可避하게 된다. 北韓側은 統一의 수단으로서 武力과 暴力革

命을 併行시켜 왔고 우리는 戰爭을 抑制하고 北韓을 平和的 競争의 南北關係로 유도시켜 왔다. 卽 우리는 8.15 宣言에서 南北間의 善意의 競争을 호소한바 있고 1973年 6月 23日에는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을 통해 우리의 이상과 같은 政策을 再確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武力에 의한 統一의 可能性이 없다고 判斷되던 중던 3년만에 南北間의 競争에 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여기에서도 그들이 우위를 차지 함으로써 統一問題의 主導權을 장악하려 꾀할 것이다. 1973年 12月 北韓의 體制 개편은 南北間의 競争에 對備하기 위한 것으로 判斷된다.

-2) 南北間의 競争內容: 南北間 競争의 內容은 經濟 및 社會 發展이며 그에 의해 雙方의 理念 및 體制의 優劣이 證明되는 것이다.

이같은 立場에서 볼때 大韓民國 政府의 祖國近代化와 經濟開發 計劃은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며 이와 아울러 體制는 물론 人間의 尊嚴性과 自由의 保障이 중시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競争에서 우리側이 勝利하게 되면 大韓民國의 祖國像이 北韓同胞들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고 그리되었을때 大韓民國의 主導下에 統一이 될수 있는 것이다.

II-2. 總力安保의 意義

南北對話가운데서도 北韓이 武力에 의한 統一을 拋棄했다는 証拠를 찾아 볼 수 없는 한 우리는 寸分도 우리의 安保를 소홀히 할 수 없다. 北韓은 所謂 革命의 方法에 의한 統一과

武力에 의한 統一을 並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總力安保로 대응하는 한편 政局 및 社會의 安定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北韓이 武力統一의 勝算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平和的 南北關係를 維持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国力을 더욱 培養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南北韓 關係에서의 有利한 高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이다.

II-3. 國際的 協力關係의 意義

-1) 南北關係와 國際協力の 不可分性: 새로운 南北關係에 있어서도 大韓民國의 國際的 協力關係가 重要함에는 變化가 없다. 따라서 南北關係의 發展과 國際的 協力關係는 상충되지 않고 均衡을 이루어 維持 發展되어야 한다. 1973年 6月 23日 朴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에서는 民主友邦과의 기존유대를 公고히 해야 한다는 종래의 政策을 再確認하고 나아가서 호혜평등의 原則아래 共產國家들과도 外交關係를 개설할 姿勢를 申明하였다.

國際的 協力關係는 大韓民國 政府의 對北 및 統一政策을 뒷받침해 준다. 南北對話는 힘의 均衡이 背景으로 됨으로써 進展될 수 있으며 힘의 關係에 있어서 우리側이 優位를 占함으로써만 統一 指問으로 南北關係가 發展할 수 있다. 國際的 協력이 南北間 힘의 關係 變化에 要因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國際協力の 內容: 大韓民國의 境遇 國際的 協力の 主要 內容은 國家 安全保障과 經濟發展計劃에 對한 國際的 協력과 支援 外에도 統一問題에 對한 올바른 國際的 支持는 絶대 중시 된다. 特히 南北關係 및 統一問題에 對한 國際的 協力關係의 重要한 內

容은 大韓民國의 國際的 地位向上과 아울러 北韓의 大韓民國 孤立化政策을 効率的으로 저지하는 問題로 築約될 수 있다.

오늘날 北韓이 大韓民國의 安全保障 및 經濟發展에 重要한 기여를 하고 있는 韓美關係를 취약화 내지 破壞하려고 책동하고 있음을 勸察해 볼때 國際協力の 意義는 더욱 중시되는 것이다.

-3) 國際協力の 方向: 國際關係를 維持, 發展하기 爲하여는 새로운 時代感覺으로 國際潮流에 역행하지 않고 能動的으로 適應해야 하며 또 民主友邦을 비롯한 世界 여러 나라들과 共同利益의 기반위에서 유대를 緊密히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6.23 宣稱의 意義가 더욱 부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Ⅲ. 南北關係의 展望과 韓國의 役割

Ⅲ-1. 統一問題 解決의 長期性

-1) 理由: 于先 統一問題 解決에 對한 南北間의 目標의 對立은 統一原則을 合意한 7.4 南北共同聲明에도 不拘하고 長期性을 띄지 않을 수 없다. 卽 北韓共產主義者들이 統一을 爲해 共產主義의 目的을 拋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統一問題에 對한 國際關係도 統一의 長期化 要因의 하나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統一의 상대방으로서 北韓뿐만 아니라 그 背後에 있는 中共과 蘇聯을 생각해야 하고 統一問題는 對內적 統一 與件의 성숙과 國際關係의 調和가 同時에 이루어 질때 解決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國民의 態度 : 따라서 統一問題 解決을 爲한 우리의 努力은 主客觀的 條件에 따른 長期的이고 거시적 展望에서 悲觀論이나 宿命論 및 조금론에 빠짐없이 條件造成에 착실히 前進해 나가야 한다.

Ⅲ-2 統一問題에 對한 우리의 主導的 役割

-1) 主導的 役割의 必要性 : 統一問題에 있어서 우리 側이 主導的 役割을 하여야만 自由民主主義 理念을 구현시키고 民族國家의 榮光을 圖謀할 수 있으며 統一問題는 外勢와 國際潮流에 依存하지 않고 民族이 自主的으로 解決해야 할 性質의 것인만큼 우리 側이 統一問題에서 主導的 地位를 確保하여야 만 民主統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다.

-2) 主導的 役割의 要件 : 다음과 같은 要件이 갖추어져야 統一問題에서 우리 側이 主導的 役割을 할 수 있다.

① 社會, 經濟的 側面에서 大韓民國의 壓倒的 優位를 占하고 大韓民國의 祖國像이 北韓同胞의 가슴에 까지 심어져야 한다.

② 大韓民國의 平和統一 政策이 國內에서 뿐만 아니라 國際的 支持를 받아 統一問題에 對한 國際的 協力關係에서도 大韓民國이 優勢한 고지를 確保해야 한다.

③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이 確立되어 共產侵略을 防止할 수 있어야 한다.

④ 統一問題에 對한 國民意志의 統一이 確保됨으로써 政府의 統一政策이 과감하게 推進될 수 있어야 한다.

Ⅲ-3. 南北對話의 發展과 平和關係의 維持

-1) 南北對話 發展의 必要性和 우리의 姿勢:

① 南北對話는 南北赤十字 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의 두가지 通路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誠意와 忍耐性있는 努力으로 南北對話를 發展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統一問題에 對한 우리側의 主導的 地位를 確保하여 平和統一에 漸次的으로 接近해 나가야 한다.

② 南北對話는 雙方의 對立된 基本立場이 反映되어 바람직하게 進展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길이 予想되고 있다.

그러나 南北對話는 南北間 平和關係의 維持와 平和統一에의 接近에 必要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中斷함이 없이 維持發展시켜야 한다.

③ 우리의 基本 統一政策은 平和統一인 만큼 南北對話가 維持됨이 없이 統一問題에 關한 실마리를 풀어 나가기는 어려운 問題이다.

그리하여 朴正熙 大統領은 6.23 宣言을 통해 誠實과 忍耐로 統一努力을 할 것이라고 申明하였다.

-2) 南北 平和關係의 必要性和 韓國의 主導的 役割: 南北間의 平和關係가 維持됨이 없이는 平和統一의 努力은 奏效할 수 없다. 그것은 北韓이 南北對話를 進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1973年 金日成의 新年辭에서 公言한바와 같이 所謂 4大 軍事路線 即 全人民의 武装化 全領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및 武装의 現代化를 推進하고 있기 때문이다. 4大 軍事路線은 防衛에 目的이 있을 뿐만 아니라 武力에 의한 統一 企圖를 拋棄하지 않고 있음을 意味한다. 따라서 對話있는 새로운 南北關係에 있어서도 南北間

平和關係 維持를 위해서는 우리의 主導的인 努力이 不可欠한 것이다. 即 傳統的으로 好戰的이고 6.25 南侵을 敢行한 北韓 共產主義者들을 相對로 統一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임하고 있는 만큼 南北間의 平和關係의 維持, 發展은 大韓民國 政府의 主導的 役割에 의해서 이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Ⅲ-4. 6.23 宣言과 南北關係의 方向

-1) 6.23 宣言의 要旨 ;

- ① 祖國의 平和統一을 爲해 모든 努力을 繼續한다.
- ② 南北韓은 相互 相對方의 內政을 干涉하지 않아야 하며 侵略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南北對話의 成果를 爲해 誠實과 忍耐로 努力한다.
- ④ 緊張緩和를 爲해 北韓의 國際機構 參與를 反對하지 않는다.
- ⑤ 統一에 障礙가 안된다면 南北이 各各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 ⑥ 互惠平等의 原則아래 모든 國家와 門戶를 開放한다.
- ⑦ 友邦國家와 既存紐帶를 공고히 한다.

이에 덧붙여 北韓에 對한 이상의 政策에 對해서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의 過渡的 期間中의 暫定措置임을 指摘하고 北韓을 國家로 承認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2) 6.23 宣言의 意義 ;

- ① 平和關係에 基礎한 統一努力이다. 南北關係가 對話있는 새로운 時代로 轉換하고 더우기 統一原則에 合意한 7.4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었음에도 不拘하고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南北의 價值

觀과 統一目標의 對立으로 南北對話는 바람직한 進展을 보지 못하고 平和統一의 展望은 여전히 요원한 形便에 있다. 이러한 狀態는 統一問題가 南北 雙方立場의 接近에 依해서 解決될 可能性이 稀薄하므로 統一의 成就를 爲해서는 長期間의 努力이 不可避함을 말해주고 있다.

大韓民國 政府는 이와같은 實情에서 무엇보다도 南北間에 戰爭이 일어나지 않는 平和關係를 公고히 하고 이에 基礎하여 平和統一의 努力의 成果를 쌓아 窮極의으로 平和統一을 成就하고 말겠다는 것이다.

② 平和統一의 첩경을 提示하였다. 統一問題가 南北間의 對話에 의해서 解決될 수 없다면 平和的 競爭의 結果로 問題解決의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競爭은 어느쪽의 理念과 體制가 民族의 絶對的 支持를 받을 것이냐는 方向으로 나갈 것이며 이 競爭에 勝利하기 爲해서는 經濟 및 社會發展과 福祉國家 建設이 北韓을 월등히 凌駕할 수 있어야 한다.

大韓民國은 經濟發展 政策이 成功的으로 進展되고 政治 및 社會的 安定의 토대를 構築함으로써 南北間의 競爭에 자신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다. 이를 基礎로 南北間의 善意의 競爭을 다시 한번 促求한 것이 곧 6.23 宣言인 것이다.

③ 6.23 宣言은 國土分團의 責任 所在를 糾明하였다. 8.15 解放以後 大韓民國 政府는 祖國의 平和統一을 爲해서 公明正대한 提議를 하고 그의 구현을 爲하여 誠意있는 努力을 해왔으나 그때마다 北韓은 拒否해 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側은 國土統一이 안되고 있는 責任을 우리側에 전가시키기 일수였다. 特別히 南北對話가 進行되는 中에서도 韓國을 孤立化시키기 爲해서 外

交網의 擴張과 國際機構 加入에 全力을 傾注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偽裝平和攻勢를 對内外에 폭로한 것이 곧 6.23 平和統一 外交 宣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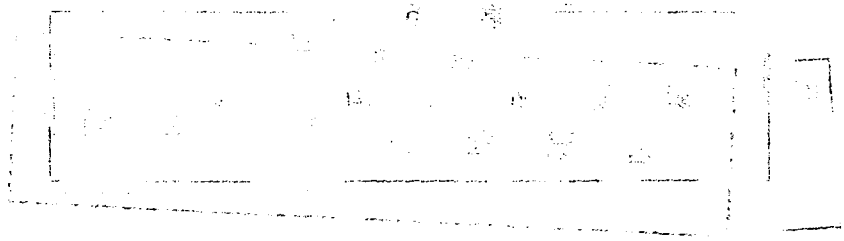
④ 6.23 宣言은 北韓의 侵略策動에 對한 國際的 牽制作用을 한다.

이는 平和統一에 否定的 影響을 주는 國際舞台에서의 南北間의 外交的 敵對關係를 緩和하는 한편, 北韓으로 하여금 平和를 指向하는 國際情勢의 潮流에 따르게 하고 나아가 國際輿論의 壓力에 의해 北韓의 侵略策動을 牽制시키자는데도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第 5 部

國 際 社 會 外 韓 國



目 標

1. 国家生活의 國際性과 韓國의 國際的地位認識
2. 國際社会變動에의 主体的, 能動的 対応의 必要性 認識
3. 國際社会속의 韓國의 役割에 대한 自負心
4. 南北關係의 國際的 背景과 國際外交의 課題 理解

概 要

題 目	內 容	強 調 點
<p>I. 國際關係의 本質과 새 秩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国家目標 : 国家利益優先 國際關係 : 理念定向→實利追求 <li style="padding-left: 20px;">兩極冷戰體制→多極體制 <li style="padding-left: 20px;">平和共存, 現狀固定化 各國利益의 調和와 葛藤 : 힘의 對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關係의 本質과 새로운 秩序關係의 理解에 力點
<p>II. 世界속의 韓國</p> <p>1. 國際社会와 韓國</p> <p>2. 韓國의 外交目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政學의 位置 : 中, 日의 三角關係 強大國의 利害關係와 韓國 • 安保維持強化 : 우방의 확보, 軍事援助確保 <li style="padding-left: 40px;">UN 支援 祖國近代化成就 : 知的 物的 技術的 成就 <li style="padding-left: 40px;">輸出增大 • 南北統一成就外交 : 戰爭防止, 國際協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關係속의 韓國의 位置와 強大國關係가 韓國에 미치는 影響을 이해하고 이에 對處하는 韓國의 外交目標이해에 強調
<p>III. 國際平和共榮과 韓國의 役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半島平和와 國際平和와의 關係 • 集團安保努力과 韓國의 役割 國際相互依存性과 韓國의 役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平和共榮을 위한 韓國의 役割을 強調
<p>IV. 國際社会와 南北關係</p> <p>1. 南北關係의 國際性</p> <p>2. 南北統一의 外交的 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強大國間의 利害關係와 對韓政策 南北關係의 國際的 意味 統一을 위한 國際協調의 必要와 課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關係의 改善과 統一成就是 國際社会와의 有機的 關係속에서 追求되어야 하는 事實을 強調하고 國民外交의 重要性을 強調

序 設

個人이 그가 살고 있는 地域共同體, 나아가서 社會와 國家를 잊어서는 안되듯이 國家도 國際社會를 잊어서는 안된다. 科學技術의 發達로 交通手段, 通信手段 등이 改善되어 人間生活이 漸漸 國際化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提起되고 있는 問題를 觀察해 보면 各國이 個別의으로 解決 못할 問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資源問題, 傳染病豫防문제, 核武器制限문제, 核戰爭防止문제, 環境汚染문제, 水産資源保存문제 등 諸한 問題가 國際的인 解決을 要求하고 있다. 즉 이들 問題는 이제 各國의 別個的 努力으로는 해결 못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最近에 와서는 地球의 保存과 人類의 殘存을 위해서는 「地球管理」(Globe management)가 開發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모든 國家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國際環境의 影響을 받고 있으며 결코 他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問題라고 해서 無關心할 수 없는 立場에 이르렀다. 따라서 國家生活을 지혜롭게 營爲하고 國家發展을 圖謀하려면 國際環境을 바로 分析하고 把握하여 이에 適應, 이를 活用, 이를 主體的으로 變化시킬 수 있어야 한다.

政治思想教育에서도 한국의 경우 國內的 問題와 南北關係문제에 대해서만 바람직한 國民定向을 企圖해서는 不充分하다. 國際環境에 대한 理解를 꾀하여 「世界속의 韓國」으로서 우리가 國際社會에 대해서 어떤 姿勢를 취하여야 하며 한국이 國際的으로 發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第5部 「國際社會와 韓國」에서는 바로 이와같은 政治思想教育的 要請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目標을 設定하였다.

國家生活의 國際性과 韓國의 國際的 位置를 認識하여 國際社會의 變化에 能動的으로 適應하고,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韓國의 役割에 對하여 自負心을 가지고 參與하게 한다.

이와같은 本部의 目標을 더욱 世分하여 陳述하면 大體로 다음과 같은 4個의 目標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國際趨勢의 基本性格을 理解하여 國際社會가 韓國에 주는 制約을 自主적으로 克服하고 國家發展을 爲하여 國際社會가 提供하는 機會를 最大限 開發 活用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둘째, 國際社會라는 共同運命體의 一員으로서 韓國의 位置와 立場을 理解하여 안으로는 國民總和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國家主權의 強化와 自主外交 成就를 爲한 國家的 努力에 積極적으로 參與하는 態도와 能力을 기른다.

셋째, 國際平和와 人類共榮을 爲하여 韓國이 맡을 수 있는 役割에 自負心을 가지게 하고 이의 成就를 爲한 努力에 積極적으로 參與하는 態도와 能力을 기른다.

넷째, 南北關係의 國際的 背景과 南北統一을 成就하기 爲하여 國際的 協調가 必要함을 理解하고 이를 爲한 國家的 努力의 重要性을 認識시킨다.

이와같은 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 第5部에서 다루어야 할 內容은 다음과 같이 4個章으로 나누어 組織하였다.

제1章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趨勢」에서는 國際關係에 대한

基礎知識을 提供하고 國際關係의 本質이 各國의 利益推求에 있다는 點을 강조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最近의 趨勢를 概觀함으로써 韓國外交는 어떤 方向을 取하여야 할지 方向感覺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第2章 「世界속의 韓國」에서는 國際環境과 韓國과의 關係를 理解시키고 國際社會속의 韓國의 位置를 取扱하여 韓國外交目標의 國際的 正當性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第3章 「國際平和와 人類共榮을 위한 韓國의 役割」에서는 國際社會의 共同目標의 成就를 위해서 韓國이 말을 수 있는 役割이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韓國의 國際的役割에 대한 自負心을 심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第4章 「國際社會와 南北關係」에서는 南北統一의 平和的成就是 韓民族의 自主的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國際社會와의 有機的 關係속에서 接近되어야 한다는 점을 認識시켜야 할 것이다.

第1章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趨勢

〈 章 前 文 〉

本章에서는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趨勢를 簡略히 說明하여 被教育者로 하여금 國際政治에 대한 最小限의 基礎知識을 얻게하고 國際問題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國際關係에 대한 分析能力을 키워주는데 目的이 있다. 이와같은 本章의 目標을 더욱 細分하면 다음과 같이 陳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國際關係의 本質이 各國의 國家利益追求에 있으며 國家利益의 增進을 위하여서는 國力培養과 外交資源의 效率的運用을 통한 國際的 協調의 確保가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둘째, 戰後國際關係를 略述하여 政治理念的 定向이 弱화되고 代身實利追求의 定向이 強化되었으며 兩極體制가 무너지고 多極體制가 形成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세째, 國際關係의 本質과 最近趨勢의 基本性格을 알게 함으로서 한국의 外交努力에 效果的으로, 그리고 能動的으로 參與케 한다. 이와같은 教育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本章이 다루어야 할 教育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國際關係의 本質을 理解시키려면 거기서 關聯된 基本概念 즉 國家, 民族國家, 國家利益, 國家目標, 國際關係 등의 概念을 說明해야 할 것이며 各國의 國家利益追求가 國際關係 또는 國際政治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루어야 한다.

둘째, 戰後의 國際關係變遷을 훑어보고 그 變遷의 基本性格이 무엇인가를 論하고 이와같은 變遷에도 不拘하고 各國利益追求라는 國際關係의 本質에는 變함이 없음을 說明한다. 또한 좁아지는

世界속에서 너무 편협한 國家利益의 追求, 즉 排他的 民族主義는 長期的으로 오히려 不利할 수 있다는 事實을 分析한다.

本章에서 특히 強調해야 할 點은 다음과 같다.

① 國際環境에 대한 機敏한 適應과 對處없는 國家目標의 追求는 非現實的이라는 點, 즉 孤立主義的인 國家定向은 時代錯誤的이란 點

② 國際關係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各國의 利益追求이며 長期的이고 巨視的인 眼目에서 高瞻해 볼 때 國際主義的 立場을 취하는 것이 國家利益追求의 合理的인 길이라는 點.

③ 戰後國際政治의 趨勢가 政治理念的인 定向에서 實利追求的인 定向으로 기울어졌다는 點과 兩極體制的 構造에서 多極體制的 構造로 變移해가고 있다는 點.

④ 한편 이와같은 國際政治의 性格的 變化는 國際環境의 安定化를 結果할 可能性이 커서 韓國의 立場으로서는 歡迎할 일이며 이에 適應할 뿐 아니라 이와같은 變化를 우리가 願하는 方向으로 이끌 必要가 있으며 또 그렇게 이끌 수도 있다는 點.

I. 國際關係의 本質 — 國家利益의 追求

I-1 國家, 民族國家

오늘날 國際政治의 行爲者(actor)가 國家임은 말할 것도 없다. 民族主義의 攬頭에 따라 오늘날의 國家는 대부분 民族國家(nation-state)의 樣相을 띄고 있음도 周知의 事實이다.

民族國家란 各國家의 構成이 民族을 單位로 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 民族國家는 主權的(sovereign)이다. 즉 民族國家内部에서 最高의 權力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民族國家를 支配하는 外部

權력이 없다는 뜻이다. 「유엔」등 國際機構도 各國의 主權의 立場을 侵害하는 것이다. 즉 各國이 自進合意하지 않을 때는 이를 強制할 法的 權威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法的인 또는 當爲的인 立場에서 관찰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實際에 있어서 한 나라의 主權이 侵害되고 심지어는 박탈되는 例가 많은 것도 事實이다. 한 國家內에서 어떤 個人이나 集團의 權益이 不法的으로 侵害받았을 때는 法的인 措置가 可能하다. 그러나 國際間에 主權의 侵害가 있었을 때 侵害國을 強制로 處罰할 方法이 없다. 勿論 「유엔」등이 있어서 集團的인 응징조치를 기도할 수 있지만 「유엔」도 法에 따라 움직인다기 보다는 各國의 實利的 打算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더욱 正確할 것이다. 또 이와같은 集團的인 응징도 이에 賛同하는 勢力이 反對하는 勢力보다 힘이 優越한 때만 實効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힘이 正義다」라는 말이 國際政治에서는 아직도 妥當한 表現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널리 認識된 事實이다. 그래서 「유엔」을 더욱 強化해서 하나의 世界政府的인 形態로 昇格시키자는 움직임도 있고 또 「유엔」과는 別途로 世界政府를 구상하는 學者나 政治家들이 있다.

世界政府란 잘만 構成되면 바람직스럽고 또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의 解決을 보다 容易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核戰爭에 의한 人類滅亡의 予防, 에너지 資源의 合理的 開發과 需給, 航空機事故事件등의 規制, 環境汚染防止등 世界的인 次元에서 다루어야 할 問題의 解決이 적당한 世界政府의 構成으로 그만큼 容易해질 것을 豫想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스러우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人間事이요 國際政治의 現實이다.

따라서 各民族國家를 單位로 形成되고 國際關係에서 各國의 立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自國의 國力을 強化하는 일과 되도록 많은 友邦을 確保하는 일이다. 자기의 힘과 좋은 벗이 없으면 서글프고 외롭고 또 멸시를 받게 마련인 것이 오늘날 國際政治의 現實이다.

위와같은 本質의 內容을 다루면서 強調해야 할 것은 방금 말한 國力培養과 友邦確保의 必要性이다. 또한 友邦確保에 있어서도 自國의 國力이 중요한 資源이 된다는 것은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의 힘이 없으면 友邦이 있어도 友邦에 被動的으로 이끌려서 主體性을 살릴길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I-2 國家利益, 國家目標

國家利益은 보는 角度에 따라 또 價値定向에 따라 여러가지로 定義되거나 設定될 수 있을 것이다. 宗教的인 定向을 가진 個人이나 國家는 國家利益을 定義함에 있어서 宗教的인 것을 크게 강조할 수 있다. 西洋史에서 있는 宗教戰爭이 完全한 의미에서 宗教戰爭은 아니었다 해도 종교적인 고려가 중요한 動機가 되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또 政治理念的인 價値定向을 강하게 가진 個人이나 國家는 國家利益을 定義함에 있어서 政治理念的인 考慮에 크게 영향받을 수 있을 것이다. 二次大戰以後 形成되었던 冷戰時代에 美國과 소련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이 自國의 利益을 理念的인 觀點에서 보는 경향이 짙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의, 領土擴張, 經濟的 利益, 文化的 向上 등 國家利益을 定義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要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무튼 各國은 제나름대로 自國의 國家利益을 定義하고 이를 增進하는 한 方法으로 國際政治에 參與하고 있다는 事實은 否認 못할 것이다.

이와같은 國家利益의 增進을 위해서 設定되는 것이 國家目標(또는 國際的인 側面에서는 外交目標)이다. 國家目標가 具體的으로는 여러가지 形態를 띠 수 있지만 共通的인 基本要素를 논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아마 무엇보다 가장 一次的인 目標은 各國의 體制維持와 強化일 것이다. 이것이 곧 安保요, 安保는 國力の 培養과 國際的 同調의 確保로 이루어진다. 즉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友邦을 많이 갖출수록 敵國을 적게하면 安保強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튼 安保문제가 어느정도 解決되는 것이 다른 國家目標를 追求할 수 있는 前提條件이 됨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로는 經濟的利益的의 增大를 들 수 있을 것이다. 經濟利益的의 追求는 그것이 自國國民의 豊요한 生活를 可能케 하고 또 國力 培養의 基盤을 조성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特히 70年代에 들어와서 世界各國은 政治理念的인 定向에서 實利追求的인 定向으로 바뀌가면서 經濟利益的의 追求에 보다 큰 重要性을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세째로는 政治的영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영향력과 安保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정치적 영

향력은 經濟的 영향力을 土台로 한다는 것도 常識的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政治的 영향력의 增大가 安保의 強化 그리고 經濟利益의 增進을 위한 길이 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베케로는 文化向上을 들 수 있을 것이다. 人間이 追求하는 價値는 經濟的인 것도 있지만 文化的 또는 精神的인 것도 많다.

各國은 自國의 文化를 豊富케 하는 同時에 自國의 文化가 他國에 影響을 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領土的 帝國主義와 經濟的 帝國主義外에 文化的 帝國主義를 보게 되는 것이다. 勿論 文化的 價値의 追求는 安保문제와 經濟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後 소위 「余裕가 있을 때」 고려되는 것은 事實이지만 文化向上이 人間の 基本慾求라면 이것이 중요한 國家目標가 되는 것은 至極히 當然한 것이다.

이외에도 前述한 바와 같이 國家目標의 設定에 있어서 宗教的인 고려가 或은 政治理念的인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고려가 共通性을 띠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같은 內容을 다루면서 本項에서 強調할 점은 國際關係란 各國의 利益追求의 相互作用에서 이루어진다는 事實이다. 그래서 어느나라의 國際的인 行爲도 하나의 慈善的인 樣相을 取할 수 있지만 그 實際動機는 自國利益의 追求라는 점을 分明히 해야 할 것이다. 經濟援助나 軍事援助가 利益追求의 動機에서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人道主義的인 救濟의 提供(医薬品, 衣類, 食糧 등의 提供)에 있어서까지도 利益追求的인 고려를 完全히 排除할 수는 없다.

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國際關係는 國家를 行動單位로 하고 있으며 國家의 決定은 個人과는 달리 기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 것이 現實的일 것이기 때문이다.

I-3 各國利益의 調和와 葛藤

國際政治에서 各國이 利益追求하는 過程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當然한 일이다. 이와같은 갈등은 平和的으로 解決되는 수도 있지만 武力的 衝突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國際社會에도 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國際法을 強制로 執行할 機構가 없기 때문에 當事國들의 自制가 欠如될 때 無法狀態가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各國이 利益을 追求함에 있어서 帝國主義性을 띠면 國際的인 갈등은 深刻해지고 武力衝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領土는 制限되어 있는데 2個國以上이 같은 領土에 野慾을 가지고 있을 때, 市場은 制限되어 있는데 2個國以上이 같은 市場을 占領하려고 할 때 利益의 相衝은 不可避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利害가 相反된다고 해서 반드시 對決이나 衝突로 國際關係가 發展해야 한다는 法은 없다. 對決이나 衝突이 반드시 가장 効果的인 利益追求의 手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個人間에서와 마찬가지로 國家間에도 利益葛藤의 平和的解決이 모든 當事國에게 가장 有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衝突에서 勝算이 없는 當事國은 衝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當事國이 다 勝算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勝算이 있다해도 代價(物質的, 人命的 消모등)가 衝突에서 얻을 수

있는 利益보다 더 클 때는 衝突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多幸히 오늘날 一般的인 趨勢는 「힘에 의한 對決」보다 「協商에 의한 平和的 解決」로 기울어지는 것 같다. 또한 各國의 利益間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調和가 있을 수 있다. 개미와 진디기의 共生에서와 같이 두개 以上の 國家間의 利益이 合致될 수도 있고 또 相互有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相互無害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좁아져 가는 世界속에서 各國은 利益追求에 있어서 對決보다는 協調를 志向해야 할 것이며 또한 國家利益이나 目標의 設定에 있어서 편협한 民族的 排他性이나 帝國主義性을 止揚하고 國際主義的인 立場을 取하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 될 것이다.

以上과 같은 內容을 다루면서 強調할 것은 國家利益을 圖謀하는 것은 當然하지만 그와같은 國家利益을 될수록 他國利益과 相衡되지 않는데서 찾으려고 하는것이 合理的이며 또한 利益의 갈등은 될수록 平和的 方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國際社會全體를 위해서 뿐 아니라 長期的으로 自國利益도 增進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點이다 「나치」獨逸이나 軍國主義日本의 例를 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 戰後國際關係의 變化와 새 國際秩序

戰後에 形成되었던 冷戰體制가 60年代를 거쳐 70年代에 들어서면서 重要的 性格의 變化를 보였다. 이와같은 變化를 여러가지 角度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 중 가장 重要的 側面이 價値定向에서의 변화와 構造的 變化가 아닌가 생각한다. 價値定向面에서는 冷戰時代를 支配했던 政治理念的 政向이 後退하고 實利追求的 定向이 支配的 理念으로 나타났으

며 國際政治의 構造面에서는 從前의 所謂 兩極體制에서 多極體制로 變移하게 되었다. 이 項에서는 먼저 理念的 定向에서 實利的 定向에로의 變化를 說明하고 그 意味를 음미하고자 한다.

二次大戰後 世界는 美國을 위시한 自由陣營과 소련을 中心한 共產陣營으로 나누어져 소위 冷戰時代로 접어 들었다. 美國의 立場에서는 共產主義의 威脅을 가장 중요한 국제적 문제로 생각했으며 소련의 立場에서는 소위 美帝國主義를 가장 중요한 外的 威脅으로 보았다. 그리고 實際적으로 自由勢力과 共產勢力과의 政治的 對決 또는 軍事的 衝突이 여러곳에서 일어났다. 二次大戰直後의 「회랍」內戰, 1950年代初期의 韓國戰 등은 그중 중요한 例이다.

또 「유엔」이나 伯林에서도 여러번 對立을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은 自由對 共產陣營의 對立, 또는 美國對 소련의 對立은 무엇보다도 政治理念的 差異에 起因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勿論 非理念的動機가 介在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相對的인 觀點에서 볼 때 理念的 考慮가 극도의 重要性을 띠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時代에는 敵과 友邦의 분간은 理念的 同質과異質性에 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의 獨立路線採擇이 이 時期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例外的 現象에 불과했다. 그러나 50年代末을 거쳐 60年代에 들어서면서 共產陣營自體의 分裂 또는 多元化가 나타났다. 가장 代表的인 表現이 中, 소粉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自由對 共產陣營의 對立이 심할 때도 自由陣營은 共產陣營처럼 高度의 理念的 同質性和 結束力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1950년에 自由陣營內에서의 美國의 發言權은 아주 높아서 「獨走」라는 말이 상당히 適切한 表現으로 간주될 수있었다. 그러던 것이 共產陣營의 多元化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自由陣營內에서의 美國의 發言權도 차차 弱化되기 始作해다. 于先 西歐諸國과 日本의 對美依存도가 그만큼 減少되었고 美國 스스로도 「世界의 民主化」 또는 「美國民主主義를 위해 보다 安全한 世界의 건설」이란 극히 理念的인 外交目標의 限界性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考慮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 第3勢力圈에 屬하는 國家들, 특히 新生亞阿國들이 대거 國際舞台에 進出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하나의 變化는 美·소 두개의 超強大國들간에 核武器의 停頓狀態가 나타난 것이다. 科學技術의 發達로 兩超強大國이 共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되어 軍事的 對決에서 期待할 수 있는 惠澤보다 支拂해야 할 代價가 훨씬 더 커지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平和共存이 하나의 宣傳에서 벗어나 國際社會의 現實로 나타났으며 國際的 競爭이나 對立의 線이 理念을 基準으로 정연하게 그을 수 없는 복잡한 樣相을 보이게 된 것이다. 또 國際的 協力도 政治理念의 線을 超越하게 되었다. 즉 兩極體制가 무너지고 대신 多極體制가 形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정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政治理念이 國際政治에 있어서 하나의 動因으로서 완전히 그 重要性을 상실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重要性이 상당히 減少되었다는 뜻이다. 代身 實利追求가 보다 중요한 國際政治의 動因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래서 理念的 對決로 조성되었던 國際긴장은 많이 완화된 反面 國際間에 經濟競爭이

과거보다 훨씬 치열하게 된 것이다.

위와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이項에서 強調할 것은 한국도 이와같은 國際政治의 趨勢에 적응해야 하며 近年에 와서 우리정부가 採擇한 對共產圈門戶開放政策은 이와같은 適應의 表現으로서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態度라는 점이다. 또 70년의 8.15宣言, 71年の 南北赤十字會談開催提案, 72年の 7.4 共同聲明, 그리고 73年の 6.23 特別宣言은 國際趨勢에 適應하면서 南北問題를 平和的으로 해결하려는 한국政府의 現實的인 姿勢의 表現이라는 점도 강조할 만하다.

그렇다고 外的環境의 變化에 適應만 하는 것은 主體性을 欠如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國家目標을 確立해 놓은 다음 이 目標과 國際情勢간에 適切한 調和를 模索해가면서 外交政策을 開發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自主外交의 眞인 것이다.

第 2 章 世界속의 韓國

〈 章 前 文 〉

序說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第2章에서는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韓國의 位置가 어떤 것인가를 認識시키는데 그 目標가 있다. 이런 目標를 숨더 具體的으로는 다음과 같이 敘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韓國은 歷史的으로 國際環境에 影響을 많이 받았으며 먼 過去에도 그러하였거니와 特히 가까운 과거와 現在에 와서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둘째, 따라서 韓國은 國家의 發展을 위하여 國際環境에 機敏하게 適應하면서 機會를 最大限 開發 活用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셋째, 韓國이 追求하는 國家目標 乃至 外交目標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이의 正當性을 확신케 한다.

넷째, 韓國外交의 現況을 把握케 하여 이의 成就를 위해서 能動的으로 參與케 한다.

위와같은 教育目標를 達成키 위하여 本章에서 다루어야 할 教育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歷史的으로 國際環境이 韓國史에 미친 影響을 살핀다.

둘째, 地政學的으로 國際政治構造的으로 韓國의 位置를 고찰한다.

셋째, 韓國이 追求하는 國家目標와 外交目標를 살핀다.

넷째, 韓國이 追求하는 外交目標의 正當性을 따진다.

다섯째, 韓國外交의 現況을 살핀다.

여섯째, 韓國外交의 當面課題를 따진다.

以上과 같은 內容과 組織을 通하여 本章에서 強調해야 할 點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은 國際環境에 대한 機敏한 對處없이 國家發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點

② 國際環境에 대한 合理的인 對處란 適應과 主体性的 적당한 配合(調和)에서 이루어진다는 點

③ 한국外交의 目標은 특히 1970年 8.15宣言, 71年의 南北赤十字會談開催提議, 非敵性共產國家에 대한 門戶 開放政策, 72年의 7.4 共同聲明, 73年의 6.23 特別宣言등 一連의 政策調整에서 國際環境에 대한 適應과 主体的 立場에서의 目標追求가 잘 調和되었다는 點

④ 韓國의 外交目標가 國際的인 正當性을 띠고 있어서 外國의 同調를 많이 받고 있다는 點

⑤ 그러나 韓半島平和를 維持하고 祖國統一을 成就하며 國家의 諸般發展을 위하여 韓國外交가 成就해야 할 當面課題가 많다는 點

⑥ 따라서 國民이 國家外交目標를 理解하고 外交課題를 인식하여 國家外交 政策遂行에 能動的으로 參與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點

I. 國際社會와 韓國

韓國은 外勢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地政學的으로 韓國은 中國 소련, 日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三角關係의 한가운데 位置하고 있어서 國際勢力政治의 바람을 심하게 받게 되어 있다. 最近에 와서 科學技術의 發達로 距離가 征服되자 既存의 三角關係에 美國이 追加하게 되어 있어서 韓國의 世界 4大強國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國家의 外交的 策略이 있을 때마다 韓國은 그 影響을 느

끼게 되어 있다.

그래서 韓半島문제 특히 南北關係는 南北韓만의 關心事로 머무르지 않고 強大國간의 勢力政治에 크게 관련되게 된 것이다.

歴史的으로 살펴 볼 때 한국이 外侵을 받은 때도 한두번이 아니다. 13世紀에 있었던 몽고침략, 16世紀의 壬辰倭亂, 17世紀의 丙子胡亂이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近代에 와서도 19世紀末의 淸日戰爭이 韓國이 主争點이 되어 일어났고 20世紀初의 露日戰爭에서도 한국이 그 争點의 하나였다. 外勢의 영향을 가장 혹독하게 받았던 것은 日本의 強制合併과 36年間の 植民統治이다. 二次大戰에서 日本이 敗亡하고 韓國이 解放된 것도 國內的 要因보다 國外的 要因의 作用에 起因했다고 봐야되며 南北分斷도 外的 要因(특히 美·소의 勢力다툼)에 더 起因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6.25 共產南侵의 擊退도 美國을 위시한 自由國家들이 유엔旗 밑에서 한국을 도우지 않았으면 不可能했을 것이며 그 後의 韓國安保도 友邦 특히 美國의 힘입은 바가 크다.

第IV節에서 論하겠지만 南北平和統一의 成就로 國際社會와의 有機的인 關係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經濟成長을 통한 國力培養도 國際社會에서 孤立되어서는 成就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韓國이 國際環境에 대해서 完全히 被動的인 姿勢를 취해야 된다는 말은 결코아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目標」로 成就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目標」로 成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國際社會는 한국보다 크고 또 한국은 強大國도 아닌 制限된 영향力의 所有國인 만치 國際環境에 적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適應도 스스로의 目的을 잃은 즉 主体性없는 적응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主體性있는 適應 스스로의 目的을 堅持하면서의 適應,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亞.러기 위하여서는 國際環境을 예리하게 分析하여 變化에 민첩하게 對應하면서 한국의 國家目標의 達成을 위한 機會를 最大限으로 開發하고 活用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비유를 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훌륭한 柔道선수처럼 스스로의 目的을 위해서 自身과 友邦의 힘은 勿論 競爭의 立場에 있는 國家의 힘까지 利用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國際社會에서 同調勢力을 最大限으로 確保할 뿐 아니라 競爭 혹은 對立關係에 있는 國家들의 強弱點을 잘 把握하면 비록 스스로의 絶對的 힘은 制限되어 있다해도 반드시 絶望的인 것은 아닌 것이다.

以上과 같은 內容을 다루면서 강조할 것은 첫째 한국은 國際環境의 影響을 많이 받게되어 있음으로 國際環境의 變移에 機敏해야 한다는 點과 둘째 우리스스로가 機敏하지 못할 때는 국제환경의 影響이 한국에 否定的이겠지만 우리만 機敏하면 국제환경의 影響이 우리에게 肯定的으로 되도록 할 수 있다는 點과 세계 따라서 우리가 取해야할 姿勢는 국제환경에의 기민한 適應과 國際環境의 主體的인 操縱을 잘 調和하는 일이라는 點이다.

Ⅱ 韓國의 外交目標

外交目標는 國家가 當面하고 있는 課題를 成就하기 위하여 要求되는 外交의 支援를 提供하는데서 찾아야 할 줄 안다. 이와같은 視點에서 살펴 볼때 다음의 三大外交 目標가 導出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國家安保의 維持, 強化를 위하여 要求되는 外交的 支援의 提供

둘째, 祖國近代化의 早速한 成就를 위하여 要求되는 外交的 支援의 提供

셋째, 南北統一의 成就를 위한 國際的 同調와 協力の 確保와 動員

이 外에도 여러가지 外交目標을 들 수 있겠지만 위의 세가지가 가장 重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위의 目標가 다 우리 스스로가 잘 살려고 하는데 관계되는 것이며 他國家의 權益侵害가 全然 介在되지 않는다는 點이다. 즉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의 바탕위에서 우리의 發展을 圖謀하는 것이며 利己害他的인 姿勢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위에 列挙한 3大目標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國家安保의 維持와 強化를 위하여 要求되는 外交的 努力이란 ① 友邦의 確保, ② 軍事援助(武器 및 技術)의 確保, ③ 유엔軍 駐屯등으로 具體化 된다.

國家安保를 위해서 될수록 友邦을 많이 確保하는 것이, 특히 軍事的 同盟國을 增大시키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은 긴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友邦 乃至 同盟國의 確保는 變務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多務的으로 集團的 同盟體制에 加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國家安保를 國際的인 次元에서 살펴 볼 때 威脅의 源泉을 積極的으로 除去(쉽게 말해서 敵國의 無力化)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고 外的 威脅에 대해서 消極的으로 自體의 防衛

態勢를 強化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韓國은 後者, 즉 防衛的인 方法에 置重하고 있다는 事實을 強調할만할 것이다. 韓國國家安보에 대해서 가장 큰 威脅의 源泉이 되고 있는 北韓에 대해서도 한국의 立場은 어디까지나 防衛的이다. 國內的으로 武力 北進統一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韓美防衛條約 締結에서도 防衛的인 姿勢가 明確히 나타난다. 또한 韓國의 軍事政略도 防衛的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點을 비추어 보아서 한국이 平和統一을 主張하는 것이 單純한 宣傳이 아니고 韓國의 基本安보姿勢와 一貫하고 있음이 分明해진다.

둘째의 外交目標인 祖國近代化를 위한 外交努力이 어떻게 具體化되어야 한다는 것을 判斷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近代化를 위해서 國外的으로 얻어야 할 것은 近代化 推進에 도움이 되는 ①知識, ②物質的 資源, ③技術일 것이다. 그리고 國家經濟力量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하여서 ④國產品에 對한 海外市場의 開拓이 要求된다.

近代化의 成功的인 推進을 위해서 科學技術, 産業, 市場 등에 對한 知識과 情報을 海外에서 들여오는 것은 아주 有用한 일일것은 말할 나위 없다. 또 國內的으로 動員할 수 있는 物質的 資源, 즉 資本, 施設材, 原資材 등이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無償援助나 차관의 形式으로 外國으로 부터 物質的 資源을 導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論理에서 특히 새로운 項目을 始作할때 外國의 技術者(知識뿐 아니라)를 招致하는 것도 아주 合理的인 일 것이다. 그리고 外換을 얻어 보다 많은 外國資源을 導入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生産하는 物品이나 原資材를 팔 수 있는 海外市場의 開拓이 決定的인 重要성을 띠는

말할 것도 없다.

이와같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한국은 소위 「經濟外交」를 펴오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必要的인 것이 위에 말한 「安保外交」 및 「經濟外交」와 더불어 「統一外交」인 것이다.

本章 第IV節에서 더욱 具體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統一外交의 課題는 ① 南北間 緊張緩和를 통한 戰爭 可能性 減少, ② 韓國이 主唱하는 統一政策의 妥當性 說得, ③ 平和 統一을 위한 國際的 協調의 獲得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南北緊張緩和는 南北間의 直接的인 對話와 合意로도 어느정도 成就될 수 있지만 韓半島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國家들, 특히 美, 日, 中 소의 四大強國의 役割에 크게 도움 받을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主唱하는 統一政策(段階的 接近, 平和的 方法, 當分間 國際活動에 同時參與등)이 보다 妥當하다는 것을 海外에 說得하는 것은 거의 全적으로 外交的 課題일 것이다. 그리고 平和統一을 위해서 南北韓間의 合意와 努力뿐 아니라 國際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認定한다면 이와같은 國際的 支持의 獲得 또한 중요한 外交的 課題임은 말할 것도 없다.

以上과 같이 韓國外交目標를 ① 安保의 強化, ② 近代化의 促進, ③ 統一의 促進으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같은 內容을 다룰 때 특히 留意할 것은 이와같은 目標가 한국의 立場에서만 妥當性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國際社會의 共同目標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의 觀點에서도 妥當性을 지닌다는 點이다. 그래서 共產國家를 除外한 大多數의 國家에서 韓國外交 目標의 妥當性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Ⅲ. 6.23 宣言의 趣旨

한국外交의 一般目標를 다룬다음 朴大統領의 6.23 特別宣言의 趣旨를 說明하는 것이 有餘한 것이니, 먼저 6.23 宣言에 밝힌 7 個項의 政策內容을 아래에 적는다.

- 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우리 民族의 至上課業이다.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위하여 모든 努力을 계속 傾注한다.
- ②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干涉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는다.
- ③ 우리는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한 南北對話의 成果를 위하여 誠實과 忍耐로써 계속 努力한다.
- ④ 우리는 緊張緩和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國際機構에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 ⑤ 國際聯合의 多數 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는 國際聯合加入前이라도 大韓民國 代表가 參席하는 國聯總會에서는 「韓國問題」 討議에 北韓側이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 ⑥ 大韓民國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다.
- ⑦ 大韓民國의 對外政策은 平和善隣에 그 基本을 두고 있으며 友邦들과의 既存 紐帶關係는 이를 더욱 鞏固히 해 나갈 것임을 再闡明한다.

위와같은 7個項을 담은 朴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관한 特別宣言의 趣旨를 項別로 살펴보고자 한다.

1項에서는 平和統一을 우리民族의 至上課業으로 못박았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것은 武力統一이 아닌 「平和的 統一」을 강조했다는 点이다.

2項에서는 統一이 되는 날까지 南北韓間에 지켜져야 할 關係의 原則을 闡明했다. 이것을 ① 平和, ②相互內政不干涉, ③相互不侵으로 要約할 수 있는 것으로 平和統一을 志向하는 立場에서 至極히 當然한 原則들이며 現今 國際趨勢와도 잘 付合되어 世界輿論의 支持를 받는 것은 事必歸正이라 하겠다.

3項에서 統一의 原則을 담은 7.4 南北共同聲明을 再確認했으며 統一을 위한 努力에서 취해야 할 姿勢로서 誠實과 忍耐를 강조했다.

統一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課題라는 点에서 誠實과 忍耐를 바탕으로 南北對話를 계속하여 착실한 成果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現實적이고 合理的인 態渡이며 「당장 統一하자」는 北韓側의 虛偽인 統一姿勢와 잘 對照가 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參考로 7.4 南北共同聲明의 平和統一 三大原則을 요약하면 ①自主統一, ②平和統一, ③民族의 大團結이 된다.

6.25特別宣言은 4項에서 緊張緩和과 國際協調라는 새 國際潮流를 支持하고 이와 같은 潮流에 副應하여 南北韓이 國際機構에 同時加入함을 受諾하였다. 國際機構에의 南北同時 參與가 分斷의 永續化를 의미하지 않느냐는 質問이 가끔 있는데 이는 事態를 잘못 判斷하는데서 오는 結論이다. 統一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統一이 될 때까지 南北間에 긴장을 완화하고 戰爭可能性을 抑制하는 것이 高度의 重要性을

원다고 할 때 南北關係의 現實化가 필요한 것이다. 즉 南北간에 相互 存在를 許容하는 것이 必要하며 이의 한 方法이 國際機構同時參與의 相互 受諾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特別宣言에서도 強調했듯이 하나의 過渡的 또는 暫定的인 措置임은 말할 것도 없고 統一이 되는날 韓國民族은 國際社會에 「單一」 또는 「統一參與」해야 함은 自明한 일이다.

5項에서는 한거름 더 나아가서 유엔에서까지 南北의 同時招請과 加入을 反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것도 4項에서와 같이 南北關係의 現實化를 圖謀하는 일이며 유엔에서 會員國들의 意思를 존중하겠다는 國際協調精神의 表明인 것이다.

6項에서 理念과 體制를 超越하여 모든 國家에 門戶를 開放할 것을 勸명하는 동시에 他國들도 互惠平等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對하여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 것도 平和共存, 긴장緩和, 國際協調를 志向하는 새 國際潮流에 잘 부합되는 일이며 平和愛護를 한국外交에 指針으로 삼고 있는 立場에서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7項에서는 友邦들과의 既存紐帶 關係를 維持, 強化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平和共存, 緊張緩和의 方向으로 흐르고 있는 國際秩序속에서도 友邦의 重要性은 如前한 것이기 때문에 當然하고 賢明한 姿勢인 것이다.

위와같은 7個項의 外交政策에 담긴 基本 趣旨가 統一의 平和的 成就에 있고 또한 互惠共存의 원칙을 友邦에게 뿐 아니라 모든 國家에 그리고 우리가 國家로 認定하지 않는 北韓에도 적용하는데 있어서 6.23宣言에 대한 國際的 反應이 圧倒적으로 肯定的이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北韓은 至極히 妥當한 韓國의 提案에 反對함으로써 外交的 窮地에 빠지고 있으며 또한 國際的 孤立을 自招하고 있다는 事實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Ⅳ. 韓國의 外交現況

韓國外交가 한때는 固着的이고 我執的이어서 때로는 守勢에 물리기도 하고 또한 友邦國들의 立場을 거북하게 한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外交路線이 韓國의 國際的地位向上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 事實이다. 그렇다고 韓國이 國際的 孤立에 빠져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固着的인 外交政策으로 機動性을 어느정도 잃고 있었으며 韓國이 얻을 수 있는 國際的 同調를 다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뿐이다.

그러다가 韓國은 1970년에 있는 朴大統領의 8.15 宣言을 하나의 轉換點으로 보다 現實的이고 國際主義的이며 柔軟性있는 對北 및 對外政策을 追求하게 되었다. 따라서 8.15 宣言에 대한 國際的 反應이 圧倒的으로 肯定的이었던 것은 當然한 일이다. 71년에 韓國은 離散家族을 찾기 위하여 人道主義的인 次元에서 南北 赤十字會談을 提案하여 世界輿論의 歡迎을 받았으며 1972년에 들어서서는 南北間의 懸案을 妥結하기 위한 韓國政府와 北韓當局間의 接觸과 對話를 主導함으로써 7.4 南北共同聲明을 發表케 했으며 이어서 南北調節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의 길을 더서 다시한번 平和共存과 國際協調를 믿는 世界多數國家의 歡迎을 받았다. 73년에 있는 6.23 特別宣言은 8.15 宣言과 7.4 南北共同聲明에 담긴 平和

統一 精神의 發展的 具現이라고 볼 수 있다는것을알서도 지적했다
싶이 이 宣言에 대한 世界輿論은 圧倒적으로 肯定的이었다.

이로써 韓国外交는 새로운 國際潮流의 交流에 들게 되었으며 韓国外交에 對한
世界諸國의 認識이 根本적으로 改善되었다. 또 한국의 合理的이고 正當한 提案을
拒否함으로써 北韓은 그들이 常套의으로 떠들던 平和攻勢가 虛偽와
欺瞞에서 나온 것임을 内外로 露呈시키는 결과를 自招하게 되었다.

이제 世界大勢는 그 어느때보다도 韓國側에 同調를 보이고 있
다.

南北對話가 시작된 以後 北韓을 승인하는 國家의 數가 늘었으며
北韓과 外交 또는 交易을 연 나라가 늘어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北韓外交의 勝利나 成功이라고 評價해서는 안될 것이
다. 여기서 考慮되어야 할 點이 적어도 셋이 있다.

첫째로 世界的 潮流가 外交關係에 있어서 普遍性의 原則을 따르고
있어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따지지 않고 될수록 모든 나라와
修交한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北韓과의 交易을 시작하거나 外
交關係를 연다고 해서 北韓에 대한 國際的 同調가 높아졌다거
나 北韓의 國際的 地位가 높아졌다고 보는것은 잘못이다.

둘째로 南北對話가 시작되기까지 北韓은 심한 國際的 孤立狀態에
빠져 있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世界諸國이 普遍外交의 原則
을 따르게 되자 自然 北韓을 승인하는 나라의 數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北韓承認國의 急增은 그전까지
北韓을 承認하지 않은 나라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 된다.

세째로 6.23 特別 宣言에서도 明白히 밝혀졌지만 韓国外交의 目
的이 北韓의 國際的 孤立을 持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北
韓이 「國際孤立의 동굴」에서 벗어나 國際潮流에 깊숙히 뛰어들

드는 것을 勸獎하는데 있다는 事實이다. 緊張緩和, 平和共存, 國際
協調라는 새로운 國際趨勢에 接함으로써 北韓이 종전의 反國際主義
와 挑戰性을 止揚하고 보다 合理的인 方向으로 政策을 轉換할 것
을 한국은 바라고 있다. 그래서 6.23 宣言의 4項과 5項에서
北韓의 國際機構參與를 反對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6.23 宣言에 나타난 가장 合理的이고 正當한 韓
國側의 提案에 反對하고 나옴으로써 또다시 世界潮流에 逆行하게
된 것이다. 對照적으로 한국은 그어느때보다도 많은 國家들로 부
터 同調와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이다. 例를 들면 兩北韓의 유엔
同時加入의 幅넓은 國際的인 支持를 받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서
北韓도 不遠間 無理한 固執을 버리고 6.23 精神을 受諾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 豫想된다. 아무튼 그때까지 韓國은 外交的으로 優
位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北韓은 劣勢 또는 守勢를 免키 어
려울 것이다.

第 3 章 國際平和와 人類共榮을 위한 韓國의 役割

〈 章 前 文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本章에서는 世界平和 특히 東北亞의 平和와 人類의 共榮을 위해서 한국이 말아야 할 役割에 대해서 自負心を 심어 주는데 그 目標을 둔다. 따라서 여기서는 韓國의 平和愛護傳統과 韓半島의 國際政治的 중요성에 비추어 韓國이 世界平和에 建設的인 貢獻을 할 수 있다는 점과 韓國이 經濟 社會 文化 藝術 科學 技術 등 諸分野에서 人類의 進歩發展에 積極的인 貢獻을 할 수 있다는 點을 부각시킨다.

國際平和를 위한 韓國의 役割에 關連하여 韓國의 平和愛護傳統을 想起시키고 韓半島平和와 國際平和와의 不可分의 關係를 指摘하여 韓半島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通하여 世界平和의 重要한 支柱役割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國際的 集團安保努力에 積極참여함으로써 韓國은 世界平和를 그만큼 더 公高히 하는데 公헌할 수 있다는 것을 納得시킨다.

人類共榮을 위한 韓國의 役割에 關連하여서는 過去에도 우리 祖上들이 여러分野에서 남을 앞선 일이 있고 특히 隣接國의 文化發達에 크게 寄與한 記錄이 있음을 想起시키고 우리民族의 슬기로움에 비추어 앞으로 人類文化의 發達과 福祉의 向上에 크게 貢獻할 수 있다는 自負心과 自信을 심어준다.

第3章에서는 특히 다음 事項을 強調했으면 좋겠다.

첫째, 韓國의 平和愛護傳統에 對한 自負心

둘째, 韓半島問題의 平和的 解決은 韓國民族을 위해서만 중요하고 소망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世界平和를 위해서도 至極히 중요하기 때문에 南北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통하여 우리民族이 世界平和建設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는 點

셋째, 韓國이 參與하고 있는 雙務的 또는 多務的 國際安保努力의 正当性을 인식시키고 이와같은 集團安保에의 參與는 한국만의 片面的 國家利益을 위한 것이 아니고 亞細亞地域 및 世界의 平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點

넷째, 歷史적으로 한국民族이 卓越한 成就를 통하여 隣接國家의 開化에 이바지한 것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文化 藝術 思想에서 뿐 아니라 科學技術과 經濟面에서도 他國을 이끌고 도와 人類의 進歩와 繁榮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는 點

또는 本章에서는 國際主義的 立場을 강조하고 「世界平和속에서 한국의 安保」를 찾고 「人類의 共榮속에서 한국의 發展」을 찾을 것을 강조하고 이와같이 國際協調精神에 立脚해서 努力할 때 한국은 스스로의 發展뿐만 아니라 새 人類史의 創造를 위해 크게 貢獻할 수 있다는 自信心을 심어주도록 留意해야 할 것이다.

I. 國際平和를 위한 韓國의 役割

한국은 傳統的으로 平和愛護國家였다. 한국사를 아무리 뒤져 보아도 먼저 武力的 挑戰을 받지 않고 外國을 侵略한 記錄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힘이 없어서 平和愛護的이 아닐래야 아

닐 수 없지 않았느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와같은 解釋은 한국사를 잘못 理解한 所致일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긴 歷史를 통하여 軍事的으로 늘 弱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7世紀 隋楊帝의 百萬大軍을 沒殺한 乙支文德의 軍隊나 그뒤 唐의 攻擧를 물리친 淵蓋蘇文의 軍隊는 隣接國家의 領土에 野心을 가질 수 있을만큼은 強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防衛的인 目的에만 充實했다. 아무튼 한국의 平和愛護傳統은 거의 티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하는데 異議가 없을 것이다. 平和만이 人類殘存의 길이 된 오늘날에 와서 이와같은 平和愛護의 傳統은 헤아릴 수 없이 貴重한 精神的 資產인 것이다.

이와같은 平和愛護傳統은 南北이 갈라진 後 韓國이 보다 正統的으로 繼承했다. 北韓은 他民族도 아닌 同一民族을 向해 侵略의 犯罪를 저질음으로써 民族傳統의 正統的後繼者로서의 資格을 喪失한 것이다.

韓國은 우리民族의 平和愛護傳統에 無限한 矜持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貴重한 精神的 資產을 밑바탕으로 한국은 世界平和建設의 先鋒的 役割을 할 수 있을 줄 안다.

더욱이 한국은 오늘날 排他的 國家利益追求가 支配하는 旧國際秩序의 象徴이라고도 할 수 있는 祖國分斷의 悲劇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分斷問題의 平和的 解決은 韓國民族에게만 소망스러운 것

이 아니라 보다 永久한 平和를 建設해야 되는 人類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平和와 協調를 土臺로 하는 새 國際秩序의 確立은 韓半島問題의 平和的 解決에서 出發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줄 안다. 또 이와 같은 人類史的 難題의 解決은 오랜 平和傳統을 精神的 民族遺産으로 삼고 있는 韓國民族에 의해서만 可能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注目하여야 할 것은 DMZ를 사이에 둔 南北分斷에는 韓國과 北韓만의 利害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나라 특히 世界 四大強國인 美國 日本 中國 소련의 利害가 깊이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韓國分斷의 平和的 解決은 우리의 民族的 課題를 벗어나서 하나의 世界史的 課題인 것이다.

2次大戰後 지금까지 四半世紀가 넘는 期間동안 韓半島는 國際勢力政治에 있어서 緊張의 한 中心地였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를 平和的으로 妥結함으로써 韓半島는 世界平和의 메카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南北關係의 平和的 解決을 통한 祖國統一의 成就是 첫째,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면서도 보다 創造的인 目的을 위해서 뭉칠 수 있다는 國際政治의 새 次元을 보여주는 意義가 있고 둘째로, 國際政治가 排他的 利益追求로 因해 對立을 持續해오던 것을 止揚하고 平和共存과 國際協調의 새秩序로 昇華해가는 길을 연다는 意義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平和統一이란 課業에 임하는 우리는 우리 民族史的 悲劇

에 終止符를 찍고 榮光스러운 새 民族史의 章을 연다는 것 뿐 아니라 갈등과 衝突을 일삼던 過去의 非生産的 人類史에 종지부를 찍고 平和와 協調의 새 人類史의 章을 연다는 自負心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위의 內容陳述에서 이미 이 節에서 무엇을 強調해야 할지 充分히 밝혀진 줄 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할 것은 우리는 우리問題도 제대로 解決 못하는 民族이기 때문에 世界나 人類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주재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小民族的 態度를 脱皮하고 우리는 우리民族의 문제뿐 아니라 世界史的 難題까지도 해결하는데 크게 貢獻할 수 있다는 積極的 民族自我觀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Ⅱ. 人類共榮을 위한 韓國의 役割

韓民族이 人類文化를 向上시키고 人類生活을 豊富케 만드는데 크게 貢獻할 수 있다는 自信感을 가지는 것이 결코 妄想이 아니라 는 것은 우리民族의 歷史的 成就를 吟味해보면 쉽게 納得이 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民族이 歷史的으로 이룩한 빛나는 業績을 — 이 들 수는 없으며 다만 記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몇개의 代表的인 成就만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新羅時代의 仏敎敎理의 發展, 藝術文化의 아름다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계속 出土되는 그때의 遺物만 봐도 우리

民族이 이미 10 數世紀以前부터 남을 능가하는 文化를 創造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高麗時代에도 靑磁의 開發과 金屬活字의 發明이 있었다. 高麗靑磁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금도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1234 年에 있는 金屬活字의 發明은 獨逸의 구텐베그보다 200 余年을 앞서고 있었던 사실을 想起해야 할 것이다.

李朝에 와서 한글의 發明, 李朝에 依한 性理學의 發展, 李舜臣將軍에 의한 거북선의 發明등은 모두 世界的으로 자랑할만한 業績인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의 歷史에서 자랑할만한 業績은 여러가지 찾을 수 있을 줄 안다.

勿論 우리 歷史에 부끄러운 瞬間들이나 記錄이 있지만 그렇다고 否定的인 民族史觀을 가져야할 程度는 아니다. 한국史를 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觀點은 우리民族의 成就潛在力이 아주 크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點이다.

한국民族의 成就潛在力은 오늘의 韓國人을 보아도 알 수 있다. 現代學問的인 觀點에서 볼 때 그 基礎이 아주 弱하기 짝이 없었던 解放直後가 이제 不過 1 世代以內의 일인데 지금은 거의 모든 學問分野에서 한국은 國際水準에 올라선 것이다.

이것은 國際的 學術會議에 가보면 뚜렷이 나타나는 現象이다. 藝術分野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音樂分野에서 鄭京和, 韓東一, 全永旭 등 世界的으로 認定받는

演奏家가 나왔으며 尹伊桑등 國際的인 作曲家가 나온 것이다.

美國이나 西歐諸國에 가서 外國留學生들의 成就를 比較해볼 때 한국 留學生들이 全般的으로 가장 優秀하다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弱한 經濟的 基盤에서 오늘날 한국과 같이 高速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해가는 나라가 드물다. 또 政府의 科學技術 振興政策에 힘입어 이 分野에서는 멀지 않아 先進隊列에 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 民族의 優秀性を 보여 주는 일들이며 發展의 潛在力이 比較的 크다는 것을 立証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必要한 것은 「우리도 남을 따라갈 수 있다」는 消極的 自信을 벗어나 「우리가 남보다 앞설 수 있다」는 積極的인 民族的 自信感이다.

이와같은 自信感이 생길 때 커다란 創造力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文化, 藝術, 科學, 技術, 學問, 社會, 政治, 經濟등 諸 分野에서 人類發展과 繁榮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成就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強調할 것은 첫째, 우리民族이 優秀하다는 點 둘째, 따라서 偉大한 民族이 될 수 있다는 自信感을 가져야 한다는 點 셋째, 우리民族의 優秀성에 自信感이 添加될 때 거기서 民族의 創造力이 솟아 오르며 人類의 發展과 번영에 뛰어나게 이바지할 수 있는 成就가 가능하다는 點이다.

第 4 章 國際社會와 南北關係

〈 章 前 文 〉

本部 序說에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 本章에서 意圖하는 바는 南北關係를 國際政治의 테두리에 넣어서 살펴 봄으로써 南北關係가 單純히 韓國民族만의 關心事가 아니고 強大國들의 利害關係가 얽혀 있어 韓半島問題의 解決은 國際社會의 勢力構造自体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고 東南亞뿐 아니라 全体國際社會의 安定에 關係가 있기 때문에 南北關係의 改善과 統一의 成就是 무엇보다도 우리 民族의 自主的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國際社會와의 有機的 關係 속에서 이 問題가 接近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事實을 認識시키는 것이다.

南北關係는 單純히 韓國民族만의 關心事가 아니고 強大國들의 利害關係가 얽혀 있고 韓半島問題의 解決은 國際社會의 勢力構造自体에 중대한 影響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南北關係의 改善과 統一의 成就是 어디까지나 우리 民族의 自主的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國際社會와 南北關係의 國際的 背景을 다루어서 먼저 南北分斷 그 自体가 國際努力政治의 所産이었다는 點과 南北關係에 적어도 美, 日, 中, 蘇 四大強國의 利害가 깊이 關連되어 있다는 點을 부각시키고 따라서 南北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國際的 協調 특히 四大強國의 理解와 協調가 重要하다는 것을 論한다.

다음으로는 南北關係의 改善과 統一의 成就是을 위하여 어떠한 國際協調가 要請되는 가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南北問題의 解決을 위해서 遂行되어야 할 外交的 課題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方法으로 推進되어야 할지를 다룬다.

이와같은 內容을 다루는 第4章에서는 다음과 같은 強調點을 든다.

첫째, 南北問題는 韓國民族의 自主的인 努力과 韓國의 主導的 努力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그러나 分斷이 國際勢力政治의 所産이었던 것만치 南北關係의 推移에 強大國들의 利害關係가 깊이 얽혀있다는 점.

셋째, 따라서 南北關係의 改善과 祖國統一의 成就를 위한 韓國民族의 自主的 努力에 國際協調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넷째, 이번 大統領의 6.23 特別宣言은 南北問題의 해결을 國際協調精神속에서 模索하자는 것으로 가장 合理的이고 正當한 政策方向의 提示라는 點

다섯째, 이와같은 國際協調의 確保를 위하여는 外交資源의 開發과 外交體制의 合理化, 그리고 外交努力의 能率化가 切實히 要望된다는 點.

要는 本章을 通하여 南北關係나 統一問題를 다룸에 있어서 國際環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確實하게 認識시켜야 할 것이다.

I . 南北關係의 國際的 背景

南北關係는 始初부터 國際勢力政治의 背景이 있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가 없는지 모른다.

38線의 設定이 美, 소의 合意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後에 北韓을 뒷받침하는 소련과 한국을 支援한 미국이 없었던 등 內亂이나 그의 어떤 다른 過程을 겪었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統一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南北分斷이 韓民族만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美国과 소련의 立場에서는 「自己네들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 南韓에 大韓民國政府를 樹立한 것이나 北韓에 共產政權이 서게 된 것도 상당한 程度 美, 소勢力競爭의 作用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25 動亂 또한 國際的 背景을 고려하지 않고는 바로 이해할 수 없다. 北韓이 소련의 軍事的 支援과 指令 또는 宗용下에 南侵을 감행한 것은 確証된 歷史的 事實이며 韓國이 共產侵略軍을 擧退한 것도 유엔軍과 美軍의 支援下에서 可能했다. 더구나 6.25 動亂에 中共이 加担함으로써 南北關係의 國際性은 더욱 깊게 되었던 것이다. 6.25의 潛定的 解決로 나타난 休戰 또한 北韓側과 中共側과 對座하여 유엔軍이 署名함으로써 하나의 國際的 協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미 오래동안 韓國문제에 介入되어온 美国, 소련, 中共外에 日本의 對韓關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韓半島의 事態發展이 日本의 安保에 중요한 直接的 影響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常識的인 일이다. 더구나 韓日國交正常化以後 日本의 對韓經濟進出에 비추어서 韓半島문제에 대한 그들의 關心은 더욱 깊게 된 것이다.

美, 소, 中, 日의 四大強國만이 韓國에 利害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나라에 比해서 이들 四大強國의 利害가 더욱 깊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南北문제는 단순한 韓半島內에서의 南北問題라는 性格을 벗어나 국제적 문제가 되고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를 둘로 자른 軍事分界線은 우리民族과 國土를 가르는 線이 될 뿐 아니라 國際勢力政治의 交叉線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같은 背景때문에 美國과 소련이, 美國과 中共이, 美國과 日本이 日本과 中共이, 그리고 日本과 소련이 마주 앉을 때 거의 例外없이 韓國問題가 議論되는 것이다.

美國은 韓國의 自由와 民主主義守護, 그리고 經濟發展을 위해서 人的으로 物的으로 莫大한 投資를 했다. 또한 對소, 對中共戰略을 위해서도 韓國의 共產化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즉 韓半島全部가 안되면 그半 즉 大韓民國만이라도 그들의 友邦으로 維持하고 支援하는 것이 美國으로서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韓美防衛條約, 美軍의 駐韓, 그리고 對韓軍事援助를 持續하고 있는 것이다. 政治軍事的인 중요성外에 美國의 經濟的 파트너 (economic Partner) 로서도 韓國의 중요성이 益增하고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中共의 立場에서 첫째, 北韓에 共產政權이 維持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도 소련보다 中共에 기우는 共產政權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소련의 立場도 中共의 立場과 비슷하여 北韓에 共產政權이, 가능하면 親蘇的인 共產政權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日本의 立場에서는 自體의 安全을 위해서도 南韓에 民主體制가 維持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韓半島全體의 共產化는 日本에게 심각한 安保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日本은 韓國에 投資한 그들의 經濟的 利益의 維持, 增進을 위해서도 韓國安保의 유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들 四大強國은 大體的으로 韓半島에서 긴장緩和를 통한 現狀의

4 固定을 희망하는 것 같다.

現狀의 變化로 四大強國中 有利한 나라도 있겠지만 不利한 나라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國際的 不安要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狀이 充分히 滿足스럽지는 않지만 現狀의 變化가 지금보다 더 不滿스러운 結果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四大強國의 共通된 判斷인 것 같다.

그러나 종전과 같은 긴장과 軍事的 對峙, 衝突관계가 南北間에 계속하는 것도 중요한 國際적 不安要因이 되기 때문에 이들 強大國들은 南北間에 對話와 接觸을 통하여 긴장이 완화되고 分斷된 狀態대로 現狀이 固定化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內容의 國際的 背景을 이해하지 않고 南北관계를 단순한 한국민족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非現實的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II. 南北統一과 國際的 協調

前節에서 본 國際的 背景으로 미루어 보아서 國際社會와 有機的 關係를 維持해 가면서 南北統一問題를 接近해야 한다는 것은 自明해진다.

즉 統一이 우리民族의 念願이라고 하지만 國際的 協調없이 그 成就가 거의 不可能한 일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分明히 해야 할 것은 強大國들이 韓半島에서 現狀維持 乃至 分斷狀態의 固定化를 希望하며 統一에는 別로 積極的이지 않다는 事實에 비추어서 南北統一은 우리民族의 自主的 努力에 더욱 의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이다.

무슨 일이든 그것을 希望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成就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當然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民族을 빼놓고는 南北統一에 대해서 別 熱意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國際環境을 無視하고, 특히 強大國들의 利害關係를 考慮하지 않고 南北統一을 위한 戰略을 構想하는 것도 지극히 無謀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強大國들은 그렇지 않아도 극히 어려운 統一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8線이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의 中心點이 되고 있다는 事實을 기억할 때 東北亞의 勢力均衡을 破壞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또는 可能하면 이와같은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을 더욱 安定化해주는 方向에서 南北統一의 方案이 模索되어야 한다는 結論에 이른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볼 때 統一은 韓國이 主張하는 대로 徐徐히 段階的으로 推進되어야 하며 北韓의 主張대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또 國際勢力均衡을 깨지 않고 統一을 推進해야 한다는 前提에서 볼 때 6.23宣言에서 나타난 한국의 모든 國家에 대한 門戶開放政策의 妥當性이 더욱 強해진다. 특히 한국이 소련과 中共과 國交를 가짐으로써 한국이 이들 두 共產大國에 대하여 敵對的인 目標을 追求하지 않을 것이며 互惠平等의 關係를 希望한다는 意思가 確信시켜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南北統一, 韓半島平和保障, 東北亞平和保障이란 關聯된 目標의 達成을 위해서 적어도 四大強國과 南北韓이 參與되는 6個勢力間에 東北亞平和保障을 위한 全般的인 合意가 이루어지고 그와같은 東北亞安保體制의 一部로서 韓半島문제에 대한 合意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韓半島를 하나의 國際的 緩衝地帶, 즉 國際勢力政治가 介入보다는 平和聖域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스러울 것이다.

단 統一이 될 때까지 休戰處理, 非武裝地帶의 名實相符한 非武裝化, 軍縮문제 등 여러가지 難題를 해결하는데는 外國의 個別的인 協調나 또는 유엔이나 其他 채널을 통한 集團的인 國際協調가 많이 要請되는 것이다.

韓國에게 주어지는 課題는 國際環境을 南北統一에 有利하게 이끌어서 要望되는 國際協調를 効率的으로 造成, 動員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7.4 南北共同聲明에 밝혀진대로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이란 三大平和統一原則에 따라 民族傳統에 合致하고 民族將來를 위하여 가장 有利한 統一을 成就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韓民族의 歷史的 使命인 것이다.

大統領의 6.23 特別宣言은 한국이 平和統一을 追求함에 있어서 國際社會의 意思를 존중하며 國際協調精神에 立脚할 것임을 分明히 밝히고 있어서 現實的이고도 合理的인 政策方向을 設定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에 따른 國際的 反應은 아주 肯定的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北韓이 이와같이 合당한 한국의 主張을 小我的인 편협한 생각에서 反對하고 나왔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北韓도 결국은 國際協調精神을 따르는 길만이 祖國統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6.23 宣言의 精神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判斷된다.

Ⅲ. 南北統一의 外交的 要請

韓國이 主導하여 南北對話를 시작함으로써 北韓은 國際的 孤立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條件을 맞았다. 또 6.23 特別 宣言으로 한국은 北韓이 國際的 孤立에서 벗어나 國際社會에 보다 活潑히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뜻을 公式적으로 밝힘으로써 北韓이 國際舞臺에 進出할 수 있는 길은 더욱 열렸다.

따라서 韓国外交는 그 어느때 보다도 北韓으로부터의 挑戰을 더 받게 된 것이다. 北韓과 修交하는 國家의 數가 늘 것이며 보다 많은 國際機構와 會晤에 北韓이 참여하게 되어 한국은 北韓과 국제무대에서 맞서는 기회가 많이 늘어 날 것이다. IPU (國際議員 聯盟)과 WHO (世界保健機構)에는 이미 北韓이 加入되었으며 유엔에도 73年 가을부터 上等資格의 北韓代表團이 事務所를 열게 된다.

北韓은 아직도 眞正한 平和統一에 뜻이 없고 南韓의 共產化를 통한 赤化統一에 뜻이 있기 때문에 韓國은 外交를 通하여 첫째, 韓國側이 主張하는 段階的 平和統一이 가장 合當하고 現實的인 統一方案이란 點을 國際社會에 알리고 둘째로, 北韓의 一時統一論, 聯邦制統一論, 또 軍縮案등이 宣言을 위한 偽裝이며 眞意는 赤化統一에 있다는 事實을 國際社會에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南北의 直接的인 接觸을 通해서나 間接的인 方法으로 時代錯誤的인 赤化統一野慾을 버리고 眞正한 平和統一을 政策으로 받아드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을 北韓으로 하여금 確實히 認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國際社會로 하여금 北韓이 合理的인 統一의 길을 따르도록 說得 즉 한국은 外交를 通하여 說得活動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前項에서 略述한 內容의 國際協調를 確保하는 것이 한국 外交의 重大課題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이 이와같은 統一外交의 要請을 充足할 수 있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條件이 많다.

먼저 外交資源의 幅넓은 開發이 要望된다. 한국이 여태까지 密接한 外交를 펴오지 않은 地域과 國家를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專門家의 養成이 時急하다. 특히 對共產圈門戶開放政策을 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소련을 비롯한 東歐共產諸國에 대한 專門家不足을 短期長期計劃으로 確保해야 할 것이다. 外交資源이라고 할때 이는 實務를 맡을 外交官만 아니라 外交政策을 研究開發할 수 있는 專門家도 包含되는 것이다. 外交研究專門家들이 있어야 急變하는 國際情勢를 機敏하게 分析하여 長期, 短期政策을 概括的인 次元에서 또는 特定國家나 地域相對로 開發해 내게 될 것이며 이와같은 研究를 밑바탕으로 한 外交活動이라야 合理性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外交政策決定體制의 合理化가 要望된다. 보다 幅넓은 參與로 多樣한 意見이 檢討된 다음에 最終政策이 採択되어야 하며 이미 採択된 政策도 꾸준히 批判 評價받아서 보다 合理的인 政策으로 修正되는 政策決定體制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政府傘下의 外交研究機關뿐 아니라 私設外交研究團體에도 外交문제에 대한 豊富하고 迅速한 情報供給이 있어야 하며 活潑히 官民의 研究活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外交努力의 能率化가 要望되는데 이를 爲해 무엇보다 중요한 先決要件은 外交予算의 擴大와 外交人力의 補充이라고 하겠다.

國家予算이란 所要處가 많지만 오늘날 韓國과 같이 外交의 比重

이 큰 때가 없는만치 어떤 非常的인 措置를 취해서라도 보다 有能한 人材들이 보다 많이 外交分野에 投入되어서 보다 넉넉한 予算을 뒷받침으로 活動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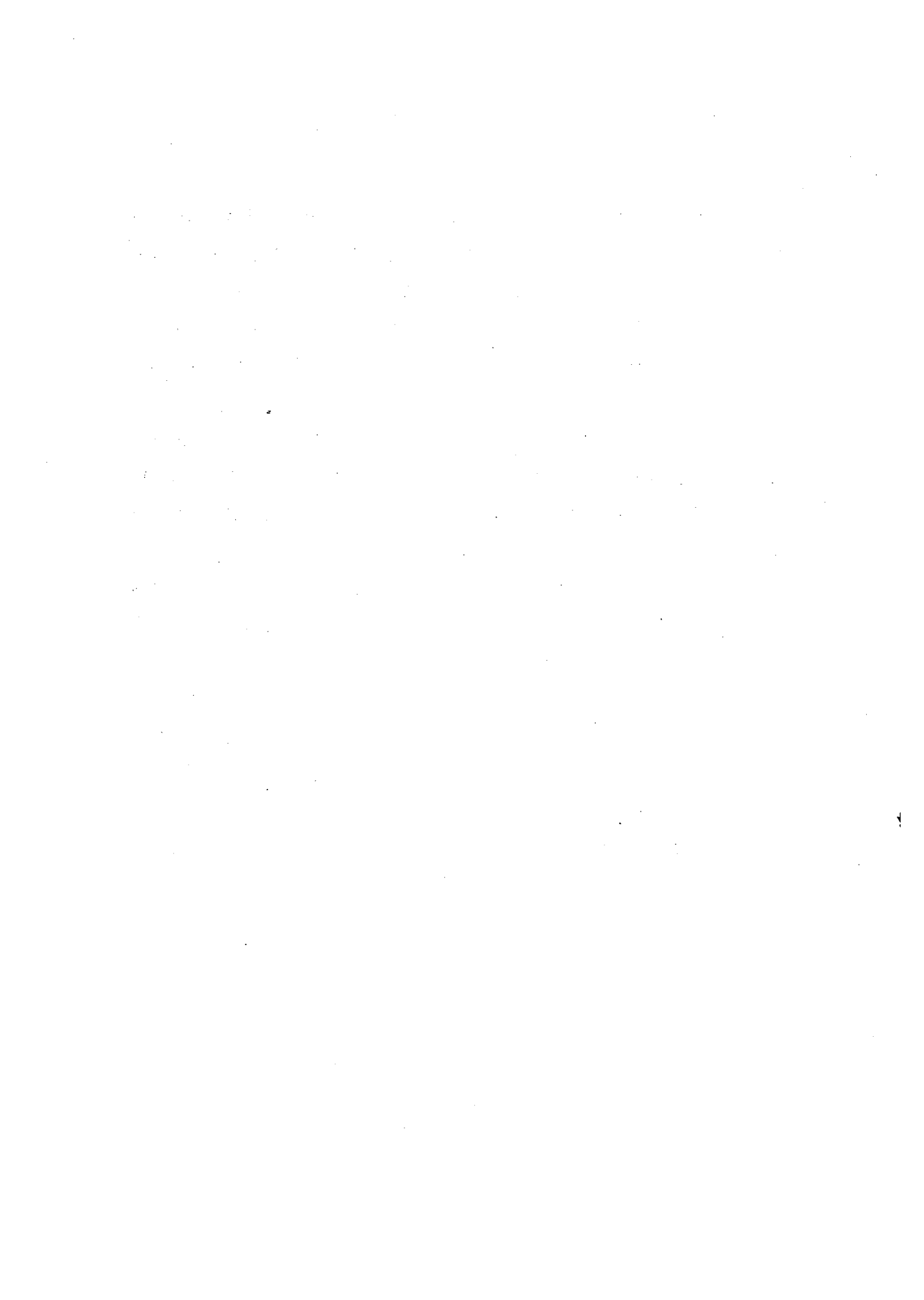
위와같은 內容을 다룸에 있어서는 여기에 提示된 方案이 絶對的으로 採択되어야 한다는 態度를 取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스럽지 않다.

代身 南北統一의 外交的 要請을 充足하기 위해서는 한국 外交를 보다 더 合理化하고 能率化하는 것이 要望되며 그런 合理化와 能率化의 方案을 위해 진술한 것과 같은 方向에서 摸索할 수도 있다는 式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強調되어야 할 것은 한국의 体制은 適應能力이 있어서 그때 그때의 政策的 要請에 따라 必要的한 体制의 改善과 政策方向의 調整을 과거에도 해 왔으며 未來에도 할 것이라는 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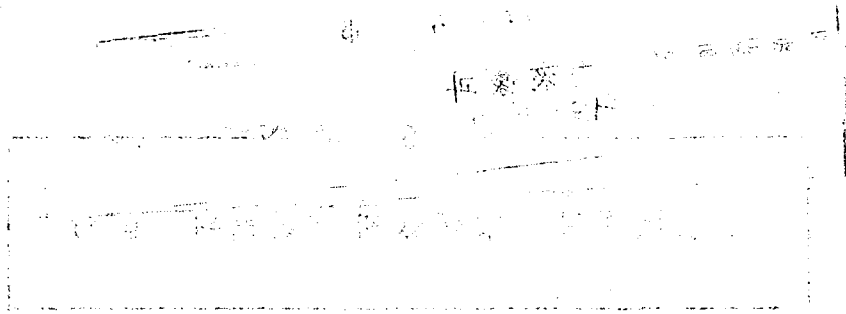
그래서 한국体制의 變化에 대한 適應能力에 自信을 가지게 하여 너무 심한 危機意識이나 悲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必要的한 것은 근심성있는 樂觀이며 積極的인 問題接近 姿勢이다. 이와같은 姿勢가 있을 때 解決 못할 문제가 없으며 우리의 앞날은 国内的으로 國際的으로 밝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第 6 部

國家發展의 未來像과 國民의 使命



目 標

1. 우리의 發展의 未來像에 對한 理想과 自負心
2. 統一과 發展을 위한 國家的 課業遂行에 積極的 參與 姿勢
3. 民族中興의 新歷史創造의 使命感

概 要

題 目	內 容	強 調 點
<p>I. 國家發展의 要請</p> <p>1. 國家發展의 基本 方向</p> <p>2. 國家發展의 要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正統性의 繼承과 發展, 民主理念의 具現 自由, 平等, 正義, 福祉社會建設, 國力培養과 國際平和共榮 • 發展 意志, 勤勞精神, 社會秩序確立, 公益精神 淸富精神, 政治的 安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國의 發展的 未來 像에 對한 矜持強調
<p>II. 國家의 當面課題</p> <p>1. 韓國民主主義發展을 위한 制度的 基盤</p> <p>2. 民族主體意識과 國家一體感</p> <p>3. 統一基盤造成과 統一成就努力</p> <p>4. 國力培養과 國家 安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主體性에 依한 民主制定立, 國力의 組織化, 國力의 加速化, 周邊情勢에 의 能動的 對處, 民族正統性에 依한 自主的 平和統一 • 政治思想教育의 重要性 • 民族主體意識과 國家一體感의 育成, 國民總和 • 韓國 正統性의 確立, 國力培養, 總力安保 • 南北經濟力量比較와 國力培養 南北國防力量比較와 國家安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的 總和에 依한 共同努力要請 • 韓國民主主體의 侵越性 • 韓國正統性의 確立 • 民族主體意識 • 國民의 自主的 國防 意識 強化
<p>III. 國民의 使命</p> <p>1. 韓國의 發展的 未來像</p> <p>2. 統一後의 榮光된 國家 未來像</p> <p>3.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民主主義制定立, 發展 平和的 民主統一의 基盤確立 經濟的 安定과 繁榮, 福祉社會의 實現 • 文化民族, 平和國家, 福祉社會, 國際的地位向上 • 國家的 事業에 의 總和的 參與,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助的 努力, 民族正統性의 繼承과 發展을 위한 新 歷史 創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國統一後의 榮光된 未來像에 對한 矜持 • 國家發展과 祖國統一 成就로 新歷史創造의 使命感 強調

序 說

本部 『國家發展의 未來像과 國民의 使命』에서 意圖하는 政治思想教育의 目的은 韓國이 하나의 民族國家로서 將次 建設하고자 하는 國家未來像을 부각하여 國民으로 하여금 國家未來像에 대해서 自信感을 가지게 하며 國家發展을 위한 諸課業의 完遂에 意慾적으로 그리고 生産적으로 參與케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韓國이 追求하는 國家目的에 대해서 肯定的이고 積極의 姿勢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國家目的을 國民이 內面化하여 國家目的을 自己目的과 같이 생각케 하는 것이 效率的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國家目的의 內面化는 곧 使命感을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國家目的에 대한 信念과 當面課題에 대한 올바른 認識이 있을 때 國民은 使命感을 가지고 民族中興의 새 歷史創造에 生産적으로 參與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共產主義의 挑戰에 대하여도 效果적으로 對處하는 길이 될 것이다. 共產主義가 내놓는 未來像에 대한 우리 未來像의 優越性을 確信시키면 共產主義 宣傳과 策勵에 依한 挑戰의 克服은 효율적으로 成就될 것이기 때문이다.

本部에서 意圖하는 教育目標을 좀더 具體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이 志向하는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을 提示하여 發展的 韓國의 未來像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게 하며 나아가서 國家發展을 위한 基本要件이 무엇인가를 理解케 하여 그 要件 充足을 위한 努力의 重要性을 認識케 한다.

둘째,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위해서 韓國이 解決해야 할 課題가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케 하고 그와 같은 課題의 完遂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한다.

세계, 統一後 祖國의 榮光과 未來像에 대하여 理想을 가지게 하여 그 理想具現을 위한 國家的 努力에 보람을 가져 民族中興의 새 歷史創造者로서의 使命感을 고취한다.

이러한 教育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다루어져야 할 政治思想教育의 內容으로서는 먼저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이 定立되어야 한다. 이 基本方向에 半萬年歷史의 後繼者로서 傳統을 發展적으로 繼承하여 새 歷史를 創造하고 韓國民主主義의 開發로 民主主義 基本理念을 具現하며 自由, 平等, 正義, 福祉가 充足되는 社會를 建設하고 나아가서 國力培養으로 國際的 地位向上을 이룩하는 內容들이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國家發展을 위하여 要求되는 條件이 무엇인가를 究明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수많은 國家發展의 要件을 들 수 있지만 특히 國民的 立場에서 強調되어야 할 것은 發展意志, 勤勞精神, 道德的 社會規範의 確立, 淸富思想, 公益精神 등 일 것이다.

다음으로 國家發展을 위한 當面課題로서 먼저 韓國民主主義 發展의 制度的 基盤造成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維新體制 確立의 意義, 그리고 維新體制의 目標과 課題가 취급된다. 여기에 또한 民族主體意識의 高揚과 國家一體感의 形成등의 問題들이 취급된다.

다음으로 취급되어야 할 當面課題로서 統一基盤造成과 統一成就를 들 수 있다. 여기서 祖國統一은 쉽게 短時日內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基盤造成이 必要하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統一이 成就될 수 있을 때까지 武力

挑発의 予防과 抑制가 중요하며 對話와 接觸을 통하여 南北間 同質性의 恢復이 이루어지고 또한 善意의 競争을 통하여 한국体制의 優越性이 과시되어야 祖国統一을 우리가 主導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国力培養을 통한 國家安保의 強化의 중요성이 취급되어야 한다. 南北力量을 經濟와 防衛의 側面에서 比較한 다음 国力培養을 통하여 總力安保体制을 確立하는 것이 무엇보다 急先務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이 設定되고 國家發展의 當面課題가 認識된 다음 이와 같은 歷史的 課業의 完遂를 위하여 國民의 使命이 무엇인가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國民使命感의 高취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祖国未來에 대하여 自信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發展한국의 未來像과 統一祖国의 未來像을 提示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民主主義, 經濟安定, 福祉社會, 祖国統一의 實現으로 우리도 世界에 자랑스러운 民族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以上에 약술한 教育目標와 強調點을 토대로 취급되어야 할 內容들을 3 個章으로 組織하였다.

第 1 章 國家發展의 要請

〈 章 前 文 〉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本章에서 意圖하는 바는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을 提示하여 發展韓國의 未來像에 대하여 矜持를 가지게 하고 어떠한 資質과 姿勢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本章의 基本目標을 더욱 細分하면 다음과 같이 陳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을 理解하여 國家가 志向하는 發展的 未來像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한다.

둘째, 國家發展을 위한 基本要件이 무엇인가를 理解하여 그 要件 具備을 위한 努力의 중요성을 理解하게 한다.

이러한 教育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本章에서 다루어야 할 內容은 먼저 國家發展의 基本方向과 관련하여

첫째, 民族傳統을 正統적으로 繼承하여 새 歷史를 創造하는 일

둘째, 民主主義 基本理念을 具現하는 일

셋째, 自由, 平等, 正義, 福祉가 充滿한 社會를 建設하는 일

넷째, 国力培養을 通하여 한국의 國際的地位를 向上하는 일을

강조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을 다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것을 一般論적으로 또 客觀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우리 發展』의 基本方向이며 이와 같이 『우리 國家』가 發展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主觀的 體驗感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方向의 國家發展이 왜 所望스러운가를 實感있게 說明하는 것이 重要할 것이다. 다음으로 취급되어야 할 內容은 國家發展의 要

件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國民的 立場에서 國家發展을 위하여 具備하여야 할 要件이라는 점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國家發展의 要件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內容을 좀 더 具體적으로 陳述하면

첫째, 發展意志와 勤勞精神의 高揚과 道德的 社會規範의 確立

둘째, 市民經濟倫理的 側面에서 淸富思想과 公益精神의 高揚

위와 같은 國民資質의 참뜻이 무엇이며 國家發展을 위하여 이와 같은 資質을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認識시켜야 할 것이다.

本章의 內容을 취급함에 있어서 특히 參考가 될 것은 第1部 『民族意識과 國家觀』과 第2部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이다. 또한 第3部 『共產主義理論과 實際』도 共產主義가 한국이 志向하는 基本方向과 相衝된다는 의미에서 本章의 內容과 관련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I. 國家發展의 基本方向

I-1 民族傳統의 繼承과 새 歷史의 創造

우리는 半万年 歷史와 傳統의 後繼者이다. 우리 歷史와 傳統에는 어둡고 부끄러운 側面도 있지만 밝고 자랑스러운 側面이 더욱 많다. 유달리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우리 祖上들은 지혜롭게 살길을 찾았으며 빛나는 文化傳統의 遺産을 後孫에게 남겨 주었다.

本節에서는 먼저 우리의 民族傳統에 대해서 健全한 態度를 가지게 하는데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一部 『民族意識과 國家觀』에서 다룬바를 想起시키면서 우리 歷史와 文化傳統속에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쁜것을 가린 다음 좋은 歷史傳統을 創造的으로 繼承發展시키고 나쁜 歷史傳統은 止揚克服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韓國人들의 歷史的 使命이라는 點을 強調해야 할 것이다.

韓國人の 價值觀調査(朝鮮日報 特別連載 李永鎬著 『韓國人の 價值觀』 1972年 1月부터 5月까지 參照)에 나타난 바와 같이 韓國사람들은 民族的 矜持가 박약하고 民族文化傳統에 대해서 지나치게 否定的이다. 새 歷史의 創造는 먼저 民族的 自信心이 先行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祖上들은 남못지 않게 지혜로웠으며 나아가 오늘날의 우리도 남못지 않게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도 偉大한 民族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信念을 가지고 努力한 하면 世界人類史를 앞장 서서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被教育者의 머리속 깊이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 民族의 슬기로움을 過去와 現在에서 例証하는 것은 아주 効果的인 일 것이다. 남보다 앞선 活字印刷發明, 한글의 創製, 性理學, 新羅藝術의 찬란함, 거북선등 우리 歷史속에서 자랑스럽고 榮光스러웠던 일들을 例로 들고 또 現在 世界的인 讚辭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韓東一과 바이올리니스트 鄭京和등을 들어 우리 民族의 優秀性을 實感있게 說得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60年代부터 始作된 經濟建設의 記錄은 世界에서도 자랑스러울 程度라는 것을 強調하여 앞으로 보다 努力하면 멀지 않아 우리도 先進國의 隊列에 서게 될 것이라는 自信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要는 극히 어려운 國內的 國外的 與件속에서 民族의 命脈을 維持해 왔을 뿐 아니라 그속에서도 찬란한 文化遺産을 우리에게 남겨준 祖上들에 대해서 우리는 責任이 있으며 이 責任을 다하는 길은 祖上들의 文化遺産을 올바르게 繼承發展시킬 뿐 아니라 그 어느때보다도 빛나는 새 歷史의 章을 20世紀 終章을 맡은 오늘에 사는 우리들이 創造하는 것이라는 點과 또한 그와 같은 빛

나는 새 歷史創造의 潜在力이 우리 民族속에 있다는 点, 그리고 다만 意志와 自信을 가지고 있다면 영광스러운 새 歷史創造는 틀림없이 우리의 것이라는 点을 강조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곁들여서 共產主義者들의 길은 우리 文化傳統에 거역하는 길이며 이를 왜곡繼承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共產主義는 우리의 人間尊嚴性傳統과 平和愛護傳統에 어긋날 뿐 아니라 共產社会体制로 人間の 創意性을 抹殺하기 때문에 새 歷史의 創造는 커녕 歷史의 断絶, 나아가서는 歷史의 退步를 招來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共產主義의 挑戰을 극복하고 大韓民國의 自由民主体制가 統一祖國의 政治体制의 根幹이 되어야 韓國史는 發展의 巨步를 밟게 된다는 信念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I-2 民主主義 基本理念의 具現

第2部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体制』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韓國의 國是는 自由民主主義요 따라서 自由民主主義를 이땅에 具現하는 것이 國家發展의 가장 基本的인 課業임을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民主主義가 人間の 尊嚴性에 바탕하고 있으며 人間の 創意를 最大限 發揮할 수 있도록 해주는 政治体制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우리 歷史의 本流인 人道主義와 調和를 이룰 뿐 아니라 새 歷史의 創造를 위해서 必須不可欠한 條件이기도 하다.

그러나 民主主義의 價值는 그 本質 즉 그 基本理念에 있는 것이 그 形態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形態를 달리하면서도 民主主義의 本質에서는 같을 수 있다는 말이다. 美國의 民主主義

가 그 形態에 있어서 英國의 그것과 다르다. 또 仙蘭西, 伊太利, 獨逸, 瑞西 등 民主体制가 다 그 形態에 있어서 상당한 多樣性을 보이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 같은 國家内에서도 民主主義는 그 形態를 변모해 오고 있음을 본다. 그렇다면 西歐 民主國家에서 찾을 수 없는 制度라 해서 民主主義가 아니라는 論理가 설 수 없다. 問題는 어떤 特定制度가 民主主義 基本理念에 立脚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해야 할 것은 왜 本質에 있어서 같은 目標을 志向하는 民主主義가 多樣한 形態로 表現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各國의 特殊性 때문이다. 各國의 特殊한 條件이 提示되는 政治体制의 要請이 있기 때문에 民主主義는 그 社會의 特殊性에 맞추어서 制度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融通性이 許容된다는 것이 民主主義의 特長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原理에 대한 理解不足으로 우리는 光復後 西歐의 民主制度 形態를 그대로 이땅에 모방해보려 했다가 여러 가지 混亂, 不條理, 無秩序, 非能率을 招來했다. 이와 같은 不合理을 止揚하고 制度化하려고 한 것이 10月維新의 基本趣旨인 것이다.

民主主義가 多樣한 形態를 許容하고 또한 10月維新에 의해서 이룩된 維新體制가 韓國의 特殊條件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條件의 變化에 따라 앞으로는 維新體制의 改造가 있을 수 있으며,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當然한 것이다. 그래서 民主主義는 發展的인 것이며 維新體制도 發展的인 것이다. 形態는 本質을 위해서 있다. 따라서 形態는 手段이요 本質이 目的이 된다.

문제는 民主主義의 本質인 基本理念을 그때 그곳의 特殊條件에 비추어서 어떻게 가장 效率的으로 具現하느냐에 있다. 이와 같은 前提에서 民主主義를 이해해야 하며 10月維新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이 무엇인가? 제 2부 『民主主義 政治理念과 體制』에서 이미 진술했듯이 人間의 尊嚴性, 個人의 最善我實現, 그리고 進歩와 發展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民主理念의 具現을 위해서 自由와 秩序간에, 變化와 安定간에, 平等과 卓越간에, 個人과 社會간에 적당한 調和가 必要한 것이다. 自由가 심해서 秩序가 지나치게 흔들려도 안되며, 秩序가 너무 강조되어 自由가 지나치게 抑壓되어도 안된다. 또 變化가 너무 지나쳐서 安定이 파괴되어도 안되며 安定이 너무 지나쳐 變化를 질식시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平等이 너무 지나쳐 個人의 卓越한 成就가 障礙받아도 안되며 個人의 卓越에 置重하여 基本的 平等까지 위협받아도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個人의 權利가 너무 強調되어 社會에 대한 責任이 度外視되어도 안되며 反對로 社會가 너무 重視되어 個人의 要求가 完全無視되어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民主主義의 理想的인 實現은 이와 같이 짝을 이루는 價值간에 調和를 創造的으로 維持하는데 있는 것이다.

韓國은 民主主義 基本理念의 卽時具現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條件에 의하여 制約을 받고 있다. 10月維新은 貧困, 無知, 社會的 不安, 政治文化的 未成熟(民主主義의 觀點에서), 國際環境의 不安등 여러 가지 阻害條件들을 能率的으로 除去해가면서 人間이 人間다운 生活를 영위할 수 있고(人間의 尊嚴性) 個人이 自己潛在力을 가장 創造的으로 發揮할 수 있고(最善我的 實現) 個人과

國家가 효율적으로 進歩發展할 수 있는 民主社會를 이땅에 하루
속히 實現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다.

오늘에 사는 우리의 使命은 政治的인 觀點에서 볼 때 10月
維新을 효율적으로 推進하여 民主主義制約條件을 하루 빨리 除去
하고 自由, 平等, 創意가 充滿하여 人間의 尊嚴性이 높임을 받고
個人的 最善我 實現이 가능한 社會가 이룩되어서 하나의 民族國
家로서 不斷히 發展進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데 있다.

I-3 自由, 平等, 正義, 福祉의 實現

韓國社會가 追求해야 할 目標價值로서 위에 든 民主
主義具現外에 自由, 平等, 正義, 福祉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같은 目標價値의 實現은 곧 人間의 尊嚴性을 最大化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共產主義가 本質的으로 이런 價値와 相衙
한다는 事實을 第3部 『共產主義論과 實際』에서 다른 內容을
想起시키면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1) 自 由

共產主義者들도 自由를 떠드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第3部에서 이미 指摘했듯이 그들의 自由란 바로 『共產黨의 獨
裁를 받아드리는 自由』, 『拘束을 받아드리는 自由』, 『自己個性
을 기꺼이 抹殺당하는 自由』로 自由의 本來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한국이 追求하는 自由는 人間의 尊嚴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人間의 尊嚴性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냐하면 社會와 國家에 害를 끼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個人이 自己

人生을 自己가 希望하는 形式과 方法으로 嘗爲하는 것이 自由의 본뜻이라면 그런 自由없이는 人間의 尊嚴性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人間의 本質은 自由이며 自由를 根幹으로 하는 民主主義야 말로 人間의 本質에 가장 合致되는 政治理想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自由에는 責任이 따라야 하며 責任없는 自由는 곧 自由 그 自体를 無意味化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責任이란 같은 社會에 사는 個個人의 意思와 權利를 존중하는 책임이다. 만약 그런 責任感없이 自由가 行使되면 호브스가 말하는 『萬人의 萬人에 대한 戰爭』狀態가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아무의 自由도 殘存하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도적질은 도적질하는 사람의 自由로운 意思表示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도적질 당하는 사람의 意思를 존중하지 않은 즉 無責任한 自由意思表示라는 점이다.

自由는 또한 自身에 대한 責任을 隨伴한다. 즉 個人이 當面하는 문제에 대해서 自主적으로 決定하고 自主적으로 對處해야 된다는 責任이다. 따라서 自由는 하나의 祝福인 동시에 무거운 負擔이 되기도 한다. Erich Fromm이 말하는 『自由로 부터의 跳遊』는 바로 이 이유때문에 一部 心弱者間에 일어나는 現象인 것이다. 그러나 自由의 부담은 우리 삶의 意味를 부여해주는 보람 있는 부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人類의 歷史가 自由를 위한 鬪爭이었고 또 自由를 向한 前進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은 人類歷史의 創造的 原動力이 되어온 自由를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으로 삼아 우리 歷史를 보다 높은 次元으로 이끌고 가려는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여기에 國民은 보람을 느끼고 國家發展을 위한 課業에 能動的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2) 平 等

人間의 尊嚴性이란 또한 平等을 要求한다. 人間위에 人間이 있고 人間 밑에 人間이 있어서는 平等待遇를 받지 못하고 人間은 결국 『半쪽人間』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尊嚴性은 認定받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自由와 平等은 人間尊嚴性을 위해서 必要不可欠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도 平等을 떠들고 있다. 그러나 事實上 「질라스」가 말하듯이 共産社會는 「階級없는 社會」가 되기는 커녕 「새階級」이 支配하는 社會가 되고 만 것이다. 小數의 支配階級이 있고 多數의 被支配階級이 있어서 大多數 國民들을 두고 볼 때는 「自由없는 平等」 즉 「노예로서의 平等」밖에 없는 것이다. 社會全般적으로 볼 때는 多數위에 小數의 支配階級이 있기 때문에 共産社會를 平等社會라고 하는 것은 오직 平等의 뜻을 외곡한 다 음에야 可能的한 말이다.

우리가 平等의 概念을 辭典的인 意味로 理解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待遇를 받는 것을 平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平等을 하나의 國家發展의 基本方向으로 또는 國家의 하나의 目標價値로 삼을 때는 合目的的으로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우리가 하나의 國家로서 志向하는 바는 「보다 나은 삶」이 可能的한 轉進을 담는 것이라고 할 때 平等도 이 큰 目的에 따라 意味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다 나은 삶」이 可能하기 위해서는 人間의 發展意慾, 創意등을

장려해야 하며 個人的 卓越한 成就를 장려해야 한다. 그런데 平凡한 成就나 卓越한 成就나 그 結果로 있는 報酬가 같을 때 卓越을 위한 努力意慾이 沮害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卓越과 平等의 두 價值간에 적당한 調和가 必要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卓越과의 調和속에서 平等을 追求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故로 한국이 追求하는 平等은 無條件的 平等이 아니다. 個人努力의 質과 量에 따라 社会的 經濟的 待遇는 決定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사람은 法앞에서 平等해야 하며 같은 業績을 낳았을 때 平等的 報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地位의 高下나 貧富의 差異, 男女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모든 個人이 한 平等的 人間으로서의 待遇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平等이 한국이 하나의 國家로서 追求하는 目標價值인 것이며 한국은 國家發展을 이런 合理的 平等의 方向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志向해야 할 平等은 物質的인 의미에서의 無條件的 平等이 아니고 人間의 尊嚴性에 있어서의 平等인 것이다. 平等을 이와 같이 規定할 때 모든 個人이 最善我 實現의 意慾을 가질 것이며 社会와 國家發展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기울일 意慾을 얻을 것이다.

-3) 正義

여기서 말하는 正義란 社会的 意味의 正義 즉 社会 正義를 의미한다. 이것은 仏敎에서 말하는 因果報應의 원칙과도 相通한다. 쉽게 말해서 善한 일을 하면 그에 適當한 果報가 있고 惡한 일을 하면 그에 適當한 果報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不正이 行하면 이와 같은 正義로운 果報가 깨어지며 惡

한 일을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한 사람보다, 努力하지 않는 사람이 努力한 사람보다, 不正直한 사람이 正直한 사람보다, 能力없는 사람이 能力있는 사람보다, 파괴적인 사람이 建設的인 사람보다, 더 좋은 報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社會의 不乘理라고 할 때 다른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社會正義의 失敗를 意味하는 것이다.

選舉不正, 情美人事, 公共事業의 不實, 뇌물의 수수, 사기, 入学不正 등 우리는 술한 正義失敗의 証拠를 우리 周邇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不正은 우리社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社會에서나 있는 普遍的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不正이 行하는 限 誠實하고 建設的인 努力으로 잘 되겠다는 생각을 弱化시키기 때문에 不正이야 말로 社會와 國家發展을 阻害하는 一大禍이 되는 것이다. 그런 故로 不正을 除去하고 正義로운 社會를 이룩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國家發展의 課題인 것이다.

社會正義가 이루어질 때 國民은 非生産的이고 反社會, 反國家的인 일에 머리를 쓰지 않고 生産的이고 建設的인 일에 에너지를 傾注하게 될 것이다.

彼教育者들에게 社會正義實現의 중요성을 위와 같은 論理로 說得시키고 이땅에 그런 正義로운 社會를 實現하기 위하여 國家는 努力하고 있고 또 이 努力은 반드시 成功하고 말 것이란 確信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4) 福 祉

아무리 自由競爭을 社會生活의 原則으로 한다 해도 個人의 最少限의 福祉를 保障하는 것은 社會와 國家의 責任이다.

人間은 不完全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없이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社会的, 經濟的 窮地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資本主義體制를 根幹으로 하고 있는 美國도 近來에 와서 社会福祉面에 많은 資源配當을 하고 있다. 英國이나 스칸디나비아諸國들이 福祉面에서 美國보다 훨씬 앞서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人間的 尊嚴性이란 立場에서 볼 때 모든 사람에게 보람있는 生活를 영위할 수 있는 最低社會의 保障이 要求된다. 그래서 國家資源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無料敎育을 國家에게 實施해야 하는 것이며 保健을 負擔해야 하는 것이다. 또 病이나 事故 또는 기타 原因으로 失職했을 때도 적절한 生活保障을 맡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老後에 經濟的 自担能力이 없을 때도 最低限의 生活를 保障하여 人間的 尊嚴性이 존중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韓國이 오늘날 이와 같은 福祉에 있어서 充分히 못한 것은 事實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國家資源의 制約때문에 오는 것으로 앞으로 國家資源의 增大에 따라 모든 國民에게 無知, 疾病, 失業, 老쇠에 대해서 社会保障을 增大함으로써 明明한 福祉國家를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I-4 国力培養과 國際的地位向上

国力의 要素는 여러 가지이다. 政治的 統合, 指導力, 經濟力, 科學技術, 自然資源, 軍事力, 國民의 國家靚과 精神態勢등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平常의 時局에도 国力培養의 必要性은 恒常크다. 더욱이 韓國과 같이 여러面에서 重大한 挑戰을 받고 있는 國家로서는 国力培養이 더욱 時急하고 중요한 課題가 되는 것이다.

国力培養의 길만이 共產主義의 挑戰을 克服하고 祖國統一을 우리가 願하는 方向으로 主導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国力培養이 소홀히 될 때 共產主義의 挑戰에 被動的으로 이끌리게 되고 自主平和統一의 機會를 놓칠 可能性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非常한 覺悟로 国力培養에 힘기울일 때이다. 科學技術의 向上, 經濟生産性的의 增大, 總力安戩態勢의 強化, 政治指導體制의 能率化, 國家一體感의 增大 등은 国力培養의 立場에서 모두 時急한 國家的 課題인 것이다.

이와 같이 国力培養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國內적으로 安定을 期할 수 있고 國際적으로는 自主自立性이 強化되어 남의 나라의 壓迫을 피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들의 우러러봄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國力이 強化되어야 國家安戩가 보다 튼튼한 토대위에 서게 되며 오직 安戩 문제가 解決되어야 國家가 生存하게 되고 또 우리가 志向하는 發展의 機會를 確保할 수 있다는 점을 強調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 國家發展의 要件

II-1 發展意志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물론 뜻이 있어도 길이 열리지 않을 수가 全然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말을 바꾸어 「뜻이 없는 곳에 길이 없다」고 하면 妥當性이 있는 말이 될 것이다. 잘되려고 하지 않고 잘되는 個人이나 民族이 없다. 물론 대수롭지 않은 成就는 成

就하려는 努力없이 얻어질 수 있지만 價值있는 成就是 成就하려는 意志와 努力이 先行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될 생각도 없었는데 偉大한 科學者가 된 사람이 없고 스스로 될 생각도 없었는데 偉大한 哲學者가 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個人에 있어서나 國家에 있어서나 잘되어 보겠다는 發展意志 (또는 成就動機)가 그 個人 그 國家發展의 가장 중요한 必須條件이 되는 것이다.

세를 들면 우리나라는 農業分野에 있어서 最近에 이르기까지 數千年동안 文字 그대로 너무 依旧했다. 農土의 改良도, 農器具의 改良도, 또 種子의 改良도 너무 없이 代代로 거의 같은 方法과 結果의 農事를 지어 왔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原因을 붙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原因은 이를 改鑄해 보겠다는 意志의 欠與였다고 생각된다. 우리 民族의 頭腦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 民族이 分野에 따라서는 他民族을 능가하는 成就를 거둔 事實로 보아 立證이 된다.

여기서 發展意志라고 함은 하나의 개으른 空想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指摘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發展意志는 적어도 다음의 세 要素를 갖추어야 한다.

- 1) 發展에 대한 慾望
- 2) 發展成就의 自信
- 3) 必要한 努力에 대한 覺悟

近來에 와서 韓國社會에 이와 같은 發展意志가 널리 퍼지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強調해야 할 것은 보다 더한 發展意志가 있어야 前節에서 略述한 바와 같은 方向의 國家發展이

가능하여 눈부신 새 歷史의 創造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II-2 勤勞精神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게 된다」는 西洋俗談이 있듯이 能力과 資源이 같은 경우 부지런한 個人과 民族이 보다 큰 成就를 얻는 것은 至極히 당연하다. 또 能力이나 資源이 모자라더라도 남달리 부지런하면 能力과 資源의 制約을 어느 정도 克服할 수 있다는 것은 토끼와 거북의 寓話에서 잘 나타난다.

지금 우리나라는 貧弱한 資源(物的, 人的, 技術的, 文化的 등 面에서)을 가지고 남이 100年 걸려 成就한 近代化를 10年에 成就해야 하는 立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勤勞精神이 要望된다. 모든 國民이 맡은 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윌時間 일할 때 열時間 일을 하고, 열時間 일할 때 열두時間 일하는 姿勢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II-3 道德的 社会規範의 確立

한때 우리나라는 東方禮儀之國이라는 칭송을 받을 程度로 禮節 바르고 倫理的인 民族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오늘날 韓國社会는 禮儀는 커녕 法도 안지키는 例가 너무도 許多한 無規範의 社会가 되고 만 感이 없지 않다.

이것은 勿論 지난 1世紀동안 우리가 歷史的으로 겪은 特殊한 경험과 오늘 韓國社会를 휩쓸고 있는 急激한 變化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社会規範이 再確立되어 倫理的인 社会關係가 再形成되지 않고는 國民總和가 不可能할 것이며 國家發展을 위하여 國民에너지가 效果的으로 動員되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社会規範의 倫理化는 正義와 他人尊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첫째, 不正이 除去되고 正義로운 社会生活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로, 모두가 남의 意思와 福利를 尊重하는 社会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남의 利益, 便宜, 기분을 고려치 않고 자기의 욕망을 充足하려고 해서는 國家發展이 있을수 없고 새 歷史의 創造가 있을수 없다. 다만 國家 쇠망과 歷史의 退步만이 있을 뿐이다.

道德的 社会規範의 確立은 큰데서 찾을 수도 있지만 작은 일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親切, 차례지키기, 버스안에서 담배피우지 않는 일, 길에서 침뺨지 않는 일, 公共場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 일등이 비록 하찮은 일같지만 道德的 社会規範의 確立을 위해서 必要하고 중요한 始點인 것이다.

II-4 淸富思想

過去에 淸貧이 우리 文化에서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淸貧의 그 글자중에 強調되어야 할 것은 貧이 아니라 淸이라는 것을 理解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것이 美德이 아니고 生活이 淸廉한 것이 美德인 것이다. 거꾸로 돌려 말하면 致富하는 그 自体가 나쁜 것이 아니라 不正한 方法으로 致富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가난한 것보다 富裕한 것이 낫다면 - 특히 經濟成長을 통하여 国力을 早速히 培養해야 하는 이 마당에서는 - 오늘날 우리 社会가 勸奨할것은 『淸貧』이 아니라 『淸富』일 것이다. 즉 깨끗하고 가난하게 남는 것보다 깨끗한 方法으로 致富하도록 모든 國民을 勸奨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淸貧思想이 過去 우리나라의 發展을 阻害한 重要

要因이 되어 왔는지 모른다. 淸貧思想은 發展意志를 抑制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淸貧思想을 우리 文化傳統에 있어서 하나의 脆弱點으로 보고 이를 淸富思想으로 代置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淸富가 淸貧보다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淸貧은 積極的인 行動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淸富는 行動의 積極性을 先行條件으로 한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특히 不正한 方法을 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부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正當한 方法으로 富者가 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란 것을 강조하고 淸富思想만이 國家經濟建設의 길이라는 것을 못박아야 할 것이다.

II-5 公益精神

아리스토텔레스가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다」 또는 「人間은 政治的 動物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을 했다. 이것은 人間生活이란 社會關係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相互依存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比較的 單純한 社會에서도 이 말이 眞理였지만 오늘날과 같이 人間生活이 複雜해지고 또 勞動分化가 深化되었으며 距離가 壓縮된 社會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래서 相互依存性을 忘却하고 편협한 個人利益을 追求하는 行爲는 短期的으로는 目的達成이 可能한지 모르나 긴 眼目에서 볼 때 公益만 害치는 行爲가 되는 것이 아니라 私益까지 害치는 行爲가 되는 것이다.

그런 故로 個人은 自己가 살고 있는 地域共同體를, 各 地域共同體는 國家를, 各 國家는 世界를 생각하고 行動해야 한다.

損益計算을 떠나서 倫理的인 次元에서 생각해 볼 때 個人의

成就是 - 그것이 富든, 學識이든, 權力이든, 名譽든, 또는 社會的 地位이든 - 社會없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自身の 成就를 可能케 한 社會의 公益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非倫理的인 姿勢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또 角度를 달리해서 모든 國民이 公益을 생각하지 않고 私益에 沒頭할 때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公益的 姿勢를 갖는 것만이 國家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國家없는 個人의 幸福追求는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늘날 한국은 重大한 歷史的課業에 當面하고 있다. 이와 같은 課業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고 우리 歷史를 새로운 榮光된 자리에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國民이 힘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 要請된다. 그와 같은 總和的 努力을 組織化하려는 것이 새마을運動이요 10月維新이라고 할 때 모든 國民이 兪합한 利益追求를 버리고 『公益속에서 私益을』 또는 『公益과 더불어 私益을』 찾는 姿勢로 이와 같은 總和的 課業遂行에 積極的으로 參與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分明히 指摘해 두어야 할 것은 私益의 追求 그 自体가 나쁘지는 않다는 點이다. 너무 兪합한 方法으로, 또는 公益에 相衝되는 方法으로 私益을 追求하는 것이 나쁘다는 點이다. 個人의 最善我實現은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다만 最善我實現을 社會와 國家發展과 調和시켜서 追求해야 된다는 점을 留意시켜야 할 것이다.

第 2 章 國家의 當面 課題

〈 章 前 文 〉

우리나라가 直面하고있는 問題들이 수없이 많고 또한 이들 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한 當面한 課題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들 수많은 문제와 과제들은 크게 들로 묶어 설명될 수 있겠다. 즉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촉진하는 두 課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큰 課業의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課題또한 술하다. 外部的 威脅을 극복하는 문제, 北韓의 도전을 극복하는 문제, 우리 體制内部的 脆弱性을 除去하는 문제, 國力培養을 위한 문제, 經濟發展의 基礎 조성 문제, 社會正義를 실현하는 문제, 國民의 總화를 이루는 문제등 그밖에 더 잘게 나누어 보면 더욱 더 많은 문제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술한 문제와 課題들을 크게 묶어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촉진하는 두 課題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의미를 주는 문제라 보아 좋을 것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도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위해 우리가 당면하는 課題의 意義와 重要性을 이해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주로 취급하게 된다. 本章이 의도하는 目標을 보다 분명히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制度的 基礎造成의 意義와 重要性을 인식케 한다.

둘째, 主體的 民族意識과 國家一體感を 基礎로 하는 國民總和의 형성이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의 精神的 바탕이되는 意義와 重要性을 인식케 한다.

셋째,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의 基礎를 조성하기 위한 現實的 課題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넷째, 国力培養과 國家安保의 意義와 重要性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國民의 努力의 必要性을 인식케 한다.

이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本章에서 취급될 教育內容과 그 組織은 다음과 같다.

I.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制度的 基盤

1. 維新體制 確立의 意義
2. 維新體制的 目標와 課題

II. 民族主体意識과 國家一體感

1. 政治思想教育의 重要性
2. 民族主体意識과 國家一體感
3. 國民總和

III. 統一基盤造成과 統一成就 努力

1. 武力挑發의 예방
2. 南北間 對話와 接觸을 통한 雙方理解의 추구
3. 民族同質性의 回復
4. 善意의 競争을 통한 우리 體制의 우월성 과시

IV. 国力培養과 國家安保

1. 南北經濟力量의 比較와 国力培養
2. 南北防衛力量의 比較와 總力安保

以上에 제시한 內容의 취급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점은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촉진하는 制度的 조치와 社会的 經濟的 諸般 條件의 改善등은 결국 國民의 精神的 態勢 確立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신적 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그 方向과 強調를 지워주는 문제들이 內容으로 취급되고 있음에 유의하여 이들 내용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I. 韓國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制度的 基盤

I-1 維新體制 確立의 意義

-1) 理念: 民族의 生存과 繁榮, 그리고 平和的 祖國統一을 기약하기 위한 民族主体性的 確立과 發展을 그 基本理念으로 한다.

-2) 意義:

- ① 民族主体意識 傳統의 歷史的 恢復
- ② 民族主体意識의 歷史的 創造
- ③ 韓國民主主義 發展의 基盤構築
- ④ 民族力量의 集決
- ⑤ 自主, 自助, 自立, 自衛, 自決의 精神的 態勢 確立
- ⑥ 周邊情勢에의 能動的 對備態勢 確立
- ⑦ 祖國의 平和的 民主統一의 自主的 成就
- ⑧ 国力培養의 加速化를 위한 国力의 組織化
- ⑨ 祖國近代化와 國家發展 促進을 위한 國民努力의 촉구

I-2 維新의 目標과 課題

-1) 基本目標

- ① 自主的인 民族活路를 개척하여 安定과 繁榮을 기약할 수 있는 国力培養을 加速化하고 国力의 組織化를 이룩한다.
- ② 民族主体勢力을 형성하여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성취한다.
- ③ 韓國民主主義를 定立하고 발전시킨다.
- ④ 國土와 資源의 綜合的 개발과 自助的 地域社會 開發로 祖國近代化와 福祉均霑社會를 이룩한다.

⑤ 社会的 모든 不條理, 非能率, 非生産性, 無秩序를 澈絶하는 社会革新을 이룩한다.

- 2) 主要課題

① 国權守護와 民族活路의 개척을 위한 總力安保와 總和体制의 確立

② 韓国民主主義의 定立과 發展을 위한 課業

㉠ 韓民族의 主体의 創造의 課題

㉡ 韓民族의 歷史的 自立을 위한 過程

㉢ 民族的 主体의 實踐理想

③ 平和統一을 위한 課業

㉠ 南北對話의 적극적 추진

㉡ 南北對話의 主導的 추진을 위한 民族主体努力的 확립과 国力培養

㉢ 周邊情勢에 의 능동적 대처

④ 繁榮과 福祉를 위한 經濟發展의 促進

㉠ 国土와 資源의 綜合的 開發

㉡ 自助的 地域社会開發: 새마을운동의 추진

㉢ 重化学工業의 육성

㉣ 輸出伸張과 國際協力 強化

㉤ 都·農間の 격차 해소

㉥ 生活環境과 生活態도의 개선

㉦ 經濟秩序와 經濟倫理의 刷新

⑤ 福祉均霑의 社会保障制 擴充

㉠ 社会間接資本의 擴充

- ⊖ 国民生活水準 향상
- ⑥ 不條理없는信義의社会秩序 確立
 - ⊙ 民族意識과 國家觀의 確立으로 國家一體感의 형성
 - ⊖ 遵法精神과 維新的 生活態度의 함양
 - ⊖ 勤勉, 自助, 協同으로 自己發展과 社会發展의 조화적 추구
- ⑦ 民族文化의 暢達과 教育의 刷新
 - ⊙ 民族思想의 定立과 民族主体思想의 確立
 - ⊖ 固有 民族文化의 계승과 外来文化의 主体的 受容
 - ⊖ 創造的 文化藝術의 창달
 - ⊖ 韓民族 文化의 優秀性 인식
 - ⊖ 義務教育의 연장과 学制 및 教育內容의 改革

II. 民族主体意識과 國家一體感

급변하는 國際情勢에 능동적이고 主体的으로 대처하고 祖国統一과 國家發展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해진 維新体制의 意義와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肅한 課題중 가장 중요한 教育的 課題는 民族主体意識과 國家一體感을 토대로 하는 國民總和의 형성이라 하겠다. 더욱이 維新体制 確立의 理念이 "民族의 生存과 繁榮, 그리고 平和統一을 기약하기 위한 民族主体性의 확립과 발전"에 있고 "維新의 重要 目標중의 하나인 韓國民主主義의 定立과 발전"을 위해서도 民族主体意識과 國家一體感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I-1 政治思想教育의 중요성

한 국가의 政治理念과 그 理念具現을 위한 統治体制,

그리고 그 운영은 爲民的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건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爲民的인 것이 國民의 支持를 얻지 못하면 그 理念과 體制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새로운 理念과 體制를 수립한 維新은 國民의 大多數의 支持를 얻어 단행된 改革이기에 國民의 總和的 改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政治體制의 제승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國民의 支持가 요청된다. 또한 國家的 課業遂行을 위해서도 國民的 總和에 의한 공동노력이 요청되기 때문에 政治思想教育은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個人의 最善我 實現을 가능하게 하는 條件의 조성이 시급한 오늘, 個人의 自意에 의한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共同의 目標로 向하는 教育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政治思想教育의 내용과 방법적인 중요성을 곁하여 항목별로 적어 보기로 한다.

-1) 國民總和의 형성을 위한 教育

- ① 民族主体意識의 確立을 통한 民族國家觀의 教育
- ② 民族力량의 集結
- ③ 国力의 組織化
- ④ 平和的 祖国統一의 추진을 위한 民族同共性的 恢復
- ⑤ 民族主体勢力 形成을 위한 精神的 低辺 구축

-2) 民主主義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強化

- ① 民主主義가 現存하는 모든 理念과 體制중 가장 最善의 것임을 理念, 理念具現을 위한 現實的 制度, 그 운영에 있어서 再確認의 必要.

② 韓國의 民族的 正統性和 韓國民主主義에 대한 信念

③ 韓國의 發展의 努力에 대한 금지

II-2 民族主体意識과 國家一體感의 育成

-1) 民族的 結合力 : 民族的 同質意識에 바탕을 둔 民族的 結合力이 어느 民族보다 일찍이 統一國家를 형성할 수 있었던 요소였음을 再確認

-2) 民族主体性에 바탕을 둔 韓國正統性의 確立

① 主体性 : 民族의 文化史的 概念

② 正統性 : 民族의 國家的 概念

따라서 國家正統性의 確立은 民族主体性確立의 先行을 要求한다. 또한 祖國統一의 성취와 韓國民主主義 발전은 民族主体性에 바탕을 둔 韓國正統性의 基礎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수백 차례에 걸친 外侵과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單一民族으로서의 主体의 文化와 正統的 國家를 형성 유지 발전시켜온 韓民族의 主体意識의 우수성에 대한 금지과 계승발전을 위한 意志의 약속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4) 國家一體感의 形成

① 民族主体意識에 基礎를 둔 民族的 國家觀 確立

② 國家榮光觀 내지 國家에 대한 自負心의 形成

II-3 国民總和

国民의 總和는 國家安定과 번영을 위한 정신적 기반이며 外勢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團結의 기반이며, 国力의 기반이며, 祖國統一의 기반이다.

- ① 民族主体意識에 의한 總和
- ② 思想的 總和 : 民主主義 理念에 바탕을 둔 思想的 總和
- ③ 共同目標 指向으로서의 總和
- ④ 統一意識에 의한 總和
- ⑤ 國家榮光觀에 의한 總和

III . 統一 基盤 造成과 統一 成就 努力

III-1 祖國統一의 基本原則

- ① 民主·勝共統一
- ② 民族主体에 의한 統一
- ③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
- ④ 韓國의 正統성과 合法性에 의한 統一

III-2 統一의 基盤造成

- ① 民族主体意識과 國家一體感 形成
- ② 韓國의 正統性 確立
- ③ 国力培養
 - ㉠ 民主力量
 - ㉡ 經濟成長의 촉진

- ㉠ 自主国防
- ㉡ 國際協力關係強化
- ④ 社會正義의 高揚

Ⅲ-3 統一成就를 위한 努力

祖國統一과 國家發展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一次的으로 制度的 조치를 準備하였다. 그러나 制度的 조치만으로 일이 끝난것은 아니며 그 制度的 효율적 運營과 國民의 단결된 努力의 계속으로 그 意義가 살게될 것이다. 統一成就를 위한 努力에도 과거에 범람했던 不條理와 非能率, 非生産的 要素를 제거하면서 国力을 加速的으로 신장할 수 있게하는 努力이 우선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安保態勢를 강화하는 한편 平和統一 外交政策의 강력한 추진등이 크게 요청된다.

또한 南北對話가 시작되던 무렵 우리가 가졌던 統一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期待를 버리고 統一問題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再認識하는 한편, 그래도 民族의 念願인 祖國統一에 의 信念을 견지하면서 이를 위한 꾸준한 努力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요청되는 몇가지 사항을 적어둔다.

- ① 統一問題에 대한 조급논, 비관논, 모방논, 지나친 낙관논의 배격
- ② 南北接觸의 多角的 努力 계속
- ③ 民族同質性의 回復
- ④ 우리의 国力優勢에 기반을 둔 南北交流를 지속하여 北韓體制의 弱화
- ⑤ 國際協力體制의 강화

Ⅳ . 国 力 培 養 과 国 家 安 保

祖国統一과 國家發展을 이룩해야 할 우리의 당면 課題를 수행함에 있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은 國家安保와 国力培養이다. 우리의 体制를 지키는 安保태세를 튼튼히 하는 한편 內的으로 国力을 강하게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先行되어야 할 과제임을 앞서도 여러번 되풀이하여 지적한바 있다.

祖国統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南北對話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統一이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期待는 현단계로 보아서는 지나친 낙관일것임을 理解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南北間의 경쟁은 새로운 次元에서 종전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對內的으로는 建設과 国力增強의 경쟁이 치열하게 계속될 것이며, 對外的으로는 國際機構에서의 경쟁등 多角的인 外交競争이 치열하게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南北間의 경쟁이 어떠한 형태가 되든 그에는 国力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北韓이 계속적인 도발을 통해 우리의 体制를 위협하고 있는한 國家安保 역시 더욱 강화하지 않을수 없다는 事實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理念을 具現하고 우리의 念願인 祖国統一을 성취하고, 國家發展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国力培養과 國家安保에 있음을 인식시키면서 더욱 구체적 事實들을 보여줌으로서 이 두 측면의 課題의 중요성을 實感케 해야 할 것이다. 이르기 위하여 南北 經濟力量을 比較하면서 国力培養의 중요성과 그 展望을 이해하게 하고 또한 南北 國防力量을 比較하면서 總力安保의 필요성을 실감케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N-1 南北經濟力量의 比較와 国力培養: 南北間의 對話를 위한
접촉은 새로운 次元의 경쟁을 의미하며,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앞
으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는 国力의 우열여하로 판가름나게 될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南北간의 經濟力量을 비교하면 現在 水準으로도 우리가 優勢하며
앞서 제시한 우리의 경제발전 展望으로 보면 우리가 점차 北韓보
다 더욱 우세하리라는 確信을 갖게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与件이 北韓보다 유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經濟体制의 우수성과
우리의 人力, 그리고 우리의 努力에 의하여 이루어진 結果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国力을 組織化하여 加速化시키는 凡國民的 努力이
계속된다면 기필코 우리의 經濟力은 北韓을 크게 능가하여 모든
측면의 對決과 競争에서 우리측에 有利한 방향으로 유도될 것이
확실시된다.

表에 제시된 몇가지 자료에 의해서도 우리의 經濟力이 北韓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크게 自信을 가질 단계로 판단하
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않다. 國民總生産(G.N.P.)이 北韓
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1971年度 부터이며 앞으로 努力만 하
면 北韓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종전까
지 우리 주변에 범람한 낭비와 非能率과 非生産的인 여러 요소를
제거하고 国力을 加速化할 수 있는 모든 制度的 조치와 함께 國
民의 總和的 努力이 경주된다면 우리의 발전은 好調될 것이 확실
시 된다.

여기에 제시된 南北韓 經濟力量 比較를 위한 자료는 1971年度

南北 国民総生産斗 国民消費水準比較
(1971年度)

区 分	韓 国	北 韓
G.N.P.	252 \$	225 \$
国民投資 / G.N.P	40.81\$	56.25\$
国防費 / G.N.P	8.97\$	52.76\$
国民消費水準	173.2 \$	116.0 \$
消費水準	173.2 \$	116.0 \$
	(100)	(66)

南北 消費品目別 比較

品 目	韓 国	北 韓	比 率
時 計	20 \$	40 \$	200%
라 디 오	15 \$	78 \$	520%
洋 服	20 \$	78 \$	390%
구 두	7.5\$	9.5\$	126%
扇 風 機	20 \$	46 \$	230%
만 년 필	1 \$	5 \$	500%

를 기준한 것이며 또한 극히 한 단면만을 볼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방면의 정확한 자료가 수집되어 여러 각도로 南北간의 經濟力量을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N-2 南北 国防力량의 比較와 國家安保

南北間의 軍備比較에 依하면 우리가 우세하다는 自信을 얻을수 없다. 北韓은 오래전부터 武力에 의한 兩侵을 계획해 왔으며 모든 經濟力과 人力을 武裝화에 경주해 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表에서도 볼 수 있듯이 兵員數는 우리가 우세하다 하더라도 海軍과 空軍등의 장비에 있어서는 北韓이 우리를 크게 능가하고 있

南北 軍備의 比較

	陸 軍		海 軍		空 軍	正規兵대 軍事適令 者比 %
	師 團	兵員數	艦艇隻數	艦艇屯數 (才屯)	航空機數 (作戰機)	
韓 国	19 個師團 2 個旅團	570,000	80	7	200	9.6
北 韓	22 個師團 5 個旅團	370,000	120	1.4	580	14.0

南北 國防費의 比較

	總國防費 (1970年度) 億圓	國民1人當國防費 (1969年度) 圓	國防費의 國民總生産 에 대한 比率 (1969年度) %
韓 国	1,199	3,600	4.0 %
北 韓	2,686	19,080	24.9 %

다. 對話를 통해서 北韓이 무력도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형성을 강화하려 하지만, 그들은 구두로서는 약속을 하고서도 계속 간첩과 계리라전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事實로 보아 우리는 그들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역시 近代的 軍장비를 強化하는 한편, 精神的으로 北韓의 武力優勢를 꺾을 수 있도록 磨鍊시켜야 할 것이 크게 요청된다. 이르기 위하여 政府는 다음과 같은 總力安保體制를 確立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 ① 과거의 集團安保體制에서 發生되었던 外勢依存的 國防意識을 止揚하고, 國民의 自主的 國防意識을 高揚한다.
- ② 軍裝備의 現代化를 추진한다.
- ③ 軍의 精銳化를 위한 精神적, 육체적 훈련을 強化한다.
- ④ 自主國防態勢의 確立을 위하여 戰略的 重化學工業을 육성하고 防衛産業 技術을 육성한다.
- ⑤ 總力安保態勢를 確立하기 위하여 國家總動員體制를 確立하고 그 機動化를 강화한다.

第 3 章 國 民 的 使 命

(章 前 文)

本章은 本部의 結論的 性格을 갖는 동시에 本 教授指針書의 結論的 性格을 아울러 갖는다. 따라서 本 교수지침서의 目標와 內容概要와 強調點들을 간략히 정리 소개하여 國民의 使命意識을 고취할 수도 있을것이다. 실상 本 교수지침서의 各部와 章의 內容에서 國民으로서 수행해야할 課題와 使命을 고취하는 문제들이 취급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本章이 의도하려는 目標가 달성되는 內容으로 정리될 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本장에서 本 교수지침서의 全영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요지 그대로를 다시 정리하는 중복을 피하고 강조되어야 할 요지를 중심으로 再整理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內容要素를 조직하게 된다.

結論的 性格을 띤 本장이 의도하는 目標는 우리가 指向하는 發展的 未來像을 제시하여 그 未來像에 대한 理想을 갖게하고 그 理想實現을 위한 國家的 努力에 보람과 긍지를 가져 民族中興의 새 文化歷史 創造者로서의 使命感을 고취하려는 것이다. 이를 좀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이 지향하는 發展的 未來像을 理解한다.

둘째, 統一問題 解決에 있어 韓國의 主導的 役割을 인식케하여 統一過程에 要求되는 努力의 重要性을 이해한다.

셋째, 統一後의 榮光된 未來國家像에 대한 理想을 갖게하고 그 理想實現을 위한 國家的 事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확립케한다.

네째,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努力과 國家發展을 위한 努力과

의 관계를 인식케하여 스스로의 努力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다섯째, 民族中興의 새 歷史創造者로서의 使命感을 고취한다.
이러한 目標달성을 위해 취급되는 內容과 그 組織은 다음과 같
이 설정한다.

I. 韓國의 發展的 未來像

1. 韓國民主主義의 發展
2. 平和的 民主統一의 基盤 確立
3. 經濟的 安定과 繁榮
4. 福祉社會의 實現

II. 統一後의 榮光된 國家未來像

1. 文化民族
2. 平和國家
3. 福祉社會
4. 韓國의 國際的 地位

III.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

1. 民族文化史의 創造的 役割
2. 國家的 事業에의 總和的 參與
3.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助的 努力

I. 韓國의 發展的 未來像

새로운 體制의 수립과 그 효율적 운영, 그리고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國家的 課業에 全國民의 努力이 경주된다면 韓國의 發展的
未來像은 분명히 榮光스럽고 밝고 希望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밝은 未來像은 물론 그저 한 폭의 그림이나 꿈과 같은

理想만의 것이 아니고 實現 可能한 것이어야 한다. 理想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指導者와 온 國民의 總和的 意志와 불굴의 努力이 要할 것이다. 이러한 意志와 努力을 전제로한 實現 可能한 發展的 未來像을 제시해 본다.

I-1 韓國民主主義의 定立과 發展

① 大統領中心의 指導體制 確立은 國政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할 수 있게될 것이며 爲民的 責任政治가 具現될 것이다.

② 大統領과 國會議員등 代表의 任期를 6年으로 延長함으로써 代表選出을 위한 정치적 혼란과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③ 行政府의 爲民的 責任政治, 議會政治의 효율적 운영, 司法의 權威 향상등 三權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民主韓國의 건설터전이 구축되어질 것이다.

④ 政治的 制度의 改革과 改善된 制度의 효율적 운영으로 爲政者들의 政治行態가 刷新되고 國民들의 政治意識이 고양되어 政治的 安定과 발달이 촉진될 것이다.

⑤ 超黨의으로 구성된 國民을 代表하는 統一主體 國民會議를 統治機構의 頂點으로 하고있어 國力의 組織化와 國論統一등 總和體制가 쉽게 이루어질것이다.

I-2 平和的 民主統一의 基盤 確立

① 南北對話와 多方面的 接觸으로 文物이 교환되어 相互不信과 武力挑發의 위험성을 지양하고 信賴와 協力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② 內的으로 民族的, 民主的 그리고 自主的인 精神態勢에 기반을 둔 國力培養과 外的으로, 平和統一 外交政策의 강력한 추진에 의한

韓國의 國際社會속의 地位向上으로 民主統一의 기반이 國內外的으로 확고해질 것이다.

I-3 經濟的 安定과 繁榮

① 1,2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의 결과로 工業立國과 自立經濟의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3,4次 5個年 經濟計劃이 완수되는 80年代에도 自立段階를 넘어 自榮의 단계, 풍요의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② 中進上位國에 들어설 國民總生産

國民總生産과 一人當 所得

區分 \ 年度	61	66	71	76	81
國民總生産 (100萬弗)	2,400	3,800	8,029	16,163	33,221
成長率	4.2	13.4	9.8	10.0	10.0
一人當所得 (弗)	94.9	130.8	252.0	500.0	1,000.0

③ 高度化되는 産業構造

産業構造의 發展展望

(單位: %)

産業區分 \ 年度	61	66	71	76	81	비고
農林水産業	43.8	37.9	26.3	20.8	16.5	(成長率) 72-76:4.8% 77-81:5.0%
鉦工業	14.9	19.9	23.8	29.8	38.8	72-76:14.8% 77-81:15.0%
社會間接資本 및기타서비스業	41.3	42.2	49.9	49.4	44.7	72-76:9.6% 77-81:7.8%

④ 輸出と 経済自立

㊦ 輸出構造

区 分 \ 年 度	61	66	71	76	81
1次産品 (%)	78.0	37.6	14.0	9.4	5.0
工産品 (%)	22.0	62.4	86.0	90.6	95.0
對 象 国 数	25	74	108	125	140
品 目 数	100	445	983	1,120	1,200

㊧ 総輸出

(単位：百萬弗)

区 分 \ 年 度	61	66	71	76	81
総 輸 出	146	455	1,616	4,069	11,000
貿 易	43	256	1,132	3,510	10,000
貿 易 外	105	205	484	559	1,000

⑤ 経済安定と 基盤確立

㊨ 物価安定

物価上昇率展望 (全国都庁物価)

(単位：%)

年 度	61	66	71	76	81
物価上昇率	13.3	10.0	8.6	3.0	3.0

㉠ 換率安定

外貨保有高展望

(單位：百萬弗)

年 度	61	66	71	76	81
外貨保有	205	138	535	974	2,379

I-4 福祉社会의 實現

-1) 教 育

① 義務教育年限의 延長

国民学校 6年에서 中学 3 学年까지 義務教育年限이 延長될 것이다.

② 教育機會의 확대

③ 教育의 平準化：量的, 質的 兩面

④ 産学協同体制 擴張

地域社会의 特性에 맞는 專門教育의 실현

⑤ 就學率의 上昇

(單位：%)

區 分 \ 年 度	61	66	71	76	81
總 就 學 率	55.1	60.2	63.9	64.8	66.3
国民学校就學率	98.2	100.2	106.6	104.8	99.7
中 学 校 就 學 率	37.5	41.8	55.5	75.2	83.4
高等学校就學率	19.7	24.6	30.9	41.5	51.2
大 学 校 就 學 率	7.6	8.1	7.6	9.0	12.2

-2) 文化

- ① 傳統文化의 계승
- ② 民族文化의 創造
- ③ 文化的 生活環境
- ④ 文化水準 平準化

-3) 社会

- ① 就業人口增加와 失業率低下

失業率 展望

年 度	66	71	81
失業率	7.4%	4.5%	3.0%

- ② 밝은 社会

法秩序와 社会倫理意識에 대한 安定되고 明朗한 社会秩序의 確立.

- ③ 誠實한 社会

不正腐敗와 不條理가 없는 모두가 일하고 건설하는 誠實한 社会 建設.

- ④ 勤勞者의 社会保障制 確立

- ⑤ 文化施設을 갖춘 住宅 建設

- ⑥ 自由의 極大化와 國民倫理의 自律化

- ⑦ 社会正義의 實現

Ⅱ . 統一後의 榮光된 國家未來像

우리는 韓國의 發展的 未來像을 여러 각도에서 展望해 보았다. 이러한 未來像은 꿈과같은 理想이 아닌, 努力如何로 實現可能的 未來像이며 그리고 想定된 期間도 원대한 長期間이 아닌, 80年代를 基準으로한 눈앞에 둔 未來像이었음에 반하여 여기에서는 좀더 長期間을 展望하는 未來像이다. 어느 特定의 기간을 限定함이 없이, 그러나 統一後라는 기간을 豫상하여 우리나라에 있게될 榮光된 未來像을 그려보면서 희망과 긍지, 그리고 그를 向한 努力의 價值를 인식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未來像에 투시되는 理想없이 現在의 努力을 값지게 여겨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없다.

Ⅱ-1 文化民族

우리나라가 처한 地政學的 條件때문에 수 많은 外勢의 侵略으로 온갖 고난과, 國權을 잃을 위기마저 당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4천여년동안 한번도 斷絶됨이 없이 이어 오게된 韓民族은 또다시 他律에 의한 祖國分斷의 고난을 당하고는 있으나 그 民族性을 회복하리라는 自信을 가지고 統一에의 努力을 계속하고 있다. 過去의 우리 民族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民族的 主体意識으로 祖國의 分斷問題를 기필코 해결할 것이다. 비단 統一에의 길이 험난하고 온갖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民族的 主体意識이 존속되는 한 어떠한 他律的 壓力과 구속이 계속되더라도 祖國統一은 可能할 것이고 또 可能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民族의 至上課業으로 이의 성취를 위한 모든 努力을 계속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分斷된 고통과 統一을 위한 피땀나는 努力은 統一後의 榮光스러운 文化民族으로서의 勇態를 그리며 참고 계속하는 것이다.

統一後에 우리民族이 갖길 榮光과 보람은 三國統一後의 것이나 日帝로 부터 解放되던 감격에 비할것이 아닐것이다.

또한 統一後 우리 民族이 創造하게 될 文化는 찬란할 것이며 世界에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 民族의 슬기는 過去에도 戰爭이 없이 平和로운 時期에 크게 발휘되어 世界史에 빛나는 큰 업적들을 남긴바 있다. 우리도 統一된 條件과 平和가 지속되면 祖上의 創業 以上の 것들을 우리는 創造할 수 있는 能力과 自信을 가진 民族임을 자부하게 된다. 이를 立証하는 事例들이 이같은 現實的 惡條件에도 불구하고 世界에 과시되고 있다.

II-2 平和國家

수 많은 外侵을 받아 왔음에도 우民族은 본질적으로 平和愛護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統一이 이루어지면 過去의 教訓으로 다시는 内部의 분쟁은 물론 外國의 어떠한 侵略的 야욕에도 불복하는 태세들이 갖추어질 것이며 民族의 본질적 특성인 平和的 性格을 기반으로 온갖 文化와 밝고, 성실한 國家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統一後면 文化民族으로서의 긍지는 물론 文化的 創業에 힘을 기우리며 平和守護를 위한 온갖 努力이 경주될 것이며 온갖 文化가 꽃피고 平和로운 생활이 계속될 榮光스러운 國家像이 그려지게 된다.

II-3 福祉社會

統一이 되면 그동안 分斷되고 北韓의 계속적 武裝挑發

에 의한 파괴와 고난을 가진 惡條件에도 세운 經濟建設의 기반위에 더한 풍요의 사회는 건설될 것이며 갖가지 종류의 社會保障制度和 福祉증진 事業들이 확장될 것이며 國民生活의 향상은 물론 生活環境들이 개선되어 社會正義의 실현은 낙관시될 것이다. 이러한 福祉社會의 實現을 위한 基盤은 現在의 여러 惡條件에도 불구하고 구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低力은 統一後면 더욱 발휘되어 어느 다른 先進國의 福祉體制보다 더욱 훌륭한 理想的 福祉體制를 갖출 우리 固有의 特性들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兒童 및 靑少年 福祉와 年老者의 福祉를 위한 制度的 形態가 어떠한 것이던 年少者의 成人에 依存하는 것을 美德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傳統的 意識이나 敬老思想같은 것이 뒷받침되고 있는 한 制度的 운영은 効果적일 可能性이 많다.

II-4 韓國의 國濟的 地位

지금도 우리는 國力伸張과 國內安定 基반으로 國際社會에 진출할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지만 統一後의 世界속의 韓國의 地位는 더욱 신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過去에 한동안 그러했던 바와같이 國力이 微弱하게되면 國際情勢가 어떻게 소용돌이 치든 또한 南北關係가 어떠한 危機를 몰고오든 다만 안타깝게 強大國간의 大勢의 推移에 被動的으로 휩쓸릴뿐 우리의 自主的이고 主体的으로 世界大勢의 推移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구축한 世界속의 韓國의 地位를 統一후면 더욱 높혀 國威를 높이 선양하게 될 것은 물론 世界平和와 共榮에 우리의 능동적인 힘으로 自律的인 공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 韓國 國民이 世界 어느곳을 가나 文化民族으로서 當당한 國籍있는 國民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威品있는 行動을 할 수 있게될 것이다.

Ⅲ . 民族 中興의 歷史的 使命

우리가 志向하는 새 歷史創造의 方向은 民主理念을 우리 固有의 傳統的 民族主体意識과 價值樣式, 그리고 現實의 기반위에 具現하고 祖國統一을 실현하며, 國家發展을 촉진하여 나아가 人類共榮의 世界를 建設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는것이다. 이르기 위해서 요청되는 當面한 課題들을 앞서 밝힌바 있고, 또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發展的이고 創造的 未來像과 榮光된 國家像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理想과 未來像이 하나의 꿈이 아니고 우리의 現實앞에 實現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불굴의 信念과 自信, 그리고 계속적인 努力 如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理想의 實現可能性은 한 특정의 個人이나 소수인의 集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역의 지도자는 물론 全國民的 努力에 의하여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民族的 大課業을 完遂하고 후손에 물려줄 榮光된 祖國을 建設할 歷史的 使命을 지고 있는 것이다. 現實의 잘못된 점을 우리는 흔히 祖上의 잘못으로 돌리는 습성을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습성을 버리고 도리어 祖上의 빛난 얼과 韓民族을 지켜온 그들의 투지력을 오늘에 되살려 길이 후손에 물려줄 榮光된 祖國 앞날을 내다보며 當面한 課業遂行에 매진할 歷史的 使命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다음과 같은 使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II-1 民族文化史의 創造的 役割

国力을 신장하여 安定과 繁榮을 이룩하고 國權을 守護하며 民族의 念願인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달성하여 榮光된 祖國을 건설하는 民族의 活路를 개척하는 救國的 使命을 지금 우리는 지고있다.

수 많은 난관과 고난을 이겨 지켜온 우리의 民族國家를 조금도 손상시킴이 없이 더욱 발전시켜야 할 歷史的 使命意識으로 現實의 당면과제를 수행할 것이 요청된다. 이것이 民族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祖上들의 열에 보답하는 길이고, 愛國하는 길이며, 후손에 물려줄 民族意識이다.

우리는 四千年의 유구한 民族史 위에 堅持되어온 우리 大韓民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이를 더욱 신장 발전시키려는 使命感을 더 높이 가져야한다.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사로잡혀 우리의 傳統的인 社會秩序를 파괴하고 階級鬭爭을 내세워 唯一思想體制를 住民에게 강요하는 北韓과는 달리 우리는 協同·總和로서 相扶相助하고 個人의 自由와 人權을 존중하며 나라와 民族을 위하여 融和하는 배달民族의 正氣와 正統性을 이어받은 民族史의 主体임을 깨닫고 이를 더욱 빛내야 할 막중한 과제들이 우리에게 지워지고 있음을 자각하여 民族文化를 더욱 빛내는 創造的 使命意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創造的 役割에 앞서 다음과 같은 意識이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IV-1 歷史的 使命意識

① 主体的 民族史觀의 確立

② 近代的 民族 國家觀의 確立

西歐社會의 市民意識은 오랜 思想的 發展의 터전위에 育성된 기본정신이다. "民主主義의 成長過程"에서도 논급되어 있듯이 自然法思想, 社會契約說, 宗教改革, 文芸부흥등 일련의 근대적인 哲學이 市民意識을 育성할 수 있었던 精神的 바탕이 되어있었다.

우리는 近代的 市民意識을 확대하기 위해서 民族意識이라는 준거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의 傳統意識의 기본이 되는 民族意識을 기반으로 하여 市民意識의 방향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傳統意識을 저버리고 西歐의인 市民意識을 함양하려한 과거의 잘못을 우리는 알고있다. 따라서 시급한 것이 主体的 民族史觀의 確立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市民意識의 함양으로 近代的 國家觀을 確立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主体的 民族史觀과 民族國家觀의 확립위에 歷史的 使命意識이 育성될 수 있을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民族史의 創造的 使命意識도 길러질 수 있을것이다.

N-2 國家的 事業에의 總和的 參與

安定과 繁榮과 統一을 志向하는 課題는 수 없이 많다. 이러한 수 없이 많은 課業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自主, 自助, 自立, 自衛, 自決의 精神이며 이러한 정신의 結晶으로 民族主体性이 형성된다. 우리는 勤勉하는 努力, 自助하는 精神, 그리고 協同하는 行動을 발휘하여 우리民族의 主体的 힘과 主体的 정신을 確立하여 國民의 總和로서 國家的 事業에 參與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國家的 事業이라 하여 共產獨裁國家에서 처럼 參與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國民 各者의 自律的 判斷에 의한 參與가 권장

되며 따라서 自主, 自助, 自立, 自決 등의 精神的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다. 새 마을 運動도 바로 이러한 정신 자세를 강조하는 운동이다. 개인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한 努力이 권장되며, 이러한 努力이 뭉쳐 協同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信念으로 勤勉, 自助, 協同의 중요성을 새 마을 運動의 精神的 자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 추진 중인 모든 國家的 事業은 國民 모두의 發展과 繁榮 그리고 福祉增進을 위함이다. 그러나 소수인의 努力만으로 쉽게 완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國民 모두의 團結된 總和的 參與에 의해서만 그 成果를 極大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 部分的인 事業이 아니라 全般的인 革新이 요구되는 事業이며 따라서 國民 全體의 總和的 參與가 요청되는 事業이다.

IV-3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助的 努力

모든 活動의 主体가 되는 基本的인 單位는 個人에 있다. 더욱이 民主主義의 基本價值가 個人의 尊嚴性和 個人의 最善我實現에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國民된 個個人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能力과 努力을 民主主義는 믿는다. 만일 이러한 信念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民主主義의 값은 상실된다. 그 말은 個人이 자기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努力을 게을리 하거나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태도나 행동을 한다고 하면 民主主義의 값은 상실되며 民主主義 理念이 具現될 기반은 무너지게 된다. 各者 個人이 스스로가 主体가 되어 자기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努力이 강하게 발휘되는 곳에 民主主義 理念의 具現은 가능할 것이며 그것이 低力이 되어 國家全體의 發展과 繁榮이 가능해질 것으로

-- 믿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的 發展如何의 責任은 一次的으로 個人에 있고,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努力을 최대한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條件의 改善은 政府指導者에게도 있다. 오늘날 國民의 總和的 努力이 요청되는 것은 이러한 모두를 위한 條件의 改善에 있고 이러한 總和的 努力에 의한 條件의 改善은 결국 個人的 最善我實現을 가능케 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個人的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的 努力은 國家 全體的 發展을 촉진하는 기본적 단위이며 동시에 總和的 努力에 의한 國家發展은 個人的 最善我實現을 더욱 가능케 하는 기본적 條件이 되는것이다.

